「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최종보고서

2017. 9.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PLUS IN C&C ㈜플러스인씨앤씨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귀하

본 보고서를 「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9. 22

플러스인씨앤씨 대표 이용기

연 구 총 괄 : 박성훈(파트너 컨설턴트)
연구책임자 : 박성훈(파트너 컨설턴트)
이용기(파트너 컨설턴트)
조수지(컨설턴트)
정성윤(컨설턴트)

목 차

I. 평가개요 ····· 1

1. 기금사업 평가개요 ····· 1
2. 기금사업 평가방법 ····· 5
3. 기금사업 평가절차 ····· 8
4. 기금사업 추진체계 ····· 10

II. 평가결과 요약 ····· 12

1. 최종점수 및 등급 ····· 13
2. 평가 결과 ····· 21
3. 주요이슈 분석 ····· 38

III. 개선과제 ····· 72

1. 1분과[예술창작 역량강화] ····· 117
2. 2분과[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 331
3. 3분과[지역문화예술진흥] ····· 399

IV. 단위사업 및 세부·기초사업 평가결과 ····· 92

1. 1분과[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 117
2. 2분과[문화예술공간운영] ····· 331
3. 3분과[생활속의예술활성화] ····· 399

Ⅰ 평가개요

1. 기금사업 평가개요
2. 기금사업 평가방법
3. 기금사업 평가절차
4. 기금사업 추진체계

1. 기금사업 평가개요

□ 배 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술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예술을 위한 지원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운영하는 공공기금으로써 문화예술지원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 수익금 중의 일부를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의한 평가, 위원회의 자체평가제도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내부평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한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위주로 진행되어 위원회의 지원프로그램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외부의 평가는 주로 기관운영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 성과의 평가

○ 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출범함에 따라 자율성 신장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를 ’06년부터 실시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 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사업 평가의의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에 대응한 책임성 강화 및 기금지원의 효과성 제고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기금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의 성과와 재원의 적정 배분 체계 마련

□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 평가대상 : 2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

[표 Ⅰ-1] 기금사업평가 대상 단위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 비중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관리부서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문학창작육성	3.0%	3,080	문학지원부
		시각예술창작육성	3.1%	3,200	시각예술부
		공연예술창작육성	20.6%	21,110	공연지원부
	예술인력육성	예술인력재교육	12.3%	12,593	창의예술 인력센터
	국제예술 교류지원	예술가국제역량강화	1.1%	1,100	국제교류부
		한국예술세계화	4.6%	4,700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문화예술 사회적인식 제고	예술정책실행력제고	1.2%	1,200	기획조정부
		문화예술기부활성화	24.8%	25,410	문화예술 후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4.2%	4,255	국제교류부
지역문화 예술진흥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11.7%	11,943	공연지원부
		공연예술작품전략적해외진출지원	2.0%	2,000	국제교류부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1.5%	1,500	국제교류부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관광자원화	1.6%	1,628	공연지원부
		전통고궁공연관광상품화	1.4%	1,400	공연지원부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3.7%	3,800	공연지원부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3.3%	3,382	공연지원부
3개	5개	16개	100.0%	102,301	

○ 평가체계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외부평가지표 연계·활용을 통한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평 가 내 용
2개 단위사업 및 1개 세부사업, 9개 세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집행-성과의 연계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활용

□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대상인 단위사업 및 기초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이며, 기타 사업 실적 작성을 위한 항목

[표 Ⅰ-2] 2016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방법
1.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3	비계량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비계량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4	비계량
2.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비계량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	비계량
3.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계량 비계량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비계량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비계량
4. 목표달성도 (3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계량 비계량
5. 정책효과성 (20)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20	비계량
전체합계		100	

2. 기금사업 평가방법

□ 비계량 지표 평가방법[1)]

○ 9등급 평가

- 비계량지표는 C등급(보통)을 기준으로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점수를 부여하여 [표 Ⅰ- 4]와 같이 9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별 평점은 [표 Ⅰ- 3] 과 같이 설정한다.

[표 Ⅰ-3] 비계량지표 등급별 평점

① 가중치가 배분된 각 평가항목별로 A+, A0, B+, B0, C0, D+, D0, E+, E0의 9등급으로 평가 ② 각 등급에 A+ 100%, A0 87.5%, B+ 75.0%, B0 62.5%, C0 50.0%, D+ 37.5%, D0 25.0%, E+ 12.5%, E0 0%의 평점을 부여 ③ 해당 가중치에 곱해 득점을 계산함

○ 득점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셋째 자리 반올림)

○ 비계량지표의 평가는 해당 지표의 평가대상년도 실적과 아울러 전년대비 개선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실시함

○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지표의 경우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하여 목표달성 여부는 계량지표로 평가하고 비계량지표의 평가는 해당 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실시함

1) 자료원 : 2017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편람(행자부, 2016),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재부, 2015) 준용

[표 Ⅰ-4] 비계량 평가지표의 평가등급

등 급	평 가 기 준	평점
A+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② 특별한 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의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③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직원들의 노력 정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100점 ~ 90점
A0	① A+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A+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점미만 ~ 80점
B+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하는 경우 ② 자체적으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상당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③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80점미만 ~ 70점
B0	① B+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B+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70점미만 ~ 60점
C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②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60점미만 ~ 50점
D+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② 실적 미흡, 예산낭비요소 등이 발견되며 미흡사항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③ 직원들의 노력 정도가 미흡하여 과거 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50점미만 ~ 40점
D0	① D+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D+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40점미만 ~ 30점
E+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결여된 경우 ② 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30점미만 ~ 20점
E0	① E+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점미만 ~ 10점

□ 평가결과 등급화

○ (최종점수) 단위사업의 성과는 해당 세부사업별 성과의 합으로 창출되므로 평가점수는 해당 세부사업별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산정

※ · 산식 : 단위사업 평가지표별 점수 = (∑해당지표의 세부사업별 점수)/세부사업 수

· 기금사업평가 최종점수 = (∑세부 · 기초사업(10개)점수)/10

·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가중치 적용시 조정점수 부여

◯ (등급화) 단위사업·세부사업별 평가점수 결과를 토대로 절대등급화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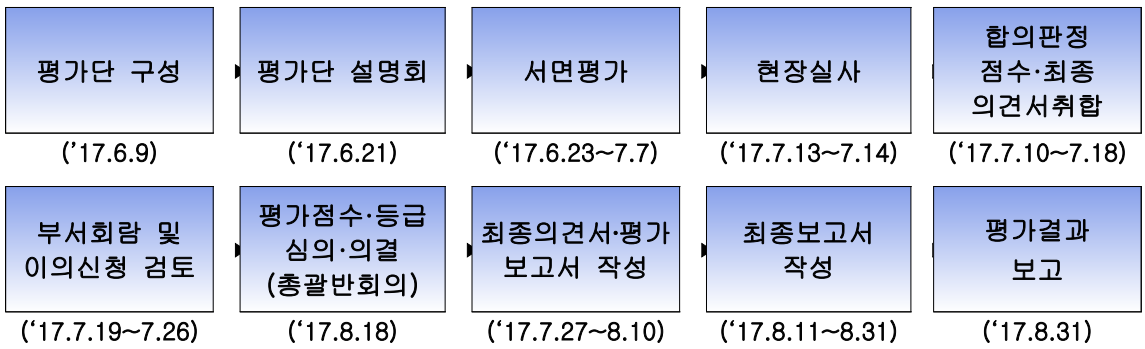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급별 점수	90점 이상	80～90점 미만	60～80점 미만	50～60점 미만	50점 미만

※기재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상의 등급화 기준 적용

3. 기금사업 평가절차

□ 평가절차

【 평가 추진절차 및 일정 】



① 평가단 구성

- 평가단 전문성 제고
- 전문적이고 입체적인 평가와 함께 실천력이 담보된 환류를 위해 문화예술 각 장르·경영·행정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통한 평가·피드백을 위해 사업별 복수평가를 실시하고 소위원장 체제 운영으로 평가의 책임성을 제고

※ 산출물 : ' 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평가단 구성표

③ 평가단 설명회

-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평가기준·평가방법 공유

※ 산출물 : ' 16년도 평가단 구성에 대한 총괄반 의결서, 설명회 자료집

④ 서면평가

- 평가부문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항목에 1차 점수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시 확인·점검 사항을 기술

※ 산출물 : 평가위원별 평가의견서

⑤ 현장평가

- 문예위 사업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서면평가 결과확인·점검 및 2차 점수를 부여

⑥ 합의판정·최종의견서 취합

- 서면평가·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원장 주도의 합의판정**을 실시하고 평가위원별 최종의견서를 작성

※ 산출물 : 합의판정 의결서, 분과별 합의판정 집계표, 평가위원별 최종의견서

⑦ 평가점수 등급 심의 의결

- 총괄반에서 분과별 합의판정점수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세부사업별 최종 평가점수 등급 심의 의결하여 확정

※ 산출물 : '16년도 총괄반운영위원회 확정 의결서

⑧ 평가결과 종합

- **(평가등급 산정)** 단위사업별 최종 점수 집계 및 평가등급 산정

※평가등급: 세부사업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보고서 작성)** 기금운영 사업평가 총괄 보고서, 단위사업별 평가보고서, 세부사업별 평가보고서, 세세부사업별 평가보고서

⑨ 최종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별 평가보고서 취합·평가의견 보완, 세부·기초사업별 개선과제 우선순위 의견수렴 등 최종보고서 작성

⑩ 평가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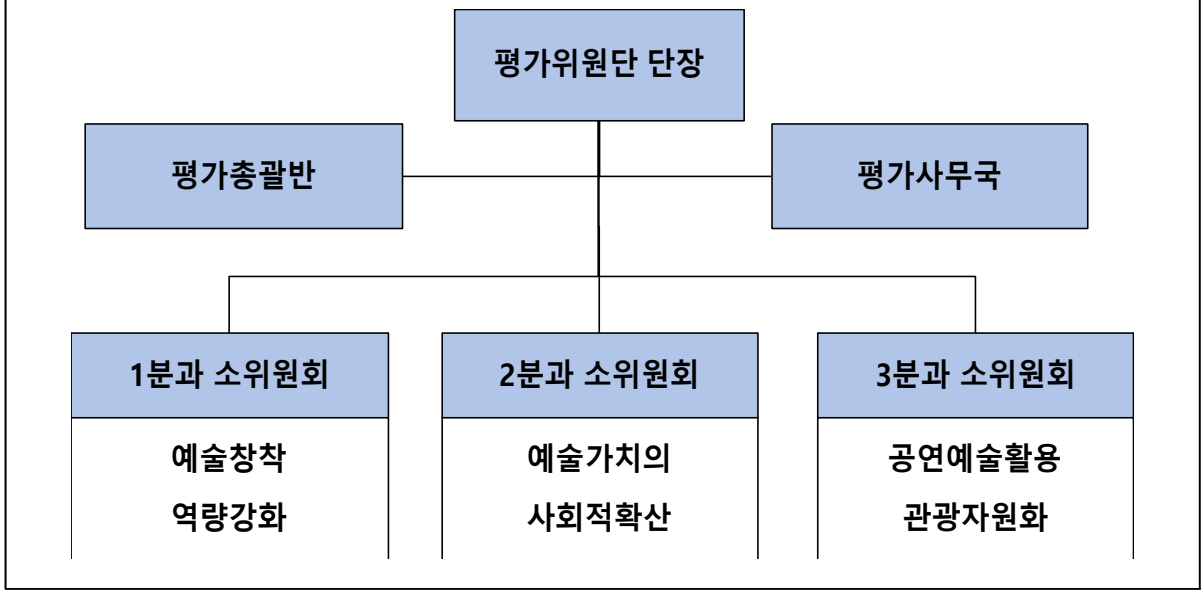
- '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및 보고

4. 기금사업 추진체계

□ 평가단 구성방식 및 주요 역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예술기금사업 심층평가를 총괄하고, 예술창작역량 강화,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등 3개 소위원회 운영

【평가위원단 세부구성 체계】



○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구성

○ 세부 추진체계는 3개의 소위원회별로 **심의조정(위원장), 세부점검(평가위원), 실무지원(간사)** 등의 역할을 정립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

- **심의조정**은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결과(안)를 심의·조정하는 역할
- **세부점검**은 실적보고서 확인・점검, 근거자료 확인 및 1・2차 점수 부여, 세부사업 점검
- **실무지원**은 사무국 소속으로 평가권이 없으며, 소위원회별 진행상황 총괄 및 현장실사 지원

※・소위원회별 주요 산출물 :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최종 점수 및 보고서
・기금사업평가 총괄보고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1차 작성책임을 가지며, 필요시 소위원회 내 타 평가위원에게 위임 가능

□ 평가단 구성현황

분 과	평 가 위 원			
평가단	평가단장		임학순	카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1분과 예술창작역량 강화	총괄반	소위원장	임학순	카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소위원		권준원	동아방송예술대학 연예산업경영과 교수
			박휘섭	웰포인터컨설팅(주) 대표
2분과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총괄반	소위원장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소위원		김종현	한양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3분과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총괄반	소위원장	송희영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소위원		김영우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당연직			임주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과평가부 부장
			이용기	㈜플러스인씨앤씨 대표

II 평가결과 요약

1. 최종점수 및 등급
2. 평가결과
3. 주요이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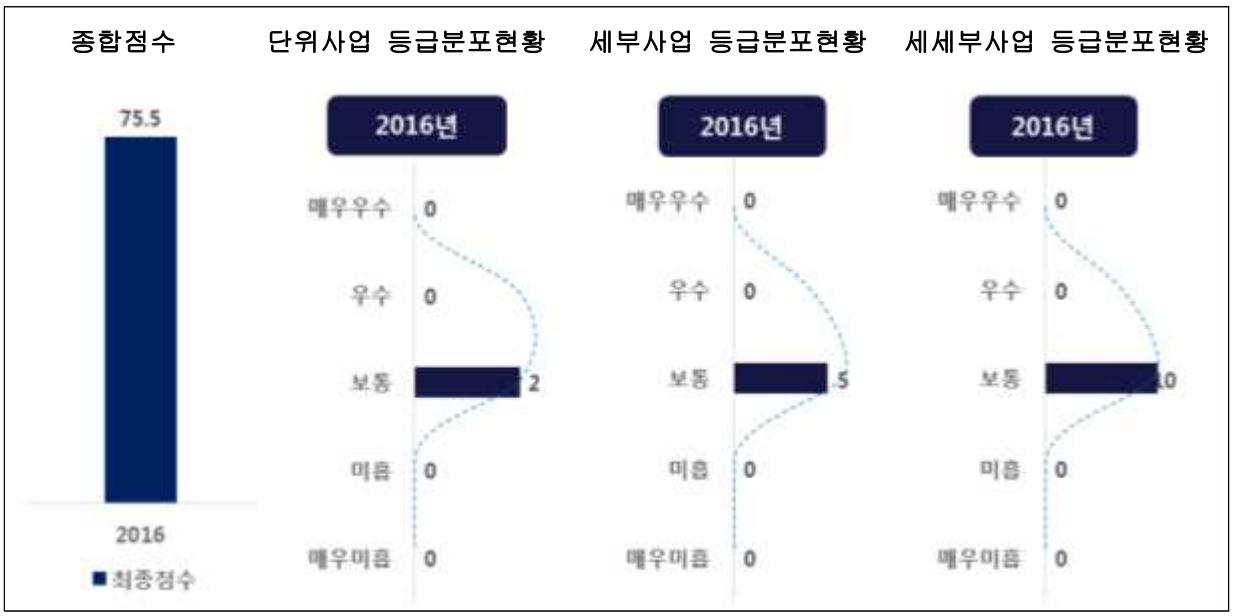
1. 최종점수 및 등급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평가등급 결과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매뉴얼」상의 등급화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점수 결과를 절대등급화 한 결과, 2016년도 평가대상사업의 전체 평균은 75.5점이며, 평가등급은 ‘보통’으로 나타남

○ 2016년도 단위사업 등급분포 ‘보통’등급 2개, 세부사업 등급분포 ‘보통’등급 5개, 세세부사업 등급분포 ‘보통’ 등급 10개로 전체 사업이 ‘보통’등급인 것으로 나타남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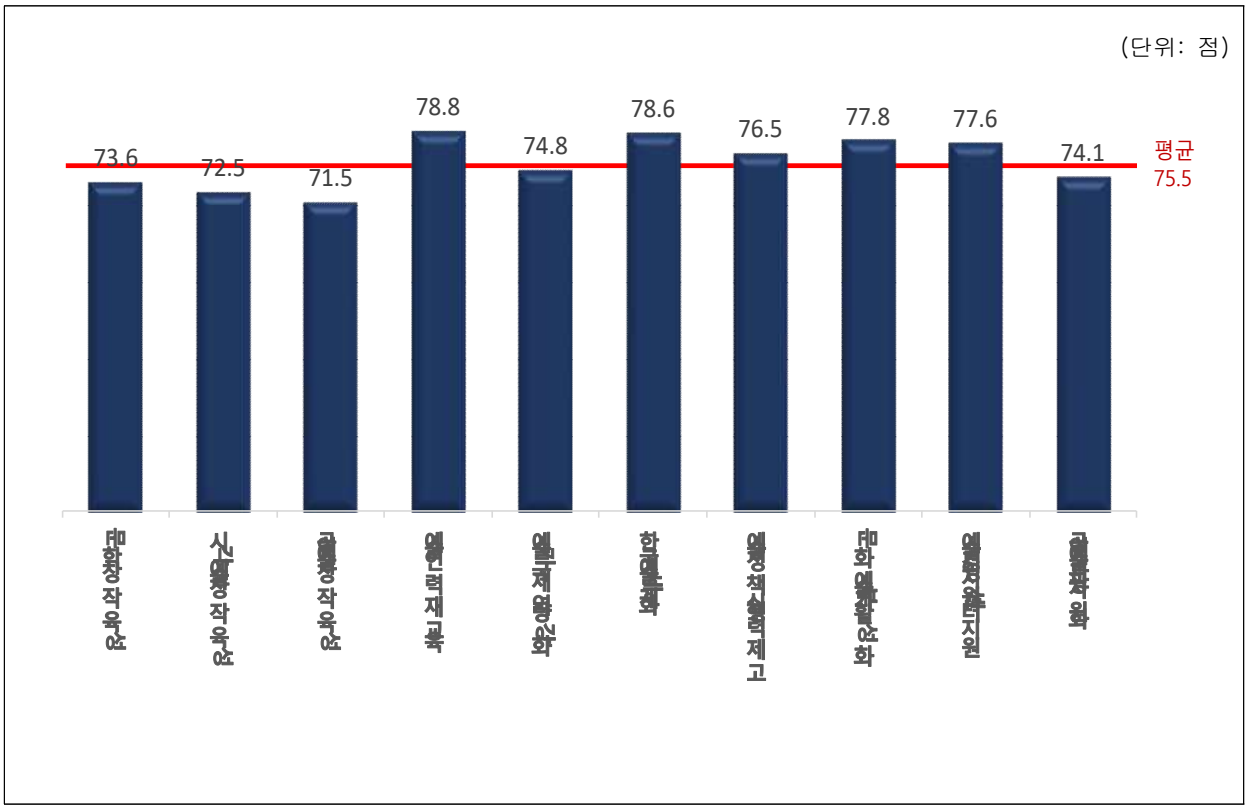


[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최종점수 및 등급]

분과	평가대상사업명	평가점수	등급
1분과	예술창작역량강화	75.0	보통
2분과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77.3	보통
3분과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74.1	보통

분과 및 단위사업	세부·세세부사업	취득점수	평가등급
[1분과]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72.5	보통
	문학창작육성	73.6	보통
	시각예술창작육성	72.5	보통
	공연예술창작육성	71.5	보통
	예술인력재교육	78.8	보통
	국제예술교류지원	76.7	보통
	예술가국제역량강화	74.8	보통
	한국예술세계화	78.6	보통
[2분과]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예술정책실행력제고	76.5	보통
	문화예술기부활성화	77.8	보통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77.6	보통
[3분과] 지역문화예술진흥	공연예술관광자원화	74.1	보통
최종 평가점수		**75.5**	**보통**

[세세부사업별 환산점수]



○ 10개 세세부사업 평가결과 전체 사업이 ‘보통’으로 평가됨

○ 세세부사업별 환산점수 결과는 ‘예술인력재교육’ 사업이 78.8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공연예술창작육성’ 사업이 71.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평균점수(75.5점)보다 낮게 평가된 사업은 문학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 예술가국제역량강화, 공연예술관광자원화로 나타남

□ 주요 결과 요약

1) 평점 75.5로 보통 등급을 받음

○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평점이 모두 보통 등급의 점수를 받아, 전체적으로 75.5점을 받음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의 첫해로써, 전년도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목표 대비 달성도가 낮았던 점, 실적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미흡으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2) 사업별 성과지표 추가개발 및 특성화 지표 강화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평가지표는 대부분 수혜자 및 참여자 만족도, 평균 창작 작품 수 및 평균 관객 수 등 계량적 지표를 성과지표로 채택하고 사업에 따라서는 이러한 평가지표로도 결과를 판단할 수 있으나, 부족한 측면이 존재함. 매해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적합한 특성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일부 사업은 성과지표 목표치는 달성되었으나 사업의 목적성과의 연계성이 미약하거나, 전체 사업목적에 비추어볼 때 성과지표가 일부 성과만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이 가능한 사업별 적절한 성과지표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3) 예산에 대한 분기별 계획 및 관리 필요

○ 돌발적인 이슈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집행률이 다소 낮은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연단위 예산 수립 및 차질없는 예산 집행을 위해 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단위의 예산 수립이 이루어지고 난 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분기별 배분 계획 및 예산 집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를 분기별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예산 집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함

4)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필요

O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분석을 통한 체계를 수립하여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진단하여 사업 기획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사업 예산의 안정적인 집행 및 성과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O 사업 수행 중 사전에 감지되지 않았던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급작스러운 사안의 발생에도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5) 세세부 사업의 재편성

O 하나의 세부사업 구분 내에서 세세부 사업의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가 상위 사업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세부 사업을 기관의 목표 및 상위 사업의 궁극적 목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전체 사업을 재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의 사업목적에 명시된 목적에 대한 일치도 및 실현 적합도를 기준으로 사업목적별 종합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세세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복사업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통폐합 등 재편성이 필요함

2. 평가 결과

□ 세부·기초사업별 점수 현황

○ 10개 세세부사업 평균 점수는 75.6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평가됨

○ 세세부·사업별 평가등급 분포는 10개 사업 모두 ‘보통’으로 평가됨

[세부.기초사업별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현황]

분과 및 단위사업	세부·세세부사업	계획(20점)				집행(30점)		성과(50점)				총점	평가등급
		사업계획(10점)		성과계획(10점)				목표달성도(30점)		정책효과성(20점)			
		득점	환산	득점	환산	득점	환산	득점	환산	득점	환산		
[1분과] 예술창작역량강화	문학창작육성	8.8	87.5	6.3	62.5	25.5	85.0	18.1	60.4	15.0	75.0	73.6	보통
	시각예술창작육성	7.5	75.0	6.3	62.5	23.6	78.8	23.1	77.1	12.0	60.0	72.5	보통
	공연예술창작육성	7.9	78.8	6.3	62.5	24.3	80.8	18.1	60.4	15.0	75.0	71.5	보통
	예술인력재교육	9.1	91.3	6.9	68.8	23.6	78.8	23.1	77.1	16.0	80.0	78.8	보통
	예술가국제역량강화	8.8	87.5	5.6	56.3	24.3	80.8	23.1	77.1	13.0	65.0	74.8	보통
	한국예술세계화	8.8	87.5	6.3	62.5	25.5	85.0	23.1	77.1	13.0	75.0	78.6	보통
[2분과]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예술정책실행력제고	8.8	87.5	6.9	68.8	26.1	87.1	18.8	62.5	16.0	80.0	76.5	보통
	문화예술기부활성화	8.8	87.5	8.8	87.5	25.5	85.0	18.8	62.5	16.0	80.0	77.8	보통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8.3	82.5	8.1	81.3	26.1	87.1	23.1	77.1	12.0	60.0	77.6	보통
[3분과] 지역문화예술진흥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7.5	75.0	5.6	56.3	26.9	89.6	23.1	77.1	11.0	55.0	74.1	보통
평균		**8.4**	**84.0**	**6.7**	**66.9**	**25.1**	**83.8**	**21.3**	**70.8**	**14.1**	**70.5**	**75.6**	**보통**

[세부・기초사업별 평가등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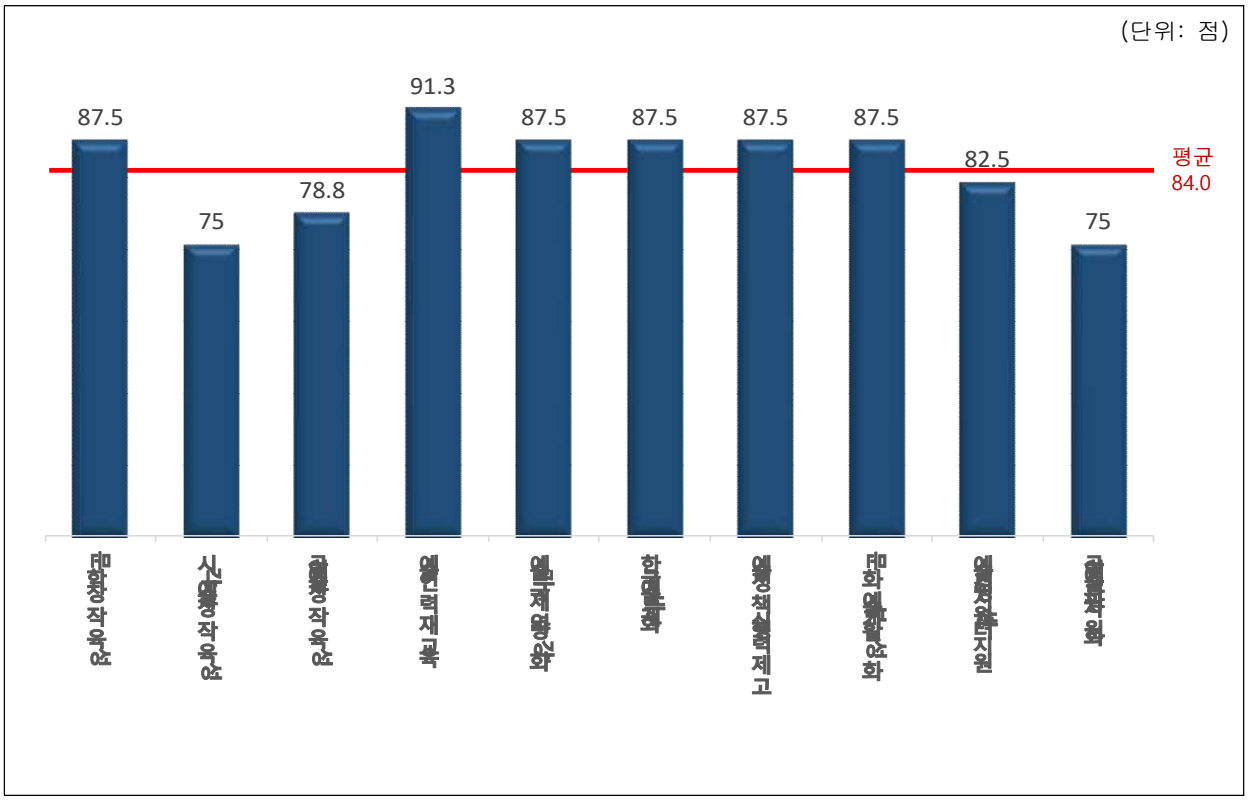
등급	점수구간	세부·기초사업명	개수
매우우수	90점 이상	-	0
우수	80점 ~ 90점 미만	-	0
보통	60점 ~ 80점 미만	문학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 예술인력재교육 예술가국제역량강화 한국예술세계화 예술정책실행력제고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10
미흡	50점~60점 미만	-	0
매우미흡	50점 미만	-	0

□ 항목별 평가의견

○ 평가의견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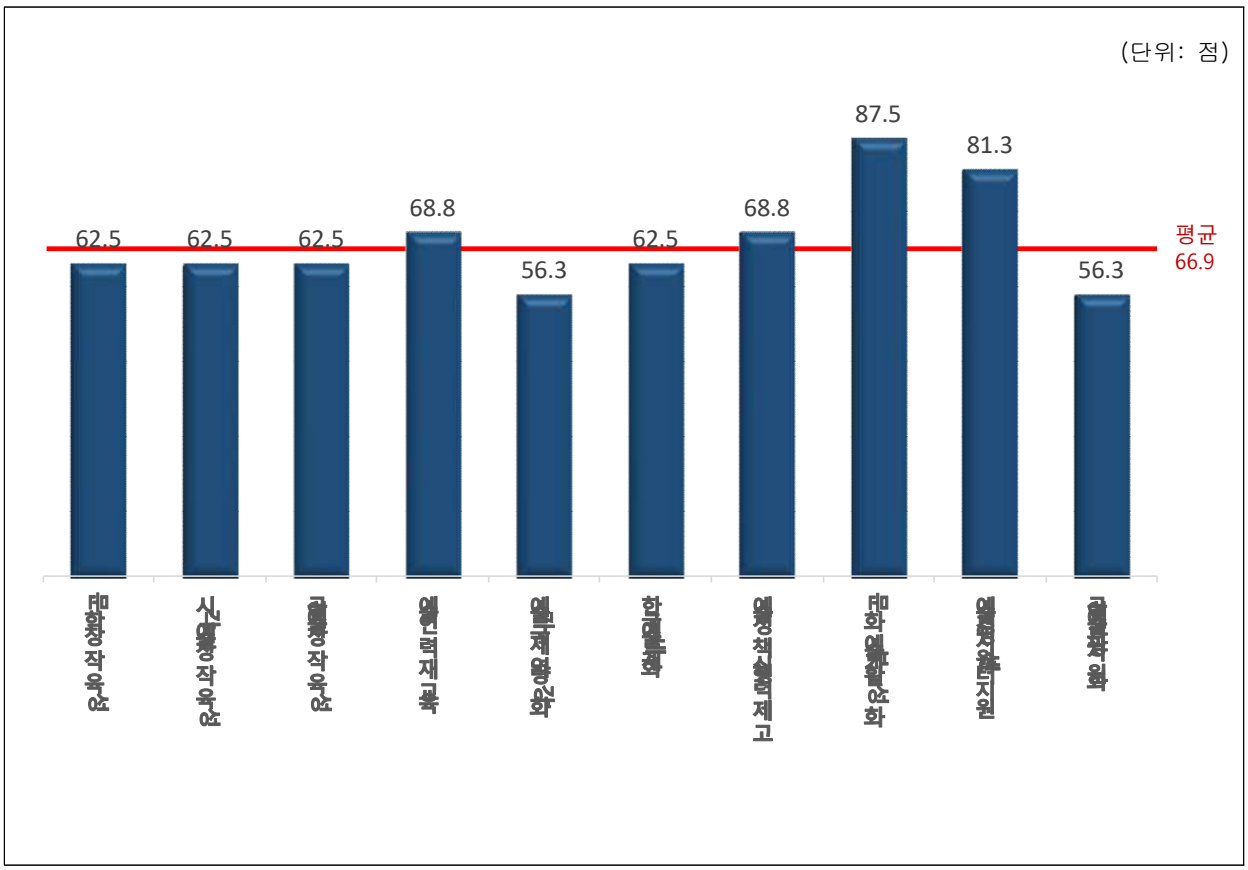
ㅇ (사업계획) 성과목표치 설정의 논리적 근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목표치 수립이 필요함
ㅇ (성과계획) 결과 및 영향 수준의 성과지표 개발과 세부 프로그램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강화가 필요함
ㅇ (집행) 예산 미집행에 대한 원인 분석과 동시에, 사업 집행 관리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함
ㅇ (목표달성도) 실증평가가 가능한 체계와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ㅇ (정책효과성) 지원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예술단체(인)과 소통 활성화,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신뢰회복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사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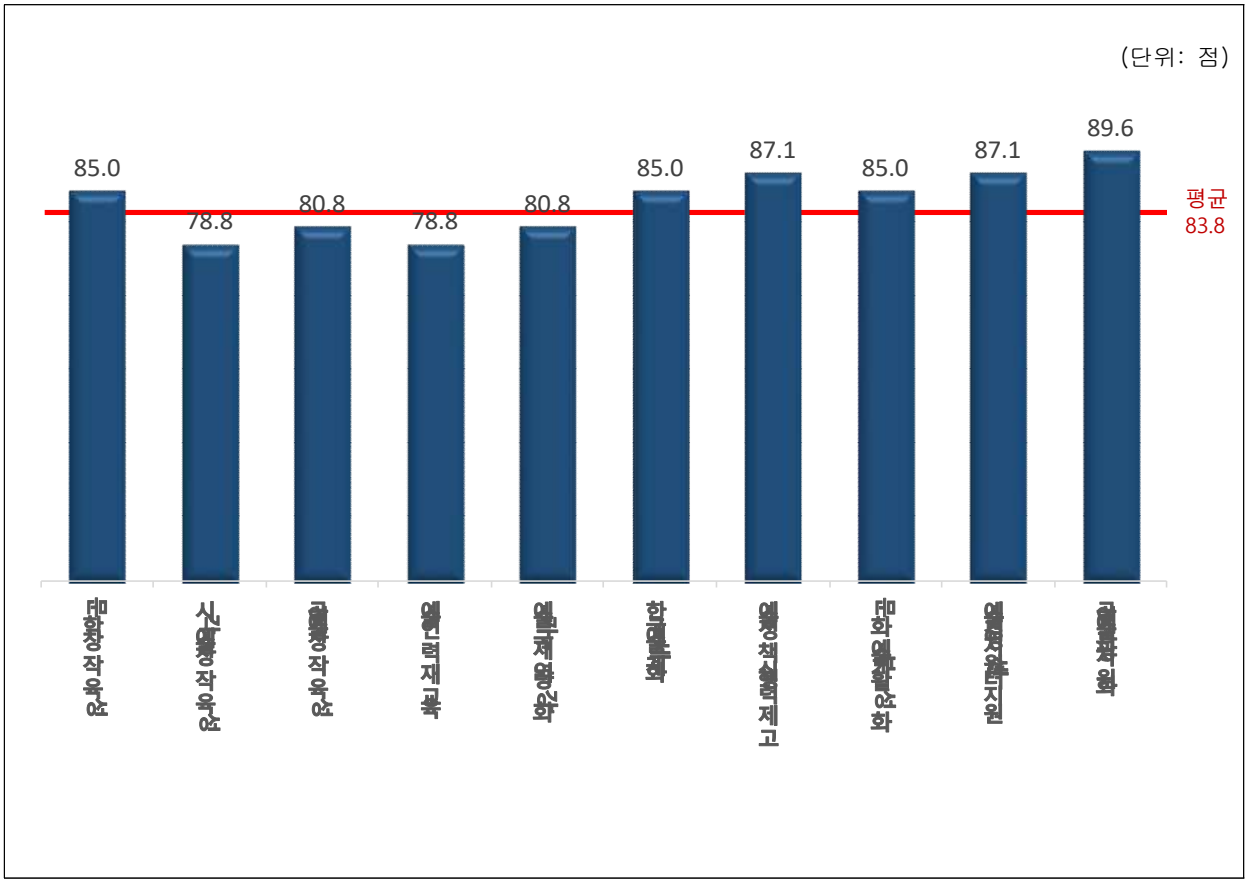
- 각 분과별 사업계획 평균점수는 84.0점으로 평가되었음
- 이 중 '예술인력재교육사업'이 91.3점(+7.3점)으로 평균점수 대비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 과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사업' 이 75.0점(-9.0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평균점수(84.0점)보다 낮게 평가된 사업은 시각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로 나타남

○ 성과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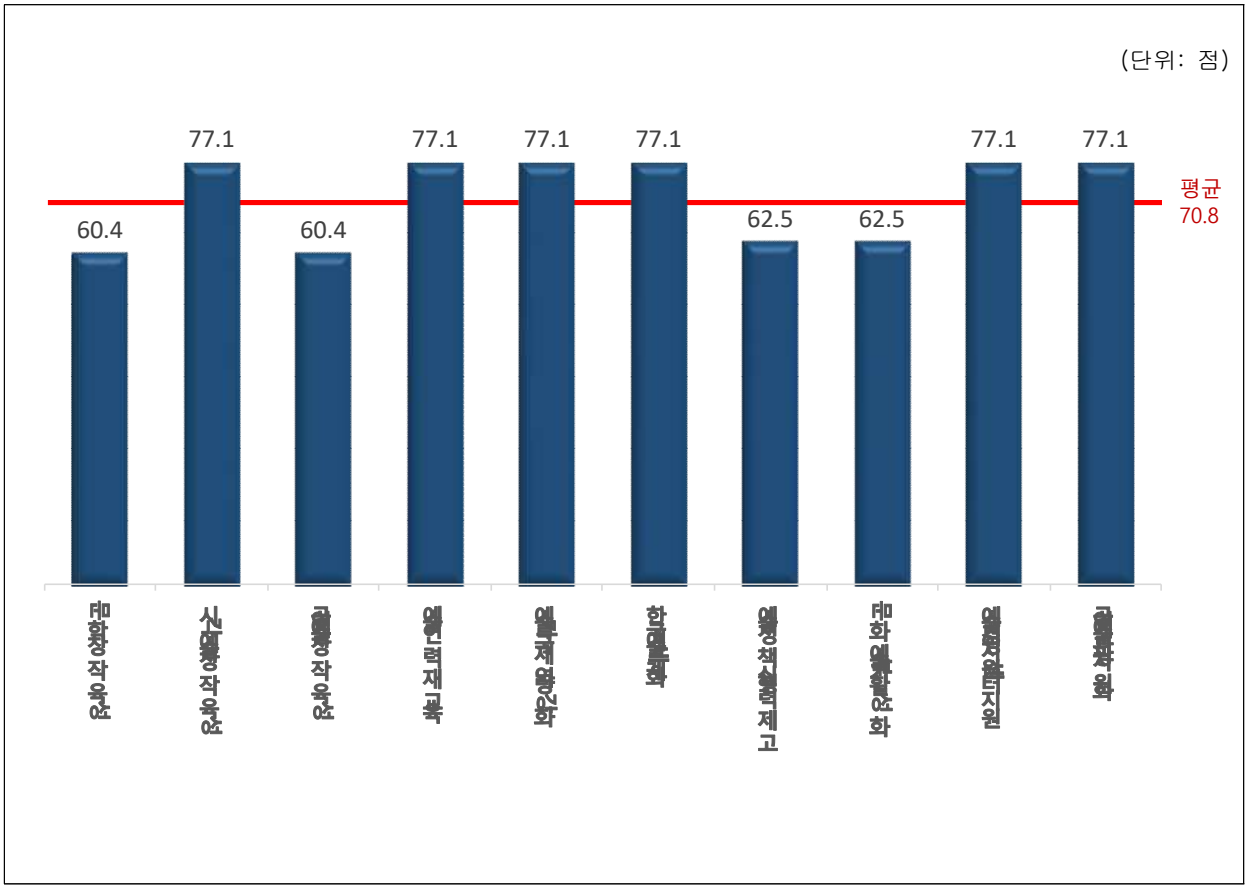
- 각 분과별 성과계획 평균점수는 66.9점으로 평가되었음
- 이 중 '문화예술기부활성화사업'이 87.5점(+20.6점)으로 평균점수 대비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 과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사업' 이 56.3점(-10.6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평균점수(66.9점)보다 낮게 평가된 사업은 문학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 예술가국제역량강화, 한국예술세계화,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로 나타남

○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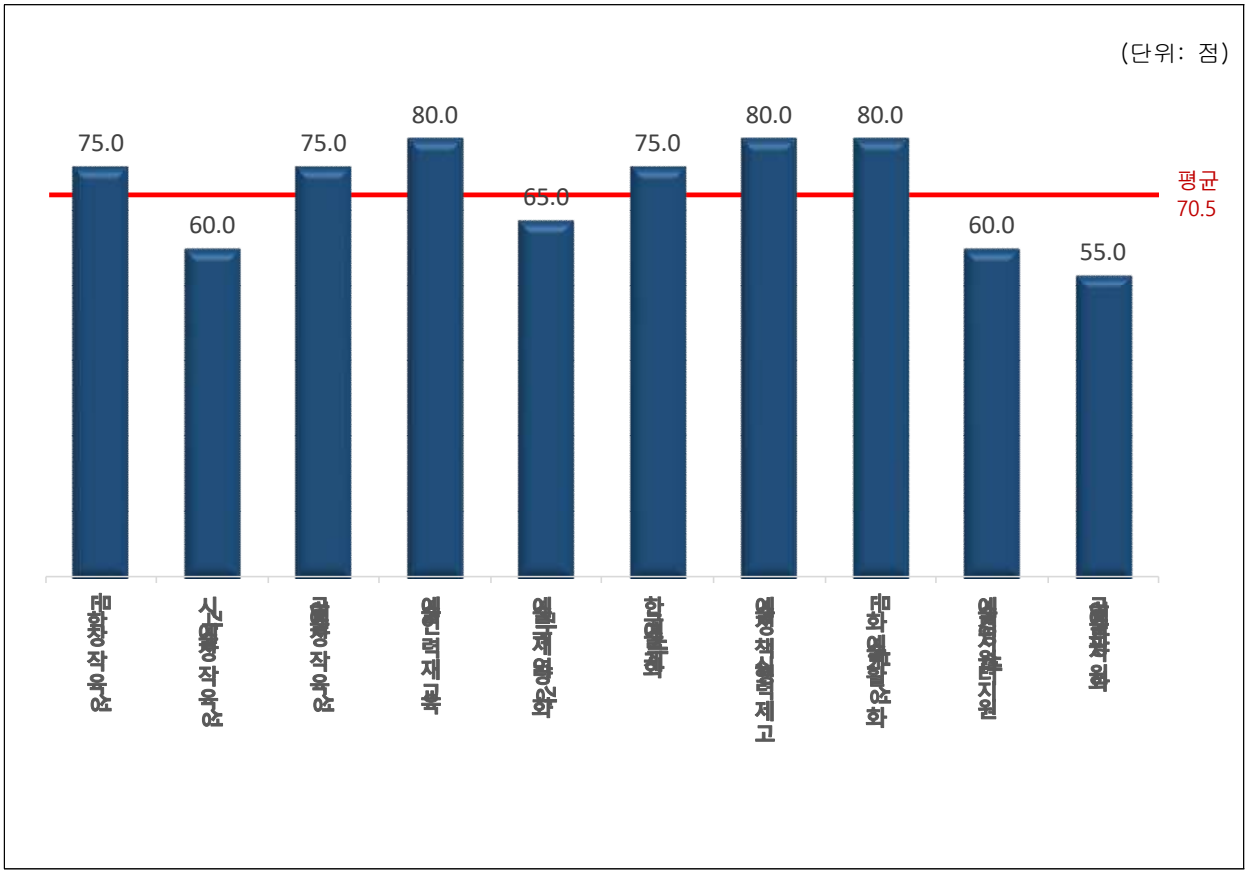
- 각 분과별 집행 평균점수는 83.8점으로 평가되었음
- 이 중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사업'이 89.6점(+5.8점)으로 평균점수 대비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 과 '예술인력재교육사업'이 78.8점(-5.0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평균점수(83.8점)보다 낮게 평가된 사업은 시각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 예술인력재교육, 예술가국제역량강화 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



- 각 분과별 목표달성도 평균점수는 70.8점으로 평가되었음
- 이 중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 '예술인력재교육사업',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 '한국예술세계화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사업',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사업'이 77.1점(+6.3점)으로 평균점수 대비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 '문학창작육성사업' 과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 이 60.4점(-10.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평균점수(83.8점)보다 낮게 평가된 사업은 문학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으로 나타남

◯ 정책효과성



- 각 분과별 정책효과성 평균점수는 70.5점으로 평가되었음
- 이 중 '예술인력재교육사업', '예술정책실행력제고사업', '문화예술기부활성화사업' 이 80.0점(+9.5점)으로 평균점수 대비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은 55.0점(-15.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평균점수(70.5점)보다 낮게 평가된 사업은 시각예술창작육성, 예술가국제역량강화,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로 나타남

(1) 1분과 : 「예술창작 역량강화」

○ 1분과 「예술창작 역량강화」 사업은 총 3개의 세부사업 6개의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예술창작지원 : 문학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
※ 예술인력육성 : 예술인력재교육
※ 국예술제교류지원 : 예술가국제역량강화, 한국예술세계화

[예술창작지원]

○ 1분과 예술창작지원 사업은 ‘보통’등급을 받음. 세세부사업인 ‘문학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전체 세세부 사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세세부사업 모두 창작산실 브랜드를 기반으로 연구, 창작, 발표, 비평, 아카이브 등 다각적인 창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예술 창작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신진 예술가 및 기획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음

○ 문학창작육성사업은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나 이용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개방과 공유, 창조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일면이 있어 이를 보완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은 관람객 수와 만족도를 증진시킨 점을 확대하여 향후 고객관점 이슈를 개발 및 해결 활동을 적극적 추진해야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예술인력육성]

○ 예술인력 육성은 예술인력재교육 사업에서 ‘보통’등급을 받았음. 이는 국내 유일의 교육프로그램이고 수요는 있으나, 지원 의존도가 높고 기술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예술인력 육성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재취업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지원 중단 시 취업 지속성이 낮아 높은 지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제예술교류지원]

○ 예술가 국제역량강화 사업과 한국예술세계화 사업 모두 ‘보통’ 등급을 받음.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수요가 높으며,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이 있으나, 평가에 대한 체계, 지표 측정 및 활용, 성과 환류 체계 등이 미흡한 결과로 판단됨

○ 예술가 국제역량강화 사업은 예술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관점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수요가 상당히 높으며, 사업내용이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지속,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나, 전문가 평가체계, 평가지표 자료 측정 및 활용체계, 사후 성과 공유 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함

○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은 예술가(작품)의 해외진출 거점을 공고히 하고,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긍정적이며, 해외 예술기관의 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고 확대 기반을 제공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만큼 향후에도 해외진출 거점 확대 및 기반 다지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사업계획

- 창작육성 사업들의 지원방향을 다각화 하고 목표로 창작과 확산으로 설정한 점 등은 창작 활성화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 노력이 엿보임. 특히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점은 창작활동과 마케팅 활동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사업의 파급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고, 예술가 국제역량강화 사업과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은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수요가 높아 지원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 사업이라 평가됨
-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타 기관사업과의 유사·중복지원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성과계획

-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잇거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성과지표가 투입 및 산출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결과 및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과(Outcome)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이 필요함
-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많으며, 성과지표를 기관경영목표와 연계하거나 신규지표에 대해 목표치 설정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현장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체계적인 사전진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집행

- 사업에 대한 다각적 평가, 인터뷰, 소통체계, 참가후기 발표회 등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으나, 사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활동이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며, 특히 국제교류 사업은 해외 현장에서 전문가 활용 평가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체계를 사업의 진행에 단계에 따라 공모단계에서부터 지원완료 후 성과공유 및 만족도 조사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모니터링 단계에서 도출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사전에 발굴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매년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반영한 모니터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목표달성도

- 만족도를 제외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대부분 100% 이상 초과달성을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으나, 참여 관객이 아닌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지표의 경우 목표치 대비 87~72%로 매우 낮은 달성률을 보여, 예술인(단체)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및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책효과성

- 문학관계자와의 소통 활성화 기반 창출, 예술가와 일반국민의 참여 확대, 국제사회에서의 예술가 활동 및 네트워크 역량 강화, 국제 행사 수상, 협력기관 확대를 통한 국제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세부사업 단위에서의 성과가 창작역량강화와 문화예술 향수기회 증대라는 기관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 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 다만, 파급효과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준거자료가 미흡하고, 구체적 성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자료가 미흡하여, 개별사례단위의 사례조사가 아닌 종합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적인 성과를 측정해야 하며, 실질적 성과에 대해 개별 대응방안 수립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2분과 :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 2분과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사업은 총 1개의 세부사업 3개의 세세부 사업으로 구성됨

※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 예술정책실행력제고,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 문화예술 사회적인식제고는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세세부 사업인 예술정책실행력제고,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사업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음.

○ 예술정책실행력제고의 하위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의 경우 독립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인건·경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각 세세부 사업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일반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전년도 개선사항들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사업 수행에 따른 단순 산출 위주의 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의 직접적인 산출정도는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되는 사업목적의 달성정도나 사회적인 파급효과 등을 볼 수 없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나타남

○ 예산은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각 분기별로 집행 계획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

- 세세부 사업의 구성 및 개별 사업목적이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라는 사업목적을 달성에 합리적으로 부합된다고 평가되었으며, 재정지원의 한계와 문예기금 고갈이라는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다만, 일부 사업에 중복성이 존재하고, 목적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계획

- 사업의 성과지표를 정량지표 위주로 성과평가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고, 실제 과거 추세치라는 data를 바탕으로 설정되어 목표달성정도를 측정하는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 문제는 사업의 성과지표가 수행 또는 산출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의 양적인 성과 달성측정에는 유리하나 사업의 질적 성과 측정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의 결과(outcome)와 영향(impact)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목표치 설정에서도 과거 성과를 고려한다는 점은 현실적인 달성가능성에 대한 고민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이외의 근거 자료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함

○ 집행

- 예산집행률은 대체로 우수하며, 사업추진체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점은 대체적으로 사업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분기별 예산집행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형잡힌 예산집행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기별 예상집행을 계획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체계 내에 모니터링 체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 사업별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개별사안에 대한 문제점 발생 당시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문제점 발굴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 목표달성도

- 사업의 목표달성률이 목표치가 낮음에서 불구하고 매우 저조하거나 목표치 대비 실적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목표치 설정단계에서 위험 및 수요예측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거나, 사업관리 상의 미흡한 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효과성

- 사업의 추진성과가 관련 문화예술정책의 목표 및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의 실정을 감안할 경우 일정 수준의 효과성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3) 3분과 : 「지역문화예술진흥」

○ 3분과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구성됨

※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119억원, 공연예술작품전략적해외진출지원/20억,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15억,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관광자원화/16억, 전통고궁공연관광상품화/14억,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38억,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33억의 총 예산 256억 원으로 구성됨)

○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는 '보통' 등급의 평가를 받았음

○ 이러한 평가결과는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이 우수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공연예술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자원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조명하여 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공연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사업 개념으로, 극히 일부 사업만이 '관광자원화'를 충족하고 있는 실적이라는 데에서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됨

○ 세부사업의 추진성과와 관광자원활성화에 부합하는 사업지표를 설계하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추진, 성과지표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의 이원화 및 부실운영에 대한 개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이 미약한 점들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함

○ 향후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들을 재설계하고 전체 사업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에 대한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정기적인 사업 점검 및 매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수립, 수행해야 함

○ 사업계획

- 사업목적이 뚜렷하고 법령에 근거한 사업인 점과 기존의 공연예술 지원 방법과의 차별화를 두는 점, 지원 범위가 전국단위인 점 등은 긍정적이나, 세세부 사업의 구성이 ‘공연예술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와 일치되지 않는 점은 개선되어야 함
-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세부 사업별, 사업주체별 운영관리에서는 수행 수준의 차이가 있는 점은 사업 전체의 종합적인 성과 규합에 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 성과계획

- 7개의 세부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만 수립하고 있어 사업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워, 5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며, 사업의 양적 지표 이외에 질적 평가가 가능한 성과(Outcome) 단계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집행

- 사업 예산 대비 집행률은 100%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일부 사업포기 및 공모 미선정에 의한 미집행 금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사업포기와 미선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 모니터링은 주관처별 자체적 혹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심층적이지 않는 등 단순 모니터링에 그치고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사업의 특성이 반영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목표달성도

- 수립되어 있는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상회하여 달성하였으나, 해당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이 사업의 합목적성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전체 사업을 조명할 수 없는 일부 성과를 간략한 자체점검 수준으로 실시되고 있어 목표치 달성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미약하다는 위협이 있음
- 전체 사업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별 성과지표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정책효과성

- 3분과 사업의 경우 지역문화예술 육성, 전통예술 발굴, 한국예술가의 국제교류, 공연상품의 해외진출 촉진 등 다양한 핵심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경우 시너지 효과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면에서 긍정적임
- 사업 목적에 의한 추진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은 일부 우수 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사업별로 현저한 성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임.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 사업이 다수 발견되고 사업목적과 불일치하는 사업이 산만하게 병렬되어 있어 진행되는 사업들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함

3. 주요이슈 분석

(1) 성과지표의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성과지표의 사업내용 포괄여부, 궁극적인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 설정여부, 성과정의 및 측정산식의 명확성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함

- 총 10개 세세부사업 대부분에서 성과지표가 산출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 성과지표로서 미흡한 점이 존재하며, 지표 설정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를 사업의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구성하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내용(부정의견 및 개선제안)]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요평가내용
예술창작 역량강화	문학창작육성	• 문학창작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수와 문학사업 참여 작가수는 재정 등의 투입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문학창작 육성사업의 결과 및 영향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문학창작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의 경우 지표명은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지표정의가 모호하게 설정(지원단체의 사업·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람한 국민의 만족도)되어 있어 지표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문학창작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의 경우, 측정산식에서 문학집필공간 관객수를 합산하는 것은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실적치가 포함되어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됨. • **문학창작 지원 사업이 실제로 문학 창작 인력 양성, 문학 시장, 문학인의 사회 참여 등 문학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음.** • **'문학창작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의 지표정의(개념)를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고, '문학창작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의 경우는 '사이버문학광장 이용자수'로 단순화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시각예술창작육성	• 성과지표 중 시각예술 창작지원 평균 참여 관객수, 평균 창작작품수, 평균 창작 비평건수 등은 지원사업의 투입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공간운영 및 전시지원 사업수행 결과 국민의 예술향수 정도를 대표하는 '평균관람객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데, 측정산식에서 '온라인참여관객수'는 측정치를 관객수에 합산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온라인참여관객수는 오프라인 전시 관객에 비해 관람시간 및 참여열의 등의 측면에서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관객수 변동폭이 커 지표의 안정성을 매우 저해할 수 있는 측정치라고 판단됨. • **사업결과 및 영향 수준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지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컨대, 지원받은 미술관의 경우, 지원성과로 공간 가동률의 향상, 연간 관람객수 증가 등을 성과지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은 참여 관객 만족도 등의 질적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 사업은 큐레이터 기획전시 관련 지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관련 지표 등을 개발하여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보다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주요평가내용
		• **'시각예술창작지원 평균참여 관람객수'를 측정하는 산식에 대한 타당성 제고와 지표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식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공연 예술 창작 육성	• 공연예술 창작지원 평균창작작품수 지표의 경우, 투입에 따른 산출 수준의 지표로서 구체적으로 평균창작작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투입되는 재정규모에 따라 창작작품수의 규모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공연예술가 및 공연예술단체의 활동과 창작작품수의 관계에 관한 인과모델이 정립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지표의 활용도가 다소 낮다고 판단됨. • 지원 사업을 통해 산출된 공연예술작품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없으며,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관람객)에 대한 정량적 지표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창작 지원 평균창작작품수의 지표 조사 결과가 실제로 공연예술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경로와 과정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단년도 사업 성과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가칭 "공연예술창작 환경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연창작 활성화 사업이 2년 도는 3년 후에 실제로 현장의 공연예술 창작 환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수 창작 작품을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산출된 공연예술작품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하고, 공연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와 같이 사업의 최종수혜자의 참여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 중 공연예술창작지원 평균 창작 작품 수를 공연예술창작지원 창작 작품 수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술 인력 재교육	• 지원사업 참여관객수는 전문 인력 양성과 고용지원을 통해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지원 사업 참여 관객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전문 인력의 확보 외에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 참여관객수의 변화가 예술인력 지원사업의 결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예술인력육성지원사업 참여관객 수의 경우 사업목적(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예술분야 고용창출 등 직간접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예술창작 활성화) 및 성과목표(문화예술 현장인력 전문성 제고 및 일자리 확대)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예술인력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예술현장 전문 인력의 현장 근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새로운 평가지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원사업 참여 관객수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로서의 지속 활용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육성사업의 사업목적에 집중하여 교육 및 취업과 관련하여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총교육자 수, 총지원자 수(교육+일자리+인건비 등), 지원사업참여자정규직전환비율, 지원사업참여자근속연수 등의 지표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판단됨.** • **현장예술인력 일자리 창출수 성과지표를 확대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수와 예술전문 인력을 예술단체(기관) 일자리와 매칭을 성공한 인원수를 반영한 복합지표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 지표의 경우, 지원받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이 주관 또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관객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술가의 국제역량 강화 효과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러한 관객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지표로 활용할 경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 지원사업에서 국제예술교육 지원사업 관객수가 중요한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해외창작거점 연계활동 수(건)의 경우 현지 활동 및 직접성과물(해당연도 파견 프로그램 수 + 현지 연구조사활동(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 현지 발표행사(강연, 공연, 오픈하우스) + 해당연도 저작 및 발간물 + 해당연도 수상실적)의 산출방식이 다소 복잡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가 다르고 성과의 중요도도 차이가 나는 만큼 지표의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주요평가내용
		• **사업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성과달성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성과지표(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명), 해외창작거점 연계활동 수(건))의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판단됨. 또한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 지표를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의 산출방식을 단순화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산출된 달성값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해외창작거점 연계활동수 성과측정 산식 구성 시, 성과항목별로 사업성과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건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한국 예술 세계화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은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과 동일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두 개의 사업에 동일한 성과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치 않음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할 때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은 예술가 중심의 성과지표를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은 프로그램과 단체 중심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예술 사회적인식 제고	예술 정책 실행력 제고	• 대체로 사업의 성과지표를 수행(performance) 또는 산출(outputs)위주로 설정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홍보사업의 경우, 기금사업에 대한 미디어 노출건수 및 웹진 아르코 정기구독자수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성과평가기준이라기 보다는 산출평가기준에 가까움 •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보고서 조회건수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성과평가방식이라기 보다는 산출평가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술정보컨설팅서비스,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 및 공연예술실태조사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움 • **성과지표를 세부사업의 세세부사업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연구 성과가 대외로 확산된 정도를 파악하고자 정책연구보고서 조회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단순 조회건수보다는 정책연구 결과물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에 반영된 정도(예: 수행된 정책연구 건수 중 몇 건이 정책에 반영되었는가?)로써 사업목적 달성도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발간사업의 경우에도 아르코 웹진 확대개편을 통해 블로그 레터발송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성과를 보다 적정하게 가늠할 수 있는 타당한 지표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 예술 기부 활성화	• 대체로 사업의 성과지표를 수행(performance) 또는 산출(outputs)위주로 설정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홍보사업의 경우, 기금사업에 대한 미디어 노출건수 및 웹진 아르코 정기구독자수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성과평가기준이라기 보다는 산출평가기준에 가까움 •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보고서 조회건수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성과평가방식이라기 보다는 산출평가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술정보컨설팅서비스,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 및 공연예술실태조사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움 • **성과지표를 세부사업의 세세부사업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연구 성과가 대외로 확산된 정도를 파악하고자 정책연구보고서 조회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단순 조회건수보다는 정책연구 결과물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에 반영된 정도(예: 수행된 정책연구 건수 중 몇 건이 정책에 반영되었는가?)로써 사업목적 달성도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발간사업의 경우에도 아르코 웹진 확대개편을 통해 블로그 레터발송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성과를 보다 적정하게 가늠할 수 있는 타당한 지표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주요평가내용
	예술 경영 지원 센터 지원	• 사업의 성과지표를 수행(performance) 또는 산출(outputs)위주로 설정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예를 들어, 홈페이지 방문자수, 콘텐츠발행수, 전산망 방문자 수 등은 사업의 성과라기보다는 산출지표에 가까움 **• 성과지표의 선정에 있어 사업의 목표달성정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거나, 종합지표(index) 개발을 통해 복합적인 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 추가하여 예술경영컨설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예술단체기관의 경영실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실효성을 가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지표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연 예술 활용 관광 자원 화	공연 예술 활용 관광 자원화	• 7개 세부사업 중 '지역대표공연예술제'와 '전통고궁공연관광 상품화 사업'을 제외한 5개 세부사업은 성과지표가 부재함에 따라 사업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사업'은 사업 추진상의 차별성 및 성취효과 획득에 유효한 설득력 있는 성과지표가 부재한 채 운영되고 있음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과 '전통고궁공연관광 상품화 사업'은 성과지표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연회수, 참여예술인, 관람객 수 등 계량지표에 한정되어 사업목적의 일부만을 충족하는 한계점이 있음 • '세계무형문화재 활성화 사업'은 '외국인 대상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효율적인 최적의 성과 지표 개발이 시급함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 성과 측정 시 인력투입, 프로그램의 양과 질 등 지역문화 육성과 관련한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평가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과지표 개발이 요구됨** **•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세계무형문화재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사업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개설하여 조속히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함. 그 사유는 현재, 외국인대상 문화관광콘텐츠 활성화 방안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 한 복판의 가설무대에서, "한국 전통예술 관람 의지가 불분명한 불특정 다수의 외국관광객 중심의 모객 전략"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임** **• 외국인 관람객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자 한다면 '전통고궁공연관광 상품화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콘텐츠(공연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고급화, 예약제에 의한 관람시스템 정착 등 한국의 세계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공연상품의 고품격 전략을 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그 나라의 전통예술은 최고급, 최적의 공간에서, 대개 고가의 유료 좌석권을 발매하고 있음)** **• 사업별로 사업계획, 수행노력, 성과, 환류 등 종합적인 사업 성취도 향상에 유용한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 설계가 절실하다고 판단됨. 특별히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과 '전통공연 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종합적인 성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참가자 집계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계량지표 외에 공연콘텐츠의 참신성 및 다양성, 타깃(소비자층)과의 부합도, 관람환경 서비스 개선도, 지역예술인의 창작역량 개선도 등 다양한 지표들을 보완책으로 고려 해 볼 수 있음** **• 현장실사 결과 발견된 성과지표 설계 및 관리 체계의 이원화 현상은 사업집행 및 주관처(문화예술위)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즉, 현재는 성과지표 최초 설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 하에 해당 개별 기관으로 직접 하달되는 상황임. 반면에 보조금 교부 및 예산집행에 따른 최종 사업추진 관리 및 평가 업무는 아르코(문화예술위) 책임 하에 시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설계와 관리 체계의 이원화 구조는 사후 사업평가 과정에서 발견되는 성과지표 관리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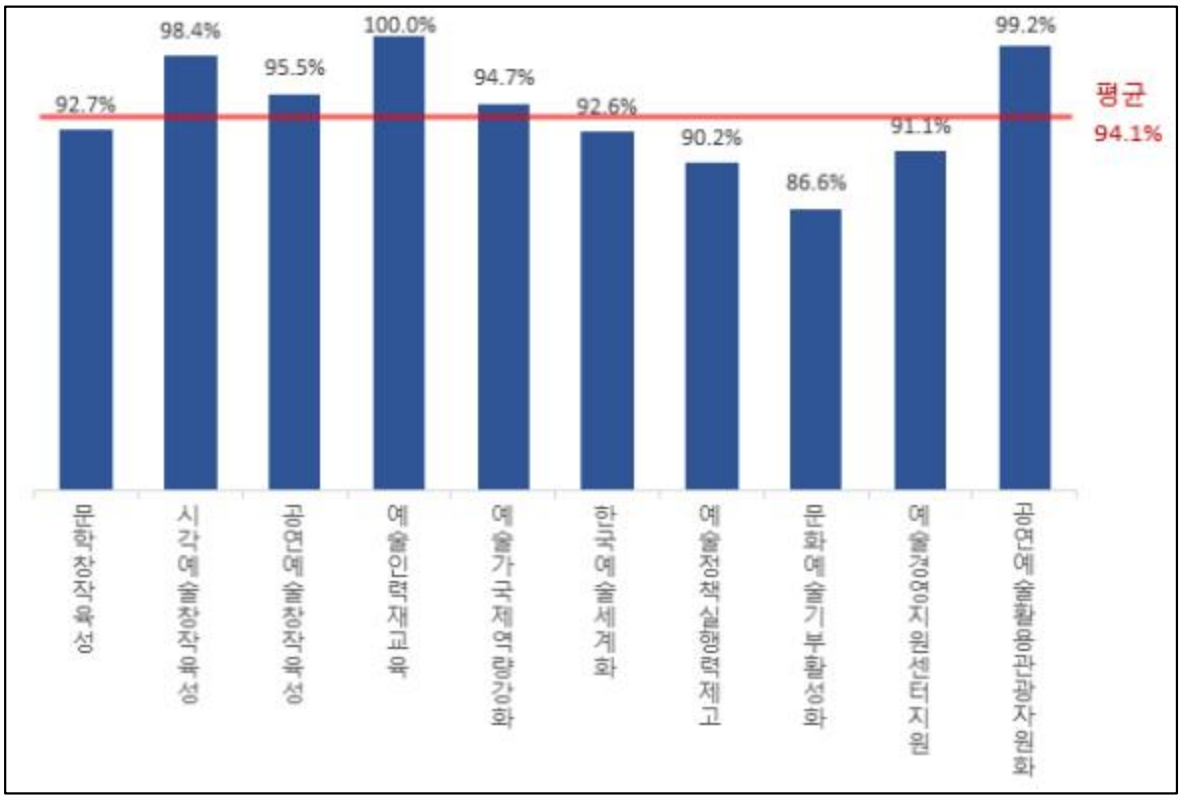
(2) 계량지표 목표달성도 분석

1) 예산집행률

○ 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대상 10개 사업의 ‘예산집행률’ 평균은 94.1%로 적정 수준임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술인력재교육’ 사업만 집행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시각예술창작육성’, ‘ 공연예술창작육성’, ‘예술가국제역량강화’ 사업은 평균 집행률 이상의 수준을 달성하고 있음
- 반면,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사업은 집행률이 86.6%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년도 3분기까지의 실적이 준수하였던 점, 블랙리스트 사건 등 기관 및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기부금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사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률 현황]



2) 목표달성도 :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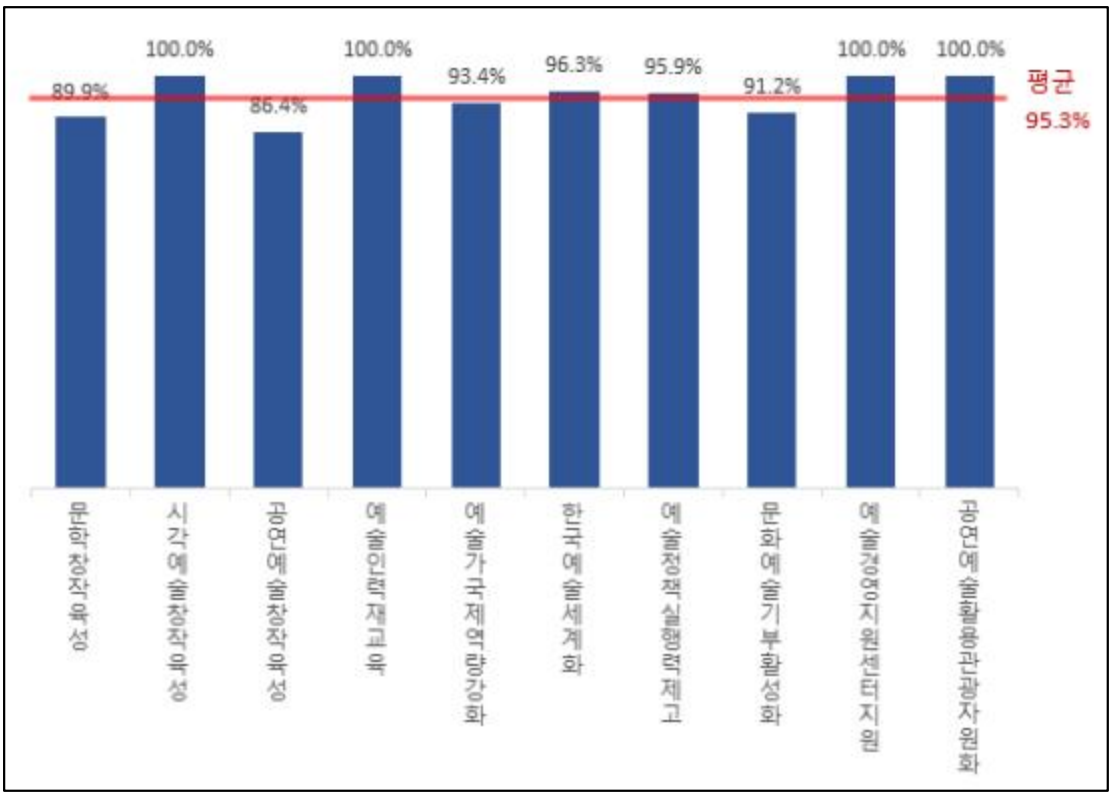
○ 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대상 10개 세부사업의 ‘목표달성도’ 평균은 95.3%인 것으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는 10개 세부사업 각각의 성과지표 목표달성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목표달성도 100%를 초과한 경우 최대 100%로 설정하여 계산함

- 세부사업별로 ‘시각예술창작육성’, ‘예술인력재교육’,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사업은 목표달성도를 100% 초과 달성하였음

- 특히, ‘시각예술창작육성’ 사업의 평균 목표달성률은 120.3%로 가장 높은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성과지표 중 ‘시각예술창작지원평균창작작품수’와 ‘시각예술창작지원평균참여관객수’ 목표달성률이 각각 157.1%, 139.9%라는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달성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현황]



*** 그림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목표달성도는 세부사업 각각의 성과지표 목표달성도를 단순히 산술평균한 값임**

III 개선 과제

1. 1분과
2. 2분과
3. 3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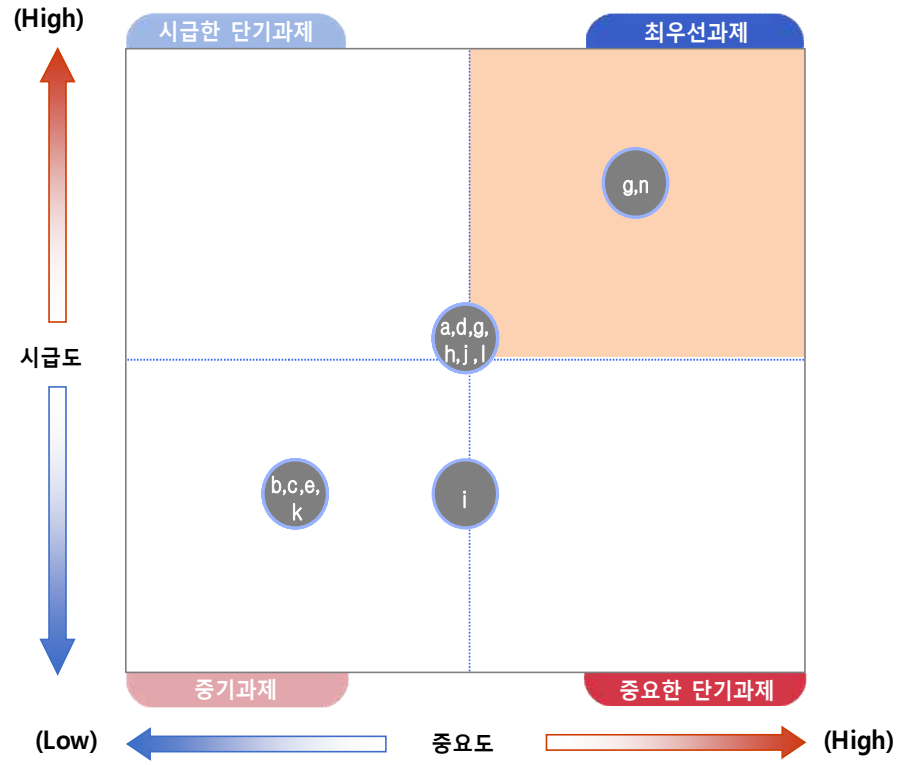
1. 1분과

□ 개선과제

○ 1분과 예술창작역량 강화 세부·세세부사업별 개선과제

- 「문학창작육성」사업은 총 13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사이버문학광장의 모바일기반 서비스 전환'과 성과 영역의 '고객 만족전략 수립 및 혁신 추진'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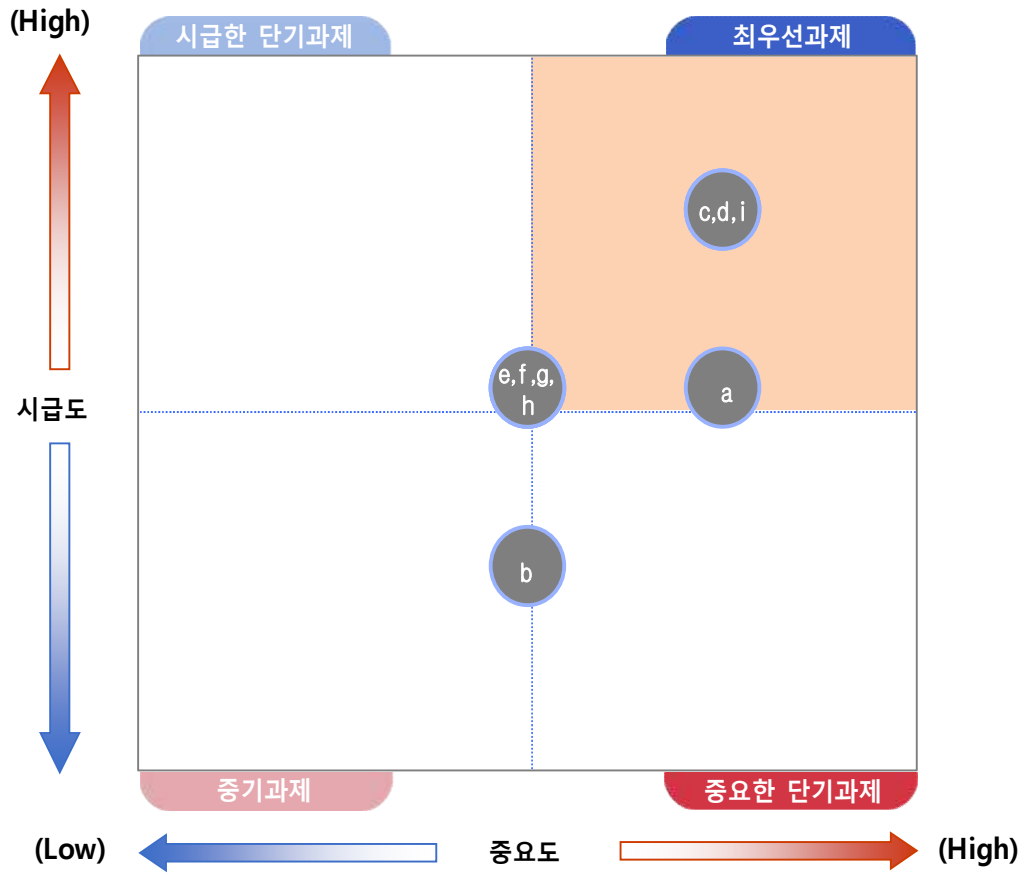
[1분과 - 문학창작육성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온라인 미디어기반 문학 창작 지원사업 개발	3
계획	b	사업의 지역이관 및 협력을 통한 효율화	10
계획	c	예술가의 집 운영 활성화	10
계획	d	성과목표 및 목표치 타당성 제고	3
계획	e	지원니즈 파악 및 사업계획 반영	10
계획	**f**	**사이버문학광장의 모바일기반 서비스 전환**	**1**
집행	g	문학주간 축제의 문학체험 콘텐츠 연구개발	3
집행	h	예산 미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3
집행	i	모니터링 체계의 강화	9
집행	j	예산계획 및 집행의 정합성 제고	3
성과	k	문학 창작 지원사업이 청소년 문학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10
성과	l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체계성 강화	3
성과	**m**	**고객 만족전략 수립 및 혁신 추진**	**1**

- 「시각예술창작육성」 사업은 총 9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 명확화 및 연계성 확보',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타당성 제고', 성과 영역의 '예술가(예술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및 사회적 신뢰 회복'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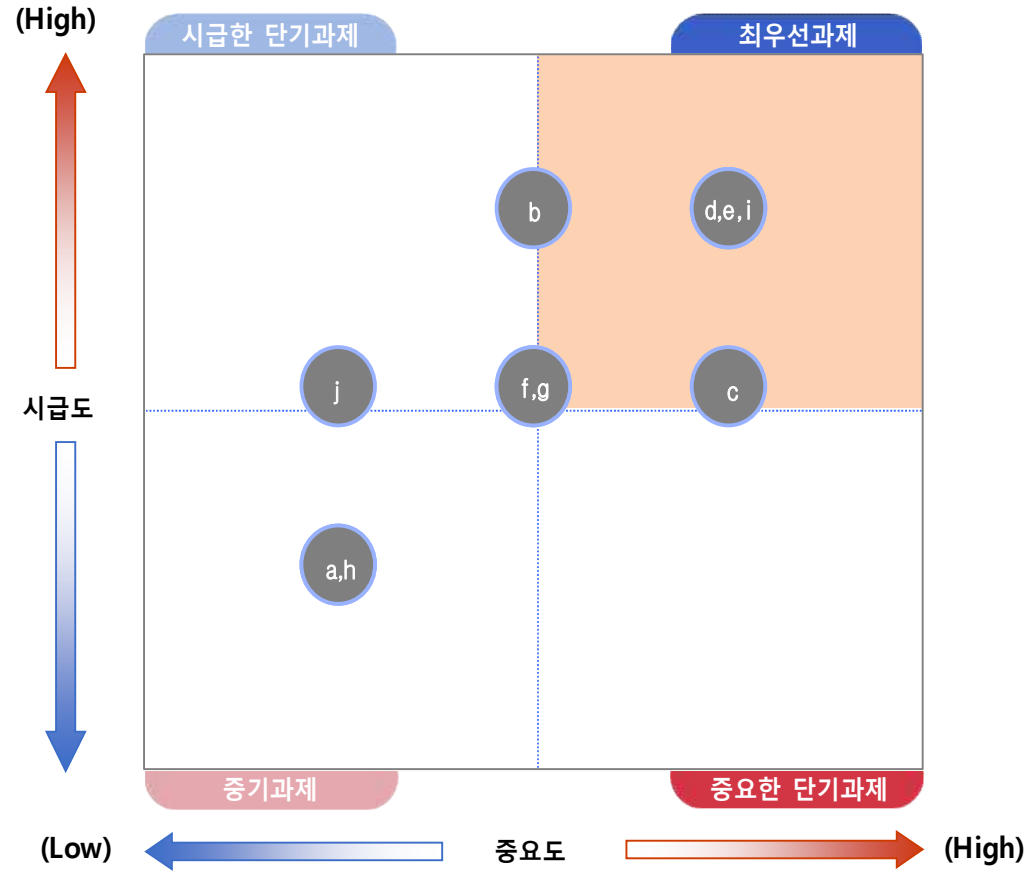
[1분과 - 시각예술창작육성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기관전략과 사업전략의 연계성 확보	4
계획	b	시각예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개발	9
계획	**c**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 명확화 및 연계성 확보**	**1**
계획	**d**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타당성 제고**	**1**
계획	e	아르코 미술관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연계	5
계획	f	아르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확대	5
집행	g	아르코 미술관의 고객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5
집행	h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5
성과	**i**	**예술가(예술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및 사회적 신뢰 회복**	**1**

-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은 총 10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영역의 '성과지표 보완 및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확보'와 집행영역의 '공연예술창작 지원예술인(단체)와의 소통과 공감 플랫폼 활성화', 성과영역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노력 강화'가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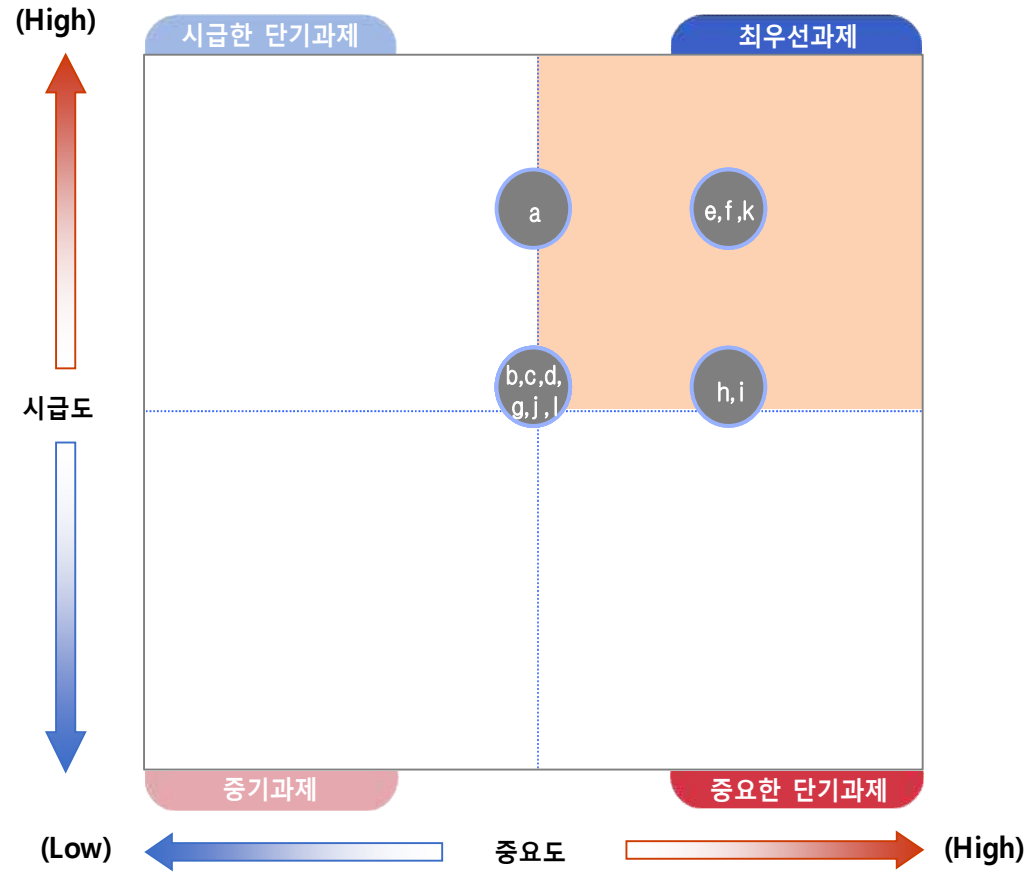
[1분과 - 공연예술작육성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어린이 창소년 공연예술 실태조사	9
계획	b	원로예술인 조명-참여- 공유 활성화 지원체계 개발	4
계획	c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연예술 창작 및 유통 플랫폼 활성화 사업 개발	4
계획	**d**	**성과지표 보완 및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확보**	**1**
집행	**e**	**공연예술창작 지원예술인(단체)와의 소통과 공감 플랫폼 활성화**	**1**
집행	f	예산집행관리체계 강화	6
집행	g	통합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6
성과	h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사업의 영향 연구	9
성과	**i**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노력 강화**	**1**
성과	j	피지원 대상 선정 프로세스 개선	8

- 「**예술인력재교육**」사업은 총 12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집행 영역의 '현장 소통워크숍 활성화', '예산집행 시기 준수'와 성과영역의 '교육생 만족도 증진 전략 수립'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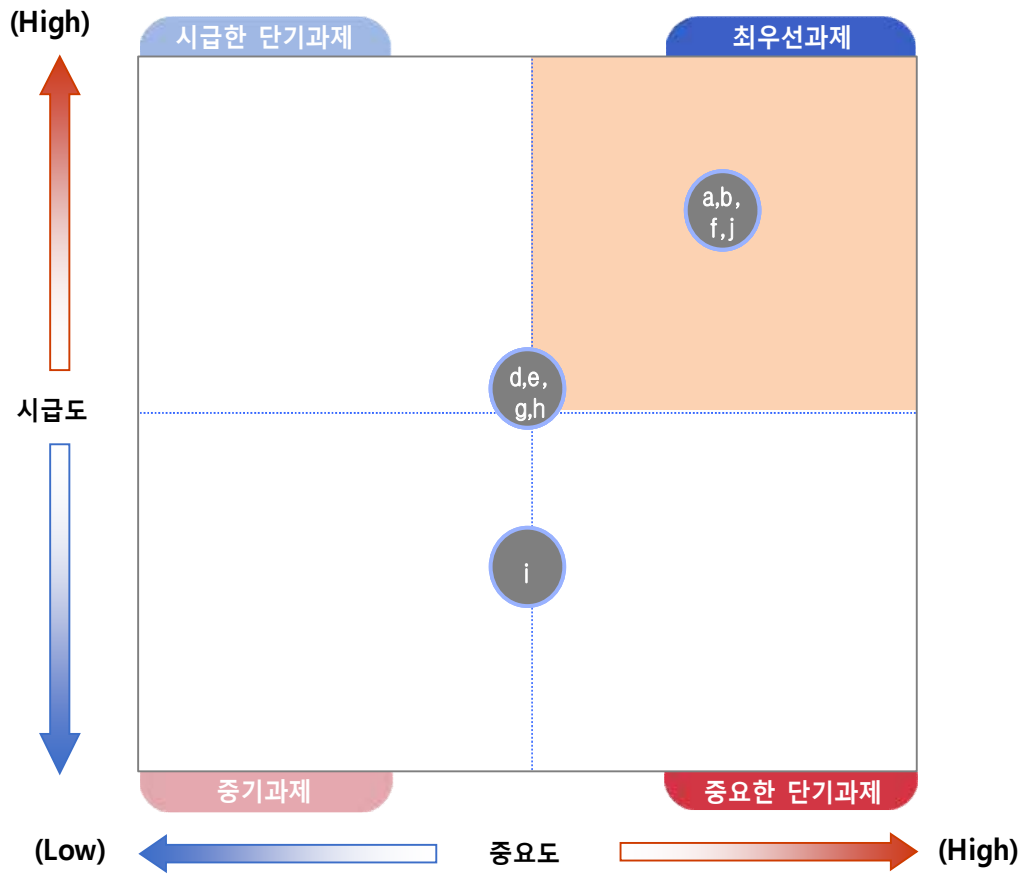
[1분과 - 예술인력재교육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다년도 사업을 통한 사업효과성 증진	4
계획	b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 제고	7
계획	c	예술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플랫폼 운영	7
계획	d	4차산업혁명 시대의 무대예술인력 양성 교육과정체계 연구	7
집행	**e**	**현장 소통워크숍 활성화**	**1**
집행	**f**	**예산집행 시기 준수**	**1**
집행	g	교수자 대상의 모니터링 실시	7
집행	h	예산기획 및 집행의 정합성 제고	4
집행	i	인력지원사업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4
성과	j	예술인력 지원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연구	7
성과	**k**	**교육생 만족도 증진 전략 수립**	**1**
성과	l	교육참여자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7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은 총 10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기관 전략과 사업전략의 연계 강화', '사업성과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및 성과측정 산식 개선'과, 집행 영역의 '해외 현장 모니터링 강화', 성과 영역의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증진전략 수립'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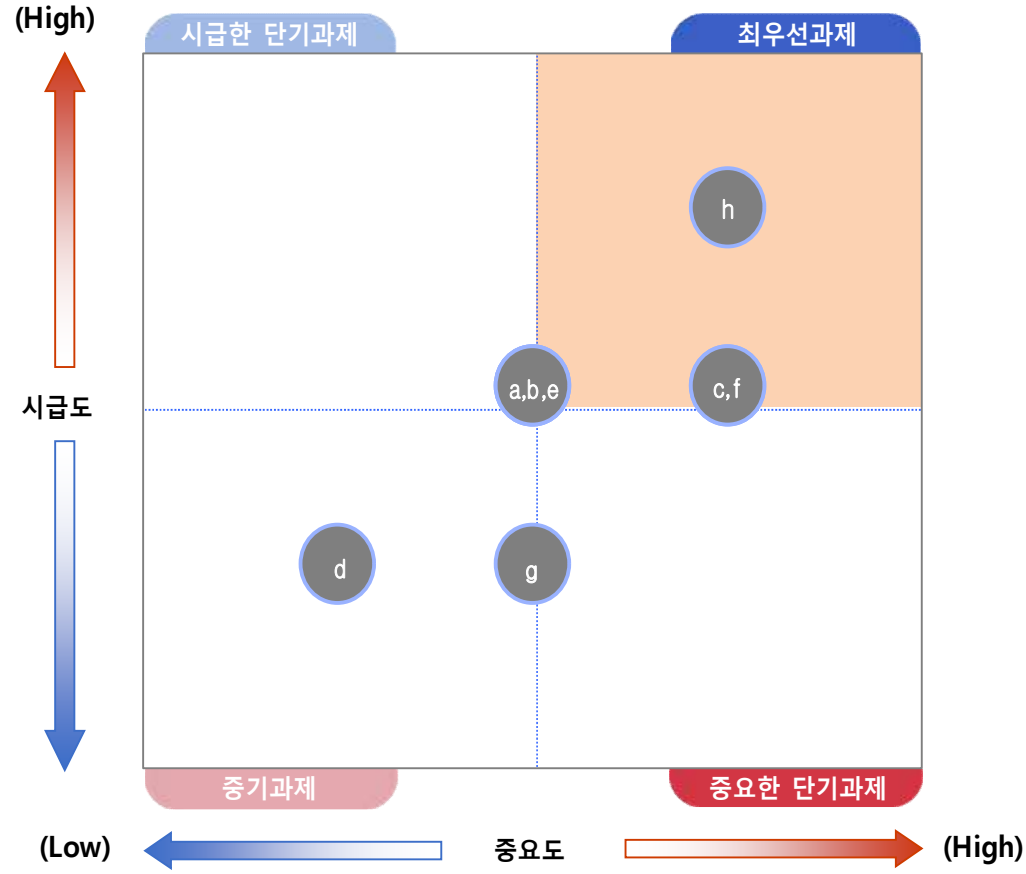
[1분과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기관 전략과 사업전략의 연계 강화**	**1**
계획	**b**	**사업성과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및 성과측정 산식 개선**	**1**
계획	c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9
계획	d	기획형 해외레지던스사업 사업계획 고도화	5
집행	e	성과경험 및 노하우 공유 플랫폼 구축	5
집행	**f**	**해외 현장 모니터링 강화**	**1**
집행	g	예산집행률 제고 전략 수립	5
집행	h	레지던스 참가 예술인 소통정보시스템 구축	5
성과	i	사업성과 추적조사 체계 구축	9
성과	**j**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증진전략 수립**	**1**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은 총 8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성과 영역의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증진 방안 마련'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1분과 - 한국예술세계화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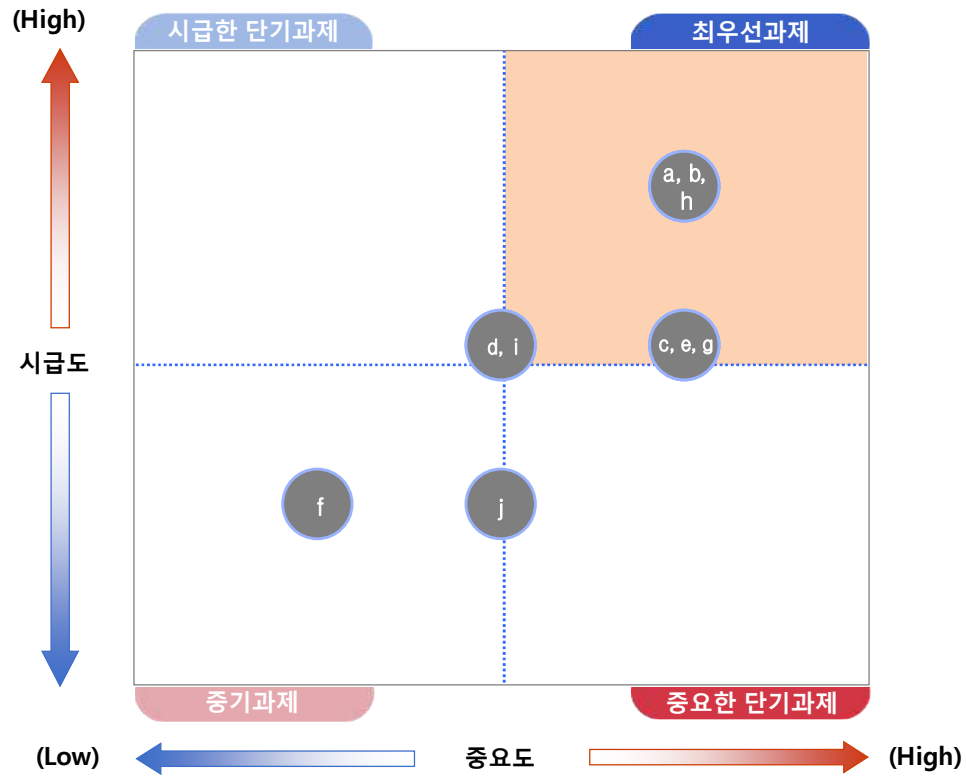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지원전략과 사업전략의 연계 강화	4
계획	b	실질적 지원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	4
계획	c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제고	2
계획	d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8
집행	e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
집행	f	예산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2
성과	g	해외 문화예술기관 협력 네트워크 지속 확대	7
성과	**h**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증진 방안 마련**	**1**

2. 2분과

○ 2분과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세부·세세부사업별 개선과제

- 「예술정책실행력제고」사업은 총 10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문화예술 홍보 전략 수립', '효율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측정'과, 집행 영역의 '문화예술 홍보채널 다양화를 통한 영향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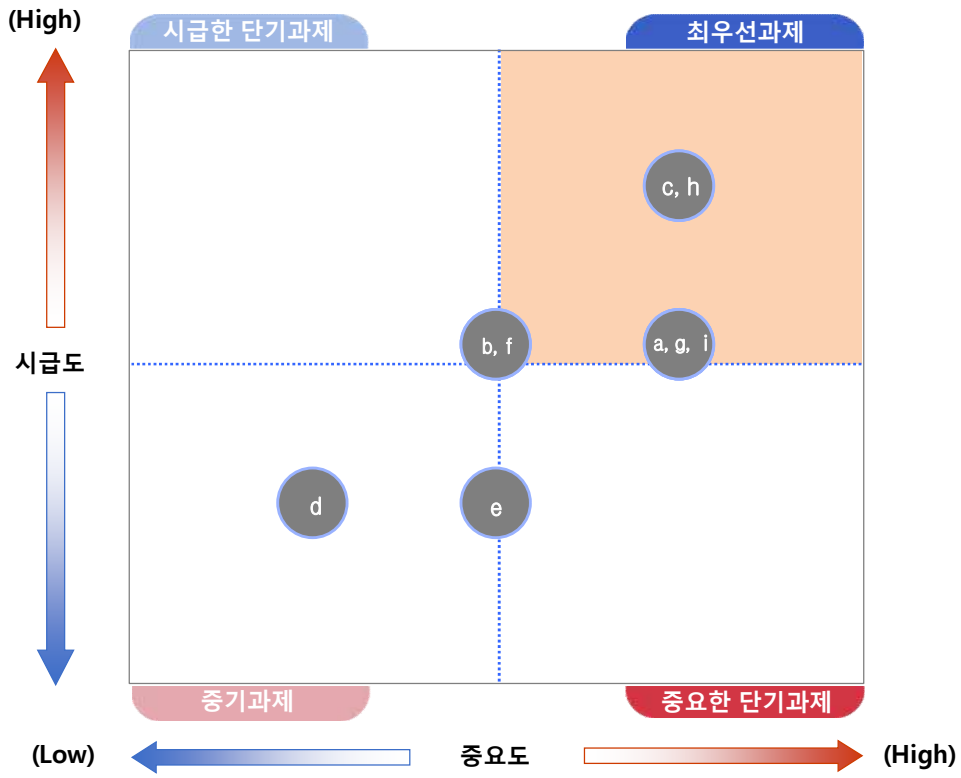
[2분과 - 예술정책실행력제고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문화예술 홍보 전략 수립**	**1**
계획	**b**	**효율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측정**	**1**
계획	c	결과지표 중심의 질적 성과지표 개발	4
계획	d	합리적 목표치 설정 근거 마련	7
계획	e	사업 구조를 고려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4
계획	f	문화예술 단체 역량 진단도구 개발	10
집행	g	체계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 계획 수립	4
집행	**h**	**문화예술 홍보채널 다양화를 통한 영향력 강화**	**1**
성과	i	실증적인 성과평가 방법 마련	7
성과	j	성과 평가 및 환류 조기 진행 추진	9

- **「문화예술기부활성화」**사업은 총 9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과 집행 영역의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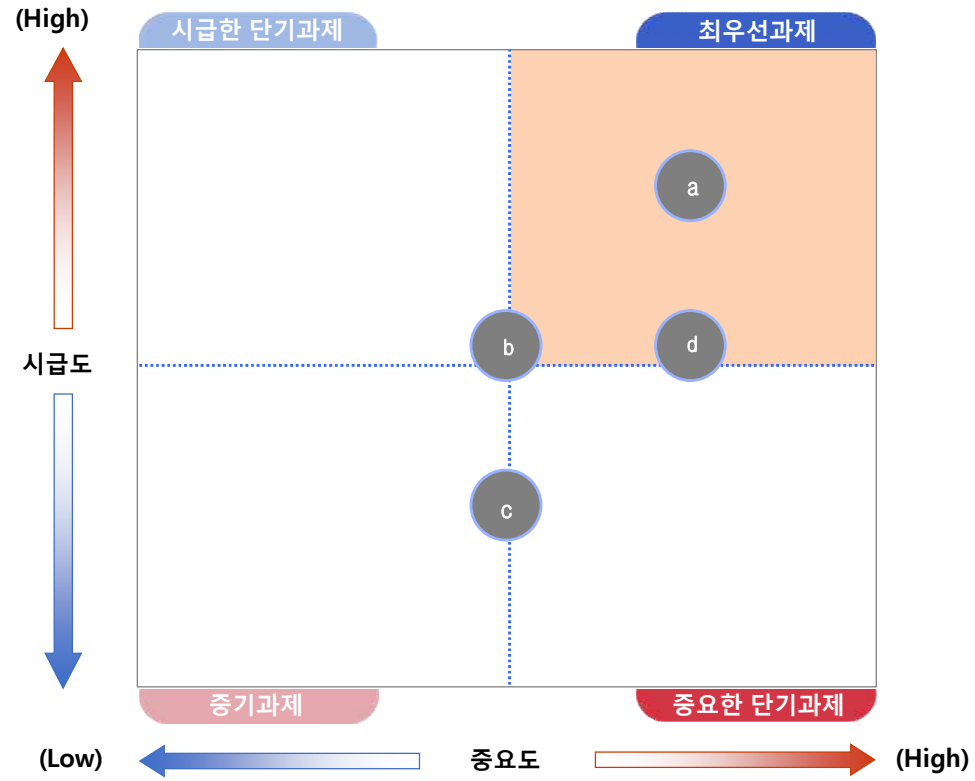
[2분과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세세부사업 재편	3
계획	b	기부 주체별 포트폴리오 구성	6
계획	**c**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	**1**
계획	d	일부사업의 추진타당성 재검토	9
집행	e	예산 집행실적 분석 강화	8
집행	f	사업추진체계 내 기부자 관리체계 마련	6
집행	g	지정기부금 차지 비중 개선	3
집행	**h**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1**
성과	i	성과목표 달성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사업은 총 4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인건·경상비 지원의 타당성 검토'가 최우선 과제로 도출됨

[2분과 -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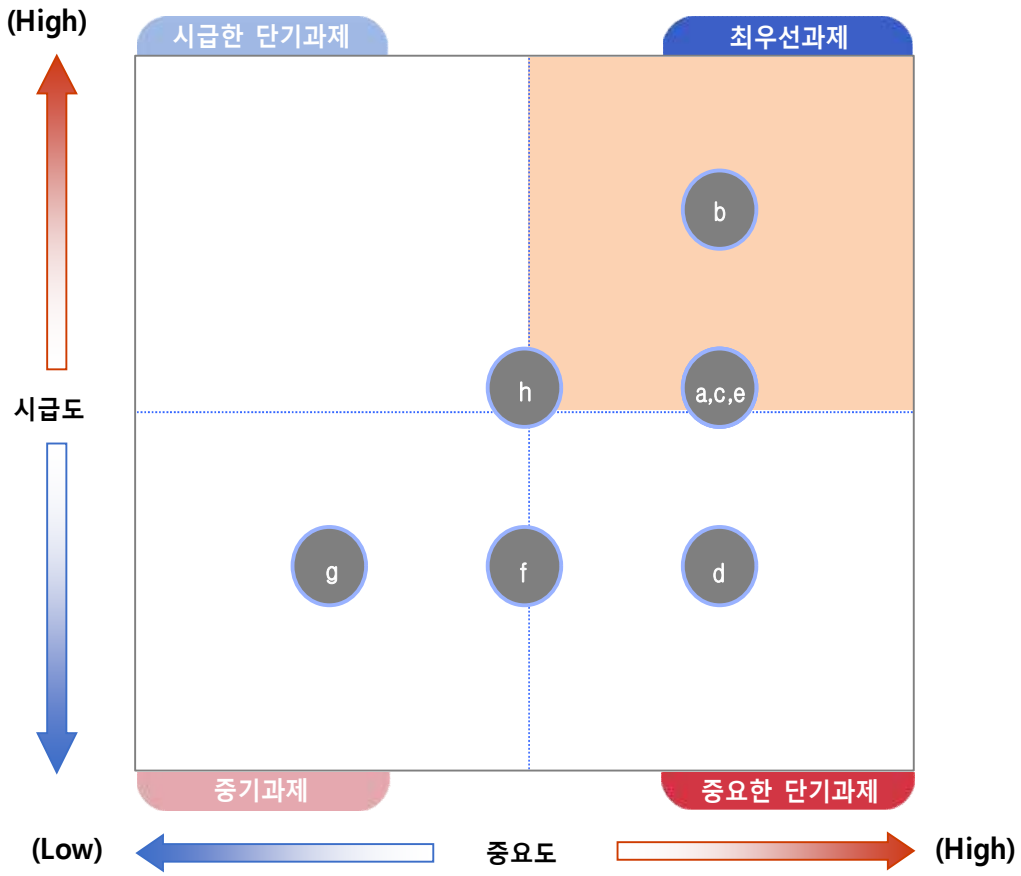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인건.경상비 지원의 타당성 검토**	**1**
계획	b	장기적 관점의 기금 고갈 대응계획 수립	3
계획	c	성과지표 체계 개선	4
집행	d	예산 미집행 원인 분석	2

3. 3분과

○ 3분과 지역문화예술진흥 세부·세세부사업별 개선과제

-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8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사업별 성과지표 설계'가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3분과 -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세부사업 지원 정책 및 추진 방향의 일관성 강화 및 전면적 개편	2
계획	**b**	**사업별 성과지표 설계**	**1**
계획	c	사업추진의 핵심인 '관광자원활성화'와 세부사업의 사업목적 및 추진 내용과의 부합도 점검에 따른 지원 정책 설정 및 선별적 지원 결정	2
계획	d	사업명에서 '관광자원활성화' 병기 여부 및 사업 추진 방향의 정체성 확립	5
집행	e	체계적인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집행	f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쇄신	7
집행	g	세부 사업별 우수사례 기준 차등 지원 및 예산분배 제고	8
성과	h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 개편	5

Ⅳ 단위사업 및 세부·기초사업 평가결과

1. 1분과 [예술창작 역량강화]
2. 2분과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3. 3분과 [지역문화예술진흥]

1분과 [예술창작 역량강화] 단위사업

예술창작 역량강화

1분과 단위사업 최종보고서

예술창작 역량강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창작활동 촉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술인력육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예술교류지원을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2016년 기준 458억원(인건비 등 포함 금액)

- 예술창작지원 : 274억원
- 예술인력육성 : 126억원
- 국제예술교류지원 : 58억원

○ 지원대상 : 예술인 및 예술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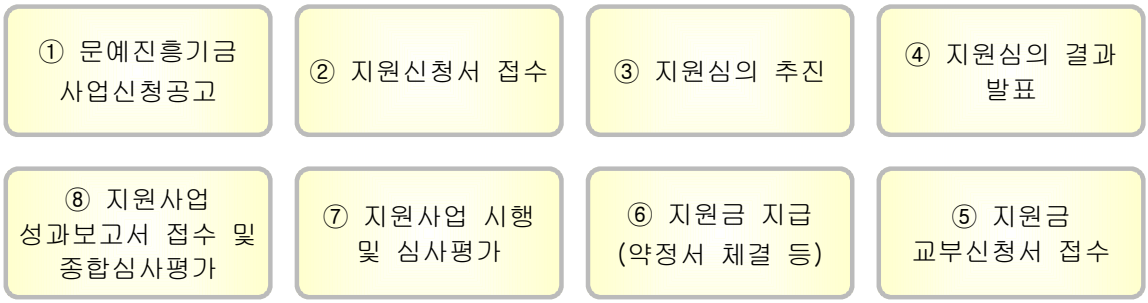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직접수행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예산	'15 예산(A)	'16 예산(B)	증 감(B-A)	%
■ 예술창작 역량강화	69,057	46,497	45,783	△ 714	△ 1.5

□ 공모사업추진 절차


① 문예진흥기금 사업신청공고
② 지원신청서 접수
③ 지원심의 추진
④ 지원심의 결과 발표
⑤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⑥ 지원금 지급 (약정서 체결 등)
⑦ 지원사업 시행 및 심사평가
⑧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접수 및 종합심사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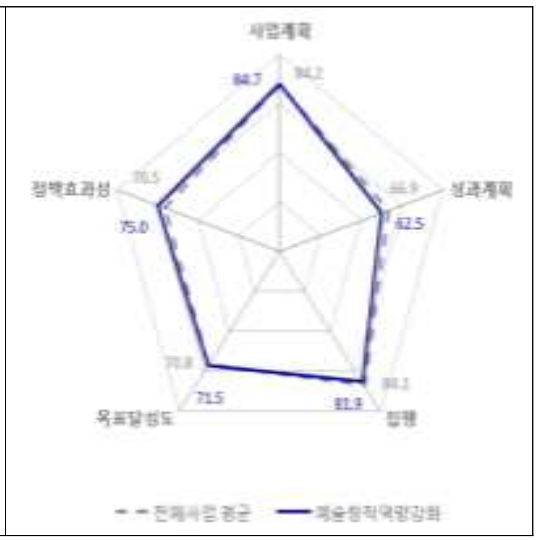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예술창작 역량강화」는 환산점수 기준으로 5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4.7점, ‘성과계획’ 62.5점, ‘집행’ 81.9점, ‘목표달성도’ 71.5점, ‘목표달성도’ 71.7점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0.5), 목표달성도(+0.7), 정책효과성(+4.5)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성과계획(-4.4), 집행(-2.2) 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3점)	2.6	85.4	84.7
	1-2(3점)	2.6	85.4	
	1-3(4점)	3.3	83.3	
성과계획	2-1(5점)	3.5	70.8	62.5
	2-2(5점)	2.7	54.2	
집행	3-1(15점)	12.2	81.1	81.9
	3-2(5점)	4.2	83.3	
	3-3(10점)	8.1	81.3	
목표달성도	4-1(30점)	21.5	71.5	
정책효과성	5-1(20점)	14.3	71.7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 「예술창작 역량강화」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6.8(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이며 85.4점으로 평가됨

○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 항목 중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며 54.2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문학창작 육성 사업, 시각예술창작 육성 사업, 공연예술창작 육성 사업 모두 창작산실 브랜드를 기반으로 연구, 창작, 발표, 비평, 아카이브 등 다각적인 창작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술 창작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신진 예술가 및 기획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예술창작 지원 사업은 문학주간 축제, 사이버문학광장, 아르코미술관 활성화, 어린이청소년 관객 개발 등을 통해 예술가와 국민들의 소통 플랫폼을 강화하고, 참여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산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국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여전히 만족도와 규모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사이버문학광장, 예술과 기술의 연계, 문예지 아카이브 구축, 코리안아티스트 프로젝트, 공연예술 온라인 미디어 유통 및 마케팅 등 예술창작 지원 사업에서 과학기술과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점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흐름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직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개방과 공유, 창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결과물인 창작품을 아르코 미술관의 전시와 연계함으로써 창작과 전시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미술관 운영 사업은 미술주간과 연계하여 토크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고, 전시 연계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함으로써 관람객 수를 확대하고, 관람객 만족도를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미술관은 고객 개발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지원체계를 실연심의(쇼케이스), 제작지원, 재공연 등으로 세분화하고, 창작산실 작품의 확산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 점,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평론가, 연출가 뿐 아니라 기획, 제작사,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확대한 점은 기존의 제작 및 공연 중심의 지원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은 국내 유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구개발 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육성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1,4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취업 가능성을 77.1%로 높게 달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지원 중단시 취업 지속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지원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됨. 예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고용의 지속성 및 정규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년도 사업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된다고 판단됨.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은 국제사회에서의 예술가 역량 강화 및 예술가 네트워크 관점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수요 또한 상당히 높으며, 사업의 내용이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예술가 창작 수준을 제고하고 창작활동을 활성화함' 이라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전문가 평가 체계 구축, 평가지표 자료 측정 및 활용체계, 사후 성과 공유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과정 및 체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은 국내 민간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국제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작품)의 해외진출 거점을 공고히 하고,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특히 한국예술 세계화 사업은 해외 예술기관의 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범위를 아시아 지역에서 북미, 캐나다,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지속,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는 고객만족도 지표 외에는 대부분 투입과 산출 수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 및 영향 수준의 지표가 취약한 실정이며, 목표치 설정의 합리적 근거가 다소 미흡하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예산집행률은 문학창작육성사업 평균 92.7%, 시각예술창작 육성사업 평균 98.7%, 공연예술 창작 육성사업 95.5%, 예술인력 재교육 사업 97.5%,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 사업 94.7%, 한국예술세계화 사업 92.6%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나, 시각예술 비평지원사업과 대관공연장 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각각 76%, 84.8%로 다소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술창작지원 사업에 대한 예술단체(인)의 만족도는 문학창작 육성 사업 78.4, 시각예술창작 육성 사업 84.6, 공연예술창작 육성 72.0, 교육생 만족도 73.6, 문화예술교류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가 72.1, 한국예술세계화 사업 72.1 등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원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예술단체(인)과의 소통 활성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통해 예술창작 생태계의 핵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술단체(인)의 만족도를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 창작육성 사업의 목표로 문학 창작과 확산을 포괄적으로 설정한 점은 문학 창작환경을 개선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문학 확산과 관련된 독자 수요 창출 전략이 다소 추상적이고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예비 작가, 영재, 차세대 작가, 유망작가 등 지원 대상 집단을 세분화하여 문학 창작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은 문학 창작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 지원사업의 경우, 연구, 창작, 전시, 지역순회 활동을 연계한 창작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작지원 결과물인 창작품이 실제로 전시 및 발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작 활성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차세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자 뿐 아니라 기획자인 큐레이터를 중요한 지원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신진 큐레이터의 양성 및 활동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창작 육성사업의 경우, 신진예술가 발굴, 작곡가 및 극작가 양성, 전통예술분야의 신진 기획자 양성, 새로운 공연 창작 실험 활동 등 새로운 공연예술 인력 양성 및 창작 실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은 향후 공연예술생태계에 인력 기반 구축 및 공연예술의 다양성 증진 차원에서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네이버 TV 캐스트, 실황중계, Mnet 협력 등 다양

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한 점은 창작 활동과 마케팅 활동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사업의 파급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육성사업은 문화예술 매개 인력 및 무대예술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특히 무대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무대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됨.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은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은 국제사회에서의 예술가 역량 강화 및 예술가 네트워크 관점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사업수요 또한 상당히 높고, 향후에도 지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 세계화 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해외 진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예술가 창작수준을 제고하고 창작활동을 활성화함'이라는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문학 창작육성 사업의 경우, 실제로 사이버 문학 광장 사업이 문학 창작 활동과 문학 향유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육성사업의 경우,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원로연극제, 원로금빛제전 등 원로예술인에 초점을 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왜 '원로예술인' 인가에 대한 사업목적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예컨대, 원로금빛제전 사업의 경우, '소외된 지역의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문화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와 연계체계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육성 사업의 경우,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한국의 현대 미술을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으로 디지털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업목표와 성과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및 미디어 환경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계획이 다소 미흡하다

고 판단됨.

- 예술인력 양성 및 현장 수요, 그리고 재교육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사이버 문학 광장 사업의 문학 창작 및 향유 플랫폼 구축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목적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가상공간 관람객수, 관람객 구조, 미술품 거래 실적, 교류협력 실적 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원로예술인과 연관된 사업의 경우, 원로예술인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단지 원로예술인들의 문화복지 차원을 넘어, 원로예술인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조망이나 원로예술인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원로예술인과 신진 예술인들의 협업 활성화 등으로 사업 목적을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수급, 노동시장, 재교육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원 사업의 준거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다년도 지원사업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 수요, 국제 문화예술교류 네트워킹 실태와 수요, 해외예술 기관 및 단체와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국제교류사업, 해외문화기관 협력사업의 상호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신진 작가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연구비, 창작집필료, 작품집 출판 지원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문학창작산실 사업은 일부 지역문화재단, 민간재단 등의 유사사업이 일부 있으나, 전국단위 대상이라는 점과 문학콘텐츠 보존 측면에서 고유성이 있다고 판단됨.

- 아르코 미술관의 경우, 미술관의 전시 방향을 “장르융합형 전시”, “새로운 담론형성 주체 기획전”, “아르코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설정하여 다른 공공 및 민간 미술관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공연창작 활성화 지원사업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원방식의 차별성을 시도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나, 지원 목적과 지원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육성사업의 경우, 무대예술인력 교육, 창작과 기획 및 매개 인력의 현장 고용 기회와 경력개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 또는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됨.
- 예술가의 해외 창작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 지원 및 연구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인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은 여타 기관이나 민간의 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음. 15년까지 한국문학번역원의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중복성이 존재하였으나 해당 한국문학번역 사업폐지를 완료함으로써, 사업의 고유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됨.
- 사업공모시 지원신청 자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대상 사업과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을 지원신청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중복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시각예술 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레지던스 지원사업 및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과정에서 조정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사업목표, 지원체계, 사업성과 측면에서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공연예술 행사가 전국적인 차원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연예술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의 차별성에 대해 ‘지원방식의 차이’에 한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창작산실사업과 창작뮤지컬육성사업의 경우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작품지원사업과 수혜대상의 범위와 사업방식에 차별성이 있으나 지원

대상이 중복되고 사업의 내용이 유사· 중복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공연예술 행사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사업과 수혜대상이나 사업의 내용 등에서 유사 · 중복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시각예술 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차원의 공간 지원사업과는 다른 국가 차원의 차별적인 지원목적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 창작 활성화 사업에 관한 방향 정립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계자들의 협의와 조정 회의를 상설로 추진하여 사업의 차별성과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사업, 국제교류재단 문화교류 사업의 경우, 연계, 협의 및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문학창작 육성 사업의 경우, 신진 문학인을 위한 창작 지원을 조사연구비, 집필료,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영재, 차세대, 유망 단계별 작가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작가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사이버문학광장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방문자수 전년 대비 21% 증가, 우수 문예지 콘텐츠 아카이빙 체계 구축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시각예술 창작 육성 사업의 경우, 연구, 창작, 전시, 공간, 비평 등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각예술 창작 지원사업의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시각분야 심의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인터뷰 심사 도입, 최대 3차 심의 심사 이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집중지원 등을 실시한 점은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창작 육성 사업의 경우, 지원체계를 실연심의(쇼케이스), 제작지원, 재공연지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작품제작 지원을 재정지원, 공연장 제공, 전문인력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으로 다각화한 점은 공연시장 맥락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의 평론가 및 연출가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획, 제작사, 마케팅 전문가로 확대한 점은 공연예술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창작 육성 사업의 경우, 네이버 TV 캐스트, 실황중계, Mnet 협력 등 새로운 미디어를 창작산실 작품의 확산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한 점은 창작품의 가치사슬 기반을 확대하고, 공연예술 소비자들과의 소통 기반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재교육사업의 경우, 예술인력 지원을 육성층위, 일자리 창출 및 안정화 층위, 재교육 층위 등으로 구분하여 층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방식을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전문 인력의 유형을 창작, 기획, 매개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설정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자율형 사업 뿐 아니라 기획형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해외 거점 및 기관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형 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영국예술위원회와의 공동기금 조성 및 협력사업 추진 사례는 한국과 영국의 예술기관 협력 체계를 MOU 체결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와의 문화예술교류 협력 활동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의 자발적 공모 지원 참여 방식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 기획리서치 지원, 국제교류플랫폼 협력 지원 등으로 세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해외문화기관협력 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외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 운영 사업의 경우, 예술감독제도를 운영하고, 글로벌 온라인 미디어와 해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시각예술창작 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목표로 “한국적 담론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가진 우수 전시 콘텐츠 생산”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가 시각예술 창작 육성 사업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의 경우, 공연예술 행사의 목적, 맥락, 프로그램, 추진역량 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성을 지원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재교육 사업의 경우, 1년 단기 사업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실질적인 지원 인력의 활동 기간은 단축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지속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사업과 공연예술해외진출 기반 마련 사업의 집행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사업 성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성과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문학광장운영의 경우 문장웹진, 글틴, 문학집배원 등 정보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콘텐츠의 유통 및 이용환경이 모바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모바일기반 중심으로 소통채널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창작 사업의 경우, 비평 결과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금 또 다른 비평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소셜비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신진 작가 창작 및 전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진 작가에 대한 비평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4차산업혁명시대의 문화예술과 기술 및 미디어 융합 플랫폼 구축에 관한 연구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융복합 기반의 협업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원심의기준 및 성과관리 차원에서 예술성을 핵심요소로 고려하되, 시장성,

공공성, 예술경영 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예술인력 재교육사업의 경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이 예술 인력을 지속,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년 정도의 다년도 사업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공연예술해외진출기반 마련 사업 담당)와의 역할체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총체적인 사업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해외문화기관 협력사업의 경우, 사전 조사 연구와 협의 체계를 갖추고, 이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지원예술인 및 단체 만족도 지표, 지원 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 미술관 이용자수, 미술관이용자 만족도 등의 지표는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재교육 사업의 경우, 교육생 만족도는 교육 프로그램이 신진 및 현장 예술 인력의 창작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및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교류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지표와 해외창작거점 연계활동 수 지표는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문학창작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수와 문학사업 참여 작가수는 재정 등의 투입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문학창작 육성사업의 결과 및 영향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문학창작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의 경우, 측정산식에서 문학집필공간 관객수를 합산하는 것은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실적치가 포함되어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창작지원 평균 참여 관람객수, 평균 창작작품수, 평균 창작 비평건수 등은 지원사업의 투입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평균 관람객수의 측정산식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참여 관객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온라인참여 관객수는 오프라인 전시 관객에 비해 관람시간 및 참여열의 등의 측면에서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관객수 변동폭이 커 지표의 안정성을 매우 저해할 수 있는 측정치라고 판단됨.
- 공연예술 창작지원 평균창작작품수 지표의 경우, 투입에 따른 산출 수준의 지표로서 구체적으로 평균창작작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투입되는 재정규모에 따라 창작작품수의 규모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공연예술가 및 공연예술단체의 활동과 창작작품수의 관계에 관한 인과모델이 정립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지표의 활용도가 다소 낮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재교육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 참여관객수는 전문 인력 양성과 고용지원을 통해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지원 사업 참여 관객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전문 인력의 확보 외에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 참여관객수의 변화가 예술인력 지원사업의 결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 지표의 경우, 관객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지표로 활용할 경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 지원사업에서 국제예술교육 지원 사업 관객수가 중요한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지표의 경우, 사업 최종 수혜자 인원을 측정하여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참여 관객수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문학창작 지원 사업이 실제로 문학 창작 인력 양성, 문학 시장, 문학인의 사회참여 등 문학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산출 보다는 결과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창작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결과 및 영향 수준의 성과지표를 개

발하는 방안을 지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컨대, 지원받은 미술관의 경우, 지원성과로 공간 가동률의 향상, 연간 관람객수 증가 등을 성과지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단년도 사업 성과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가칭 “공연예술창작 환경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연창작 활성화 사업이 2년도는 3년 후에 실제로 현장의 공연예술 창작 환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재교육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 참여 관객수 지표를 재검토하고, 예술현장 전문 인력의 만족도 지표, 사업종료후 지속 일자리창출 수 지표 등을 신규지표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사업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성과달성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성과지표(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명), 해외창작거점 연계활동 수(건))의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판단됨. 또한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 지표를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 사업 참여 작가수, 문학창작지원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미술관이용자 만족도 지표의 경우,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 만족도의 경우, 목표치를 전년도 달성치와 최근 3년간의 지속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재교육 사업의 경우, 교육만족도, 현장예술인력 일자리 창출수, 지원사업 참여관객수 모두 전년도 목표치와 달성도, 예산규모 변화에 초점을 두고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판단되며, 대내외 환경변화, 현장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16년도 기관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였고, 신규지표의 경우 3개년 표준편차의 120%를 목표치로 설정하는 등 목표치 설정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

- ‘기관협력 국제교류사업 추진건수’ 지표의 목표치는 14년, 15년, 16년 3개년 목표치가 합리적 향상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15년 실적이 23건으로 달성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16년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부정적 측면]

- 문학창작 육성사업의 경우,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 문학창작지원 프로그램 참여관객수, 문학창작참여작가수 지표의 경우, 다소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창작 육성사업의 경우, 예술인(예술단체) 만족도, 평균 관람객수, 미술관 이용자 수 지표의 경우, 다소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창작 지원 예술인(단체) 만족도, 공연예술창작지원 평균 창작작품의 수 지표의 경우, 목표설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재교육 사업의 경우, 교육만족도와 지원사업 참여관객수 지표의 목표치는 전년도 성과목표치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다소 소극적인 성과목표치로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와 해외창작거점 연계 활동수 지표의 경우, 기관경영 목표 설정치와 전년도 달성치를 참고로 하여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현장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진단 결과를 목표치 설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수의 경우, 2015년 달성치가 4,487,256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목표치는 1,953,800명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지원 예술인단체 만족도 수준을 만족도가 낮은 현실적인 상황과 실질적인 달성 목표를 고려하여 다소 하향조정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여작가수 및 참여관객수 지표의 경우, 기관경영목표・투입예산증감・유사기관/사업 평균성장율 등의 수치를 바탕으로 목표치 설정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재교육사업의 경우, 목표치 설정을 위한 예술인력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사전에 예술인력이 지원되어 활동하게 될 예술단체 및 기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간담회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창작육성 사업의 예산 집행률 92.7%로 나타났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8.75%, 시각예술차악지원 공간운영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7.4%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창작 육성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은 95.5%를 달성하여 양호한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전년도 89.9% 집행률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 예술인력재교육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은 97.5%를 달성하였으며, 과거 3개년 집행율의 추세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강화를 구성하는 각 세부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94.7%를 달성하여 양호한 집행률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문학창작산실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 포기 등의 사례가 2건 발생되어 예산집행율이 91.4%로 나타났으며, 분기별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하반기에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에서 2개 단체 2개 사업의 중도 포기로 1.4백만 원의 미집행 불용액이 남음.
- 대관공연장 운영사업의 예산집행률은 84.8%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재교육 사업의 경우, 당초 분기별 예산 계획과 달리 하반기에 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예산계획과 정합성이 미흡하게 나타남.

[개선제안]

- 지원사업 포기로 인한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포기 원인을 진단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와 불확실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측하여 사업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재교육 사업의 경우, 예산이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예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기획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사업의 경우, 주관처와 사전협의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준비함으로써, 사업포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하향추세를 보이는 원인을 제도, 선정과정, 실행과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실행함으로써 예산집행률을 제고함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전문평가단, 관객평가단,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사업현장평가, 예술단체에 대한 컨설팅, 심층인터뷰, 만족도 조사 등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기관 담당자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유선, 전자우편, 현장 면담 등의 상시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예술가국제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참가후기 발표회를 통해 참가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개별 사업별 특성에 따른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예술창작 역량 강화 사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현장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현장실태 점검 등 종합적인 점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지원 사업 개시 이후 지원 단체 및 지원인력에 대한 시점별 점검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 활동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국제 역량 강화 사업과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로 사업 관리 차원에서 담당 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현장의 전문가 활용 평가체계 구축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모니터링과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하여 문제탐색 및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 종료 시점에서 성과 평가 및 공유 워크숍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력 재교육사업의 경우, 교육생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현장 전문인력들과의 소통 워크숍을 활발하게 개최하여 현장 고객들의 관점에서 사업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해외 현지의 전문 문화예술 인력을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주간 사업 도입 첫해 시범사업으로 홍보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학 유관단체들과의 협력, 문학 주간 프로그램 북 제작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공간 지원과 지역 레지던스 사업간의 중복 우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심의부터 중복신청을 못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전시지원사업과 레지던시 사업과의 중복지원 사례를 파악하고, 예산을 조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일부 전시지원사업의 경우 전문기획자가 참여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시정하는 제도적 개선(공모조건 개선 등)을 이룬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탐색하고, 실제로 비평지원-창작지원사업 연계, 기관홍보채널과 연계한 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지원작품 관람객수와 수상건수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재교육 사업의 경우, 16년도 사업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선정 단체 대표 및 실무자 워크숍에서 연수단원 및 전문 인력이 연간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과정 수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자 실제적으로 필수 이수과목을 축소하여 현장 예술인력의 업무를 경감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해외레지던스 참여활동 과정에서 예술인들이 느끼는 레지던스 활동기준 등에 대한 의문점과 가이드라인 이해에 대한 불편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레지던스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개선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의 경우, 국제공동기금 사업 홍보 강화, 한영 문화예술교육 공동 기금 코디네이터 활용, 베니스비엔날레에 대한 해외 언론 대상 홍보 강화,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중복수혜자 방지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지원사업의 사업포기 등으로 예산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일부 성과지표가 목표치에 미달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과정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음
- 공연예술창작육성 사업의 경우, 선정단계의 지원방식이 변경되고 최종 미선정 예술인(단체)의 불만이 발생되었으나, 이에 대한 불만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블랙리스트 사태 등으로 인한 예술계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관차원에서 지원사업운영 투명성 제고, 지원서비스 품질제고, 대국민 창작활동 참여 확대 등 고객서비스 품질혁신 활동을 추진하기를 제안함.
- 예술가국제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그 동안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전 사업 매뉴얼을 개발하고, 참여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현장 문제 해결 역량을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창작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의 경우 목표치 94점에는 미치지 못하는 93.5점(달성률 99.5%)을 달성하였지만, 전년도 실적인 90.9점을 103.4% 초과하여 성과를 달성함
- 시각예술 창작육성 사업의 경우, 평균참여관객수 139.9%, 평균창작작품수 157%, 이용자수 123.7% 등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목표치를 초과하는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 만족도는 92.7로 계획 91.3 대비 101.5% 달성한 점 긍정적으로 평가됨.
- 예술인력 재교육 사업의 경우, 현장 예술인력 일자리 창출수 지표 달성률 102.2%, 지원사업 참여 관객수 지표 달성률 131.3%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지표와 해외창작거점 연계 활동수 지표 모두 100%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 세계화 사업의 경우, 기관협력 국제교류사업 추진건수 지표 달성율 100%, 한국예술 세계화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 지표 달성률 106.9%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문학창작 육성 사업의 경우, 지원예술인 및 단체 만족도는 78.4로 목표치 달성률이 87.1로 낮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매우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있음.
- 시각예술창작 육성사업의 경우, 성과지표중 예술인(단체) 만족도가 2013년 이래 지속 하락 추세에 있으며, 2016년에는 84.6% 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사업의 성과지표 중 미술관이용자만족도는 성과목표치 85점에 미달하는 81.8점을 달성하여 달성률 96.2% 에 그침.
- 공연예술창작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는 72.0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며, 계획 90.0 대비 달성율은 80.0으로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공연예술창작지원 평균 창작작품수의 경우, 달성율은 77.6%로 매우 낮은 상태

라고 할 수 있음.

- 예술인력 재교육 사업의 경우, 교육만족도는 73.6으로 낮고, 목표(90.0) 대비 달성률 또한 81.8%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만족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교류 지원예술단체 (인) 만족도가 72.1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목표치 달성률도 80.1로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의 경우, 지원예술단체(인)만족도가 72.1로 매우 낮으며, 지표 달성률 또한 81.9%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지원 예술인(단체)의 만족요인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불만족 요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단체)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진정성과 신뢰 기반의 소통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재교육 사업의 경우, 교육생과의 소통 워크숍을 통해 교육 불만족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무대예술인력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론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개편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축제, 사이버문학광장, 문예지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문학인, 청소년, 문학애호가 등 문학관계자들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아르코 미술관의 전시관람객 증가,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의 참여예술인수 증가 등 시각예술 창작육성 사업을 통해 예술가와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게 되었고, 이것은 창작역량강화와 문화예술 향수기회 증대라는 기관의 정책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 사업의 경우, 창작작품의 관객개발, 수상, 해외진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창작작품의 유통 확산을 위해 외부 플랫폼과의 홍보마케팅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재교육사업의 경우, 예술인력 육성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1,4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취업 가능성을 77.1% 수준으로 높게 달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이 국제사회에서의 예술가 활동 활성화, 예술가 네트워크 역량 강화, 국제 행사에서의 수상, 해외 협력기관 확대 등의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가 개별 사례 소개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종합적인 자료 조사 체계 구축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해외문화기관 협력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 국제기구 및 해외 예술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교류협력을 통한 실질적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종합적인 전략 보다는 개별 사례별로 대응하는 방식의 추진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사업의 경우, 커미셔너와 예술감독의 역할체계 정립, 구글컬쳐인트스티튜트에 한국관 온라인 전시 개관을 통한 전시성과 공유 및 확산체계 구축, 해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한국관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문학창작 육성 사업이 구체적으로 문학인, 청소년, 온라인 미디어 이용자, 문학애호가 등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자료는 미흡하고, 성과지표의 달성율이 다소 낮다고 판단됨.
-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현대 미술 소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 활동을 미흡했다고 판단됨.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젝트 영문홈페이지의 경우,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점도 문제라고 판단됨.
- 예술인력재교육사업의 경우,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다소 낮고, 새로

운 기술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구개발 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의 국제예술교류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세 가지 지원유형(국제예술교류 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에 따른 사업목적 및 성과관리 체계의 차별화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온라인 전시회와 함께 온라인 토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고객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체적인 연계, 구매, 교류 협력실적에 대한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대관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대관장 운영사업을 공간대관 지원 사업 맥락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은 예술계의 산 증인인 원로예술인 조명, 참여, 공유 등의 맥락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의 경우 타 세부사업과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단위를 재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재교육사업의 경우, 교육생들의 수료 후 취업 및 진로를 추적 관리하고 컨설팅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차원의 인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국제적인 활동에 대한 추적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개선과제

□ 계획

○ 뉴미디어 기반의 예술창작, 유통, 향유 활성화 체계 구축

- 예술, 기술, 미디어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예술 창작 지원체계 또한 뉴미디어 기반의 예술 플랫폼 체계 구축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접근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예술 창작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중요한 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뉴미디어 기반의 예술창작, 유통, 향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 창작 활성화 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문학 광장 사업의 플랫폼을 모바일 미디어 기반으로 확장하고, 사이버문학 광장 지원사업의 영향을 평가하여 향후 사이버 문학 광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7년차 지속되고 있는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영향연구를 실시하여 온라인 작품전시회를 비롯한 시각예술작가 홍보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의 경우, 창작, 고객개발, 유통, 마케팅 등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및 미디어와의 융합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하여 융복합 기반의 공연예술 창작 실험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공연예술단체의 다양한 뉴미디어 마케팅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보완 및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 투입과 산출 수준을 넘어 결과 및 영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타당한 성과목표치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수년간의 성과목표치와 달성값, 그리고 예술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면서도 보다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원로예술인 조명-참여-공유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 원로연극제,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원로금빛제전 등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조명” “참여” “공유”의 키워드를 새롭게 설정하고, 원로예술인들의 업적과 활동에 대한 역사적 조명, 원로예술인들과 신진예술가가 함께 하는 공연 활동, 원로예술인과 함께 하는 공연 이야기 워크숍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4차산업 혁명 시대의 무대예술 인력 양성 교육과정 체계 연구

- 국내외의 유일한 공공 무대예술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브랜딩을 강화하고,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신 기술 및 미디어와의 융합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 예술가들의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문화예술교류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집행

○ 예산 미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 지원사업 포기로 인한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업포기자(단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페널티를 마련함
- 사업 시기를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사업포기자(단체)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조치함으로써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다년도 사업을 통한 사업 효과성 증진

- 예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다년사업으로 변경하여 고용의 지속성 보장과 정규직화 비율의 제고 및 예술기업의 예측 가능한 경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 아르코미술관의 고객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 아르코미술관은 “실험적이고 국제적인 분야에 특화”된 전시기능 차별화 시도, 지원사업과 연관된 전시 및 자체 기획전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카이브 구축,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관람객규모가 늘어나고, 관람객 만족도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여전히 홍보마케팅 강화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람객 구조를 분석하여 고객개발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고객개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 강화

- 기초사업, 세세부사업, 세부사업을 연계한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분기별로 종합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제점 도출, 문제해결, 컨설팅, 차년도 사업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산집행률, 성과지표달성률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예술가국제역량 강화 사업과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의 경우,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해외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해외 현지의 국내외 예술가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

○ 예술가(예술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및 사회적 신뢰 회복

- 문학창작 육성사업, 시각예술창작 육성사업, 공연예술창작 육성 사업 모두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의 고객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신뢰와 진정성 기반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고객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불만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단계, 집행단계, 성과평가 및 환류단계에서 지

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과의 소통 워크숍을 추진하고, 지원 사업의 성과를 문화예술계와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교육 참여자 사후 관리체계 구축

- 교육생들의 수료 후 취업 및 진로를 추적 관리하고 컨설팅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차원의 인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함

○ 성과 경험 및 노하우 공유 플랫폼 구축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한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향후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자료집, 성과공유 워크숍, 온라인 자료 공개,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소통 워크숍 등 성과 경험 및 노하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해외문화예술 기관 협력 네트워크 지속 확대

- 해외문화예술 기관 협력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협력 네트워크 지역과 국가를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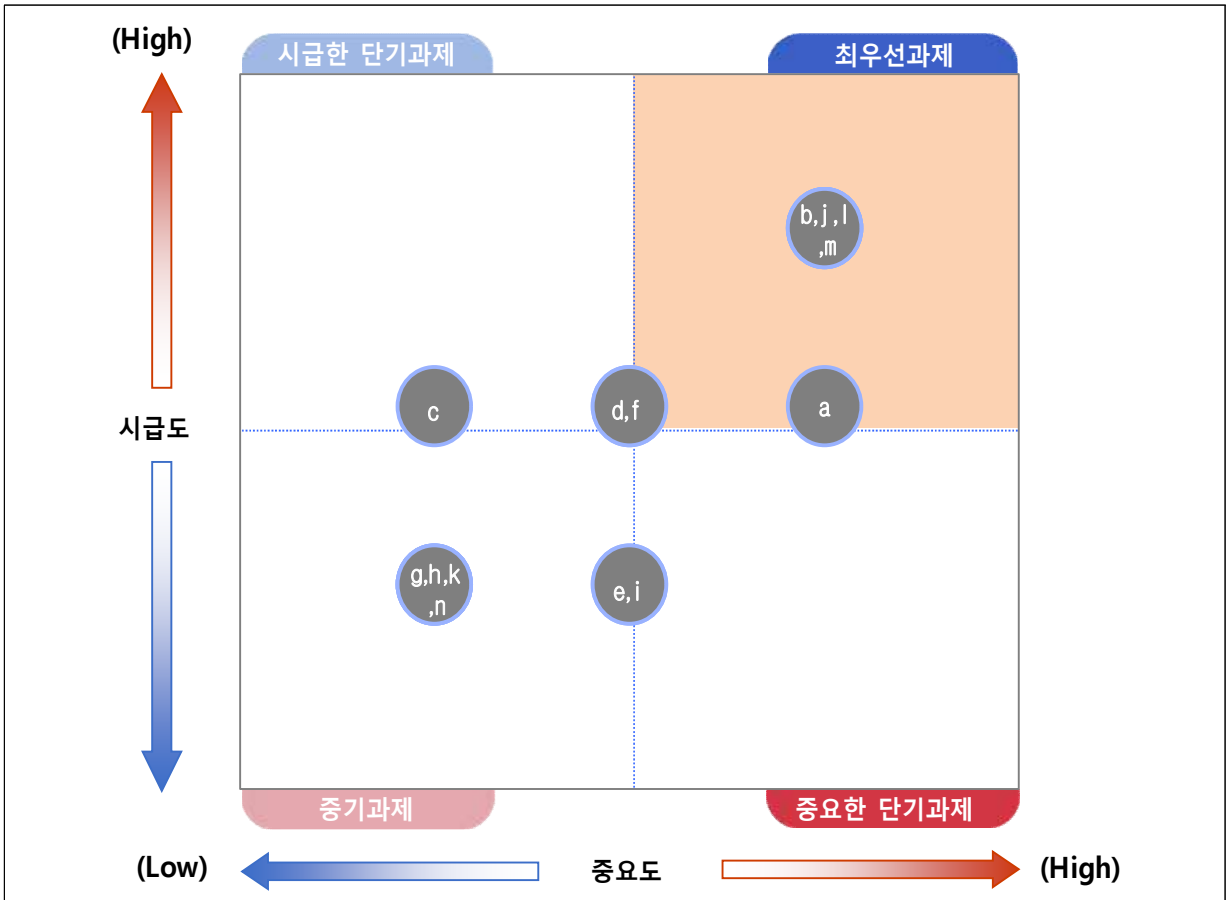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파급효과 및 영향 연구

- 사이버문학광장 사업, 청소년대상 문학창작산실 사업, 글틴 등은 청소년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청소년 관련 문학창작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된 문학창작 지원 사업이 청소년 문학 활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사업 평가를 산출 수준을 넘어 결과 및 영향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종료 시점 이후에도 지원 사업이 실제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 그리고 공연예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년 또는 3년 마다 정기적으로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시원사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력 지원사업이 실제로 문화예술 현장의 고용 창출에 미치는 경로와 효과를 연구하여 예술인력 지원사업과 고용 창출 관계를 실증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뉴미디어 기반의 예술창작, 유통, 향유 활성화 체계 구축	5
계획	**b**	**성과지표 보완 및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1**
계획	c	원로예술인 조명, 참여, 공유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8
계획	d	4차산업 혁명시대의 무대예술 인력 양성 교육과정 체계 연구	6
계획	e	국제예술교육지원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8
집행	f	예산미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6
집행	g	다년도 사업을 통한 사업 효과성 증진	11
집행	h	아르코미술관의 고객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11
집행	i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8
성과	**j**	**예술가(예술단체)와의 소통 활성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	**1**
성과	k	교육 참여자 사후 관리체계 구축	11
성과	**l**	**성과 경험 및 노하우 공유 플랫폼 구축**	**1**
성과	**m**	**해외문화예술기관 협력 네트워크 지속 확대**	**1**
성과	n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파급효과 및 영향 연구	11

1분과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세부사업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1분과 세부사업 최종보고서

예술창작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장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 년도 / 1974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317억원, 예술가·단체의 창작활동 400건 내외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사업 수혜자 : 예술단체·예술인 및 국민

○ 지원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예술단체 및 개인	22.4% ~ 90%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문화부 훈령) 제2장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보조비율)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예산	'15 예산(A)	'16 예산(B)	증 감(B-A)	%
■ 문학창작육성	3,200	3,200	3,080	△ 120	△ 3.8
■ 시각예술창작육성	4,532	3,632	3,200	△ 432	△ 11.9
■ 공연예술창작육성	40,538	22,640	21,110	△ 1,530	△ 6.8
■ 융복합예술창작지원	2,185	2,230	-	△ 2,230	순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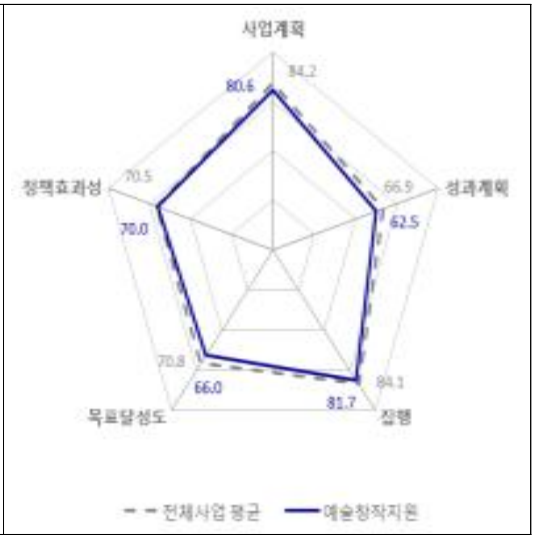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예술창작지원」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5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0.6점, ‘성과계획’ 62.5점, ‘집행’ 81.7점, ‘목표달성도’ 66.0점, ‘목표달성도’ 70.0점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3.6), 성과계획(-4.4), 집행(-2.4), 목표달성도(-4.8), 정책효과성(-0.5) 영역이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3점)	2.5	83.3	80.6
	1-2(3점)	2.4	79.2	
	1-3(4점)	3.2	7932	
성과계획	2-1(5점)	3.8	75.0	62.5
	2-2(5점)	2.5	50.0	
집행	3-1(15점)	12.4	82.5	81.7
	3-2(5점)	4.2	83.3	
	3-3(10점)	7.9	79.2	
목표달성도	4-1(30점)	19.8	66.0	
정책효과성	5-1(20점)	14.0	7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 「예술창작지원」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4.8(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집행’ 항목 중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이며 83.3점으로 평가됨

○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 항목 중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며 5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문학창작 육성 사업, 시각예술창작 육성 사업, 공연예술창작 육성 사업 모두 창작산실 브랜드를 기반으로 연구, 창작, 발표, 비평, 아카이브 등 다각적인 창작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술 창작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신진 예술가 및 기획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예술창작 지원 사업은 문학주간 축제, 사이버문학광장, 아르코미술관 활성화, 어린이청소년 관객 개발 등을 통해 예술가와 국민들의 소통 플랫폼을 강화하고, 참여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산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국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여전히 만족도와 규모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사이버문학광장, 예술과 기술의 연계, 문예지 아카이브 구축, 코리안아티스트 프로젝트, 공연예술 온라인 미디어 유통 및 마케팅 등 예술창작 지원 사업에서 과학기술과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점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흐름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직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개방과 공유, 창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결과물인 창작품을 아르코 미술관의 전시와 연계함으로써 창작과 전시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미술관 운영 사업은 미술주간과 연계하여 토크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고, 전시 연계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함으로써 관람객 수를 확대하고, 관람객 만족도를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미술관은 고객 개발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지원체계를 실연심의(쇼케이스), 제작지원, 재공연 등으로 세분화하고, 창작산실 작품의 확산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 점,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평론가, 연출가 뿐 아니라 기획, 제작사,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확대한 점은 기존의 제작 및 공연 중심의 지원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는 고객만족도 지표 외에는 대부분 투입과 산출 수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 및 영향 수준의 지표가 취약한 실정이며, 목표치 설정의 합리적 근거가 다소 미흡하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예산집행률은 문학창작육성사업 평균 92.7%, 시각예술창작 육성사업 평균 98.7%, 공연예술 창작 육성사업 95.5%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나, 시각예술 비평지원사업과 대관공연장 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각각 76%, 84.8%로 다소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술창작지원 사업에 대한 예술단체(인)의 만족도는 문학창작 육성 사업 78.4, 시각예술창작 육성 사업 84.6, 공연예술창작 육성 72.0 등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원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예술단체(인)과의 소통 활성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통해 예술창작 생태계의 핵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술단체(인)의 만족도를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 창작육성 사업의 목표로 문학 창작과 확산을 포괄적으로 설정한 점은 문학 창작환경을 개선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문학 확산과 관련된 독자 수요 창출 전략이 다소 추상적이고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예비 작가, 영재, 차세대 작가, 유망작가 등 지원 대상 집단을 세분화하여 문학 창작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은 문학 창작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 지원사업의 경우, 연구, 창작, 전시, 지역순회 활동을 연계한 창작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작지원 결과물인 창작품이 실제로 전시 및 발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작 활성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차세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자 뿐 아니라 기획자인 큐레이터를 중요한 지원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신진 큐레이터의 양성 및 활동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창작 육성사업의 경우, 신진예술가 발굴, 작곡가 및 극작가 양성, 전통예술분야의 신진 기획자 양성, 새로운 공연 창작 실험 활동 등 새로운 공연예술 인력 양성 및 창작 실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은 향후 공연예술생태계에 인력 기반 구축 및 공연예술의 다양성 증진 차원에서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네이버 TV 캐스트, 실황중계, M.net 협력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한 점은 창작 활동과 마케팅 활동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사업의 파급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문학 창작육성 사업의 경우, 실제로 사이버 문학 광장 사업이 문학 창작 활동과 문학 향유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육성사업의 경우,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원로연극제, 원로금빛제전 등

원로예술인에 초점을 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왜 '원로예술인' 인가에 대한 사업목적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예컨대, 원로금빛제전 사업의 경우, '소외된 지역의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 와 '지역문화발전' 를 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와 연계체계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육성 사업의 경우,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한국의 현대 미술을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으로 디지털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업목표와 성과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및 미디어 환경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계획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사이버 문학 광장 사업의 문학 창작 및 향유 플랫폼 구축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목적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가상공간 관람객수, 관람객 구조, 미술품 거래 실적, 교류협력 실적 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원로예술인과 연관된 사업의 경우, 원로예술인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단지 원로예술인들의 문화복지 차원을 넘어, 원로예술인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조망이나 원로예술인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원로예술인과 신진 예술인들의 협업 활성화 등으로 사업 목적을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신진 작가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연구비, 창작집필료, 작품집 출판 지원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문학창작산실 사업은 일부 지역문화재단, 민간재단 등의 유사사업이 일부 있으나, 전국단위 대상이라는 점과 문학콘텐츠 보존 측면에서 고유성이 있다고 판단됨.
- 아르코 미술관의 경우, 미술관의 전시 방향을 "장르융합형 전시", "새로운 담론형성 주체 기획전", "아르코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설정하여 다른 공

공 및 민간 미술관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공연창작 활성화 지원사업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원방식의 차별성을 시도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나, 지원 목적과 지원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시각예술 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레지던스 지원사업 및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과정에서 조정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사업목표, 지원체계, 사업성과 측면에서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공연예술 행사가 전국적인 차원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연예술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의 차별성에 대해 '지원방식의 차이'에 한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창작산실사업과 창작뮤지컬육성사업의 경우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작품지원사업과 수혜대상의 범위와 사업방식에 차별성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사업의 내용이 유사 · 중복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사업과 수혜대상이나 사업의 내용 등에서 유사 · 중복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시각예술 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차원의 공간 지원사업과는 다른 국가 차원의 차별적인 지원목적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 창작 활성화 사업에 관한 방향 정립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계자들의 협의와 조정 회의를 상설로 추진하여 사업의 차별성과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문학창작 육성 사업의 경우, 신진 문학인을 위한 창작 지원을 조사연구비, 집필료,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영재, 차세대, 유망 단계별 작가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작가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사이버문학광장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방문자수 전년 대비 21% 증가, 우수 문예지 콘텐츠 아카이빙 체계 구축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시각예술 창작 육성 사업의 경우, 연구, 창작, 전시, 공간, 비평 등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각예술 창작 지원사업의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시각분야 심의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인터뷰 심사 도입, 최대 3차 심의 심사 이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집중지원 등을 실시한 점은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창작 육성 사업의 경우, 지원체계를 실연심의(쇼케이스), 제작지원, 재공연지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작품제작 지원을 재정지원, 공연장 제공, 전문인력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으로 다각화한 점은 공연시장 맥락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의 평론가 및 연출가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획, 제작사, 마케팅 전문가로 확대한 점은 공연예술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창작 육성 사업의 경우, 네이버 TV 캐스트, 실황중계, Mnet 협력 등 새로운 미디어를 창작산실 작품의 확산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한 점은 창작품의 가치사슬 기반을 확대하고, 공연예술 소비자들과의 소통 기반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시각예술창작 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목표로 “한국적 담론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가진 우수 전시 콘텐츠 생산”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가 시각예술 창작 육성 사업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의 경우, 공연예술 행사의 목적, 맥락, 프로그램, 추진역량 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성을 지원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문학광장운영의 경우 문장웹진, 글틴, 문학집배원 등 정보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콘텐츠의 유통 및 이용환경이 모바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모바일기반 중심으로 소통채널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창작 사업의 경우, 비평 결과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금 또 다른 비평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소셜비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신진 작가 창작 및 전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진 작가에 대한 비평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4차산업혁명시대의 문화예술과 기술 및 미디어 융합 플랫폼 구축에 관한 연구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융복합 기반의 협업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원심의기준 및 성과관리 차원에서 예술성을 핵심요소로 고려하되, 시장성, 공공성, 예술경영 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지원예술인 및 단체 만족도 지표, 지원 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 미술관 이용자수, 미술관이용자 만족도 등의 지표는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문학창작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수와 문학사업 참여 작가수는 재정 등의 투입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문학창작 육성사업의 결과 및 영향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문학창작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의 경우, 측정산식에서 문학집필공간 관객수를 합산하는 것은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실적치가 포함되어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창작지원 평균 참여 관람객수, 평균 창작작품수, 평균 창작 비평건수

등은 지원사업의 투입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평균 관람객수의 측정산식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참여 관객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온라인참여 관객수는 오프라인 전시 관객에 비해 관람시간 및 참여열의 등의 측면에서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관객수 변동폭이 커 지표의 안정성을 매우 저해할 수 있는 측정치라고 판단됨.

- 공연예술 창작지원 평균창작작품수 지표의 경우, 투입에 따른 산출 수준의 지표로서 구체적으로 평균창작작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투입되는 재정규모에 따라 창작작품수의 규모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공연예술가 및 공연예술단체의 활동과 창작작품수의 관계에 관한 인과모델이 정립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지표의 활용도가 다소 낮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문학창작 지원 사업이 실제로 문학 창작 인력 양성, 문학 시장, 문학인의 사회참여 등 문학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산출 보다는 결과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창작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결과 및 영향 수준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지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컨대, 지원받은 미술관의 경우, 지원성과로 공간 가동률의 향상, 연간 관람객수 증가 등을 성과지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단년도 사업 성과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가칭 “공연예술창작 환경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연창작 활성화 사업이 2년도는 3년 후에 실제로 현장의 공연예술 창작 환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 사업 참여 작가수, 문학창작지원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미술관이용자 만족도 지표의 경우,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 만족도의 경우, 목표치를 전년도 달성치와 최근 3년간의 지속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문학창작 육성사업의 경우,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 문학창작지원 프로그램 참여관객수, 문학창작참여작가수 지표의 경우, 다소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창작 육성사업의 경우, 예술인(예술단체) 만족도, 평균 관람객수, 미술관 이용자 수 지표의 경우, 다소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창작 지원 예술인(단체) 만족도, 공연예술창작지원 평균 창작작품의 수 지표의 경우, 목표설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지원 예술인 단체 만족도 수준을 만족도가 낮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달성 목표를 고려하여 다소 하향 조정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여작가수 및 참여관객수 지표의 경우, 기관경영목표 · 투입예산증감 · 유사기관/사업 평균성장율 등의 수치를 바탕으로 목표치 설정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창작육성 사업의 예산 집행률 92.7%로 나타났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8.75%, 시각예술차악지원 공간운영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7.4%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창작 육성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은 95.5%를 달성하여 양호한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전년도 89.9% 집행률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부정적 측면]

- 대관공연장 운영사업의 예산집행률은 84.8%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지원사업 포기로 인한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포기 원인을 진단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와 불확실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측하여 사업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전문평가단, 관객평가단,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사업현장평가, 예술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기관 담당자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유선, 전자우편, 현장 면담 등의 상시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개별 사업별 특성에 따른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예술창작 역량 강화 사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모니터링과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하여 문제탐색 및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 종료 시점에서 성과 평가 및 공유 워크숍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주간 사업 도입 첫해 시범사업으로 홍보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학 유관단체들과의 협력, 문학 주간 프로그램 북 제작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공간 지원과 지역 레지던스 사업간의 중복 우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심의부터 중복신청을 못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전시지원사업과 레지던시 사업과의 중복지원 사례를 파악하고, 예산을 조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일부 전시지원사업의 경우 전문기획자가 참여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시정하는 제도적 개선(공모조건 개선 등)을 이룬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탐색하고, 실제로 비평지원-창작지원사업 연계, 기관홍보채널과 연계한 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지원작품 관람객수와 수상건수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지원사업의 사업포기 등으로 예산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일부 성과지표가 목표치에 미달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과정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음
- 공연예술창작육성 사업의 경우, 선정단계의 지원방식이 변경되고 최종 미선정 예술인(단체)의 불만이 발생되었으나, 이에 대한 불만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블랙리스트 사태 등으로 인한 예술계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관차원에서 지원사업운영 투명성 제고, 지원서비스 품질제고, 대국민 창작활동 참여 확대 등 고객서비스 품질혁신 활동을 추진하기를 제안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창작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의 경우 목표치 94점에는 미치지 못하는 93.5점(달성률 99.5%)을 달성하였지만, 전년도 실적인 90.9점을 103.4% 초과하여 성과를 달성함
- 시각예술 창작육성 사업의 경우, 평균참여관객수 139.9%, 평균창작작품수 157%, 이용자수 123.7% 등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목표치를 초과하는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 만족도는 92.7로 계획 91.3 대비 101.5% 달성한 점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문학창작 육성 사업의 경우, 지원예술인 및 단체 만족도는 78.4로 목표치 달성률이 87.1로 낮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매우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있음.
- 시각예술창작 육성사업의 경우, 성과지표중 예술인(단체) 만족도가 2013년 이래 지속 하락 추세에 있으며, 2016년에는 84.6% 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사업의 성과지표 중 미술관이용자만족도는 성과목표치 85점에 미달하는 81.8점을 달성하여 달성률 96.2% 에 그침.
- 공연예술창작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는 72.0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며, 계획 90.0 대비 달성율은 80.0으로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공연예술창작지원 평균 창작작품수의 경우, 달성율은 77.6%로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음.

[개선제안]

- 지원 예술인(단체)의 만족요인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불만족 요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단체)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진정성과 신뢰 기반의 소통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축제, 사이버문학광장, 문예지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문학인, 청소년, 문학애호가 등 문학관계자들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아르코 미술관의 전시관람객 증가,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의 참여예술인수 증가 등 시각예술 창작육성 사업을 통해 예술가와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게 되었고, 이것은 창작역량강화와 문화예술 향수기회 증대라는 기관의 정책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 사업의 경우, 창작작품의 관객개발, 수상, 해외진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창작작품의 유통 확산을 위해 외부 플랫폼과의 홍보마케팅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문학창작 육성 사업이 구체적으로 문학인, 청소년, 온라인 미디어 이용자, 문학애호가 등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자료는 미흡하고, 성과지표의 달성율이 다소 낮다고 판단됨.
-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현대 미술 소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 활동을 미흡했다고 판단됨.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젝트 영문홈페이지의 경우,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점도 문제라고 판단됨.

[개선제안]

-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온라인 전시회와 함께 온라인 토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고객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체적인 연계, 구매, 교류 협력실적에 대한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대관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대관장 운영사업을 공간대관 지원 사업 맥락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은 예술계의 산 증인인 원로예술인 조명, 참여, 공유 등의 맥락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의 경우 타 세부사업

과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단위를 재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개선과제

□ 계획

○ 뉴미디어 기반의 예술창작, 유통, 향유 활성화 체계 구축

- 예술, 기술, 미디어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예술 창작 지원체계 또한 뉴미디어 기반의 예술 플랫폼 체계 구축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접근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예술 창작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중요한 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뉴미디어 기반의 예술창작, 유통, 향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 창작 활성화 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문학 광장 사업의 플랫폼을 모바일 미디어 기반으로 확장하고, 사이버문학 광장 지원사업의 영향을 평가하여 향후 사이버 문학 광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7년차 지속되고 있는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영향연구를 실시하여 온라인 작품전시회를 비롯한 시각예술작가 홍보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의 경우, 창작, 고객개발, 유통, 마케팅 등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및 미디어와의 융합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하여 융복합 기반의 공연예술 창작 실험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공연예술단체의 다양한 뉴미디어 마케팅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보완 및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 투입과 산출 수준을 넘어 결과 및 영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타당한 성과목표치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수년간의 성과목표치와 달성값, 그리고 예술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면서도 보다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원로예술인 조명-참여-공유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 원로연극제,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원로금빛제전 등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조명” “참여” “공유”의 키워드를 새롭게 설정하고, 원로예술인들의 업적과 활동에 대한 역사적 조명, 원로예술인들과 신진예술가가 함께 하는 공연 활동, 원로예술인과 함께 하는 공연 이야기 워크숍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집행

○ 예산 미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 지원사업 포기로 인한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업포기자(단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페널티를 마련함
- 사업 시기를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사업포기자(단체)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조치함으로써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아르코미술관의 고객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 아르코미술관은 “실험적이고 국제적인 분야에 특화”된 전시기능 차별화 시도, 지원사업과 연관된 전시 및 자체 기획전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카이브 구축,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관람객규모가 늘어나고, 관람객 만족도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여전히 홍보마케팅 강화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람객 구조를 분석하여 고객개발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고객개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 강화

- 기초사업, 세세부사업, 세부사업을 연계한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분기별로 종합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제점 도출, 문제해결, 컨설팅, 차년도 사업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산집행률, 성과지표달성률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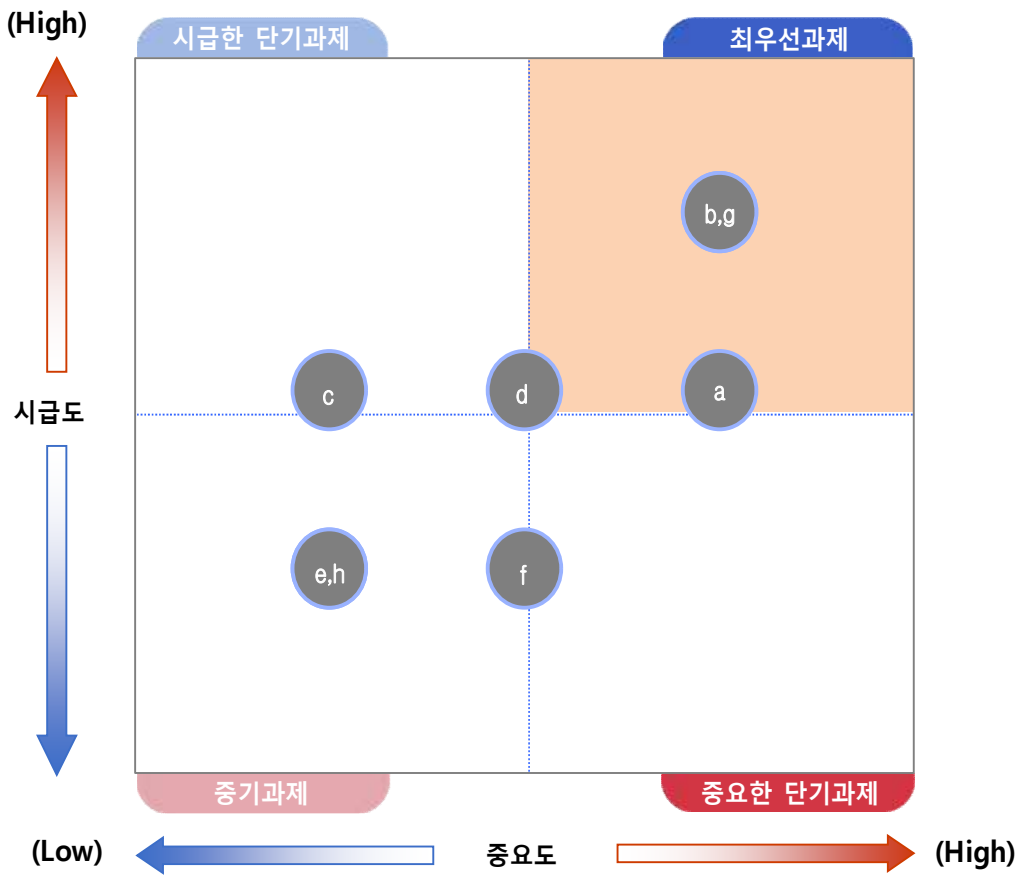
○ 예술가(예술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및 사회적 신뢰 회복

- 문학창작 육성사업, 시각예술창작 육성사업, 공연예술창작 육성 사업 모두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의 고객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신뢰와 진정성 기반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고객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불만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단계, 집행단계, 성과평가 및 환류단계에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과의 소통 워크숍을 추진하고, 지원사업의 성과를 문화예술계와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파급효과 및 영향 연구

- 사이버문학광장 사업, 청소년대상 문학창작산실 사업, 글틴 등은 청소년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청소년 관련 문학창작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된 문학창작 지원 사업이 청소년 문학 활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사업 평가를 산출 수준을 넘어 결과 및 영향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종료 시점 이후에도 지원 사업이 실제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 그리고 공연예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년 또는 3년 마다 정기적으로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시원사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뉴미디어 기반의 예술창작, 유통, 향유 활성화 체계 구축	3
계획	**b**	**성과지표 보완 및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1**
계획	c	원로예술인 조명, 참여, 공유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5
집행	d	예산미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4
집행	e	아르코미술관의 고객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7
집행	f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5
성과	**g**	**예술가(예술단체)와의 소통 활성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	**1**
성과	h	예술창작지원사업의 파급효과 및 영향 연구	7

1분과 세부사업 최종보고서

국제예술교류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외 국제교류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문화예술 국제교류 거점 확대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 예술단체·예술가의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

○ 예술인의 해외 창작스튜디오(artist in residence)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 민간의 국제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문화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 확보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1974년 ~ 계속사업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사업수혜자 : 예술단체 및 예술인,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예술단체 및 개인	정액지원	문예진흥기금보조금운용지침 및 지원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액 정액지원

□ 예산현황

ㅇ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비	4,973	4,700	8,668	6,630	5,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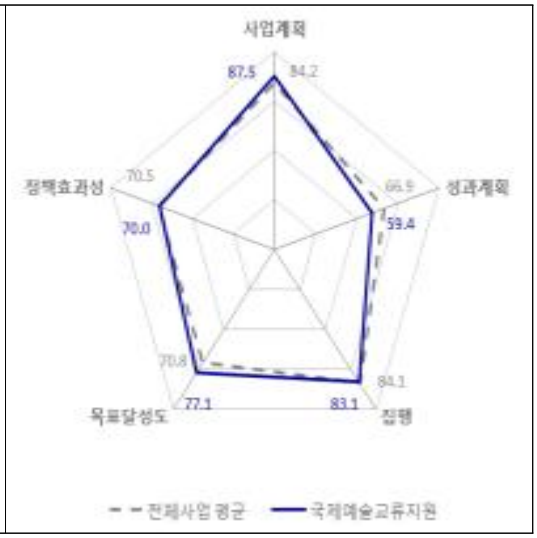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국제예술교류지원」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5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7.5점, ‘성과계획’ 59.4점, ‘집행’ 83.1점, ‘목표달성도’ 77.1점, ‘목표달성도’ 70.0점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3.3), 목표달성도(+6.3),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성과계획(-7.5), 집행(-1.0), 정책효과성(-0.5) 영역이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3점)	2.6	87.5	87.5
	1-2(3점)	2.6	87.5	
	1-3(4점)	3.5	87.5	
성과계획	2-1(5점)	3.1	62.5	59.4
	2-2(5점)	2.8	56.3	
집행	3-1(15점)	12.1	80.4	83.1
	3-2(5점)	4.1	81.3	
	3-3(10점)	8.8	87.5	
목표달성도	4-1(30점)	23.1	77.1	
정책효과성	5-1(20점)	14.0	7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 「국제예술교류지원」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7.8(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집행’ 항목 중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이며 87.5점으로 평가됨

○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 항목 중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며 56.3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의 세세부사업은 예술가국제역량강화 및 한국예술의세계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예술가 역량 강화 및 예술가 네트워크 구축, 예술가(작품)의 해외진출 거점 확보 및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전반에 있어서 사업별 모니터링은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다소 미흡하므로 사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은 국제사회에서의 예술가 역량 강화 및 예술가 네트워크 구축 관점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수요 또한 상당히 높으며, 사업의 내용이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예술가 창작수준을 제고하고 창작활동을 활성화함' 이라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전 매뉴얼 작성 및 안내, 사전 컨설팅 체계 구축, 현장 모니터링, 사후 평가 및 결과 공유 환경 조성 등이 총체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평가 체계 구축 및 관련 평가지표 자료 측정 및 활용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사후 성과 공유 체계 또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과정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성과지표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지원예술단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원예술단체들과의 소통과 협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예산집행 측면에서는 평균 예산 집행률은 94.7%를 달성하여 양호하나, 참여 예술가들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정보시스템(이메일, SNS, SMS 등 연계)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가세계화사업은 국내 민간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국제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작품)의 해외진출 거점을 공고히 하고,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을 구성하는 하위사업이 기관의 경영목표 및 전략방향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사업추진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 사업추진 전략체계를 구체화하고 구조화하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판단됨

○ 영국예술위원회와의 공동기금 조성 및 협력사업 추진 사례와 같은 해외문화기관협력사업의 경우, 문화예술 국제기구 및 해외 예술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교류협력을 통한 실질적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종합적인 전략 보다는 개별 사례별로 대응하는 방식의 추진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사업의 경우 커미셔너와 예술감독의 역할체계를 정립하고, 구글컬쳐럴인트스티튜트(Google Cultural Institute)에 한국관 온라인 전시 개관을 통한 전시성과 공유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한국관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은 긍정적 측면으로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의 예산집행 측면에서는 평균 예산집행률은 92.6%를 달성하였으며,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사업 97.4%, 해외문화기관협력사업 94.7%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비교적 양호한 집행률을 보였으나, 과거 3개년간 집행률이 점차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의 세세부사업 가운데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은 국제사회에서의 예술가 역량 강화 및 예술가 네트워크 관점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수요 또한 상당히 높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해외 진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예술가 창작 수준을 제고하고 창작활동을 활성화함'이라는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은 국제문화예술교류협력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문화예술교류체계 전반에 걸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예술가들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국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의 세세세부사업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사업을 통해 한국예술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 예술인의 해외 주요 무대 진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을 통해 영국예술위원회와 같이 한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기관의 교류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 상의 사업목적과 심층평가보고서 상의 사업목적과 사업목표의 연계성 기술 부분에서 제시한 사업목적의 내용이 상이하여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 상에서는 사업목적을 2개 제시하였으나 심층평가보고서 상의 사업목적과 사업목표의 연계성 기술 부분에서는 사업목적을 1개로 제시하여 혼동을 초래함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과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은 공통적으로 기관의 전략과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연계체계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문건에서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의 목적이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의 하위 사업들이 기관의 경영목표 및 전략방향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사업추진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 사업추진 전략체계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의 해외 창작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 지원 및 연구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인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은 여타 기관이나 민간의 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으며,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은 한국예술국제교류, 해외문화기관협력,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등을 통하여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 상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여타 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음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경우 2015년까지 한국문학번역원의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과 중복성이 존재하였으나 해당 한국문학번역 사업폐지를 완료함으로써, 사업의 고유성이 확보되었으며,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은 사업공모 시 지원신청 자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사업과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을 지원신청 조건으로 제시하여 중복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해외문화기관협력의 경우 유관기관(외교부 국제교류재단)과 일부 유사성이 있어 지원사업의 내용과 대상을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사업, 국제교류재단 문화교류 사업은 상호 간 연계·협의·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보다 긴밀한 협력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에서 예술가들의 해외파견을 통한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은 해외 예술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민간 차원에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의세계화사업에 있어서 한국예술국제교류사업은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 수행하기에는 해외네트워크역량, 재정 등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문예진흥기금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해외문화기관협력사업은 국내 주관기관에 대항 해외유관기관의 신뢰를 전제로 하고, 국제협력의 정책방향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자율형 사업 뿐 아니라 기획형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해외 거점 및 기관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형 사업체계를 구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극예술의세계화사업의 세세세부사업인 한국예술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의 자발적 공모 지원 참여 방식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 기획리서치 지원, 국제교류플랫폼 협력 지원 등으로 세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 해외문화기관협력 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외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 운영 사업의 경우 예술감독제도를 운영하고 글로벌 온라인 미디어와 해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사업과 공연예술해외진출 기반 마련 사업의 집행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사업 성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성과관리체계 구

축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의세계화사업의 경우 지원사업별로 지원신청액 대비 지원결정액의 비율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고 있으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사업의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사업임을 고려한다면 국내기업 및 관련단체의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사업의 양적 ·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아쉽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공연예술해외진출기반마련사업 담당)와의 역할체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총체적인 사업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극예술의세계화사업의 경우 해외문화기관협력사업의 경우 사전 조사 · 연구와 함께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연구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한편 지원결정액이 지원신청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원 건수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성과지표 가운데 문화예술교류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지표의 경우 본 사업이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국제적 창작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해외창작 거점 연계 활동 수 지표의 경우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실제로 예술가들이 해외에서의 창작 및 관련 활동을 어느 정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는 관객수 집계의 타당성에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기관의 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이 높고 지표의 안정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한극예술의세계화사업의 성과지표 가운데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지표는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행위자인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이 측정주

체로 참여하여 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어 지표의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되며, 기관협력 국제교류사업 추진 건수 지표는 재정규모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제 교류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이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예술세계화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 지표는 사업 최종 수혜자 인원을 측정하여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성과지표 가운데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 수 지표의 경우 관객 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예술교육 지원사업 관객 수가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해외창작거점 연계활동 수(건)의 경우 현지 활동 및 직접성과물(해당연도 파견 프로그램 수 + 현지 연구조사활동(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 현지 발표행사(강연, 공연, 오픈하우스) + 해당연도 저작 및 발간물 + 해당연도 수상실적)의 산출방식이 다소 복잡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가 다르고 성과의 중요도도 차이가 나는 만큼 지표의 타당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은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과 동일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두 개의 사업에 동일한 성과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사업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성과달성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성과지표(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명), 해외창작거점 연계활동 수(건))의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 수 지표를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의 산출방식을 단순화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산출된 달성값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해외창작거점 연계 활동 수 성과측정 산식을 구성할 때 성과항목별로 사업성과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건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할 때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은 예술가 중심의 성과지표를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은 프로그램과 단체 중심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16년도 기관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였고, 신규지표의 경우 3개년 표준편차의 120%를 목표치로 설정하는 등 목표치 설정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성과지표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명)의 경우 예산의 변동을 감안하여 적정한 성과 목표치를 반영하였으며, 성과지표 해외창작거점 연계활동 수(건)의 겨우 전년도 성과달성치 122건 보다 상향된 129건을 성과 목표치로 설정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의 경우 기관협력 국제교류사업 추진 건 수,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한국예술세계화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 등 비교적 효과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중 기관협력 국제교류사업 추진건수(건)는 전년도 55건 보다 10.9% 상향된 61건을 성과목표치로 설정하였고, ‘기관협력 국제교류사업 추진건수’ 지표의 목표치는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목표치가 합리적 향상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2015년 실적이 23건으로 달성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목표를 61건으로 의욕적으로 설정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문화예술교류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지표의 경우 기관경영 목표 설정치와 전년도 달성치를 참고로 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2014년 90.7에서 2015년 81.1로 성과달성치가 대폭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목표치를 90.0으로 다소 높게 설정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 수와 해외창작거점 연계 활동 수 지표의 경우 현장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진단 결과를 목표치 설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특히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는 2016년도 기관경영목표 설정과 연계한 할당치를 2016년 목표치(3,525,902명)로 설정하였다고는 하나, 2016년 달성치가 3,525,902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성과목표치

가 설정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의 3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 설정을 전년도 실적과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 성과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목표치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예술세계화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 수의 경우에 2015년 달성치가 4,487,256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목표치는 1,953,800명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음. 한편 지원예술단체(예술인) 만족도의 목표치가 지난 2014년(93.6점), 2015년(91.4점)에 이어 2016년도 88.3점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목표설정의 적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목표치 설정근거로 제시한 기관 경영목표치 할당방식은 만족도 지표에서 적용하기 어려우며 타당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는데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타당성 있는 성과목표치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년도 성과목표치와 달성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제안함. 또한 사업조정 등 외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에 논리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예술가 및 지정기관을 대상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고 예산 전용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통해 예산 미집행 금액을 줄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세세세부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94.7%를 달성하여 양호한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연초에 수립한 분기별 예산계획이 계획한 기간에 적정하게 집행됨으로써 예산집행의 정합성이 확보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의 세세세부사업인 한국예술국제교류와 해외문화기관협력사업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연초 수립한 분기별 예산계획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정합성이 높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의 경우 사업수행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미집행 금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함. 지원금 집행 잔액 반납, 사업포기에 따른 반납, 기관교류 관련 한국방문 대표단 인원수 감소에 따른 잔액 반납, 환율변동 등의 요인이 있었으나 예산집행률이 92.6%에 그친 것은 다소 미흡한 성과로 판단됨. 특히 최근 3개년 예산집행률이 2014년 99%, 2015년 96%, 2016년 92.6%로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예산집행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계획 및 집행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개선제안]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최근 3개년 간 예산집행율이 2014년 99.5%, 2015년 96.8%, 2016년에 94.7%로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집행률이 미흡한 원인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특히 자율형 사업보다는 기획형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획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사업의 경우 주관처와 사전협의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여 사업포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의 예산집행률이 하향추세를 보이는 원인을 제도, 선정과정, 실행과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실행함으로써 예산집행률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예술가 지원협약서 체결 및 사업설명회 개최, 예술가 개별 사업 컨설팅, 프로그램 참가 후기 발표회 실시,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점검을 통한 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특히 참가후기 발표회를 통해 참가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업추진 시 P-D-C-A 단계별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예술가별로 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이메일, SNS, 전화 등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의 경우 현지 반응, 홍보효과, 파트너기관 인터뷰, 개선점 발굴 등을 중심으로 해외 개최사업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각 사업별로 상시 모니터링 및 개별 사업단위별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개별적인 모니터링 체계는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베니스비엔날레 주간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직원 출장인원, 주요 문화예술매체 통신원, 재외공관 근무자, 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 베니스 현지 공간 매니저 등 현지 거주 인력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로 사업관리 차원에서 담당 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현장에서의 전문가를 활용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모니터링 실시주기가 예술가별 연 1회 이상으로 모니터링 횟수가 충분하지 않게 계획되어 있어 모니터링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별 모니터링이 주로 내부직원 출장 또는 주요 문화예술 매체 통신원, 재외공관, 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 등 현지거주인력을 활용하여 진행됨으로써 객관성과 전문성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
-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개별 사업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이 다소 미흡함

[개선제안]

-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 사업과 대표 사업 사업의 경우 전문가를 파견하여 보다 내실 있는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실행 및 점검(D-C)단계에서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의 방법, 주체, 시기 및 횟수 등을 구체화 ·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의 하위사업인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사후 성과 공유회와 참가후기 자료집 발간 등은 지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아카이빙 및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추진 단계별 모니터링과 연중 1:1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요구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해외레지던스 참여 예술인들이 느끼는 레지던스 활동기준 등에 대한 의문점과 가이드라인 이해에 대한 불편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레지던스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참여 예술인들의 결과보고 및 정산 관련 시스템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현지적응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지 파트너와의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지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 베니스비엔날레 사업 추진 시 효과적인 홍보전략의 미비, 국제교류사업 중복지원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자 현지 기관과의 격주 컨퍼런스 콜 방식 도입 및 한 · 영 문화예술교육 공동 기금 코디네이터 활용, 해외 언론 홍보대행사를 활용한 해외 유력매체 홍보,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중복수혜자 방지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을 모니터링하는데 있어서 실시목적, 실시시점, 실시방법,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개별 예술가들의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이메일, SNS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통채널이 정보시스템으로 집적되고 활용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축적된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전에 사업 매뉴얼을 개발하고, 참여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현장 문제 해결 역량을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예술가들이 해외레지던스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정보시스템(이메일, SNS, SMS 등 연계)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조속하게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성과지표는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와 해외창작거점 연계 활동 수 모두 100%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예술세계화사업 성과지표는 기관협력 국제교류사업 추진건수는 100%, 한국예술 세계화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 수는 106.9%의 성과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성과지표 가운데 문화예술교류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가 72.1로 절대 점수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성과목표치 달성률도 80.1로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는 성과목표치 3,525,902명 대비 3,525,902명을 달성하여 성과목표치 달성률 100%를 보이고 있으나 목표치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설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의 성과지표 가운데 지원예술단체(인)만족도가 72.1로 매우 낮으며, 성과목표치 달성률 또한 81.9%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과의 소통 및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뢰와 진정성 기반의 소통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성과지표 중 문화예술교류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점)가 성과목표치에 매우 미흡한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원예술단체(인)과의 소통 워크숍을 통해 불만족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성과지표 중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가 성과목표치에 미흡한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여 명확하게 규명하고 지원프로그램 품질제고 및 지원 프로세스 개선 등의 개선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함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이 국제사회에서의 예술가 활동 활성화, 예술가 네트워크 역량 강화, 국제 행사에서의 수상, 해외 협력기관 확대 등의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내 예술가들이 글로벌 창작 트렌드를 파악하고 한국예술가(작품)의 해외진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 수상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의 경우 한국예술국제교류사업은 민간부문의 국제예술교류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해외문화기관협력사업은 문화예술 국제기구 및 해외 예술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2016년 해외예술지원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총 61개(아시아 지역 8개, 유럽 지역 11개, 미주 지역 5개, 아프리카 지역 2개) 추진하였으며, 아시아 지역 외에도 북미의 캐나다, 유럽의 영국, 남미의 아르헨티나 등으로 교류협력 지역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국예술위원회, 영국문화원의 MOU 체결 및 공동 기금 25억원 조성 실적 또한 향후 한국과 영국간의 예술교류 및 협력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의 구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가 개별 사례 소개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종합적인 자료 조사 체계 구축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의 경우 한국예술국제교류사업은 세 가지 지원유형(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에 따른 사업목적 및 성과관리 체계의 차별화가 다소 미흡하며, 해외문화기관협력사업은 교류협력을 통한 실질적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종합적인 전략 보다는 개별 사례별로 대응하는 방식의 추진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특히 구리 월드아트디자인 페스티벌의 경우 단일 사업에 5억원이라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으며, 사업의 추진성과가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 사

업의 취지와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국제적인 활동에 대한 추적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예술의세계화사업의 경우 지원 사업 선정 시 개별 사업이 본 사업의 목적과 기관의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정할 것을 제안함
- 국제예술교류협력에 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을 고려하여 한국예술의 세계화 및 국제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개선과제

□ 계획

○ 국제교류지원사업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 예술계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제 간 예술교류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전략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함

○ 기관전략과 사업전략의 연계 강화

-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기관의 경영목표 및 전략방향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 지, 사업추진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 사업추진 전략체계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함

○ 사업성과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및 성과측정 산식 개선

- 타당성 있는 성과목표치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조정 등 외부 여건 변화, 전년도 성과목표치와 달성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제안함
- 성과측정 산식의 타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산식은 단순화하여 효용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함

○ 기획형 해외레지던스사업 사업계획 고도화

- 기획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사업의 경우 주관처와의 사전협의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여 사업포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제안함

○ 실질적 재정지원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 지원결정액이 지원신청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원건수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책정할 것을 제안함

□ 집행

○ 성과·경험 및 노하우 공유 플랫폼 구축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한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료집, 성과공유 워크숍, 온라인 자료 공개,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소통 워크숍 등 그들의 성과 ·경험 및 노하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해외 현장 모니터링 강화

- 사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활용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예산집행률 제고 전략 수립

-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미집행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보완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레지던스 참가예술인 소통 정보시스템 구축

- 개별 예술가들이 해외레지던스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SNS, 인터넷 상에서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성과

○ 사업성과 추적조사 체계 구축

- 지원 사업의 성과를 산출 수준에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결과 및 영향 수준으로 확대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후 추적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성과 추적조사 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지원 예술단체(인) 만족도 증진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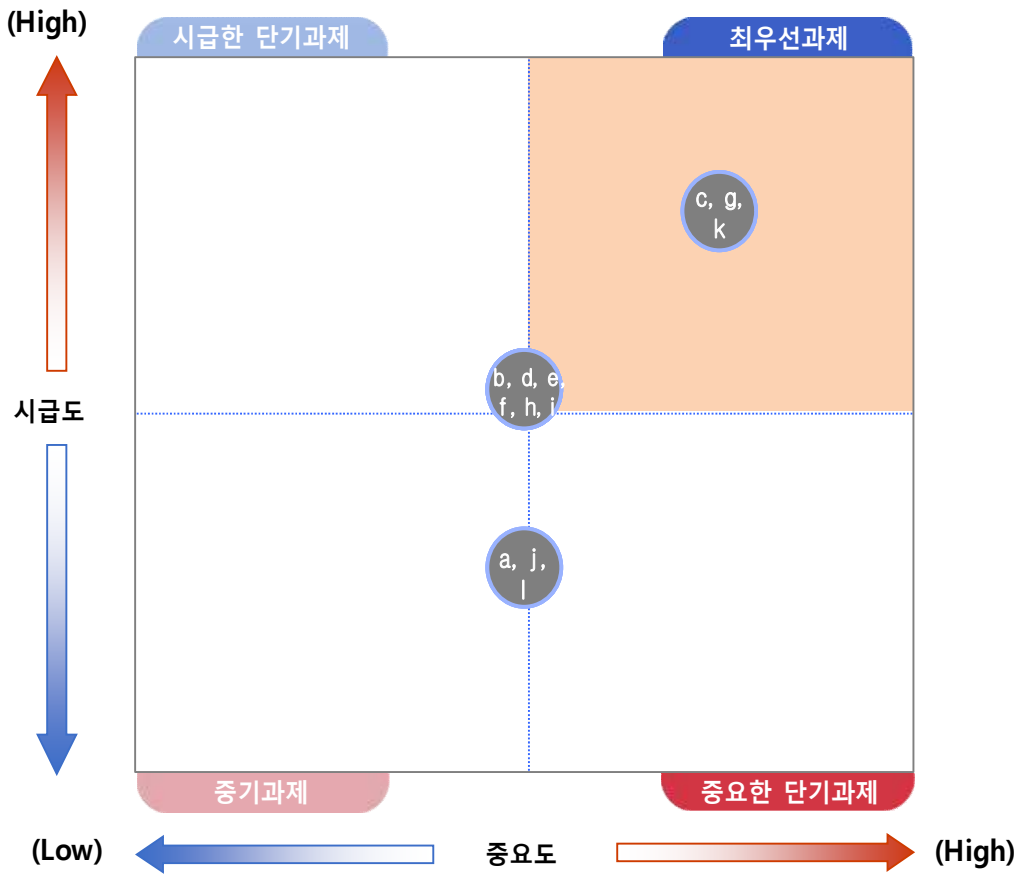
- 성과지표 중 지원 예술단체(인) 만족도(점)가 성과목표치에 매우 미흡한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해외문화예술기관 협력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

- 해외문화예술기관협력사업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협력 네트워크 지역과 국가를 유지 및 확대할 것을 제안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국제교류지원사업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10
계획	b	기관전략과 사업전략의 연계 강화	4
계획	**c**	**사업성과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및 성과측정 산식 개선**	**1**
계획	d	기획형 해외레지던스사업 사업계획 고도화	4
계획	e	실질적 재정지원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4
집행	f	성과·경험 및 노하우 공유 플랫폼 구축	4
집행	**g**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해외 현장 모니터링 강화**	**1**
집행	h	예산집행률 제고 전략 수립	4
집행	i	레지던스 참가예술인 소통 정보시스템 구축	4
성과	j	사업성과 추적조사 체계 구축	10
성과	**k**	**지원 예술단체(인) 만족도 증진 전략 수립**	**1**
성과	l	해외문화예술기관 협력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	10

1분과 [예술창작 역량강화] 세세부사업

문학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

예술인력재교육

예술가국제역량강화

한국예술세계화

1분과 세세부사업별 평가의견서

문학창작육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학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 여건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2016.1.1.~2016.12.31.

○ 사업규모 : 3,080백만원

○ 지원대상 : 문학 분야 개인 창작자 및 창작단체

○ 최종수혜자 : 직접 지원을 통해 생산된 작품을 향유하는 독자(일반국민)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및 직접수행

- 민간보조 : 문학창작산실(기간문학단체지원),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 직접수행 : 문학창작산실{청소년 문학영재 발굴 육성, 유망작가지원, 문예지 우수콘텐츠 아카이빙, 문학활성화프로그램 운영,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문학)}, 문학광장운영, 인문문예소통공간운영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토지문화재단, 21세기문학, 글을낳는집,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등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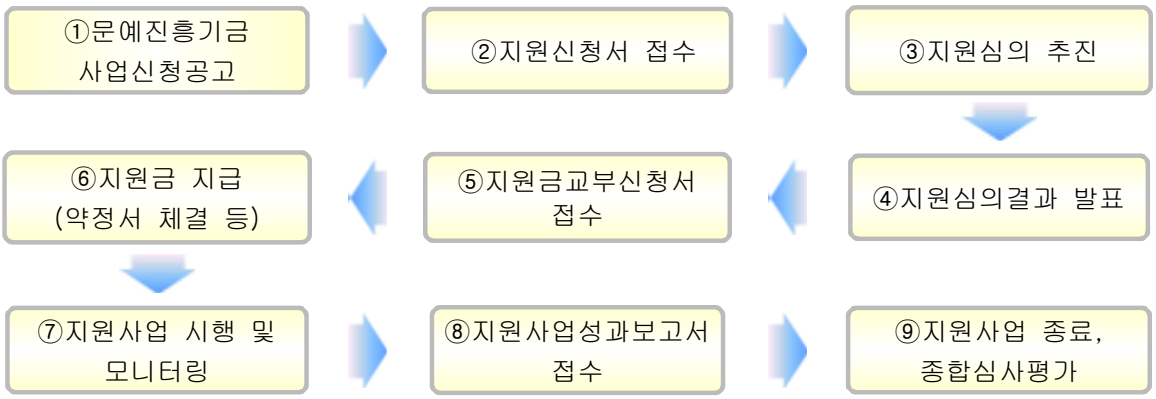
구 분	'15 예산	'16 예산 (A)	'17 예산 (B)	증 감 (B-A)	%
□ 문학창작육성	3,200	3,080	2,570	△430	
▪ 문학창작산실	-	2,000	1,720	△280	
▪ 문학창작활동지원	1,000	-	-	-	
▪ 우수문예지발간지원	1,000	-	-	-	
▪ 문학광장운영	500	500	600	100	
▪ 문학집필공간운영	500	250	250	0	
▪ 문학행사및연구지원	200	-	-	-	
▪ 인문문예소통공간운영 (문학독자개발프로그램)	-	330	0	△330	

□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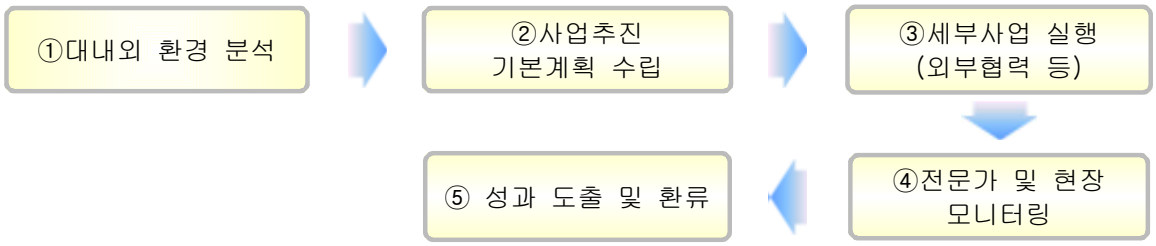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결산	'15 결산 (A)	'16 결산 (B)	증 감 (B-A)	%
□ 문학창작육성	3,200	2,955	2,856	△99	
▪ 문학창작산실	-	-	1,827	1,827	
▪ 문학창작활동지원	1,000	985	-	△985	
▪ 우수문예지발간지원	1,000	1,000	-	△1,000	
▪ 문학광장운영	500	495	473	△22	
▪ 문학집필공간운영	500	365	250	△115	
▪ 문학행사및연구지원	200	110	-	△110	
▪ 인문문예소통공간운영 (문학독자개발프로그램)	-	-	306	306	

□ 공모사업추진 절차



□ 기획사업 추진절차



□ 성과관리

성과 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지원 예술인·단체 만족도 (점)	목표	-	90.0	91.0	91.4	90.0	▪산출근거 -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문예진흥기금 문학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및 예술단체 중 샘플조사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 ▪목표치 산출방식 : - 목표치 산출산식 : 90.0 = 전년도 실적 x 111.9% = 80.4 x 111.9%	▪측정방법 -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문예진흥기금 문학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및 예술단체 중 샘플조사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 ▪측정산식 - 측정산식:∑(11척도, D1x30%+D2x10%+D3x40%+D4x20%) * '14년 7점척도 → '15년 11점 척도 변환 ▪자료출처 - 공공기관고객만족도 결과보고서
	실적	88.2	86.8	90.8	80.4	78.4		
	달성도		96.4	99.8	88.0	87.1		
문학사업 참여 작가수 (명)	목표	-	-	-	-	1,764 (신규)	▪산출근거 - 과거 3년간 실적 편차가 심하여 '15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설정하고, 기준치 105.4% 수준의 의욕적인 목표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 '15년 실적 x 105.4% = 1,673 x 105.4% ≒ 1,764명	▪측정방법 - 자체 집계조사 ▪측정산식 - 측정산식:∑(문학창작 육성사업에 참여한 문학 작가 수) ▪자료출처 -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NCAS) 실적 집계 및 결과보고서
	실적	611	763	639	1,673	1,612		
	달성도					91		
문학창작 지원 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 (점)	목표	-	신규	85.8	95.3	94.0	▪산출근거 -'15년도부터 90점 이상의 우수한 실적치에 진입함에 따라, 동 세부사업 내 세세부사업 중 최고 만족도를 기록한 '15년 시각예술창작지원의 93.5점을 기준치로 설정하고, 기준치 100.5% 수준으로 목표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 '15년 시각예술창작 지원 참여관객만족도 x 100.5% = 93.5점 x 100.5% ≒ 94.0점	▪측정방법 -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정된 지원단체의 사업·행사를 참여, 관람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6.10월~12월) ▪측정산식 - 측정산식:∑(7점 척도, D1x50%+D2x30%+D3x20%) ▪자료출처 - 외부전문기관 설문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실적	75.3	76.4	84.0	90.9	93.5		
	달성도			97.9	95.4	99.5		

성과 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문학창작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수 (건)	목표	-	-	468,520	170,502	516,000	▪산출근거 - '16년도 기관경영목표 설정에 따른 목표치 할당(516,000명)	▪측정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성과보고서 집계 ▪측정산식 - 측정산식:∑ (사이버문학광장 방문자 수 + 문학집필공간 관객수 + 문학활성화사업 관객수) ▪자료출처 -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NCAS) 실적 집계 및 사업결과 보고서, 사이버 문학광장의 경우 온라인 방문자 로그분석
	실적	-	9,271	552,949	196,987	422,279		
	달성도			118.0	115.5	81.8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table>
<tr><th>평가명
(연도)</th><th>지적사항</th><th colspan="3">개선사항(실적)</th></tr>
<tr><td>‘15
경영평가</td><td>유통과 소비에서 온라인 유통 플랫폼(사이버문학광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구매촉진 을 위한 다양한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td><td>추진
과제</td><td>이행
여부</td><td>반영실적/개선사항</td></tr>
<tr><td></td><td></td><td>사이버 문학 광장 홍보 강화</td><td>완료</td><td>ㅇ 사이버문학광장 고객 맞춤형 홍보 강화
- 콘텐츠별 오프라인 독자와의 만남 자리 강화(문학집배원 오프라인 전시 2회,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총 10회, 글틴 아르코 청소년 문학창작 아카데미 3회 추진)
- 문학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이버문학광장 인지도 제고 및 확장성 증대(문학영상공모전, 스토리텔링공모전, 문학순회 및 캠프 추진)
- 고객맞춤형 타겟 홍보 : 전국 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 공문 배포(2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여성가족부 운영) 정보 업로드(3회), 엽서시 홍보(3회), 서울도서관 등 유관기관 홍보 발송(8회) 등
⇨ (개선효과)
ㅇ 전년대비 글틴 회원 14% 증가 (15년 2,223명→ 16년 2,542명) 증가
ㅇ 전년대비 사이버문학광장 방문자수 21% 증가(15년 1,,884,691명→ 16년 2,283,482명)</td></tr>
<tr><td>‘15
감사원
감사</td><td>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후관리 부적정
- 지원받은 후 작품집을 발간하지 않은 작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 성과보고 미이행작가 재선정 금지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td><td>추진
과제</td><td>이행
여부</td><td>반영실적/개선사항</td></tr>
<tr><td></td><td></td><td>아르코 창작 기금 성과 관리 강화</td><td>완료</td><td>ㅇ 창작지원금 수령 후 작품집 미발간 사례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2016. 1.18.)
ㅇ 현재기준 성과보고 현황
<table>
<tr><th></th><th>2012</th><th>2013</th><th>2014</th><th>2015</th></tr>
<tr><td>지원건수</td><td>46</td><td>80</td><td>99</td><td>69</td></tr>
<tr><td colspan="5">■ 감사 지적 시점(‘15.11.17)</td></tr>
<tr><td>발간통보서 제출수(비율)</td><td>37
(80.4)</td><td>46
(57.5)</td><td>12
(12.1)</td><td>-</td></tr>
<tr><td colspan="5">■ 2016.12.31.일 기준</td></tr>
<tr><td>발간통보서 제출수(비율)</td><td>41
(89.1)</td><td>51
(63.8)</td><td>61
(61.6)</td><td>27
(39.1)</td></tr>
<tr><td colspan="5">■ 현재(‘17.6.2 기준)</td></tr>
<tr><td>발간통보서 제출수(비율)</td><td>41
(89.1)</td><td>57
(71.3)</td><td>67
(67.7)</td><td>40
(57.9)</td></tr>
</table>
⇨ (개선효과)
ㅇ 작품집 발간 작가 비율 점진적 상승</td></tr>
</table>

<table>
<tr><th>평가명
(연도)</th><th>지적사항</th><th colspan="3">개선사항(실적)</th></tr>
<tr><td rowspan="2">‘15
국정감사</td><td rowspan="2">공모사업 선정 관련, 제도적·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td><td>추진
과제</td><td>이행
여부</td><td>반영실적/개선사항</td></tr>
<tr><td>심의
제도
개선</td><td>지속
추진
중</td><td>□ 지원심의제도 개선
ㅇ 심의위원 공개 추천제 도입
- 예술계 주요 협회 및 단체로부터 심의위원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인사를 추천받아 심의위원 후보군을 증원 및 보완
ㅇ 심의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 보완된 심의위원 후보군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5배수 내외의 위촉대상자 선발 ⇒ 해당 분야 위원과 협의하여 섭외 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섭외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ㅇ 지원심의 관련 이의신청 처리 절차와 옴부즈만 제도 도입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심의 옴부즈만 구성·운영
- 지원심의 관련 이의제기 시 옴부즈만이 해당 지원심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
ㅇ 지원심의회의 절차 개선
- 심의위원 개별 채점제 방식의 엄격한 적용
ㅇ 지원심의 공정성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등 제도 정비
-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2016.7.8.)
- 지원심의 운영지침 개정(2016.7.28.(1차 개정)/ 2016.12.30.(2차 개정)
- 보조금운용지침 개정(2016.2.22.)

□ 유망작가지원 사업추진방식 및 심사방식 개선
ㅇ 예술계 공개추천 제도 도입
- (‘15)추천인단이 작가 추천 → (’16) 추천인단 추천+예술계 공개추천제도 도입</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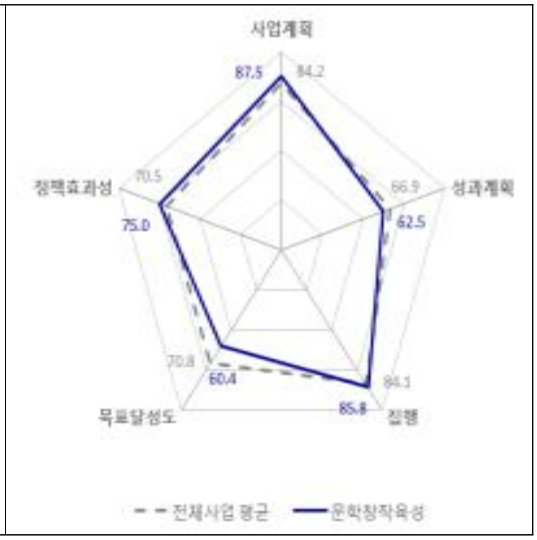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문학창작육성」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5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7.5점, ‘성과계획’ 62.5점, ‘집행’ 85.8점, ‘목표달성도’ 60.4점, ‘목표달성도’ 75.0점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3.3), 정책효과성(+4.5), 집행(+1.7)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목표달성도(-10.4), 성과계획(-4.4) 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3점)	2.6	87.5	87.5
	1-2(3점)	2.6	87.5	
	1-3(4점)	3.5	87.5	
성과계획	2-1(5점)	3.8	75.0	62.5
	2-2(5점)	2.5	50.0	
집행	3-1(15점)	12.4	82.5	85.8
	3-2(5점)	4.4	87.5	
	3-3(10점)	8.8	87.5	
목표달성도	4-1(30점)	18.1	60.4	
정책효과성	5-1(20점)	15.0	75.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 「문학창작육성」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8.0(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집행’ 항목 중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와 ‘3-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이며 87.5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며 6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신진 문학인을 위한 창작 지원을 조사연구비, 집필료,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등 다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진 문학인의 창작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뉴미디어 기반의 문학창작 활동과 협업 기반의 창작 플랫폼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새로운 문학 창작 형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문학주간 축제를 개최하여 “차세대 신진작가 문학버스킹” 프로그램 등 25개의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문학인과 독자들이 함께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문학주간 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문예지 지원 및 문예지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경우, 문학의 다양성 환경을 조성하고, 문학 작품의 창작 발표 매체를 확대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제로 독자들의 문예지 이용 실태에 관한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며, 문예지 아카이브 활용 증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사이버문학광장의 경우, 온라인 문학 창작 및 향유 플랫폼으로 작가, 예비작가, 청소년, 문학애호가, 문학관계자들의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고, 그 동안 축적된 자료와 콘텐츠의 아카이빙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이버문학광장의 구체적인 효과와 영향에 관한 연구 자료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는 모두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성과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목표치 달성에 있어서도 지원예술인·단체만족도와 문학사업 참여 작가수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성과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여 노력에 비하여 성과창출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임. 이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외부상황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는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기관 및 사업운영 부서차원에서도 지원프로세스 투명성 제고, 지원대상 예술인(단체) 소통 확대, 대국민 문학향유 기회 확대(문학주간 등) 등 혁신활동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 예산집행 측면에서 볼 때 계획 대비 집행율이 평균 92.7%를 달성함으로써 보통수준의 집행율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문학창작산실 사업의 경우 사업포기 사례가 2건이 발생되어 집행율이 91.4%에 그치고, 예산계획 시점이 불분명하고 집행시점도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단계에 개선하는 환류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 창작육성 사업의 목표로 문학 창작과 확산을 포괄적으로 설정한 점은 문학 창작환경을 개선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문학 확산과 관련된 독자 수요 창출 전략이 다소 추상적이고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독자 수요를 창출하고 우수 작품이 지속 생산-유통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의 내용은 ‘독자 및 작품 향유 활동 증진으로 문학창작환경 개선’이라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
- ‘창작 여건 개선을 통하여 우수 작품 생산을 위한 문학 분야 창작 역량 강화’, ‘향유 활동 증진으로 독자 수요 창출’이라는 개별사업의 성과목표는 사업목적과 분명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
- 아르코 비전 및 전략과 연계하여 ‘독자 및 작품 향유 활동 증진으로 문학창작환경 개선’ 목표를 구체화하였고, 세부과제 및 성과지표를 연계하는 사업추진 체계를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예비 작가, 영재, 차세대 작가, 유망작가 등 지원 대상 집단을 세분화하여 문학 창작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은 문학 창작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문학창작육성 사업을 ‘창작에서 확산까지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라는 기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작가지원 → 공간지원 → 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 문학향유 플랫폼 운영으로 이어지는 사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사이버 문학 광장 사업의 경우, 문학 창작 및 향유 플랫폼 기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문학 창작과 향유 활동을 포괄적으로 활성화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이버 문학 광장 사업이 문학 창작 활동과 문학 향유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실적보고서 상에 사업 목적이 ‘문학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

(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조성’(1p)과 ‘독자 수요를 창출하고 우수 작품이 지속 생산-유통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69p,72p) 로 상이하게 제시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문학창작육성을 위한 세부사업 수요분석을 단순히 전년도 사업실적 증가추세 또는 지원신청건수 증가추세 등을 중심으로 추정하고 있어, 사업수요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개선제안]

- 사이버 문학 광장 사업의 문학 창작 및 향유 플랫폼 구축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목적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향후 문학작가, 단체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희망 분야, 지원내용, 희망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및 국민의 니즈변화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과학적인 접근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신진 작가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연구비, 창작집필료, 작품집 출판 지원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 문학광장운영 사업은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또한 문학광장운영 사업은 예비작가, 신진 및 유망작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전국적 문학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음.
- 문학창작산실 사업은 일부 지역문화재단, 민간재단 등의 유사사업이 일부 있으나, 전국단위 대상이라는 점과 문학콘텐츠 보존 측면에서 고유성이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향유 차원의 문학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과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지역 문학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문학인들은 문학 창작자로서 뿐 아니라 문학상담사, 지역 스토리텔링,

인문치유 상담사 등 문학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문학집필공간이 약 10여개에 불과한 현실 여건과 수요 조사 및 선정, 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른 한편으로 문학집필공간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의 소규모 집필공간운영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규모별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신진 문학인을 위한 창작 지원을 조사연구비, 집필료,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등 다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진 문학인의 창작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뉴미디어 기반의 문학창작 활동과 협업 기반의 창작 플랫폼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새로운 문학 창작 형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영재, 차세대, 유망 단계별 작가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작가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사이버문학광장 사업의 경우, 홍보를 강화하여 방문자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사이버문학광장이 문학 창작자, 청소년, 그리고 문학 애호가들에게 구체적으로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예지 우수콘텐츠 아카이빙 지원사업의 경우, 우수 문예지 콘텐츠에 대한 아카이빙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 문예지 콘텐츠에 대한 사후지원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학창작산실 사업은 세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직접 및 협력을 통한 추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문학집필공간운영은 기존의 문학관 등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시설 중복투자 및 지역작가 이용편의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예술가의집 운영, 문학광장운영 사업은 직접사업으로 이해관계자 니즈와 정책 실행의 민감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인문문예소통공간운영(예술가의집)에 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됨.
- 문학광장운영의 경우 문장웹진, 글틴, 문학집배원 등 정보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콘텐츠의 유통 및 이용환경이 모바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모바일기반 중심으로 소통채널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인문문예소통공간운영(예술가의집)에 있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사이버문학광장의 기존 이메일 서비스를 사업내용 및 성격별로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지원예술인 및 단체 만족도 지표는 기관 고객만족도 지표와 연계된 지표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고, 문학창작 육성 사업의 핵심 행위자가 문학인 및 문학단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점)와 문학사업 참여작가 수(명)는 우수작품의 생산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창작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점)와 문학창작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명)는 독자수요 창출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4개 지표 모두 독자수요를 창출하고 우수 작품이 지속 생산-유통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

[부정적 측면]

- 문학창작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수와 문학사업 참여 작가수는 재정 등의 투입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문학창작 육성사업의 결과 및 영향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문학창작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의 경우 지표명은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지표정의가 모호하게 설정(지원단체의 사업·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람한 국민의 만족도)되어 있어 지표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문학창작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의 경우, 측정산식에서 문학집필공간 관객수를 합산하는 것은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실적치가 포함되어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문학창작 지원 사업이 실제로 문학 창작 인력 양성, 문학 시장, 문학인의 사회 참여 등 문학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음.
- '문학창작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의 지표정의(개념)를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고, '문학창작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의 경우는 '사이버문학광장 이용자수'로 단순화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 사업 참여 작가수의 경우, 신규 지표로 문학사업 참여 작가 수 목표 값을 전년도 실적(1,673명)을 기준치로 설정하고, 기준치 105.4% 수준(1,764명)의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문학창작지원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의 경우, 2014년 84.0, 2015년 90.9, 2016년 93.5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9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6년 목표치를 94.0로 설정한 것을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자체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조사결과의 대외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지원 예술인 단체 만족도의 경우, 2015년 80.4로 2014년 90.8에 비해 대폭 낮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목표치는 90.0으로 설정한 점은 만족도 증진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됨.
- 문학창작지원 프로그램 참여관객수의 경우, 달성된 관객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552,949명, 2015년 196,987명, 2016년 422,279명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2016년 목표치 설정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문학창작참여작가수'의 경우 과거 실적치 추이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

으나, 15년도 실적치를 기준(base)으로 105.4% 수준을 목표치로 설정한 근거가 부족함. 왜 증가수준이 105.4%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문학창작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는 16년도 기관경영목표를 하위 할당한 목표설정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3개년 실적치를 고려한다면 향후 목표치 설정의 안정성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개선제안]

- 지원 예술인 단체 만족도 수준을 만족도가 낮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목표치는 90점대 수준 보다는 80점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여작가수 및 참여관객수 지표의 경우, 기관경영목표 · 투입예산증감 · 유사기관/사업 평균성장율 등의 수치를 바탕으로 목표치 설정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예산 집행률이 92.7%로 나타났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문학창작산실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 포기 등의 사례가 2건 발생되어 예산집행율이 91.4%로 나타났으며, 분기별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하반기에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개선제안]

- 지원사업 포기로 인한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업포기자(단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페널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 시기를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사업포기자(단체)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지원대상 선정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과 함께, 사업기획 시 보다 면밀한 예산계획이 수립되는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함.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만족도 조사, 내부와 외부 모니터링, 외부 연구용역 평가, 문학계 현장의 의견수렴 활동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기에 발굴하여 대처하기 위하여, 내부모니터링 및 외부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또한 사업추진 과정 모니터링과 함께 세부사업평가 및 환류/개선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모니터링 체계를 구조화하고 있음.
- 차세대 신진작가 간담회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기대하는 니즈를 발굴하였고, 문학창작공간지원사업 시 피지원단체의 현장평가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현장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조치를 하는 등 문제점 환류 활동이 실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과 관련한 모니터링 및 환류 · 개선 실적을 제시하지 않음

[개선제안]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조치함으로써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되는지, 지원대상 작가 등이 지원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되기를 제안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선정 작가에 대한 홍보 혜택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문학주간 사업 도입 첫해 시범사업으로 홍보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학 유관단체들과의 협력, 문학 주간 프로그램 북 제작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외부 상황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방식 및 내용에 대한 예술계의 불신과 내부 담당 직원들의 업무 혼란 발생하였으나, 예술계 인사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심의 규정 등 관련제도개선을 추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문학주간 행사 시 관련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행사장 대관 및 홍보 예산을 절감하는 등 문제해결 노력이 인정됨.

[부정적 측면]

- 지원사업의 사업포기 등으로 예산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일부 성과지표가 목표치에 미달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과정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즉시개선, 차년도 사업시 개선, 제도 재정비를 통한 중장기적 개선 등으로 세분화하고, 사업추진 방식개선을 위한 혁신활동을 제도화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선제안]

- 모니터링을 통해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블랙리스트 사태 등으로 인한 예술계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관차원에서 지원사업운영 투명성 제고, 지원서비스 품질제고, 대국민 창작활동 참여 확대 등 고객서비스 품질혁신 활동을 추진하기를 제안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창작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의 경우 목표치 94점에는 미치지 못하는 93.5점(달성률 99.5%)을 달성하였지만, 전년도 실적인 90.9점을 103.4% 초과하여 성과를 달성함
- 문학창작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의 경우 목표치 516,000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422,279명(달성률 81.8%)을 달성하였지만, 전년도 실적인 196,987명을 214.4% 초과하여 달성함

[부정적 측면]

- 지원예술인 및 단체 만족도는 78.4로 목표치 달성률이 87.1로 낮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매우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있음.
- 문학창작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수는 2016년에 422,279명으로 2015년 196,987명에 비해 높지만 2014년 552,949명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문학사업 참여 작가수가 목표치 1,764명의 91.4%인 1,612명에 그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 실적 1,673명에도 미치지 못함

[개선제안]

- 문학인 및 문학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고, 문학인 및 문학단체들의 참여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원예술인·단체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지원예술인・단체만족도 및 문학창작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등의 달성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 및 문학창작지원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포괄하는 고객만족(CS)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추진되기를 제안함.
- 문학사업 참여 작가수를 확대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주간 축제를 개최하여 “차세대 신진작가 문화버스킹” 프로그램 등 25개의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문학인과 독자들이 함께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문학주간 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문예지 지원 및 문예지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경우, 문학의 다양성 환경을 조성하고, 문학 작품의 창작 발표 매체를 확대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제로 독자들의 문예지 이용 실태에 관한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며, 문예지 아카이브 활용 증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사이버문학광장의 경우, 온라인 문학 창작 및 향유 플랫폼으로 작가, 예비작가, 청소년, 문학애호가, 문학관계자들의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고, 그 동안 축적된 자료와 콘텐츠의 아카이빙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이버문학광장의 구체적인 효과와 영향에 관한 연구 자료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그리고 문학집배원 10년 기념 아카이빙 전시를 통해 3,313명의 관람객을 창출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인문문예소통공간 운영사업의 경우, 이용자수가 전년대비 19% 증가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문학 소비자인 독자를 개발하고 확대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추진성과는 궁극적으로 문학 창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수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됨
- 동 사업은 문학분야 예술가의 성장단계별, 창작 사이클을 고려한 다차원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관의 3대 전략목표인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됨.
- 또한 사이버문학광장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문학작품이 독자들속으로 효과적으로 확산되고 작품에 대한 관심도를 고양시키는 등 대국민 편익증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4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에 미달하여 평균 89.95%의 달성률을 나타냄으로써 사업의 추진성과가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충분하게 기여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함

[개선제안]

- 성과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성과가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 수립에서 수행 관리에 까지 체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개선과제

□ 계획

○ 온라인 미디어 기반 문학 창작 지원 사업 개발

- 온라인 미디어가 소설과 시 등 문학 플랫폼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미디어 이용자들의 문학 접근성이 증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미디어 기반의 문학 창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웹소설, 하상욱의 시 등 새로운 유형의 소설과 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미디어 콘텐츠의 이야기 원작으로서의 문학의 가치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일인 창작 시스템 뿐 아니라 협업 기반의 집단 창작 시스템도 문학 창작 지원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 사업의 지역 이관 및 협력을 통한 효율화

-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집필공간이 대부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요 조사 및 선정, 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지역단위의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이관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문학집필공간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의 소규모 집필공간운영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규모별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의 집 운영 활성화

- 예술가의집 운영에 있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성과지표 및 목표치 타당성 제고

- ‘문학창작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의 지표정의(개념)를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고, ‘문학창작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의 경우는 ‘사이버문학광장 이용자수’로 단순화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제고.

-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의 경우 보다 의욕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원니즈 파악 및 사업계획 반영

- 문학작가, 단체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희망 분야, 지원내용, 희망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및 국민의 니즈변화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도입

○ 사이버문학광장의 모바일 기반서비스 전환

- 사이버문학광장의 기존 이메일 서비스를 사업내용 및 성격별로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 집행

○ 문학주간 축제의 문학 체험 콘텐츠 연구 개발

- “차세대 신진작가 문학 버스킹”프로그램과 같이 문학을 새롭고, 다양한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학주간 축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문학과 문화예술 및 타 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문학을 기반으로 한 문학 체험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산 미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 지원사업 포기로 인한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업포기자(단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페널티를 마련함

- 사업 시기를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사업포기자(단체)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조치함으로써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모니터링체계의 강화

- 모니터링을 통해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되는지, 지원대상 작가 등이 지원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

○ 예산 계획 및 집행의 정합성 제고

- 향후 지원대상 선정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과 함께, 사업기획 시 보다 면밀한 예산계획이 수립되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제안

□ 성과

○ 문학창작지원 사업의 청소년 문학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이버문학광장 사업, 청소년대상 문학창작산실 사업, 글틴 등은 청소년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청소년 관련 문학창작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된 문학창작 지원 사업이 청소년 문학 활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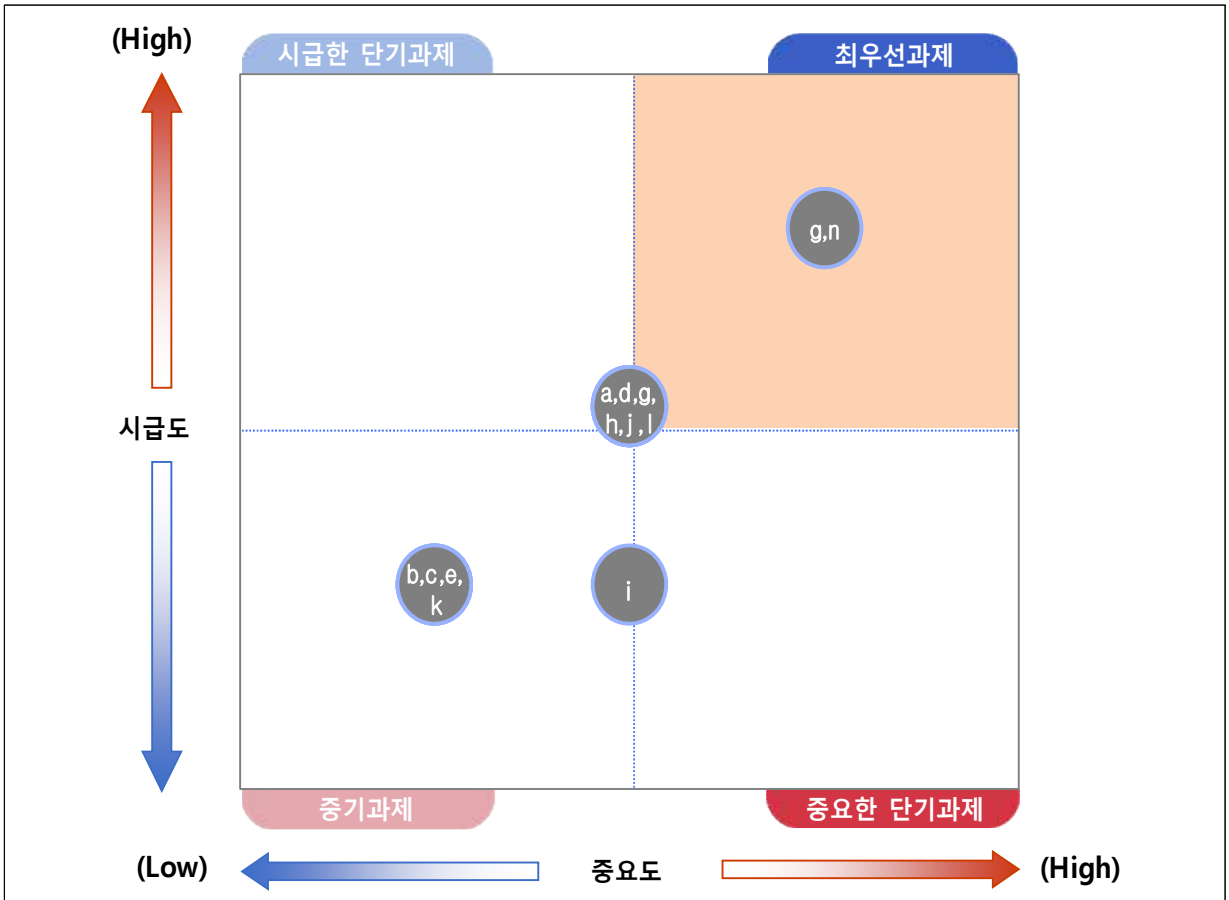
○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사업의 체계성 강화

- 성과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성과가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 수립에서 수행 관리에 까지 체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만족전략 수립 및 혁신 추진

- 지원예술인·단체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만족도를 제고함
- 문학사업 참여 작가수를 확대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
- 지원예술인・단체만족도 및 문학창작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등의 달성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 및 문학창작지원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포괄하는 고객만족(CS)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노력을 경주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온라인 미디어기반 문학 창작 지원사업 개발	3
계획	b	사업의 지역이관 및 협력을 통한 효율화	10
계획	c	예술가의 집 운영 활성화	10
계획	d	성과목표 및 목표치 타당성 제고	3
계획	e	지원니즈 파악 및 사업계획 반영	10
계획	**f**	**사이버문학광장의 모바일기반 서비스 전환**	**1**
집행	g	문학주간 축제의 문학체험 콘텐츠 연구개발	3
집행	h	예산 미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3
집행	i	모니터링 체계의 강화	9
집행	j	예산계획 및 집행의 정합성 제고	3
성과	k	문학 창작 지원사업이 청소년 문학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10
성과	l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체계성 강화	3
성과	**m**	**고객 만족전략 수립 및 혁신 추진**	**1**

1분과 세세부사업별 최종보고서

시각예술창작육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각예술 창작에서 확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하고, 시각예술지원 사업 연계 전시, 교육, 아카이브, 기획전시를 통해 시각예술 향수의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 1월~12월(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3,200백만원

○ 지원대상 : 시각분야 예술가 및 예술단체, 일반국민

○ 최종수혜자 : 직접 지원을 통해 생산된 작품을 향유하는 독자(일반국민)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및 직접사업

- 민간보조 : 시각예술창작산실, 코리안아티스트프로젝트

- 직접수행 :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등록사립미술관 등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예산	'16 예산 (A)	'17 예산 (B)	증 감 (B-A)	%
□ 시각예술창작육성	1,100	3,200	2,980	△220	△6.8
▪ 시각예술창작산실	-	2,000	1,800	△200	△10
▪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 운영	900	1,000	1,000	-	-
▪ 코리안아티스트프로젝트	200	200	180	△20	△10

□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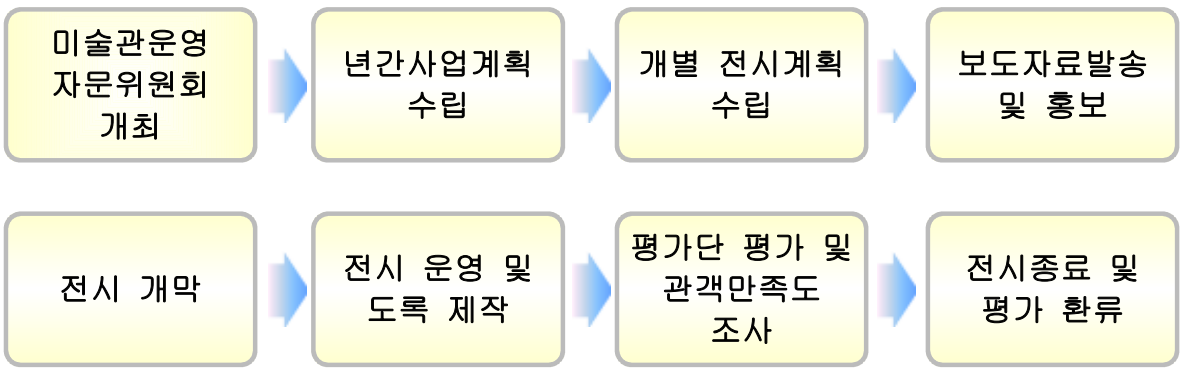
구 분	'14 결산	'15 결산 (A)	'16 결산 (B)	증 감 (B-A)	%
□ 시각예술창작육성	1,096	1,036	3,149	2,113	203.9
▪ 시각예술창작산실	-	-	1,975	순증	순증
▪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 운영	896	836	974	138	16.5
▪ 코리안아티스트프로젝트	200	200	200	-	-

□ 사업 추진 절차

■ 공모사업 추진 절차



■ 직접사업 추진절차



□ 성과관리

성과 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시각예술 창작지원 예술인·단체 만족도 (점)	목표	81	90	92.8	91.4	90.0	▪목표치 산출방식 - 전년대비 9% 상승된 목표치 90.0점으로 설정	▪측정방법 - 측정산식 : ∑(11점척도)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5.1	89.2	88.5	82.7	76.2		
	달성도	92.1	99	95.4	90.4	84.6		
시각예술 창작지원 평균 참여 관객수 (명)	목표	12,396	15,150	38,246	39,812	37,987	▪목표치 산출방식 - 기관 경영목표에 따라 시각예술창작 지원 참여관객수 목표 할당	▪측정방법 - 측정산식 : ∑(전체관람객수/지원사업건수) ▪자료출처 - 성과보고서전수 조사/NCAS시스템
	실적	13,773	16,277	54,079	52,095	53,144		
	달성도	111.1	107.4	141.4	130.8	139.9		
시각예술 창작지원 평균 창작 작품수 (건/건)	목표	440	538	633	175	326	▪목표치 산출방식 - 전년 실적 대비 1% 수준의 상향목표 설정	▪측정방법 - 측정산식 : ∑[총 창작작품 수 (비평 제외)/지원사업건 수] ▪자료출처 - 성과보고서전수 조사/NCAS시스템
	실적	489	550	146	323	512		
	달성도	111.1	103.2	23.1	184.5	157.0		
시각예술 평균 창작.비평 건수 (건/건)	목표	4.5	5.51	12	14	8	▪목표치 산출방식 - 전년 실적 대비 15% 수준의 상향목표 설정	▪측정방법 - 측정산식 : ∑(신규비평건수/지원사업건수) ▪자료출처 -성과보고서전수조사
	실적	5	11	11	7	10		
	달성도	111	199.6	95.0	50	125		
시각예술 지원프로 그램참여 관객만족 도(점)	목표	-	-	85.8	86.3	96.3	▪목표치 산출방식 - "고객만족도조사 표준안"의 80점대 점수의 상향목표 반영률 0.6%보다 높은 3.0% 매우 의욕적인 상향목표를 설정	▪측정방법 - 측정산식 : ∑(7점척도) ▪자료출처 - 외부기관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	83.8	93.5	90.9		
	달성도	-	-	97.7	108.3	94.4		

성과 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이용자수 (명)	목표	64,248	74,422	84,076	85,816	60,459	▪산출근거 - '15년도 실적 대비 3% 증가 ▪목표치 산출방식 - '15년도 실적치 x 103% = 58,699명 x 103% ≒ 60,459명	▪측정방법 - ∑(미술관 이용자 수) ▪자료출처 - 자체집계자료
	실적	67,332	76,433	84,134	58,699	74,843		
	달성도	104.8	102.7	100.1	68.4	123.7		
이용자 만족도 (점)	목표	83.4	85.4	85.7	89.2	85	▪산출근거 - 전사적 경영평가 PCSI 점수를 반영하여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하여 10% 상향된 도전적 목표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 '15년 실적x110% = 77.5x110% ≒ 85.0	▪측정방법 - 측정산식 : ∑(10점척도) ▪자료출처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결가보고서
	실적	84.6	82.6	84.3	77.4	81.8		
	달성도	101.4	96.7	98.3	86.7	96.2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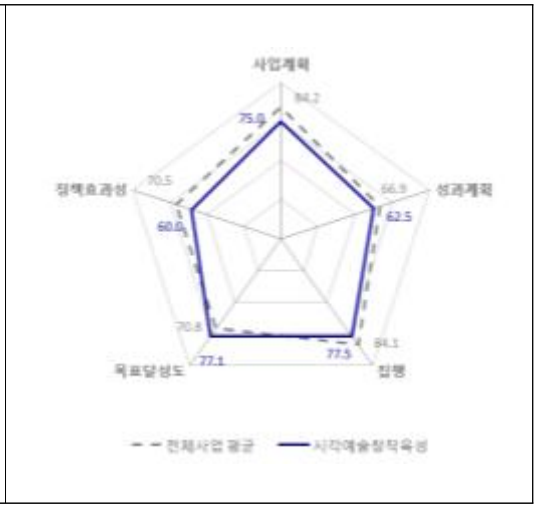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시각예술창작육성」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5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75.0점, ‘성과계획’ 62.5점, ‘집행’ 77.5점, ‘목표달성도’ 77.1점, ‘정책효과성’ 60.0점 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목표달성도(+6.3)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사업계획(-9.2), 성과계획(-4.4), 정책효과성(-10.5), 집행(-6.6)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3점)	2.3	75.0	75.0
	1-2(3점)	2.3	75.0	
	1-3(4점)	3.0	75.0	
성과계획	2-1(5점)	3.8	75.0	62.5
	2-2(5점)	2.5	50.0	
집행	3-1(15점)	12.4	82.5	77.5
	3-2(5점)	3.8	75.0	
	3-3(10점)	7.5	75.0	
목표달성도	4-1(30점)	23.1	77.1	
정책효과성	5-1(20점)	12.0	6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 「시각예술창작육성」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2.0(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집행’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이며 82.5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항목 중 ‘2-1. 성과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이며 5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2016년 처음 도입한 ‘시각예술 창작 산실 ’ 사업은 브랜딩 전략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며, 연구, 창작, 전시 발표 등 단계적 창작지원체계를 구축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시각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결과물인 창작품을 아르코 미술관의 전시와 연계함으로써 창작과 전시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창작에서 확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하고, 시각예술지원사업 연계 전시, 교육, 아카이브, 기획전시를 통해 시각예술 향수의 기회 제공’이라는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의 사업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목표를 명화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세세세부사업의 사업목적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미술관 운영 사업은 미술주간과 연계하여 토크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고, 전시 연계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함으로써 관람객 수를 확대하고, 관람객 만족도를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미술관은 고객 개발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성과와 파급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미술관 이용자수, 미술관 이용자 만족도 수준을 높게 나타났으나, 시각예술 창작 지원 예술인(예술단체)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의 소통과 인식 공감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는 비교적 적정하게 설정되었으나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은 참여 관객 만족도,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 사업은 큐레이터 기획전시 관련 지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관련 지표 등을 개발하여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보다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대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하향 설정하였으나, 달성성과는 전년도 대비 상향 추세이다. 타당성 있는 성과목표치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년도 상과목표치와 달성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은 사업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이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한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적으로 미흡하며, 추후에는 모니터링의 시기 및 절차,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실적 등을 정리하여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차기연도 사업 수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산집행 측면에서 지원사업은 계획 대비 집행율이 평균 98.7%, 공간운영사업은 97.4%를 달성함으로써, 예산계획 대비 집행율이 양호한 수준임. 그러나, 시각예술 비평지원사업의 경우 사업포기의 영향으로 집행율이 76%에 그친 것은 차년도 사업 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기관의 전략체계와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의 전략적 연계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르코미술관의 오프라인 콘텐츠의 온라인 융합서비스 검토,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 제고, 지원사업 수요조사의 과학적 접근방식 도입, 사업추진과정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의 적극적 변화노력이 요구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시각예술 창작에서 확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하고, 시각예술지원 사업 연계 전시, 교육, 아카이브, 기획전시를 통해 시각예술 향수의 기회 제공’이라는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의 사업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아르코 핵심전략목표인 ‘예술수요를 이끄는 우수 예술 창조’ 및 ‘기초예술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시각예술 지원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시각예술창작산실 및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됨.
- 연구, 창작, 전시, 지역순회 활동을 연계한 창작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작지원 결과물인 창작품이 실제로 전시 및 발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작 활성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차세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자 뿐 아니라 기획자인 큐레이터를 중요한 지원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신진 큐레이터의 양성 및 활동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아르코 미술관의 창작지원 사업 연계 전시 강화, 자체 기획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아카이브 운영 등으로 아르코 미술관의 관람자 규모가 확대되고, 관람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됨. 인사미술공간을 신진 예술가(작가, 기획자) 육성 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신진 예술가의 창작 및 전시활동 거점으로 구축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한국의 현대 미술을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한국 작가의 온라인 개인전 등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전 세계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목표와 성과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결과가 실질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한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세세부사업의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업의 내용이 성과목

표 달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움

- 아르코 비전2020 및 전략체계에 대한 정합성이 부족하며, 해당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전략이 모호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가상공간 관람객수, 관람객 구조, 미술품 거래 실적, 교류협력 실적 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세세부사업의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사업의 내용이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르코 전략체계 상에서 본 사업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전략과제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전략과제 목표와 본 사업(세세부사업 등)목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구조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잔여예산으로 시범 실시한 사전 연구와 전시 컨설팅 지원은 창작 위주의 지원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사전 연구와 전시 컨설팅 지원이 실제로 “새로운 담론 생산 및 경쟁력 있는 전시 콘텐츠 확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 자료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르코 미술관의 경우, 미술관의 전시 방향을 “장르융합형 전시” “새로운 담론형성 주체 기획전” “아르코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설정하여 다른 공공 및 민간 미술관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아르코 미술관은 중견작가에 초점을 두고, 인사미술관은 신진작가 및 신진 큐레이터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유사·중복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간지원사업을 통해 단순한 인프라 운영지원보다는 특화된 담론생산을 목표로 하는 우수기획전시 콘텐츠 생산과 작가들의 창작 및 발표 여건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시지원사업의 경우 유일하게 큐레이터의 기획안을 실제 전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아르코미술관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동시대 시각예술의 현장을 연구를 바탕으로 기획, 창작, 교육, 다원적 예술 협업을 추진하여 예술가에게 필요한 창작 여건을 제공하고 동시대 첨단 시각예술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선도하는데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동미술관으로 여타 공공미술관과 차별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아르코미술관은 또한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실험성과 현장성을 고려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확산한다는 자원에서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시각예술 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레지던스 지원사업 및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과정에서 조정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사업목표, 지원체계, 사업성과 측면에서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사업의 경우 차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타 미술관과의 차별성 확보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시각예술 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차원의 공간 지원사업과는 다른 국가 차원의 차별적인 지원목적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의 경우 여타 미술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타기관의 유사 · 중복사업과의 차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함
-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사업의 경우 관람객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여타 미술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연구, 창작, 전시, 공간, 비평 등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각예술 창작 지원사업의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시각분야 심의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인터뷰 심사 도입, 최대 3차 심의 심사 이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집중지원 등을 실시한 점은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아르코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됨.
-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비평지원사업의 경우, 비평 자체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평지원의 효과가 창작자 및 향유자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업목표로 “한국적 담론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가진 우수 전시 콘텐츠 생산”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가 시각예술 창작 육성 사업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사업수요 예측의 경우 3년간 지원 실적 추이을 감안하여 수요를 측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요변화를 포괄적으로 추정/예측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비평 결과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금 또 다른 비평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소셜비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신진 작가 창작 및 전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진 작가에 대한 비평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비평지원사업은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이 아닌 다른 영역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 아프코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잠재적 관람객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함.
- 공간, 전시, 비평을 포괄한 시각예술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원대상을 대상으로 한 사업수요 조사를 통한 과학적 접근이 도입되기를 기대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시각예술 창작 지원 예술인(단체) 만족도, 시각예술 창작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 만족도, 미술관 이용자수, 미술관 이용자 만족도 지표는 성과지표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성과지표중 시각예술 창작지원 평균 참여 관객수, 평균 창작작품수, 평균 창작비평건수 등은 지원사업의 투입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공간운영 및 전시지원 사업수행 결과 국민의 예술향수 정도를 대표하는 '평균관람객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데, 측정산식에서 '온라인참여관객수'는 측정치를 관객수에 합산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온라인참여관객수는 오프라인 전시 관객에 비해 관람시간 및 참여열의 등의 측면에서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관객수 변동폭이 커 지표의 안정성을 매우 저해할 수 있는 측정치라고 판단됨.

[개선제안]

- 사업결과 및 영향 수준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지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컨대, 지원받은 미술관의 경우, 지원성과로 공간 가동률의 향상, 연간 관람객수 증가 등을 성과지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은 참여 관객 만족도 등의 질적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 사업은 큐레이터 기획전시 관련 지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관련 지표 등을 개발하여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보다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지원 평균참여 관람객수'를 측정하는 산식에 대한 타당성 제고와 지표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식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사업 성과지표 중 미술관이용자만족도는 전년도 달성값 77.4에서 상향된 85점을 성과목표치로 설정함으로써 대체로 과거 실적추

세치를 일부 반영하고 있어,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을 다소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예술인(예술단체) 만족도의 경우, 2015년 달성치 82.7% 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목표치를 90.0%로 설정하였는데, 실제 달성치는 76.2%로 나타나 목표치와 달성치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왜 10%를 상향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됨.
- 평균 관람객수 지표의 경우, 2015년에 목표치 39,812명, 실제 달성치 52,095명으로 목표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016년 목표치를 2015년 달성치 보다 낮은 37,987명으로 설정함. 2016년 달성치는 53,144명으로 2015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미술관 이용자 수가 2014년 84,134명에서 2015년 58,699명으로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2016년에 목표치를 60,459명으로 설정한 것은 2015년 목표치 85,816명을 고려할 때,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목표치를 설정할 때, 이전 연도의 목표치 뿐 아니라 달성치, 그리고 해당연도의 환경변화와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목표치 설정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타당성 있는 성과목표치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년도 성과목표치와 달성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8.75%, 시각예술차악지원 공간운영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7.4%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에서 2개 단체 2개 사업의 중도 포기로 1.4백만 원의 미집행 불용액이 남음
- 시각예술 비평지원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포기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 보다 면밀한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사업 중도포기로 인한 미집행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함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고객평가, 준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담당자 모니터링과 외부 전문단체의 심층평가 등을 통해 사업모니터링 및 사업성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용관리 설명회, 담당자 모니터링, 외부전문단체 심층평가, 심층성과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사업의 경우에는 전시사업은 외부전문가평가단평가, 종합평가간담회, 자체 이용자만족도 조사, 상시 민원 등 VOC 수집, 담당자 현장 모니터링 및 언론기사 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은 외부전문가 평가단 평가, 교육 참여 강사 · 보조강사 등의 자체평가 및 평가간담회, 교육생 만족도조사, 교사 만족도조사, 상시 민원 등 VOC 수집, 담당자 현장교육모니터링 및 관련자 간담회, 아카이브사업은 아카이브실 이용객 대상의 시설 및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아카이브 연계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및 설문 조사, 담당자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은 사업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지원사업 모니터링 활동으로 제시된 설명회 등은 모니터링 활동이라기보다는 사업운용 가이드 안내활동에 가깝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사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지원사업 공모에서 책임큐레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큐레이터의 참여 환경을 조성한 점은 큐레이터의 기획 경험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 공간 지원과 지역 레지던스 사업간의 중복 우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심의부터 중복신청을 못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머물러도 좋아요” “대학로 꿈잼학교” “아르코 책방” 등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한 점은 고객개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휴식공간부족, 전시 관련 자료 리플렛 글자 크기에 대한 문제점,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 부재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조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전시지원사업과 레지던시 사업과의 중복지원 사례를 파악하고, 예산을 조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일부 전시지원사업의 경우 전문기획자가 참여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시정하는 제도적 개선(공모조건 개선 등)을 이룬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간지원의 경우 휴식공간, 관람객 참여 등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 및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사업 모두 연간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성과 제시가 정량적으로 미흡하다

고 판단됨.

- 사업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즉시개선, 차년도 사업 시 개선, 제도 재정비를 통한 중장기적 개선 등으로 분류하고, 사업개선을 위한 혁신활동을 제도화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모니터링의 시기 및 절차,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실적 등을 정리하여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차기연도 사업 수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평균참여관객수 139.9%, 평균창작작품수 157%, 이용자수 123.7% 등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목표치를 초과하는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성과지표중 예술인(단체) 만족도가 2013년 이래 지속 하락 추세에 있으며, 2016년에는 84.6% 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사업의 성과지표 중 미술관이용자만족도는 성과목표치 85점점에 미달하는 81.8점을 달성하여 달성률 96.2% 에 그침

[개선제안]

- 예술인(단체)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진정성과 신뢰 기반의 소통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대부분의 만족도 지표가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족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됨. 향후 단위사업별로 지원대상 및 일반국민을 상대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긍정적 측면]

- 아르코 미술관의 경우, 작품 소장 중심의 전통적 미술관과는 달리 동시대 시각예술의 창작, 생산, 실험적인 작품 전시 기능을 중요하게 설정함으로써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전시관람객은 2015년 32,566명에서 2016년에 58,97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관람객의 전시 만족도와 외부전문가의 전시 평가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시각예술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관람객수가 목표치 582,760명을 초과한 619,697명(달성률 106.33%)을 달성하였으며, 참여예술인수는 목표치 6,118명을 초과한 6,568명(달성률 107.35%)을 달성함으

로써, 예술가와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게 되었고, 이것은 창작역량강화와 문화예술 향수기회 증대라는 기관의 정책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사업은 아르코미술관의 공공미술관으로서의 특색 있는 큐레이터기획전시, 미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특색 있는 운영방식을 통해 공공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방향과 설립목적 달성에 부응한다고 판단됨.
- 공간운영사업을 통해 시각예술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새로운 시각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생태계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ICT 기술의 진전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KAP사업을 통해 예술작품에 대한 국내외 관람객의 작품감상 접근성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현대 미술 소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 활동을 미흡했다고 판단됨. 앞으로 온라인 개인전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객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젝트에 국내 방문자 규모는 2015년 388,477명에서 2016년 580,014명으로 확대되었지만, 전체 방문자 수는 정체 상태에 있으며, 특히 영문홈페이지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 중 시각예술비평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추진성과가 해당사업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도가 낮고, 연계성이 미흡하며, 담론생산 및 이슈화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아르코미술관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노력으로 관람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아르코미술관이 핵심적 공공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온라인 전시회와 함께 온라인 토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고객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작가들의 전시 및 마케팅 플랫폼으

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구체적인 연계, 구매, 교류 협력실적에 대한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세세세부사업의 추진성과가 세세부사업의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낮은 경우 사업을 여타 상위 사업으로 이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개선과제

□ 계획

○ 기관 전략과 사업전략의 연계성 확보

- 아르코 전략체계 상에서 본 사업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전략과제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전략과제 목표와 본 사업(세세부사업 등)목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구조적 일관성을 확보

○ 시각예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 개발

- 현재 7년차 지속되고 있는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영향 연구를 실시하여 온라인 작품전시회를 비롯한 시각예술작가 홍보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지난 7년간의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가 참여한 예술가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각예술 전시, 유통, 홍보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 명확화 및 연계성 확보

-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비평지원사업은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이 아닌 다른 영역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타당성 제고

- ‘시각예술창작지원 평균참여 관람객수’를 측정하는 산식에 대한 타당성 제고와 지표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식개선이 필요하며, 과거추세치 및 타기관 비교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중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목표치 설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은 참여 관객 만족도 등의 질적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 사업은 큐레이터 기획전시 관련 지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관련 지표 등을 개발하여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보다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타당성 있는 성과목표치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년도 상과목표치와 달성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함

○ 아르코미술관 콘텐츠 온라인서비스 연계

- 아르코미술관의 경우 오프라인 프로그램 및 기획전시 콘텐츠 등을 온라인 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아르코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사업의 경우 관람객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여타 미술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집행

○ 아르코미술관의 고객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 아르코미술관은 “실험적이고 국제적인 분야에 특화”된 전시기능 차별화 시도, 지원사업과 연관된 전시 및 자체 기획전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카이브 구축,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관람객규모가 늘어나고, 관람객 만족도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여전히 홍보마케팅 강화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람객 구조를 분석하여 고객개발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고객개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미술관 활동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반의 공유 환경을 조성하여 미술관에 대한 소셜스토리텔링을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은 사업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이 다소 미흡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모니터링의 시기 및 절차,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실적 등을 정리하여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차기연도 사업 수행에 반영할 것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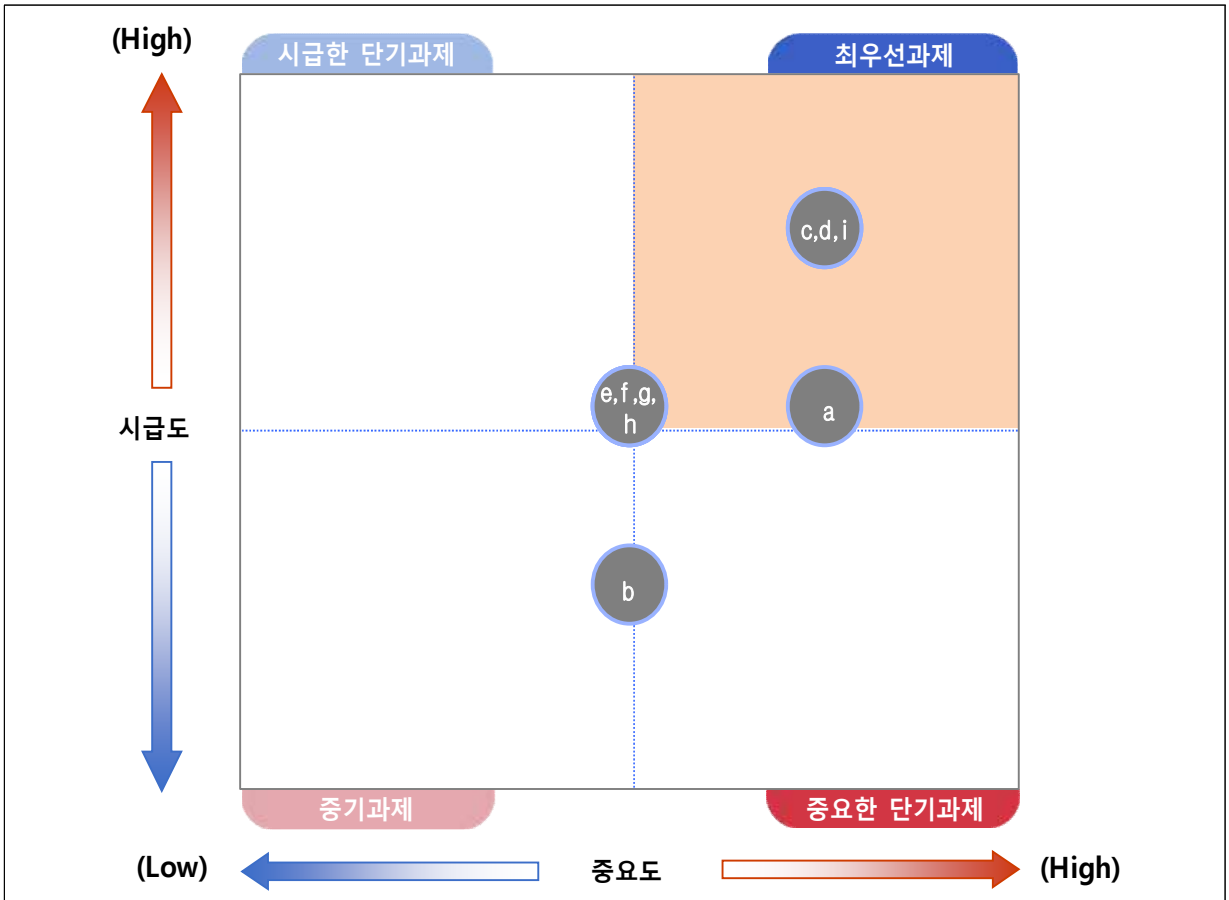
- 사업과정이 사업취지 및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관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체화 (모니터링 활동의 대상, 시점, 방법, 문제점 파악 등 일련의 모니터링 계획 및 실행의 공식화)

□ 성과

○ 예술가(예술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및 사회적 신뢰 회복

- 시각예술창작 육성사업에 대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의 고객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신뢰와 진정성 기반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고객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불만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각예술창작 육성사업의 계획수립 단계, 집행단계, 성과평가 및 환류단계에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과의 소통 워크숍을 추진하고, 지원사업의 성과를 문화예술계와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기관전략과 사업전략의 연계성 확보	4
계획	b	시각예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개발	9
계획	**c**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 명확화 및 연계성 확보**	**1**
계획	**d**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타당성 제고**	**1**
계획	e	아르코 미술관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연계	5
계획	f	아르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확대	5
집행	g	아르코 미술관의 고객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5
집행	h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5
성과	**i**	**예술가(예술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및 사회적 신뢰 회복**	**1**

1분과 세세부사업별 최종보고서

공연예술창작육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뮤지컬) 우수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해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의욕 고취 및 경쟁력 향상

ㅇ 창작부터 유통 및 담론 확산까지, 신진부터 중견·원로예술인까지 창작단계, 창작주기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대표 공연 레퍼토리 육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ㅇ 사업규모 : 21,110백만 원

ㅇ 지원대상 : 예술인·예술단체 및 국민

ㅇ 최종수혜자 : 직접 지원을 통해 생산된 작품을 향유하는 관객(일반국민)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	10% 이상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 (시책과 권장)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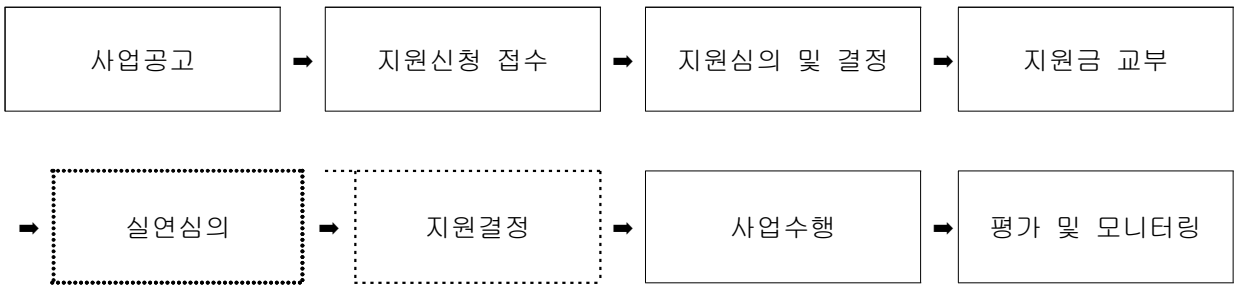
구 분	'14 예산	'15 예산 (A)	'16 예산 (B)	증 감 (B-A)	%
□ 공연예술창작육성	27,240	21,540	21,110	△430	△2.0
▪ 공연예술창작산실	5,340	5,540	6,000	460	8.3
▪ 대관공연장운영	10,800	10,000	500	△9,500	△95.0
▪ 창작뮤지컬육성	5,000	6,000	5,750	△250	△4.2
▪ 공연예술행사지원	6,100	-	7,260	7,260	순증
▪ 원로예술인공연지원	-	-	1,000	1,000	순증
▪ 원로연극제	-	-	300	300	순증
▪ 원로금빛제전	-	-	300	300	순증

□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결산	'15 결산 (A)	'16 결산 (B)	증 감 (B-A)	%
□ 공연예술창작육성	26,562	19,362	20,154	792	4.1
▪ 공연예술창작산실	5,141	4,943	5,688	745	15.1
▪ 대관공연장운영	10,657	9,560	424	△9,136	△95.6
▪ 창작뮤지컬육성	4,808	4,859	5,187	328	6.8
▪ 공연예술행사지원	5,956	-	7,255	7,255	순증
▪ 원로예술인공연지원	-	-	1,000	1,000	순증
▪ 원로연극제	-	-	300	300	순증
▪ 원로금빛제전	-	-	300	300	순증

□ 사업 추진 절차



※ ▭ :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육성의 경우 1차 지원대상자에 한해 실연(쇼케이스) 심의를 추진하여 본 공연 지원대상을 최종 결정함

□ 성과관리

성과 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공연 예술 창작 지원 예술인·단체 만족도 (점)	목표	-	90.2	92.6	91.4	90.0	▪산출근거 및 목표치 산출방식 - '15년도 실적이 전년 대비 7.9점 하락함에 따라. 만족도 결과의 추세치를 감안하여 최근 4년간('12~'15년) 실적이 가장 높은 '13년도 실적을 '16년 목표치 설정의 기준치로 하여 10.3% 상향 설정	▪측정방법 -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및 예술단체 중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측정산식 ∑ (11점 척도) ▪자료출처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결과보고서
	실적	89.2	89.0	83.9	79.2	72.0		
	달성도	-	98.7	90.6	86.7	80.0		
공연 예술 창작 지원 평균 창작 작품수 (건)	목표	-	71	83	86	85	▪산출근거 및 목표치 산출방식 - '15년도 실적이 16점으로 최근 3개년('13년~'15년) 간의 실적 추세치에 비해 현격히 감소하였으므로 전해년도인 '14년도 수준 설정	▪측정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NCAS) 집계 ▪측정산식 - ∑(∑((공연예술창작 작품수) ÷ 지원사업 건수)) ▪자료출처 -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NCAS) 집계
	실적	66	76	82	16	66		
	달성도	-	107.0	98.8	18.6	77.6		
공연 예술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 만족도 (점)	목표	-	신규	85.8	87.7	91.3	▪산출근거 및 목표치 산출방식 - '15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문체부 "고객만족도조사 표준안"의 80점대 점수의 상향목표 반영률 0.6%보다 매우 높은 2.0% 상향목표를 설정	▪측정방법 -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선정된 지원단체의 사업·행사를 참여, 관람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측정산식 - ∑(7점척도) ▪자료출처 - 외부기관 조사결과보고서
	실적	-	-	83.5	89.5	92.7		
	달성도	-	-	97.3	102.1	101.5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table>
<tr><th>평가명
(연도)</th><th>지적사항</th><th>개선사항(실적)</th></tr>
<tr><td rowspan="2">2015</td><td>▪공연창작지원사업 관련 사회적 논란 제기에 따른 개선안 마련 필요(경영평가)</td><td>
<table>
<tr><th>추진과제</th><th>이행
여부</th><th>반영실적/개선사항</th></tr>
<tr><td>심의제도
개선</td><td>완료</td><td>ㅇ선정방식 개선
- (심의위원회) 평론, 연출 뿐 아니라 제작, 투자, 기획 영역의 전문가 포함해 다차원적 검증
- (심의 방식) 서류심의 후 인터뷰, 쇼케이스 방식의 실연을 신규 도입</td></tr>
</table>
</td></tr>
<tr><td>▪유통·소비 단계별 맞춤형 대책 수립(경영평가)</td><td>
<table>
<tr><th>추진과제</th><th>이행
여부</th><th>반영실적/개선사항</th></tr>
<tr><td>유통, 소비
단계별
맞춤형
대책 수립</td><td>완료</td><td>ㅇ 유통과 소비 단계에 대한 지원 도입 및 강화
- (유통) 해외공동제작 및 진출 관련 집중 지원
- (소비) 새로운 소비자 그룹(어린이청소년 및 원로) 발굴,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병행</td></tr>
</table>
</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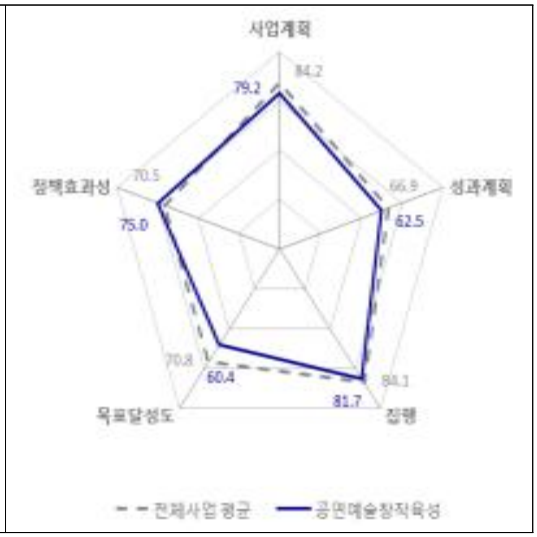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공연예술창작육성」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5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79.2점, ‘성과계획’ 62.5점, ‘집행’ 81.7점, ‘목표달성도’ 60.4점, ‘정책효과성’ 75.0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정책효과성(+4.5)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사업계획(-5.0), 성과계획(-4.4), 목표달성도(-10.4), 집행(-2.4) 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3점)	2.6	87.5	79.2
	1-2(3점)	2.3	75.0	
	1-3(4점)	3.0	75.0	
성과계획	2-1(5점)	3.8	75.0	62.5
	2-2(5점)	2.5	50.0	
집행	3-1(15점)	12.4	82.5	81.7
	3-2(5점)	4.4	87.5	
	3-3(10점)	7.5	75.0	
목표달성도	4-1(30점)	18.1	60.4	
정책효과성	5-1(20점)	15.0	75.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 「공연예술창작육성」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4.3(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와 ‘집행’ 항목 중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이며 87.5점으로 평가됨

○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 항목 중 ‘2-2. 성과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이며 5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공연예술창작 육성사업은 공연예술창작, 온라인 미디어 유통 및 마케팅, 예술과 기술의 융합, 신진 공연예술 인력 양성, 비평담론 활성화, 어린이청소년 관객개발 등을 통해 공연예술 생태계 맥락에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원로예술인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원로예술인들의 특성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지원체계를 실연심의(쇼케이스), 제작지원, 재공연 등으로 세분화하고, 창작산실 작품의 확산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 점,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평론가, 연출가 뿐 아니라 기획, 제작사,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확대한 점은 기존의 제작 및 공연 중심의 지원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나, “공연예술행사”의 경우, 개별 행사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활동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제시한 성과지표(공연예술창작지원예술인·단체만족도, 공연예술창작지원 평균 창작 작품 수, 공연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만족도)가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의 목표와 연계성이 있으나, 지원 사업을 통해 산출된 공연예술작품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미흡하며, 공연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와 같이 사업의 최종수혜자의 참여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달성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치 대비 상향하여 설정하였으나, 최근 수년간의 목표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성과목표치 산정기준이 일관성과 합리성이 미흡하다는 판단됨. 타당한 성과목표치 설정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수년간의 성과목표치와 달성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가 성과목표치 91.3점을 초과하여 92.7점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달성값은 2014년도 이후 최고의 성과이다. 그러나 공연예술창작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는 성과목표치 90.0점에 미달하는 72.0을 달성하였으며, 공연예술창작지원 평균 창작작품 수는 성과목표치 85건에 미달하는 66건을 달성하여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지원예술인(단체)만족도 목표미달성의 경우,지원예술인(단체) 선정이 강화되고 최종 탈락한 예술인(단체)의 부정적 평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되나, 근본적으로

는 지원예술인(단체) 선정 프로세스가 참여예술인(단체)로부터 합리성과 공감성을 얻는 데 부족했다는 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 예산집행률은 95.5%를 달성하였으며, 공연예술창작산실 94.8%, 창작뮤지컬육성 90.2%, 대관공연장운영 84.8%의 예산집행률을 보여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집행예산의 47.5%인 9,750백만원이 4/4분기에 지출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별 특성에 따른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고 있으나 공연예술육성사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7개 세부사업의 균형성을 고려해 볼 때, 3개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이 예산, 사업내용 등의 편차가 심하고 독립된 세부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세부사업 통합 및 재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기타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 제고, 경영목표와 연계한 참여관객수 성과지표의 신설,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평가 이외에 내부직원이 참여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공연예술창작 지원 예술인 및 단체의 만족도 증진, 비평 담론의 소셜미디어 공유 활성화, 4차산업혁명시대의 예술과 기술 및 미디어의 융합 체계 구축, 공연예술행사의 성과 구체화, 사업 결과 및 영향 평가 차원의 성과체계 강화, 원로예술인 사업의 목표와 성과 구체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기관 정관에서 규정한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하여 공연예술분야 창작 전주기에 대한 지원과 공연예술 확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관 전략목표(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 ①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뮤지컬) 우수 창작작품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해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의욕 고취 및 경쟁력 향상, ②창작부터 유통 및 담론 확산까지, 신진부터 중견·원로예술인까지 창작단계, 창작주기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대표 공연 레퍼토리 육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신진예술가 발굴, 작곡가 및 극작가 양성, 전통예술분야의 신진 기획자 양성, 새로운 공연 창작 실험 활동 등 새로운 공연예술 인력 양성 및 창작 실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은 향후 공연예술생태계에 인력 기반 구축 및 공연예술의 다양성 증진 차원에서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어린이 청소년 공연예술 활성화, 제1회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개최 등은 어린이 청소년을 공연예술 관객 개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저출산사회, 미래 공연예술 관객 개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 창작 활동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네이버 TV 캐스트, 실황중계, Mnet 협력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한 점은 창작 활동과 마케팅 활동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사업의 파급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원로연극제, 원로금빛제전 등 원로예술인에 초점을 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왜 ‘원로예술인’인가에 대한 사업목적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예컨대, 원로금빛제전 사업의 경우, ‘소외된 지역의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문화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와 연계체계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됨.

- 14년 및 15년도의 경우 공연예술창작, 대관공연장운영, 공연예술행사지원 등으로 세부사업간의 예산규모 및 사업분류가 비교적 균형적으로 구성되었으나, 16년도의 경우 세부사업 구성의 균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원로예술인과 연관된 사업의 경우, 원로예술인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단지 원로예술인들의 문화복지 차원을 넘어, 원로예술인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조망이나 원로예술인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원로예술인과 신진 예술인들의 협업 활성화 등으로 사업 목적을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은 사업명과 같이 우수 창작작품을 발굴 육성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서 사업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공연창작 활성화 지원사업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원방식의 차별성을 시도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공연예술 생태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결과를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 사업의 경우 지자체나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점이 있으나, 전국단위 지원 및 소수 집중지원방식이라는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은 전국적 지정행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공연예술가들이 창작공연작품의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관객과의 공감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공연예술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공연예술 행사가 전국적인 차원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연예술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

행사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의 차별성에 대해 ‘지원방식의 차이’에 한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창작산실사업과 창작뮤지컬육성사업의 경우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작품지원사업과 수혜대상의 범위와 사업방식에 차별성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사업의 내용이 유사·중복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사업과 수혜대상이나 사업의 내용 등에서 유사·중복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대관공연장운영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 중심부 공연장을 저렴하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공연장 지원 내용과는 일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됨.
- 원로연극제, 원료예술인공연지원, 원로금빛제전 등의 단위사업은 공연예술창작육성 사업의 단위사업 간 중복,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과 일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공연 창작 활성화 사업에 관한 방향 정립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관계자들의 협의와 조정 회의를 상설로 추진하여 사업의 차별성과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행사 지원사업의 경우, 개별 공연예술 행사의 특성 분석 및 유형화를 통해 개별 공연예술행사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연예술행사가 전국적인 차원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연예술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원로예술인지원사업을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 및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지원체계를 실연심의(쇼케이스), 제작지원, 재공연지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작품제작 지원을 재정지원, 공연장 제공, 전문인력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으로 다각화한 점은 공연시장 맥락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심의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평론가 및 연출가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획, 제작사, 마케팅 전문가로 확대한 점은 공연예술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네이버 TV 캐스트, 실황중계, Mnet 협력 등 새로운 미디어를 창작산실 작품의 확산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한 점은 창작품의 가치사슬 기반을 확대하고, 공연예술 소비자들과의 소통 기반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육성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보유한 공연장, 홍보채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의 경우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육성 사업의 경우 서류심의 및 PT심의 후 실연심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개선노력이 이루어져 사업추진의 공정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됨.
- 대관공연장운영 사업의 경우 공연 운영매뉴얼 신규 마련, 관객서비스품질 개선 등의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공연장 가동율을 전년 대비 21% 향상시키고 관람객수도 전년 대비 1.74배 향상시키는 등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예술과 기술을 연계한 “새로운 공연 창작 실험” 사업의 경우, 향후 예술과 기술 및 미디어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예술형식을 창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를 위한 예술계 및 사회의 인식 공감 활동이나 융합 플랫폼 구축 활동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의 경우, 공연예술 행사의 목적, 맥락, 프로그램, 추진역량 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성을 지원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원로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업을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뮤지컬창작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국민이 향유하고 또한 한류의 중심에 있는 대중음악공

연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원로연극제의 경우 원로연극인 재조명 및 신진연극인 창작의욕고취 등의 긍정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 내에서 당연지원분야로 지원하여 세부사업 단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4차산업혁명시대의 문화예술과 기술 및 미디어 융합 플랫폼 구축에 관한 연구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융복합 기반의 협업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원심의기준 및 성과관리 차원에서 예술성을 핵심요소로 고려하되, 시장성, 공공성, 예술경영 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는 다른 지원사업 영역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선을 제안함
- 대중음악의 사회적 · 산업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차치하더라도 대중음악이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역량을 기반으로 여타 장르의 예술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지원함으로써 그 예술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에 대중음악 창작 및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공연예술 창작지원 예술인 및 단체 만족도 지표의 경우, 지원사업의 핵심 행위자라는 측면에서 만족도 조사 결과가 향후 지원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됨.
- 공연예술 프로그램 참여 관객 만족도 지표의 경우, 작품 자체에 대한 만족 뿐 아니라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경영 부문까지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결과가 향후 지원 사업 개선 뿐 아니라 공연예술단체의 예술경영 개선의 준거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공연예술 창작지원 평균창작작품수 지표의 경우, 투입에 따른 산출 수준의 지

표로서 구체적으로 평균창작작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투입되는 재정규모에 따라 창작작품수의 규모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공연예술가 및 공연예술단체의 활동과 창작작품수의 관계에 관한 인과모델이 정립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지표의 활용도가 다소 낮다고 판단됨.

- 지원 사업을 통해 산출된 공연예술작품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없으며,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관람객)에 대한 정량적 지표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공연예술 창작 지원 평균창작작품수의 지표 조사 결과가 실제로 공연예술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경로와 과정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단년도 사업 성과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가칭 “공연예술창작 환경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연창작 활성화 사업이 2년도는 3년 후에 실제로 현장의 공연예술 창작 환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수 창작 작품을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산출된 공연예술작품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하고, 공연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와 같이 사업의 최종수혜자의 참여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 중 공연예술창작지원 평균 창작 작품 수를 공연예술창작지원 창작작품 수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공연예술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 만족도의 경우, 목표치를 전년도 달성치와 최근 3년간의 지속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참여관객 만족도’의 목표치는 주무부처의 ‘고객만족도조사 표준안’의 상향목표 반영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설정근거가 명확하고 목표수준도 도전적인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공연예술창작 지원 예술인(단체) 만족도의 경우, 2015년에 목표 91.4에 달성은 79.2로 목표와 달성수준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목표치를 90.0으로 설정한 것은 전년도 목표와 달성지표의 격차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창작지원 평균 창작작품의 수의 경우, 2014년 지표수준을 바탕으로 설정함으로써, 2015년도와 2016년도의 변화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공연예술창작지원 평균작품수'는 15년도 실적부진에 대한 사업성과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였으나, 전년도 수준(86건)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그쳤음(85건). 이는 예산의 증가(15년 5,540백만원 → 16년 6,000백만원)를 감안한다면 도전성이 부족한 목표치 수준이라고 평가됨.
- '창작지원 예술인(단체)만족도'의 경우 13년도 실적치(89.0점)를 16년도 목표치 설정의 기준으로 하여 10.3% 상향 설정하였다고 하였으나, 16년 목표치는 90.0점으로 설정되어 있어 목표설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목표치와 달성치의 격차에 대한 요인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목표치 설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16년도 지원사업 관련 환경 분석, 해당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등을 통해 목표치 설정이 갖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목표설정 과정에서 과거추세치, 타기관 비교치, 경영목표와의 연계성, 예산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타당한 목표치가 설정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7개 세부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95.5%를 달성하여 양호한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전년도 89.9% 집행률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원로연극제, 원로금빛제전 사업은 예산을 100% 집행하였으며, 공연예술행사지원은 99.9% 집행함
- 연초 수립한 예산계획이 각 분기별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됨으로써, 예산집행의 정합성이 확보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대관공연장 운영사업의 경우, 84.8%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창작뮤지컬 육성 사업의 경우, 90.2%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집행예산의 47.5%인 9,750백만 원이 4/4분기에 지출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와 불확실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측하여 사업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특히 사업 중도포기로 인한 미집행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산이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모니터링시스템을 포함한 예산집행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대관공연장운영 사업의 경우 직접사업이라는 점은 감안한다면 보다 면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계획의 집행 적정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전문평가단, 관객평가단,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사업현장평가, 예술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공연예술창작실과 창작뮤지컬 육성,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공연예술행사 지원 등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사업별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
- 기관 담당자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유선, 전자우편, 현장 면담 등의 상시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사업별 특성에 따른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연예술육성사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모니터링 활동은 사업이 개시된 이후 지원대상 단체 및 개인이 지원조건을 준수하고 계획된 사업이 문제없이 수행되고 있는가를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파악하여 조치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 모니터링 단계 성과파악 및 환류단계로 '모니터링 활동'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추진 과정관리에도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모니터링과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하여 문제탐색 및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종료 시점에서 성과 평가 및 공유 워크숍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른 각 단계별로 적정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즉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분기별 모니터링보고서발간을 비롯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선사항을 차기연도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공연예술 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탐색하고, 실제로 비평지원-창작지원사업 연계, 기관홍보채널과 연계한

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지원작품 관람객수와 수상건수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대관공연장 운영사업의 경우 감사원 지적사항에 2015년 공연장 가동률이 69.1%로 저조함을 지적받고 대관 조건을 현장 친화적으로 개선, 수시공모 등을 통해 가동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6년 가동률이 90.1%로 상승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예산미집행,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그 결과 및 분석에 대한 제시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창작육성 사업의 경우, 선정단계의 지원방식이 변경되고 최종 미선정 예술인(단체)의 불만이 발생되었으나, 이에 대한 불만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예산집행률, 성과지표달성률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함
- 최종 미선정 예술인(단체)의 불만원인분석 및 지원절차 개선, 지원 프로세스 투명성 제고 등 고객서비스 품질혁신 활동을 추진하기를 제안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공연예술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 만족도는 92.7로 계획 91.3 대비 101.5% 달성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공연예술창작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는 72.0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며, 계획 90.0 대비 달성율은 80.0으로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공연예술창작지원 평균 창작작품수의 경우, 66건으로 계획(85건) 대비 달성율은 77.6%로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음.

[개선제안]

- 공연예술창작 지원 예술인(단체)의 만족요인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불만족 요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 성과지표 중 공연예술창작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 공연예술창작지원 평균 창작 작품 수가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검토하여 규명하고 차년도 사업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을 명료화, 체계화할 것을 제안함.
- 공연예술창작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의 경우 본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단체)의 부정적 평가가 일부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본질적으로는 지원예술인(단체) 선정 프로세스가 참여예술인(단체)로부터 합리성과 공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근본원인일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 · 시행하는 노력이 추진되기를 제안함.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긍정적 측면]

- 공연예술 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 사업의 경우, 창작작품의 관객개발, 수상, 해외진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창작작품의 유통 확산을 위해 외부 플랫폼과의 홍보마케팅 연계 체계를 구축

하고,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 창작 지원을 통한 우수 작품의 개발, 공연장 등의 인프라 구축과 개발을 통한 공연 창작 기반 강화,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예술의 활성화 그리고 이러한 제반활동의 최종 결과로 나타나는 관객 확대를 통한 국민문화예술향유권 증진 등의 성과는 문예위의 정책목표 및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네이버와 협력을 통한 연극 및 전통예술의 온라인 중계와 M-net과의 협력을 통한 〈판스틸러〉 제작 · 방영을 통한 전통예술의 대중화 시도 등은 국민문화예술향유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지원한 창작작품이 KOPIS 박스오피스에 다수 진입하였고 공연예술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공연대관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볼 때, 공연예술인(단체)의 창작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확산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대관장 운영사업의 경우, 제작비 절감 효과, 관객서비스 제고효과 등을 창출하였으나, 기존 대관료 사업과의 통합적 관리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관의 주요 설립목적인 (관객 확대를 통한) 국민문화예술향유권 증진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음
- 동 사업을 통해 공정한 선정에 집중하는 관점에서 작품창작 과정 전주기별 지원과 함께 관객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였다고 하였으나, 관객개발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사업전략의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공연예술 대관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대관장 운영사업을 공간대관 지원 사업 맥락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은 예술계의 산 증인인 원로예술인 조명, 참여, 공유 등의 맥락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제작된 공연예술작품의 전체 관객 수를 정량 성과지표로 개발하여 관객 확대를 통한 국민문화예술향유권 증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의 경우 타 세부사업과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단위를 재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개선과제

□ 계획

○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실태조사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산업 실태와 어린이 청소년의 공연예술 활동 실태에 대한 지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저출산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원로예술인 조명-참여-공유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은 사업명과 같이 우수 창작작품을 발굴 육성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서 사업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적 연계성이 약한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여타 사업부문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의 경우 타 세부사업과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단위를 재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 원로연극제,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원로금빛제전 등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명” “참여” “공유”의 키워드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와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이를 통해 왜 ‘원로예술인’을 지원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성 확보 필요.
-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원로예술인들의 업적과 활동에 대한 역사적 조명, 원로예술인들과 신진예술가가 함께 하는 공연 활동, 원로예술인과 함께 하는 공연 이야기 워크숍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연예술 창작 및 유통 플랫폼 활성화 사업 개발

- 4차 산업혁명이 국정과제로 설정되면서 문화예술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공연예술 지원 정책 또한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공연예술의 경우, 창작, 고객개발, 유통, 마케팅 등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및 미디어와의 융합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하여 융복합 기반의 공연예술 창작 실험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공연예술단체의 다양한 뉴미디어 마케팅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보완 및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확보
- 지원 사업을 통해 산출된 공연예술작품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최종수혜자의 참여 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개발이 요구됨
- 예를 들어 공연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와 같은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것을 통해 국민 문화예술향유권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타당한 성과목표치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수년간의 성과목표치와 달성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면서도 보다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함
- 기관 전체의 경영목표와 연계한 ‘참여관객수’ 지표를 신설하여 사업의 양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신설을 도입하기를 제안함.
- 목표설정 과정에서 과거추세치, 타기관 비교치, 경영목표와의 연계성, 예산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타당한 목표치가 설정되도록 합리성 제고 추진

□ 집행

○ 공연예술창작 지원예술인(단체)와의 소통 및 공감 플랫폼 활성화
- 지원예술인(단체)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예술인과 예술단체들과의 소통 및 공감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산집행관리체계 강화
-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특히 사업 중도포기로 인한 미집행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이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모니터링시스템을 포함한 예산

집행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

- 대관공연장운영 사업의 경우 직접사업이라는 점은 감안한다면 보다 면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계획의 집행 적정성을 높이는 체계를 재구축

○ 통합적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사업별 특성에 따른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연예술육성사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이 요망됨
- 특히 분기별 모니터링보고서를 발간하여 모니터링의 효과성을 제고함
- 예산집행률, 성과지표달성률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보완함
- 공연예술창작육성 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전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방법, 주체, 시기 및 횟수 등)를 체계화.

□ 성과

○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사업의 영향연구

-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사업 평가를 산출 수준을 넘어 결과 및 영향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종료 시점 이후에도 지원 사업이 실제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 그리고 공연예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2년 또는 3년 마다 정기적으로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시원사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노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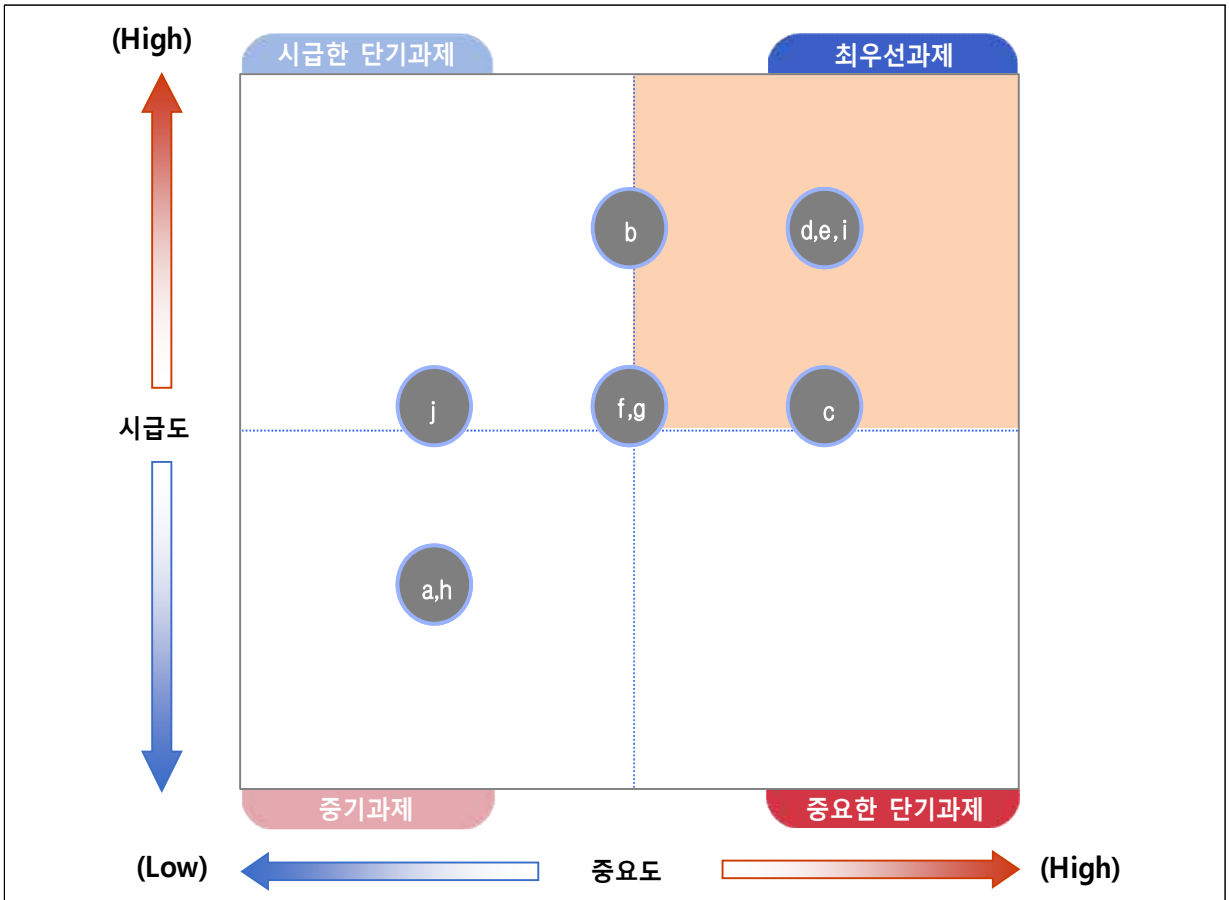
- 성과지표 중 공연예술창작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 공연예술창작지원 평균 창작 작품 수가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검토하여 규명하고 차년도 사업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에 앞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을 명료화, 체계화할 것을 제안함

○ 피지원 대상선정 프로세스 개선

- 지원예술인(단체) 선정 프로세스가 참여예술인(단체)로부터 합리성과 공감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근본원인일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 · 시행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어린이 창소년 공연예술 실태조사	9
계획	b	원로예술인 조명-참여- 공유 활성화 지원체계 개발	4
계획	c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연예술 창작 및 유통 플랫폼 활성화 사업 개발	4
계획	**d**	**성과지표 보완 및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확보**	**1**
집행	**e**	**공연예술창작 지원예술인(단체)와의 소통과 공감 플랫폼 활성화**	**1**
집행	f	예산집행관리체계 강화	6
집행	g	통합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6
성과	h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사업의 영향 연구	9
성과	**i**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노력 강화**	**1**
성과	j	피지원 대상 선정 프로세스 개선	8

1분과 세세부사업별 최종보고서

예술인력재교육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초예술분야의 지속가능한 현장 성장동력 확충 및 창작활성화를 위하여 신진 예술인력, 문화예술매개, 무대예술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 타 산업분에 비하여 열악한 문화예술분야 실업 해소를 위하여 고용창출 및 일자리 확충 등 직간접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예술창작 활성화 기여

□ 사업내용

○ 예술현장의 성장동력 확충 및 창작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인력, 매개인력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 문화예술 신진인력 및 현장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고용시장 활성화를 통한 예술창작 활성화, 창작여건 개선

○ 사업규모 : 12,593백만원

(※ 16년 예술창작지원 인력육성 지원사업 통합으로 증가)

* 2013년 766백만원 → 2014년 6,618백만원 → 2015년 6,61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단년도 / 계속사업)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민간 예술단체, 예술분야 종사자

○ 최종수혜자 : 예술분야 종사자 및 예술분야 졸업자

○ 지원형태 : 직접사업 및 민간경상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보조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예술단체 및 개인	80%~100%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문화부 훈령) 제2장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보조비율)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결산	'15 결산 (A)	'16 결산 (B)	증 감 (B-A)	%
□ 예술인력육성	6,502	6,460	12,281	5,821	47.4
▪ 창의예술인력센터운영 (구. 예술인력개발원운영)	481	472	466	△ 6	△ 1.3
▪ 무대예술전문교육 (국제공연전문가시리즈 포함)	480	384	546	162	29.7
▪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	1,000	1,000	1,300	300	23.1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4,491	4,554	4,478	△ 76	△ 1.7
▪ 전통예술기획자양성	50	50	-	편제 이동	-
▪ 사립미술관전문인력운영지원	-	-	1,412	편제 이동	-
▪ 공연예술전문인력(스태프)지원	-	-	4,078	편제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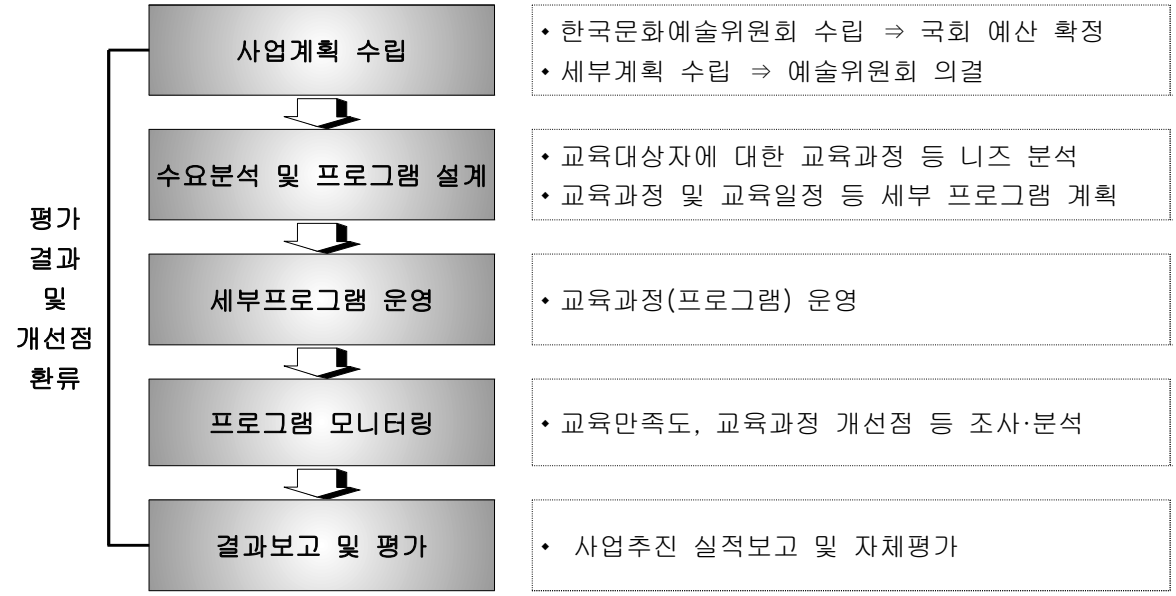
□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예산	'16 예산 (A)	'17 예산 (B)	증 감 (B-A)	%
□ 예술인력육성	6,618	12,593	14,234	1,641	13.0
▪ 차세대예술인력육성	-	-	2,400	편제 이동	
▪ 창의예술인력센터운영 (구. 예술인력개발원운영)	500	496	496	-	0.0
▪ 무대예술전문교육 (국제공연전문가시리즈 포함)	500	600	600	-	0.0
▪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	1,000	1,300	1,300	-	0.0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4,568	4,568	4,016	552	12.1
▪ 전통예술기획자양성	50	-	-	편제 이동	
▪ 사립미술관전문인력운영지원	-	1,412	1,412	-	0.0
▪ 공연예술전문인력(스태프)지원	-	4,217	2,680	1,537	36.4
▪ 예술가의집운영 (구.인문문예소통공간운영)	-	-	330	편제 이동	
▪ 창작뮤지컬아카데미	-	-	100	편제 이동	

□ 사업추진 절차

ㅇ 직접사업 추진체계



ㅇ 지원사업 추진체계



□ 성과관리

성과 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교육 만족도 (점)	목표	86.0	90.0	91.0	90.0	90.0	▪목표 산출근거 (산출방식) - 최근 4년(12년~15년)간 실적의 평균치(90.15점)를 반영하되, '15년 이후 척도 변경(7점 → 11점)을 감안 '16년 목표를 90.0점으로 설정 *기금 지원사업 제외	▪측정방법 - 전체 모집단 중 표본 비례할당 ▪측정산식 - ∑(11점 척도)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실적	86.7	95.8	90.8	(변경) 87.3	73.6		
	달성도 (%)	100.8	106.4	99.8	97.0	81.8		
현장예술 인력 일자리 창출수 (명)	목표	-	-	신규	662	683	▪산출근거 - 사업별 예산 지원대비 최대 가능한 인원수를 목표치로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해당 내역사업별 최대 가능인원수 합산 - 연수단원 : 332명 - 공연전문인력 : 269명 - 사립미술관 : 82명	▪측정방법 - 자체조사 ▪측정산식 -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수+공연예술 전문인력수+사립미술 관전문인력수) ▪자료출처 -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	-	578	662	698		
	달성도 (%)	-	-	-	100.0	102.2		
예술인력 육성 지원사업 참여관객 수 (천명)	목표	-	신규	3,758	5,655	5,011	▪산출근거 - '16년 유사사업 자체통합에 따른 편제 이동에 따른 예산증감 등을 고려하여, '15년 실적을 기준치로 하여 전년대비 3% 수준의 상향목표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 '15년도 실적 x 103% = 4,867 x 103% ≒ 5,011천명	※ 16년 지표 변경 ▪측정방법 - 지원사업 실적집계 ▪측정산식 - ∑ [(∑연수단원지원 사업 참여관객수) + (∑사립미술관전문인 력지원사업 참여관객 수) + (∑공연예술 스태프지원사업 참여관객수)] ▪자료출처 -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	-	5,829	4,867	6,596		
	달성도 (%)	-	-	155.1	86.1	131.6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table>
<tr><th>평가명
(연도)</th><th>지적사항</th><th>개선사항(실적)</th></tr>
<tr><td rowspan="2">보조사업
연장평가
(2016)</td><td>▪ (보조사업의 효과성) 동 사업이 과연 당초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파악할 근거가 부족하여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 부족함.</td><td>
<table>
<tr><th>추진과제</th><th>이행
여부</th><th>반영실적/개선사항</th></tr>
<tr><td>성과관리
적정성
제고</td><td>이행
중</td><td>▪ 교육사업 특성상 효과성 파악이 어려우나, 단년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성과연구 등을 통해 사업성과 연구 진행 중이며,
▪ 예술인력 추적조사 등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성과와 효과성 조사할 예정임.</td></tr>
</table>
</td></tr>
<tr><td>▪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문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사업주관기관의 연수단체 선발기준 상이하고 비전공자 연수단원을 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보조사업자의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혜자 등의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td><td>
<table>
<tr><th>추진과제</th><th>이행
여부</th><th>반영실적/개선사항</th></tr>
<tr><td>문화예술
기관연수
단원지원
사업
추진체계
개선</td><td>완료</td><td>▪ 2016년부터 사업주관처를 통한 보조사업자 지원방식을 폐지하고, 예술위원회 직접사업으로 개편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
▪ 기존 사업주관처별로 상이하였던 연수단원 선발기준을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비전공자 연수단원 채용을 원칙적으로 제안하되, 지역과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연수단원 채용기준을 시행
▪ 보조사업자 지원결정을 예술위가 직접 공모/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채용된 연수단원 자격조건을 보조금 교부전 확인함으로써 보조사업자 및 연수단원 선정의 합리성 제고</td></tr>
</table>
</td></tr>
<tr><td>기금존치
평가
(2016)</td><td>해당사항 없음</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재정사업
평가
(2016)</td><td>해당사항 없음</td><td>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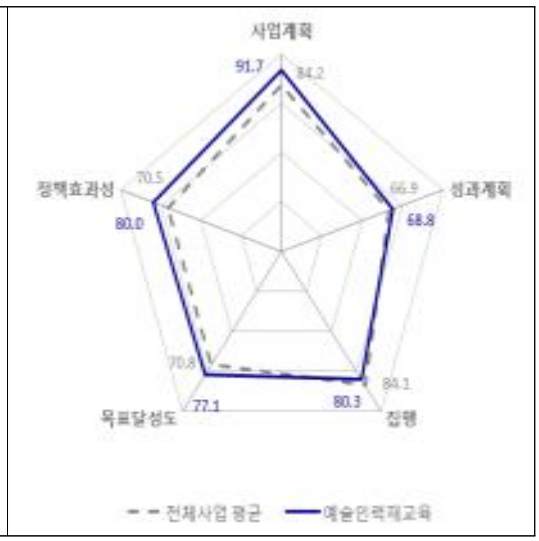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예술인력재교육」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5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91.7점, ‘성과계획’ 68.8점, ‘집행’ 80.3점, ‘목표달성도’ 77.1점, ‘정책효과성’ 80.0점 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7.5), 성과계획(+1.9), 정책효과성(+9.5), 목표달성도(+6.3)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집행(-3.8)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3점)	2.6	87.5	91.7
	1-2(3점)	3.0	100	
	1-3(4점)	3.5	87.5	
성과계획	2-1(5점)	3.8	75.0	68.8
	2-2(5점)	3.1	62.5	
집행	3-1(15점)	11.8	78.3	80.3
	3-2(5점)	4.4	87.5	
	3-3(10점)	7.5	75.0	
목표달성도	4-1(30점)	23.1	77.1	
정책효과성	5-1(20점)	16.0	8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 「예술인력재교육」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81.0(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 항목 중 ‘2-2. 성과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이며 62.5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은 국내 유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대예술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구개발 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 육성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1,4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취업 가능성을 77.1%로 높게 달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지원 중단 시 취업 지속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지원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됨. 예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고용의 지속성 및 정규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년도 사업으로의 개선이 요구됨

○ 예술인력 육성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생들의 참여와 협력 및 인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73.6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교육커리큘럼, 교육방법론, 교육강사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 중 교육만족도와 현장예술인력 일자리 창출 수는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라고 판단되나 예술인력육성사업의 사업목적에 집중하여 교육 및 취업과 관련하여 성과지표를 개선 할 것을 제안하며, 총교육자수, 총지원자수(교육+일자리+인건비 등), 지원사업참여자정규직전환비율, 지원사업참여자근속연수 등의 지표 개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산집행률은 97.5%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분기별 예산집행률이 1/4분기 34.2%, 2/4분기 69.1%, 3/4분기 166.2%, 4/4분기 384.9%로 나타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이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예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원결정 · 계획수립, 사업시행, 성과 및 결과보고, 성과평가로 이어지는 사업의 각 단계마다 외부 전문가의 모니터링과 사업대상자인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인력 육성사업은 문화예술매개인력 및 무대예술전문인력 등의 양성 및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예술인력으로서의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무대예술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무대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무대예술에 접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문화예술 인력의 취업률이 낮고,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의 인력 채용 역량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술인력 육성 사업은 문화예술 인력의 고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신진 예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직무교육과 함께 예술현장인력 직무역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예술전문 인력의 역량 향상 성과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예술인력 양성에 대한 현장 수요, 그리고 재교육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인건비 지원사업(연수단원, 공연예술 전문인력,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예술인력육성에 기여하겠으나 단기적인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기적으로 예술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예술인력 수급, 노동시장, 재교육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원 사업의 준거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목적은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함

-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단년도 지원에 그치지 않고 2개년 지원사업을 검토함으로써, 신진 예술인력이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전문인력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단, 2년차 지원 시에는 1년차 지원금액의 50% 수준을 지원하여 안정적 소프트랜딩을 유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인력 육성사업의 경우, 무대예술인력의 교육, 창작과 기획 및 매개 인력의 현장 고용 기회와 경력개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 또는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됨.
- 무대예술인력 교육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무대예술인력 양성 및 재교육 분야의 유일한 사업으로 예술강사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사업과 문화예술기획경영인력 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는 예술경영지원센터 교육사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진인력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과 일자리 지원사업은 문예위 정관 2조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으로 고유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신진 예술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은 예술인력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새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및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전통예술기획자 양성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기획(프로듀서) 분야와 지원 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술전문인력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술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층에 대한 직업교육, 예술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자하는 장애인 대상 특수 교육 등 수혜대상을 다양화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현재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추후에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기획(프로듀서) 분야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통예술기

획자 양성 및 지역문화기획과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ICT융합기술 확산에 따라 청소년, 장애인 대상의 차별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예술전문인력의 CT(Culture Technology)융합 직무교육 등의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예술인력 지원을 육성층위, 일자리 창출 및 안정화 층위, 재교육 층위 등으로 구분하여 층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방식을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전문 인력의 유형을 창작, 기획, 매개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설정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사업의 내용이 사업목적을 실현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세세세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신진인력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과 일자리 지원사업은 문예위 정관 2조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으로 고유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신진 예술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은 예술인력육성을 위한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1년 단기 사업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될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 인력의 활동 기간은 단축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지속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스태프)지원 등의 예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고용의 지속성 및 정규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중음악 분야의 무대기술 측면에서의 발전은 여타 예술장르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문예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중 대중음악 관련 사업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 예술분야 전문 인력 재교육, 직무기회 제공 등의 사업을 통해 일자리 지원까지 연계되도록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다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육성된 인력을 예술단체 및 기관과 일자리를 매칭(Matching)해 주는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무대예술인력의 수급 및 재교육 수요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 추진의 준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수요 예측 과정에서 기존 통계 자료 뿐 아니라 현장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이 예술 인력을 지속,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년 정도의 다년도 사업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무대기술 분야는 대중음악공연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므로 뮤지컬, 연극, 무용 등 여타 공연예술장르와 교류한다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여 사업의 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무대기술 교육과정에 대중음악공연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교육생 만족도는 교육 프로그램이 신진 및 현장 예술 인력의 창작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및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 현장예술 인력 일자리 창출 수는 예술인력 육성 차원에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다소 높으며, 지원사업 참여관객 수는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지원을 통해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현장예술 인력 일자리 창출 수는 예술인력 육성 차원에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재정규모 등 투입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 및 영향 지표로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가 하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지원사업 참여관객수는 전문 인력 양성과 고용지원을 통해 예술단체의 예술활동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지원 사업 참여 관객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전문 인력의 확보 외에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 참여관객수의 변화가 예술인력 지원사업의 결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예술인력육성지원사업 참여관객 수의 경우 사업목적(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예술분야 고용창출 등 직간접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예술창작 활성화) 및 성과목표(문화예술 현장인력 전문성 제고 및 일자리 확대)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예술전문인력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예술현장 전문 인력의 현장 근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새로운 평가지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지원사업 참여 관객수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로서의 지속적인 활용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술인력육성사업의 사업목적에 집중하여 교육 및 취업과 관련하여 성과지표를 개선 할 것을 제안하며, 총교육자 수, 총지원자 수(교육+일자리+인건비 등), 지원사업참여자정규직전환비율, 지원사업참여자근속연수 등의 지표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장예술인력 일자리 창출수 성과지표를 확대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수와 예술전문 인력을 예술단체(기관) 일자리와 매칭을 성공한 인원수를 반영한 복합지표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교육만족도, 현장예술인력 일자리 창출수, 지원사업 참여관객수 모두 전년도 목표치와 달성도, 예산규모 변화에 초점을 두고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내외 환경변화, 현장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교육만족도’ 목표치는 과거 4개년치 평균치(90.15점)를 기반으로 기관 고객만

족도 우수등급 수준인 90.0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현장예술인력 일자리창출 수는 전년도 실적 662명을 상회하는 683명으로 설정하였고, 지원사업 참여관객 수는 전년도 실적 4,867명을 상회하는 5,011명으로 설정하는 등 전년도 실적 대비 다소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했다고 판단됨.

- 현장예술인력 일자리창출수 목표치는 과거 목표 및 실적치를 고려해 볼 때, 목표치의 상향정도나 지표의 안정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성과지표 중 교육만족도는 전년도 성과목표치와 같은 90.0점을 성과목표치로 설정하였으며, 지원사업 참여관객 수는 전년도 성과목표치 5,655명에서 하향 조정된 5,011명을 성과목표치로 제시하여 전년도 실적과 대비해서는 상향 조정된 성과목표치이나 전년도 성과목표치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다소 소극적인 성과목표치로 판단됨

[개선제안]

- 성과목표치 설정을 위한 예술인력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사전에 예술인력이 지원되어 활동하게 될 예술단체 및 기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간담회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목표치 산출 기준이 연차별로 동일해야 하며, 산출기준이 변경될 경우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보다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여관객수의 경우 지표타당성(지표산식 및 항목) 재점검과 함께, 목표치 설정 근거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6개 세부사업별 전체 예산집행은 예산계획 대비 평균 97.5%의 집행율을 달성하였으며, 과거 3개년 집행율의 추세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분기별 예산집행률이 1/4분기 34.2%, 2/4분기 69.1%, 3/4분기 166.2%, 4/4분기 384.9%인 것은 교부일정의 지연 등의 전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 실적이며, 이렇게 예산집행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사업추진의 효과성도 저하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당초 분기별 예산 계획과 달리 하반기에 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예산계획과 정합성이 미흡하게 나타남.

[개선제안]

- 예산이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예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2회에 분할지급하는 과정에서 계획과 집행의 부정합이 발생되었다면, 차년도 예산계획 수립 시 이를 미리 반영하여 예산계획 및 집행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심층인터뷰, 현장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현장 평가결과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지원결정· 계획수립, 사업시행, 성과 및 결과보고, 성과평가로 이어지는 사업의 각 단계마다 외부 전문가의 모니터링과 사업대상자인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직무제공 및 전문인력지원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활동의 적절성, 만족도, 인터뷰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이를 사업개선에 활용하고 있으며, 재교육사업은 교육수요조사, 신청율, 수강율, 시설 정기점검 등의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수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과 성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현장 전문인력지원 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현장실태 점검 등 종합적인 점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지원사업 개시 이후 지원단체 및 지원인력에 대한 시점별 점검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 활동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교육생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현장 전문인력들과의 소통을 위한 워크숍 등을 활발하게 개최하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객들의 관점에서 사업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와 함께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교수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문인력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애로사항 및 기대사항 등을 질문하여 사업운영의 적절성을 가늠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별, 사업추진단계별(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선정단체 대표 및 실무자 워크숍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단체를 제보 받고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16년도 사업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선정 단체 대표 및 실무자 워크숍에서 연수단원 및 전문 인력이 연간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과정 수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자 필수이수과목을 축소하여 현업에 종사 중인 예술인력의 부담을 경감한 것은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모니터링의 결과를 취합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가 제시되지 않아 모니터링의

체계 및 개선·환류 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분기별 모니터링보고서를 발간하여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유하고 당해 사업 및 차기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애로사항 및 기대사항 등을 파악하여 사업개선에 활용하는 적극적인 점검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현장 예술인력 일자리 창출수는 698명으로 목표 대비 달성율은 102.2%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참여 관객 수는 목표 5,011명 대비 실적이 6,579명으로, 목표 대비 달성율이 131.3%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교육만족도는 73.6점으로 절대값이 낮고, 목표(90.0) 대비 달성률 또한 81.8%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만족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교육생과의 소통 워크숍을 통해 교육 불만족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무대예술인력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론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편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고객만족(CS)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인력 육성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1,4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취업 가능성을 77.1% 수준으로 높게 달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예술인력육성사업을 통해 기관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교육·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연예술인력 및 현장예술전문인력의 역량제고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됨.
- 현장예술인력 고용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창의적 예술인력 육성이라는 전략과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부정적 측면]

-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은 국내 유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다소 낮고,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구개발 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지원사업 참여 교육생들의 수료 후 관리 방안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과 공연예술의 융합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무대예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의 무대예술교육 R & D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해외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기관들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원 인력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국공립 기관의 경우는 거의 없으며, 민간 문화예술기관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지원 비율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교육생들의 수료 후 취업 및 진로를 추적 관리하고 컨설팅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차원의 인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개선과제

□ 계획

○ 다년도 사업을 통한 사업 효과성 증진

- 예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다년사업으로 변경하여 고용의 지속성 보장과 정규직화 비율의 제고 및 예술기업의 예측 가능한 경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 제고

- 예술인력육성사업의 사업목적에 집중하여 교육 및 취업과 관련하여 성과지표를 개선 할 것을 제안하며, 총교육자수, 총지원자수(교육+일자리+인건비 등), 지원사업참여자정규직전환비율, 지원사업참여자근속연수 등의 지표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판단됨.
- 성과목표치 산출 기준이 연차별로 동일해야 하며, 산출기준이 변경될 경우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함.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보다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플랫폼 운영

- 타 기관이 일자리와 인력을 매칭하는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예술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제안함

○ 4차산업 혁명 시대의 무대예술 인력 양성 교육과정 체계 연구

- 국내 유일한 공공 무대예술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브랜딩을 강화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신 기술 및 미디어와의 융합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집행

○ 현장 소통 워크숍 활성화

- 예술인력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단체 관계자들과의 현장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성과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됨.

○ 예산집행 시기 준수

- 예산집행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사업추진의 효과성도 저하될 수 있으므로, 예산이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예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교수자 대상의 모니터링 실시

-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와 함께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교수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을 제안함

○ 예산 계획 및 집행의 정합성 제고

- 보조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차년도 예산계획 수립 시 예산집행 방법 및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계획과 집행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 인력지원 사업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 전문인력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애로사항 및 기대사항 등을 질문하여 사업운영의 적절성을 가늠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신규로 도입

□ 성과

○ 예술인력 지원사업의 고용 창출효과 연구

- 예술인력 지원사업이 실제로 문화예술 현장의 고용 창출에 미치는 경로와 효과를 연구하여 예술인력 지원사업과 고용 창출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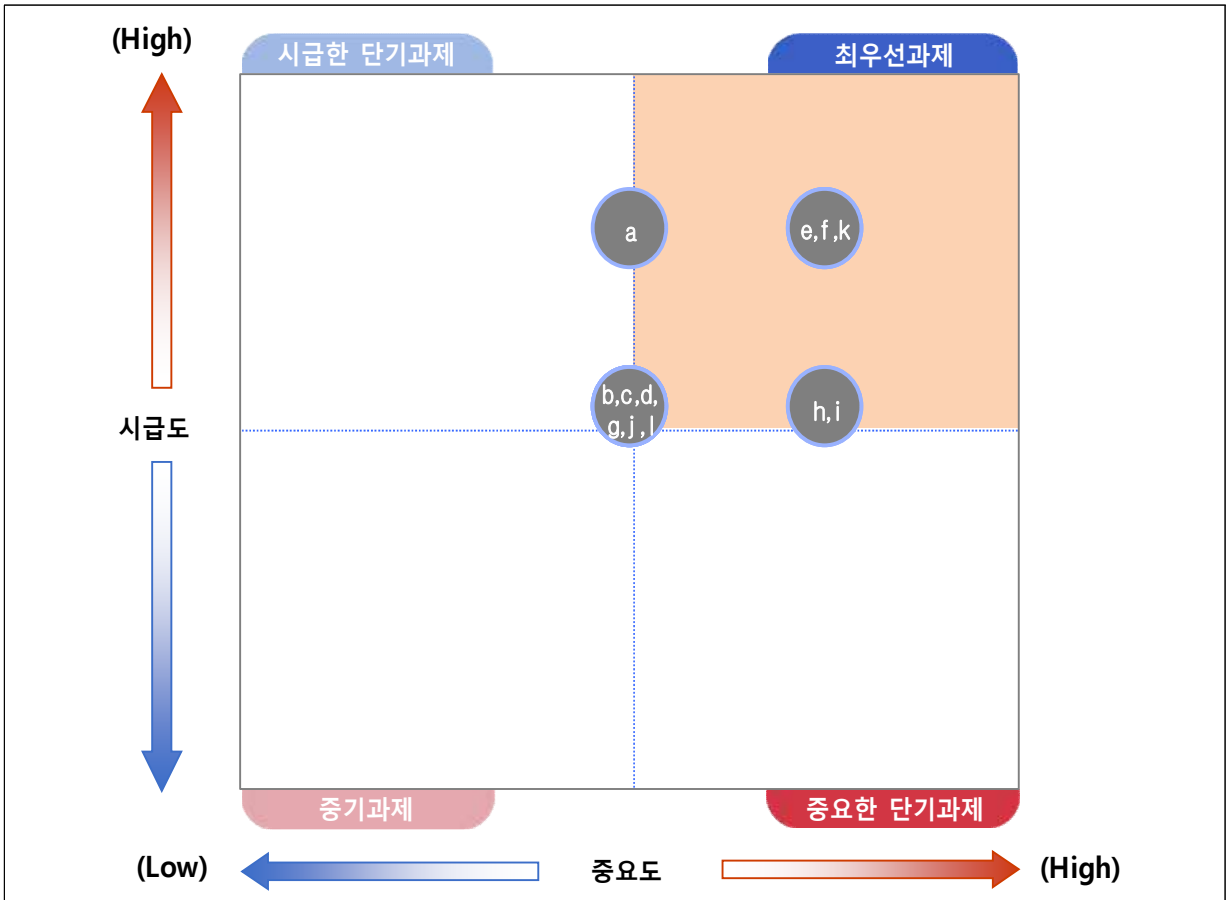
○ 교육만족도 증진 전략 수립

- 성과지표 중 교육만족도는 성과목표치 90.0점에 미달한 73.6점을 달성하여 81.8%의 달성률을 나타내었으며, 교육만족도가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검토하여 규명하고 차년도 사업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교육 참여자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 교육생들의 수료 후 취업 및 진로를 추적 관리하고 컨설팅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차원의 인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다년도 사업을 통한 사업효과성 증진	4
계획	b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 제고	7
계획	c	예술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플랫폼 운영	7
계획	d	4차산업혁명 시대의 무대예술인력 양성 교육과정체계 연구	7
집행	**e**	**현장 소통워크숍 활성화**	**1**
집행	**f**	**예산집행 시기 준수**	**1**
집행	g	교수자 대상의 모니터링 실시	7
집행	h	예산기획 및 집행의 정합성 제고	4
집행	i	인력지원사업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4
성과	j	예술인력 지원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연구	7
성과	**k**	**교육생 만족도 증진 전략 수립**	**1**
성과	l	교육참여자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7

1분과 세세부사업별 최종보고서

예술가국제역량강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술인 해외 창작스튜디오(Artist in resience)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 및 국외 창작거점에 예술가를 파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

○ 국내-해외 공연예술 전문가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 공연예술시장 글로벌 역량 증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 사업규모 : 1,100백만원, 예술가 및 예술단체 85건 지원

○ 지원대상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최종수혜자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형태 : 민간경상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학 작가, 시각 작가 및 큐레이터, 공연예술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정액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3호(남북문화예술교류), 4항(국제 문화예술교류)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예산	'16 예산 (A)	'17 예산 (B)	증 감 (B-A)	%
□ 예술가국제역량강화					
▪ 예술가해외레지던스파견	1,100	1,100	1,100	0	-

□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결산	'15 결산 (A)	'16 결산 (B)	증 감 (B-A)	%
□ 예술가국제역량강화					
▪ 예술가해외레지던스파견	1,144	1,065	1,042	-23	2.2%

□ 사업추진 절차


문예진흥기금 사업신청 공고
www.arko.or.kr / 사업설명회 추진
지원신청서 접수
예술인(단체/개인) ⇒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추진 및 지원대상자 선정
장르별 심의회의 개최
지원심의 결과 공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
지원금 지급 및 집행
지원대상 예술인
사업추진
지원대상 예술인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원항목 및 자체부담자금에 대한 정산 및 성과 보고
성과보고서 제출
예술인(단체/개인) ⇒ 문화예술위원회
성 과 평 가 시 행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반영
평가 결과 반영

□ 성과관리

성과 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해외 창작 거점 연계 활동수 (건)	목표	-	-	-	-	129	▪산출근거 - 직전 3개년('13~'15) 실적치의 평균치에서 약 5% 상승된 목표치인 129건으로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 3개년 평균치 (124건) x 105% ≒129건	※ '16년 도입 신규지표 ▪측정방법 - 자체 집계조사 ▪측정산식 - ∑(해당연도창작거점 파견예술가의 직접성과물) ▪자료출처 - 예술위원회 평가정보시스템
	실적		131	120	122	129		
	달성도					100%		
국제 교류 지원 예술인 (단체) 만족도 (점)	목표	-	-	-	-	90	▪산출근거 - '16년부터 11점 척도를 반영하여, '15년도 11점 척도의 환산점수가 81.1점임에 따라 '16년 목표치를 전년대비 10% 상승된 목표치 90점으로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 '15년 실적(81.1점) x 110% ≒ 90점	▪측정방법 -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전문 리서치 기관 조사의뢰, 설문지 대면 인터뷰) ▪측정산식 - ∑(11척도) *16년 11점 척도적용 ▪자료출처 -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85.7	90.0	90.7	81.1	72.1		
	달성도					80%		
국제 예술 교류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수 (명)	목표	-	-	-	-	-	▪산출근거 - 예산편제로 인하여 기존 관객실적을 반영하기 어려워, '16년도 실적치 반영 ▪목표치 산출방식 : - '16년도 실적치 반영	▪측정방법 - 자체 집계조사 ▪측정산식 - 해외 레지던스 참가지원사업 참여관객수 집계 ▪자료출처 - 예술위원회 평가정보시스템
	실적	-	-	-	-	365,444		
	달성도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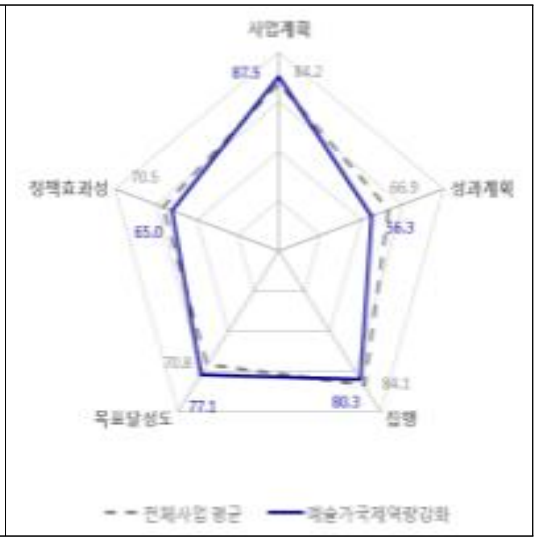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예술가국제역량강화」는 환산점수 기준으로 5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7.5점, ‘성과계획’ 56.3점, ‘집행’ 80.3점, ‘목표달성도’ 77.1점, ‘정책효과성’ 65.0점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3.3), 목표달성도(+6.3)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성과계획(-10.6), 집행(-3.8), 정책효과성(-5.5) 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3점)	2.6	87.5	87.5
	1-2(3점)	2.6	87.5	
	1-3(4점)	3.5	87.5	
성과계획	2-1(5점)	3.1	62.5	56.3
	2-2(5점)	2.5	50.0	
집행	3-1(15점)	11.8	78.3	80.3
	3-2(5점)	3.8	75.0	
	3-3(10점)	8.8	87.5	
목표달성도	4-1(30점)	23.1	77.1	
정책효과성	5-1(20점)	15.0	65.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 「예술가국제역량강화」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5.8(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집행’ 항목 중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이며 87.5점으로 평가됨

○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 항목 중 ‘2-2. 성과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이며 5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은 국제사회에서의 예술가 역량 강화 및 예술가 네트워크 관점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수요 또한 상당히 높으며, 사업의 내용이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예술가 창작 수준을 제고하고 창작활동을 활성화함' 이라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사업의 목표, 전략방향, 세부사업 구성, 실행 프로세스 등을 체계적으로 정렬하고, 이러한 사업전략이 기관 전략과 연계되는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전 매뉴얼 작성 및 안내, 사전 컨설팅 체계 구축, 현장 모니터링, 사후 평가 및 결과 공유 환경 조성 등이 총체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전문가 평가 체계 구축 및 관련 평가지표 자료 측정 및 활용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사후 성과 공유 체계 또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과정 및 체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인・단체만족도는 지표설정의 타당성이 높지만,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는 관객수 집계의 타당성이 미흡하고 해외창작거점 연계활동수는 측정산식이 다양한 성과요소를 단순 합계하는 산식을 적용하고 있어 추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예술교육 지원예술단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만족도 증진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지원예술단체들과의 소통과 협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산집행 측면에서는 평균 예산 집행률은 94.7%를 달성하여 양호한 집행률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모니터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 예술가들의 어려움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소통정보시스템(이메일,

SNS, SMS 등 연계)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향후, 기관전략과 사업전략과의 연계성을 제고해 나가고, 성과지표 및 성과 측정 산식 고도화, 모니터링 체계의 세분화·공식화 등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은 국제사회에서의 예술가 역량 강화 및 예술가 네트워크 관점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사업수요 또한 상당히 높고, 향후에도 지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인 해외 창작스튜디오(Artist in residence)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 및 국외 창작거점에 예술가를 파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과 '국내-해외 공연예술 전문가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 공연예술시장 글로벌 역량 증진'이라는 사업 목적이 명확하며, 사업의 내용이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예술가 창작수준을 제고하고 창작활동을 활성화함'이라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은 또한 국제 문화예술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문화예술교류 체계 전반에 걸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은 또한 예술가들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국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성과보고서 상의 사업목적과 심층평가보고서 상의 사업목적과 사업목표의 연계성 기술 부분에서 제시한 사업목적의 내용이 상이하여 혼동을 초래함
- 동 사업이 기관의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접근이 다소 미흡하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접근체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움.

[개선제안]

-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 수요, 국제 문화예술교류 네트워킹 실태와 수요, 해외예술 기관 및 단체와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문건에서 사업의 목적이 일관성 있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해외레스던스파견 사업의 목표, 전략방향, 세부사업 구성, 실행 프로세스 등을 체계적으로 정렬하고, 이러한 사업전략이 기관 전략과 연계되는 구조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의 해외 창작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 지원 및 연구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인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은 여타 기관이나 민간의 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음
- 15년까지 한국문학번역원의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중복성이 존재하였으나 해당 한국문학번역 사업폐지를 완료함으로써, 사업의 고유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됨.

[부정적 측면]

- 해당사항 없음

[개선제안]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자율형 사업 뿐 아니라 기획형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해외 거점 및 기관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형 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연예술해외지출기반 마련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가 사전 리서치 연구 지원사업을 해외레지던스참가 지원사업과 달리 차별적으로 도입,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들의 해외파견을 통한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은 해외 예술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민간 차원에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신청, 참여가 어려운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성의 강점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예술가들의 자율성을 반영하여 ‘자율형 해외레지던스 참가’ 지원을 통해 예술가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평가됨.

[부정적 측면]

-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사업과 공연예술해외진출 기반 마련 사업의 집행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사업 성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성과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공연예술해외진출기반 마련 사업 담당)와의 역할체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총체적인 사업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문화예술교류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지표의 경우, 본 사업이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국제적 창작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 해외창작 거점 연계 활동수 지표의 경우,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실제로 예술가들이 해외에서의 창작 및 관련 활동을 어느 정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는 관객수 집계의 타당성에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기관의 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이 높고 지표의 안정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 지표의 경우, 지원받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이 주

관 또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관객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술가의 국제역량 강화 효과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러한 관객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지표로 활용할 경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예술가 국제역량 강화 지원사업에서 국제예술교육 지원사업 관객수가 중요한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해외창작거점 연계활동 수(건)의 경우 현지 활동 및 직접성과물(해당연도 파견 프로그램 수 + 현지 연구조사활동(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 현지 발표행사(강연, 공연, 오픈하우스) + 해당연도 저작 및 발간물 + 해당연도 수상실적)의 산출방식이 다소 복잡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가 다르고 성과의 중요도도 차이가 나는 만큼 지표의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사업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성과달성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성과지표(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명), 해외창작거점 연계활동 수(건))의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판단됨. 또한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 지표를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의 산출방식을 단순화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산출된 달성값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해외창작거점 연계활동수 성과측정 산식 구성 시, 성과항목별로 사업성과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건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16년도 기관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였고, 신규지표의 경우 3개년 표준편차의 120%를 목표치로 설정하는 등 목표치 설정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
- 성과지표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명)의 경우 예산의 변동을 감안하여 적정한 성과 목표치를 반영함
- 성과지표 해외창작거점 연계활동수(건)의 겨우 전년도 성과달성치 122건 보다

상향된 129건을 성과 목표치로 설정함

[부정적 측면]

- 문화예술교류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지표의 경우, 기관경영 목표 설정치와 전년도 달성치를 참고로 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만족도가 2014년 90.7에서 2015년 81.1로 대폭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목표치를 90.0으로 다소 높게 설정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와 해외창작거점 연계 활동수 지표의 경우, 기관경영 목표 설정치와 전년도 달성치를 참고로 하여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현장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진단 결과를 목표치 설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는 16년도 기관경영 목표 설정과 연계한 할당치를 16년 목표치(3,525,902명)로 설정하였다고는 하나, 16년 실적치가 3,525,902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전 목표치가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현장의 국제 문화예술교육 실태 맥락에서 의미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조정 및 지표개선 등을 통해 사업 목표치 설정에 논리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하고, 보다 의욕적인 성과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 지정기관 대상 적정하게 재원 집행되었으며, 예산 전용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통해 예산미집행 금액을 줄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국제역량강화를 구성하는 각 세부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94.7%를 달성하여 양호한 집행률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또한 연초 수립한 분기별 예산계획이 계획한 기간에 적정하게 집행됨으로써, 예산집행의 정합성이 확보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해당사항 없음

[개선제안]

- 2016년 사업예산 집행률은 94.7% 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2014년 예산집행율이 99.5%에서 2015년 96.8%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2016년에 94.7%로 낮아졌기 때문에, 예산집행률 미흡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자율형 사업보다는 기획형 사업이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미집행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보완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획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사업의 경우, 주관처와 사전협의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준비함으로써, 사업포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강화되기를 제안함.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 지원협약서 체결 및 사업설명회 개최, 예술가 개별 사업 컨설팅, 프로그램 참가 후기 발표회 실시, 보조사업비 관리 시스템 점검을 통한 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특히 참가후기 발표회를 통해 참가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 시 P-D-C-A 단계별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예술가별로 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시행, 교부-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상황 점검 등을 시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사업특성 상 레지던스 사업운영 가이드 및 예산집행 기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이메일, SNS, 전화 등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로 사업 관리 차원에서 담당 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현장에서의 전문가 활용 평가체계 구축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사업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이 다소 미흡함
- 실행 및 점검(D-C)단계에서 요구되는 모니터링 계획에서 실시주기가 예술가별 연 1회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데, 이는 너무 느슨한 기준이라고 판단됨.

[개선제안]

-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해외 현지의 국내외 문화예술 인력을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후 성과공유회와 참가후기 자료집 발간 등은 지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실행 및 점검(D-C)단계에서 추진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방법, 주체, 시기 및 횟수 등)를 보다 '세분화'하고 '공식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추진 단계별 모니터링과 연중 1:1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요구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 파견된 한은형작가의 경우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세종학당 연계 한국문학 강연지역으로의 현지 이동 방법, 비용발생 등 해결방안 요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독일 현지 세종학당 실무자에게 숙소와 교통수단 제공 요구하는 등 현지에서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해외레지던스 참여활동 과정에서 예술인들이 느끼는 레지던스 활동기준 등에 대한 의문점과 가이드라인 이해에 대한 불편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레지던스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개선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참여 예술인들의 결과보고 및 정산 과련 시스템 이용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현지적응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지 파트너와의 적극적인 협력활동 추진 등이 이루어진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모니터링의 실시목적, 실시시점, 실시방법,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개별 예술가들의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이메일, SNS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통채널이 정보시스템으로 집적되고 활용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그 동안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전 사업 매뉴얼을 개발하고, 참여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현장 문제 해결 역량을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개별 예술가들이 해외레지던스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정보시스템(이메일, SNS, SMS 등 연계)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지표와 해외창작거점 연계 활동수 지표 모두 100%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문화예술교류 지원예술단체 (인) 만족도가 72.1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목표치 달성률도 80.1로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는 목표치 3,525,902명 대비 3,525,902명을 달성하였으나, 이는 목표치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설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개선제안]

-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과의 소통 및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뢰와 진정성 기반의 소통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성과지표 중 문화예술교류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점)가 성과목표치에 매우 미흡한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지 레지던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심의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이 국제사회에서의 예술가 활동 활성화, 예술가 네트워크 역량 강화, 국제 행사에서의 수상, 해외 협력기관 확대 등의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가 개별 사례 소개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종합적인 자료 조사 체계 구축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예술가들이 글로벌 창작 트렌드를 파악하고 한국예술가(작품)의 해외진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 수상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해당사항 없음

[개선제안]

-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국제적인 활동에 대한 추적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개선과제

□ 계획

○ 기관 전략과 사업전략의 연계 강화

- 예술가해외레스던스파견 사업의 목표, 전략방향, 세부사업 구성, 실행 프로세스 등을 체계적으로 정렬하고, 이러한 사업전략이 기관 전략과 연계되는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는 체계 마련
- 공연예술해외진출기반 마련 사업의 경우, (재) 예술경영지원센터와의 역할 체계 정립 및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성과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및 성과측정 산식 개선

- 사업조정 및 지표개선 등의 영향으로 연초 목표치 설정에 논리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 추진
- ‘해외창작거점 연계활동수 성과측정 산식 구성 시, 성과항목별로 사업성과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건수를 합산하는 방식 재검토

○ 기획형 해외레지던스사업 사업계획 고도화

- 기획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사업의 경우, 주관처와 사전협의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준비함으로써, 사업포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예술가들의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문화예술교류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집행

○ 성과 경험 및 노하우 공유 플랫폼 구축

-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한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향후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자료집, 성과공유 워크숍, 온라인 자료 공개,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소통 워크숍 등 성과 경험 및 노하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해외 현장 모니터링 강화

-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해외 현지의 국내외 예술가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실행 및 점검(D-C)단계에서 추진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방법, 주체, 시기 및 횟수 등)를 보다 '세분화' 하고 '공식화'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산집행률 제고 전략 수립

-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미집행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보완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레지던스 참가예술인 소통 정보시스템 구축

- 개별 예술가들이 해외레지던스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정보시스템(이메일, SNS, SMS 등 연계)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

○ 사업성과 추적조사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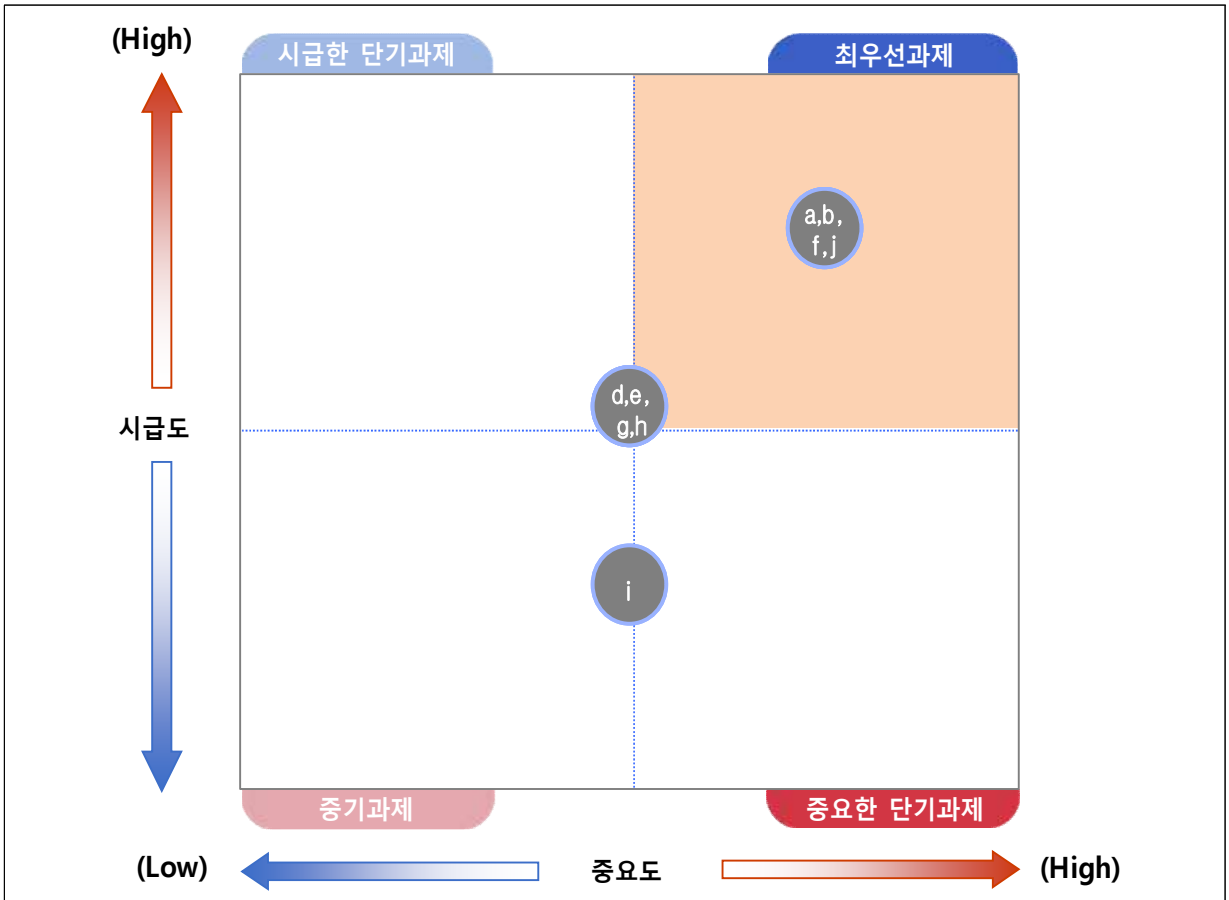
- 지원 사업의 성과를 산출 수준을 넘어 결과 및 영향 수준으로 확대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후 추적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증진 전략 수립

- 성과지표 중 문화예술교류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점)가 성과목표치에 매우

미흡한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그 원안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기관 전략과 사업전략의 연계 강화**	**1**
계획	**b**	**사업성과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및 성과측정 산식 개선**	**1**
계획	c	예술가 국제 역량 강화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9
계획	d	기획형 해외레지던스사업 사업계획 고도화	5
집행	e	성과경험 및 노하우 공유 플랫폼 구축	5
집행	**f**	**해외 현장 모니터링 강화**	**1**
집행	g	예산집행률 제고 전략 수립	5
집행	h	레지던스 참가 예술인 소통정보시스템 구축	5
성과	i	사업성과 추적조사 체계 구축	9
성과	**j**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증진전략 수립**	**1**

1분과 세세부사업별 최종보고서

한국예술세계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외 국제교류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문화예술 국제교류 거점 확대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 예술단체·예술가의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

ㅇ 민간의 국제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문화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 확보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ㅇ 사업규모 : 4,700백만원, 예술가 및 예술단체 85건 지원

ㅇ 지원대상 : 예술인 및 예술단체

ㅇ 최종수혜자 : 예술인 및 예술단체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예술인 및 예술단체	정액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3호(남북문화예술교류), 4항(국제 문화예술교류)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예산	'16 예산 (A)	'17 예산 (B)	증 감 (B-A)	%
□ 한국예술세계화					
▪ 한국예술국제교류	2,800	3,500	2,800	700	25
▪ 해외문화기관협력	300	300	300	-	-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900	900	9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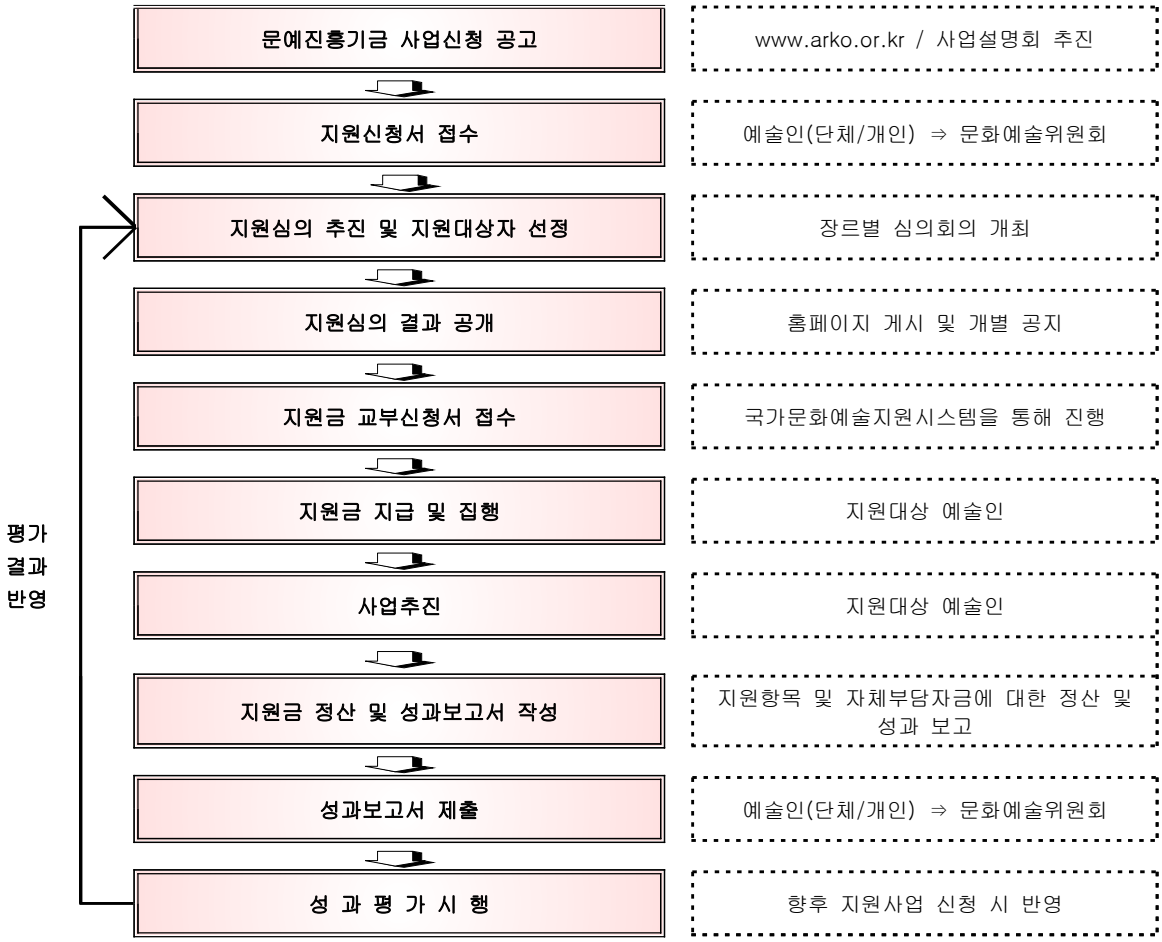
□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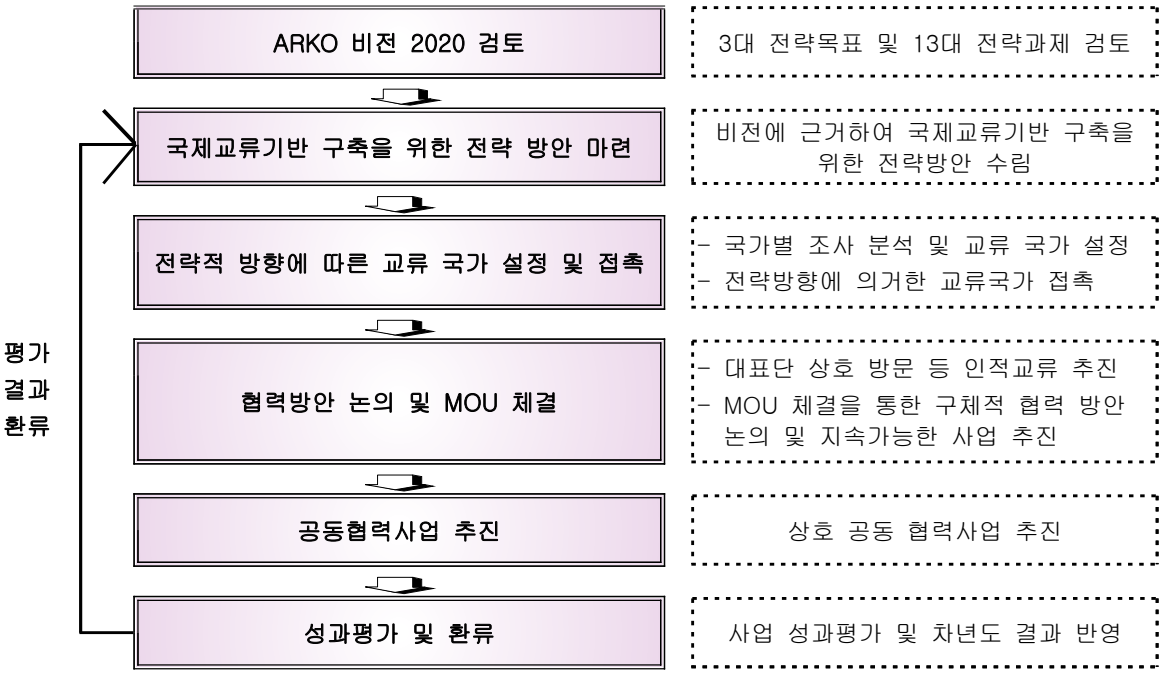
구 분	'14 결산	'15 결산 (A)	'16 결산 (B)	증 감 (B-A)	%
□ 한국예술세계화					
▪ 한국예술국제교류	3,494	2,785	3,189	404	13
▪ 해외문화기관협력	528	270	284	14	5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699	898	877	-21	2

□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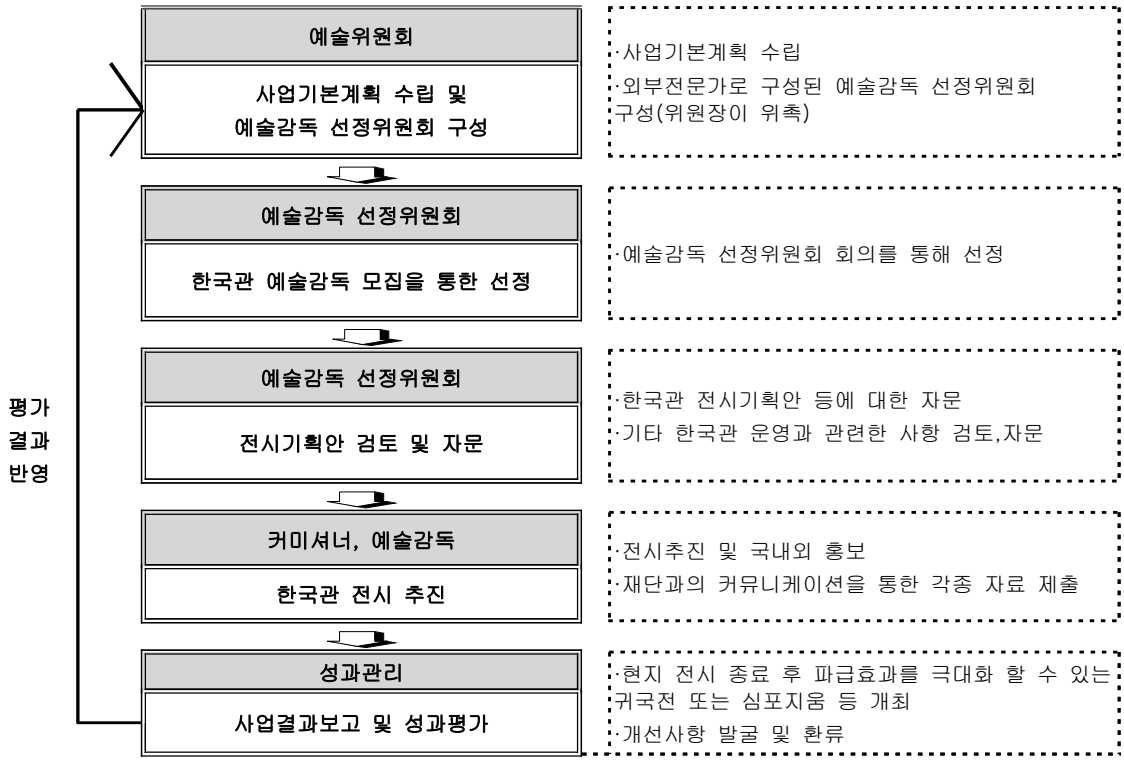
○ 한국예술국제교류 공모사업 추진 절차



○ 국제문화기관교류사업 추진절차



ㅇ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추진절차



□ 성과관리

성과 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해외창작거점연계활동수 (건)	목표	-	-	-	-	129	▪산출근거 - 직전 3개년('13~'15) 실적치의 평균치에서 약 5% 상승된 목표치인 129건으로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 3개년 평균치 (124건) x 105%≒129건	**※ '16년 도입 신규지표** **▪측정방법** - 자체 집계조사 **▪측정산식** - ∑(해당연도창작거점파견예술가의 직접성과물) **▪자료출처** - 예술위원회 평가정보시스템
	실적		131	120	122	129		
	달성도					100%		
국제교류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 (점)	목표	-	-	-	-	90	**▪산출근거** - '16년부터 11점 척도를 반영하여, '15년도 11점 척도의 환산점수가 81.1점임에 따라 '16년 목표치를 전년대비 10% 상승된 목표치 90점으로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 '15년 실적(81.1점) x 110% ≒ 90점	**▪측정방법** -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전문 리서치 기관 조사의뢰, 설문지 대면 인터뷰) **▪측정산식** - ∑(11척도) *16년 11점 척도적용 **▪자료출처** -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85.7	90.0	90.7	81.1	72.1		
	달성도					80%		
국제예술교류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 (명)	목표	-	-	-	-	-	**▪산출근거** - 예산편제로 인하여 기존 관객실적을 반영하기 어려워, '16년도 실적치 반영 **▪목표치 산출방식 :** - '16년도 실적치 반영	**▪측정방법** - 자체 집계조사 **▪측정산식** - 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참여관객수 집계 **▪자료출처** - 예술위원회 평가정보시스템
	실적	-	-	-	-	3,904,623		
	달성도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 (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경영 평가 (2015)	ㅇ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지원사업별 기관 역할 차별화 필요	ㅇ 공모사업 심의전 국제교류재단과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중복지원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 협의 진행 ㅇ 공모결과 발표 후, 유관기관 및 외교부 공공외교과에 선정내역 공유 진행하여 연계사업 가능성 모색 추진
보조사업평가 (2016)	ㅇ 당초 계획과 달리 국회 요구로 일회성 사업들이 편성되어 사업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이 존재함 ㅇ 국제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 등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제교류지원사업과 유사 · 중복성이 발견됨 ㅇ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의 구체적 지출내역 확인이 어려워 사업비의 적절성 판단이 어려움	ㅇ 2017년도 사업추진 시 국회에서 요구한 사업 사전 검토 → 일회성 사업 미반영(국회지정사업 없음) ㅇ 공모사업 심의 전 기관 간 사전 협의, 공모결과 선정내역 공유 ㅇ 2016년도 지출내역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예정으로, 현재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토 중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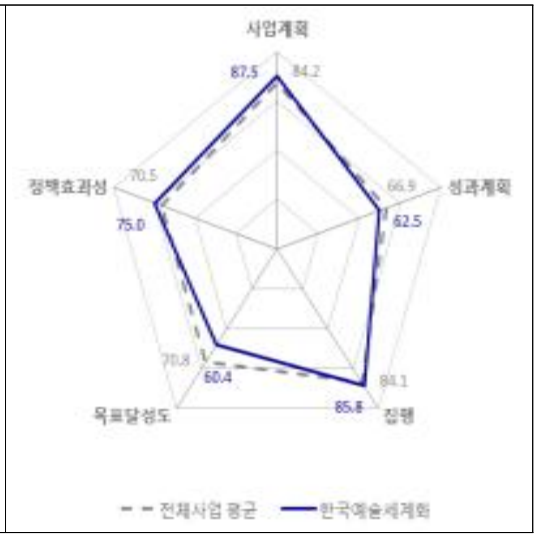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한국예술세계화」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5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75.0점, ‘성과계획’ 62.5점, ‘집행’ 77.5점, ‘목표달성도’ 77.1점, ‘정책효과성’ 60.0점 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3.3), 성과(+1.7), 정책효과성(-4.5)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성과계획(-4.4), 목표달성도(-10.4) 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3점)	2.6	87.5	87.5
	1-2(3점)	2.6	87.5	
	1-3(4점)	3.5	87.5	
성과계획	2-1(5점)	3.1	62.5	62.5
	2-2(5점)	3.1	62.5	
집행	3-1(15점)	12.4	82.5	85.8
	3-2(5점)	4.4	87.5	
	3-3(10점)	8.8	87.5	
목표달성도	4-1(30점)	23.1	77.1	
정책효과성	5-1(20점)	15.0	75.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 「한국예술세계화」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9.7(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집행’ 항목 중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이며 87.5점으로 평가됨

○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2-2. 성과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이며 62.5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한국예술가세계화 사업은 국내 민간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국제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작품)의 해외진출 거점을 공고히 하고,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기관의 경영목표 및 전략방향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 지, 사업추진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 사업추진 전략체계를 구체화하고 구조화하는 점은 부족하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 세계화 사업은 해외 예술기관의 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범위를 아시아 지역에서 북미, 캐나다,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지속,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영국예술위원회와의 공동기금 조성 및 협력사업 추진 사례는 한국과 영국의 예술기관 협력 체계를 MOU 체결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와의 문화예술교류 협력 활동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의 국제예술교류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세 가지 지원유형(국제예술교류 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에 따른 사업목적 및 성과관리 체계의 차별화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해외문화기관 협력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 국제기구 및 해외 예술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교류협력을 통한 실질적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종합적인 전략 보다는 개별 사례별로 대응하는 방식의 추진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사업의 경우, 커미셔너와 예술감독의 역할체계 정립, 구글컬쳐인트스티튜트에 한국관 온라인 전시 개관을 통한 전시성과 공유 및 확산체계 구축, 해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한국관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가 72.1로 매우 낮게 나타나, 향후 만족도 증진 방안

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다소 소극적으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였는데 타당성 있는 성과목표치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년도 성과목표치와 달성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한국예술세계화사업과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이 동일한 성과지표를 적용하고 있는데,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은 예술가 중심의 성과지표를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은 프로그램과 단체 중심의 신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이 다소 미흡하므로 사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산집행 측면에서는 평균 예산집행률은 92.6%를 달성하였으며, 베니스비엔발레한국관운영 사업 97.4%, 해외문화기관협력 사업 94.7%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비교적 양호한 집행률을 보였음. 다만, 과거 3개년간 집행률이 점차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한국예술 세계화 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해외 진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예술가 창작수준을 제고하고 창작활동을 활성화함' 이라는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 세계화 사업은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도 수요가 많고, 국제 문화예술 교류 및 한국예술의 세계 진출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지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사업을 통해 한국예술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 예술인의 해외 주요 무대 진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영국예술위원회와 같이 해외 문화예술기관들의 한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기관의 교류협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성과보고서 상에서는 사업목적을 2개 제시하였으나 심층평가보고서 상의 사업목적과 사업목표의 연계성 기술 부분에서는 사업목적을 1개로 제시하여 혼동을 초래함
- 동 사업이 3개의 기초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기관의 전략과 동 사업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연계체계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한국예술국제교류사업, 해외문화기관 협력사업의 상호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문건에서 사업의 목적이 일관성 있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기관의 경영목표 및 전략방향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 지, 사업추진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 사업추진 전략체계를 구체화하기를 기대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공모시 지원신청 자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대상 사업과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을 지원신청 조건으로 제시하여, 중복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은 한국예술국제교류, 해외문화기관협력,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등을 통하여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 상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여타 사업과 유사 · 중복되지 않음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사업 역시 한국예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 · 소개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타 사업과 유사성이나 중복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해외문화기관협력의 경우 유관기관(외교부 국제교류재단)과 일부 유사성이 있어, 지원사업의 내용과 대상을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사업, 국제교류재단 문화교류 사업의 경우, 연계, 협의 및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한국예술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의 자발적 공모 지원 참여 방식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 기획리서치 지원, 국제교류플랫폼 협력 지원 등으로 세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한국예술국제교류 사업은 예술단체의 다양한

시각과 교류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민간지원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해외문화기관협력 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외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 운영 사업의 경우, 예술감독제도를 운영하고, 글로벌 온라인 미디어와 해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국제 간 문화예술교류사업은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 수행하기에는 해외네트워크역량, 재정 등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문예진흥기금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해외문화기관 협력사업은 국제 유관기관과의 공신력을 전제로 하고 국제협력의 정책방향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지원 사업별로 지원신청액 대비 지원결정액의 비율이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사업의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사업임을 고려한다면, 국내기업 및 관련단체의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사업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개선제안]

- 해외문화기관 협력사업의 경우, 사전 조사 연구와 협의 체계를 갖추고, 이를 위한 연구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원결정액이 지원신청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원건수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지표의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행위자인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지원예술단체(예술인) 만족도 지표는 기관의 경영목표와 연계된 지표이면서 지원사업의 피대상자 만족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외부 전문기관이 측정주체로 참여하여 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어 지표의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됨.
- 기관협력 국제교류사업 추진 건수 지표의 경우, 재정규모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제 교류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이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예술세계화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지표의 경우, 사업 최종 수혜자 인원을 측정하여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참여 관객수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은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과 동일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두 개의 사업에 동일한 성과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치 않음

[개선제안]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할 때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은 예술가 중심의 성과지표를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은 프로그램과 단체 중심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기관협력 국제교류사업 추진건수,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한국예술세계화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등 비교적 효과적으로 성과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 성과지표 중 기관협력 국제교류사업 추진건수(건)는 전년도 55건 보다 10.9% 상향된 61건을 성과목표치로 설정함
- ‘기관협력 국제교류사업 추진건수’ 지표의 목표치는 14년, 15년, 16년 3개년 목표치가 합리적 향상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15년 실적이 23건으로 달성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16년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부정적 측면]

- 3개 지표 모두 목표치 설정을 전년도 실적과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 성과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합리적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예컨대, 한국예술세계화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수의 경우, 2015년 달성치가 4,487,256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목표치는 1,953,800명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됨.
- '지원예술단체(예술인) 만족도' 목표치는 지난 14년(93.6점), 15년(91.4점)에 이어 16년도 88.3점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목표설정의 도전성 측면에서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또한 목표치 설정근거로 제시한 기관 경영목표치 할당방식은 만족도 지표에서 적용하기 어려우며 타당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타당성 있는 성과목표치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년도 상과목표치와 달성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함
- 사업조정 등 외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에 논리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2016년 예산집행율은 92.6%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예술국제교류 사업의 예산집행율이 91.1%로 해외문화기관협력사업(94.7%),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 운영 사업(97.4%)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
- 한국예술국제교류와 해외문화기관협력사업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예산을 지원함
- 연초 수립한 분기별 예산계획도 기간별로 적정하게 집행됨으로써, 예산집행의 정합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사업수행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미집행금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함
- 지원금 집행 잔액 반납, 사업포기에 따른 반납, 기관교류 관련 한국방문 대표단 인원수 감소에 따른 잔액 반납, 환율변동 등의 요인이 있었으나 예산집행률이 92.6%에 그친 것은 다소 미흡한 성과로 판단됨
- 최근 3개년 집행률이 14년 99%, 15년 96%, 16년 92.6%로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예산집행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계획 및 집행 방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개선제안]

- 예산집행률이 하향추세를 보이는 원인을 제도, 선정과정, 실행과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실행함으로써 예산집행률을 제고함
- 한국예술국제교류 사업은 예산규모가 큰 핵심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사업포기, 환율변동 영향 등을 치밀하게 계획함으로써, 예산집행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추진되기를 제안함.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현지 반응, 홍보효과, 파트너기관 인터뷰, 개선점 발굴 등을 중심으로 해외 개최사업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각 사업별로 상시 모니터

링 및 개별 사업단위별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거시적 측면의 모니터링 체계는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베니스비엔날레 주간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내부직원 출장, 주요 문화예술 매체 통신원, 재외공관, 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 베니스 현지 공간 메니저 등 현지 거주 인력을 활용한 모니터링 추진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중점 사업의 경우,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사업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이 다소 미흡함
- 사업별 모니터링이 주로 내부직원 출장 또는 주요 문화예술 매체 통신원, 재외공관, 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 등 현지거주인력을 활용하여 진행됨으로써 객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할 수 있음
- 동 사업 역시 예술가국제역량강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미시적인 모니터링 활동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례화’, ‘공식화’ 하는 모니터링 체계로 고도화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개선제안]

- 개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아카이빙 및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주요 사업과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전문가를 파견하여 보다 내실 있는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추진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방법, 주체, 시기 및 횟수 등)를 보다 ‘정례화’ 하고 ‘공식화’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국제공동기금 사업 홍보 강화, 한영 문화예술교육 공동 기금 코디네이터 활용,

베니스비엔날레에 대한 해외 언론 대상 홍보 강화,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중복 수혜자 방지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국제교류사업 중 한-영 문화예술 공동기금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현지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그에 따라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영국문화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자간 전화통화 회의를 통한 업무진행 사항 파악 및 협의 진행하고, 현지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원활한 소통 체계 구축하고 사업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한국예술국제교류 사업 과정에서 현지기관과의 소통채널 및 소통 부재라는 문제를 파악하고, 격주로 컨퍼런스 콜 방식 도입, 현지 코디네이터 채용 및 활용 등 사업 점검 체계를 개선하였다는 점이 인정됨.
- 또한 베니스비엔날레 사업 추진 시 효과적인 홍보전략이 미비하다는 판단 아래, 국내홍보 위주 방식을 해외 언론 홍보대행사를 활용한 해외 유력매체 홍보 전략을 실행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모니터링을 실시목적, 실시시점, 실시방법,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음

[개선제안]

-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기관협력 국제교류사업 추진건수 지표 달성율 100%, 한국예술 세계화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 지표 달성률 106.9%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지원예술단체(인)만족도가 72.1로 매우 낮으며, 지표 달성률 또한 81.9%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지원예술단체(인)과의 소통 워크숍을 통해 불만족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성과지표 중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가 성과목표치에 미흡한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여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지원프로그램 품질제고 및 지원 프로세스 개선 등의 혁신노력이 추진되기를 제안함.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긍정적 측면]

- 한국예술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의 국제예술교류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세 가지 지원유형(국제예술교류 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에 따른 사업목적 및 성과관리 체계의 차별화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해외문화기관 협력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 국제기구 및 해외 예술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교류협력을 통한 실질적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종합적인 전략 보다는 개별 사례별로 대응하는 방식의 추진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2016년 해외 예술 지원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총 61개(아시아 지역 8개, 유럽 지역 11개, 미주 지역 5개, 아프리카 지역 2개) 추진하였으며, 아시아 지역 외

에도 북미의 캐나다, 유럽의 영국, 남미의 아르헨티나 등으로 교류협력 지역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국예술위원회, 영국문화원의 MOU 체결 및 공동 기금 25억원 조성 실적은 향후 한국과 영국간의 예술교류 및 협력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구리 월드아트디자인 페스티벌의 경우 단일 사업에 5억원이라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으며, 사업의 추진성과가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와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앞으로도 국제예술교류 협력에 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임을 고려하여 한국예술의 세계화 및 국제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원 사업 선정 시 개별 사업이 한국예술의 세계화 사업의 목적과 기관의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정함

5. 개선과제

□ 계획

○ 기관 전략과 사업전략의 연계 강화

-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기관의 경영목표 및 전략방향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 지, 사업추진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 사업추진 전략체계를 구체화

○ 실질적 지원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 지원 사업별로 지원신청액 대비 지원결정액의 비율이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렇게 지원결정액이 지원신청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원 건수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제고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할 때 예술가국제역량강화사업은 예술가 중심의 성과지표를 한국예술세계화사업은 프로그램과 단체 중심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타당성 있는 성과목표치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조정 등 외부 여건 변화, 전년도 상과목표치와 달성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함

○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의 중요성과 지속성이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집행

○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사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
- 중점적으로 심화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전문가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추진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방법, 주체, 시기 및 횟수 등)를 보다 '정례화' 하고 '공식화' 하는 방안을 도입

○ 예산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 예산집행률이 하향추세를 보이는 원인을 제도, 선정과정, 실행과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실행함으로써 예산집행률을 제고함
- 한국예술국제교류 사업은 예산규모가 큰 핵심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사업포기, 환율변동 영향 등을 치밀하게 계획함으로써, 예산집행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정확도를 제고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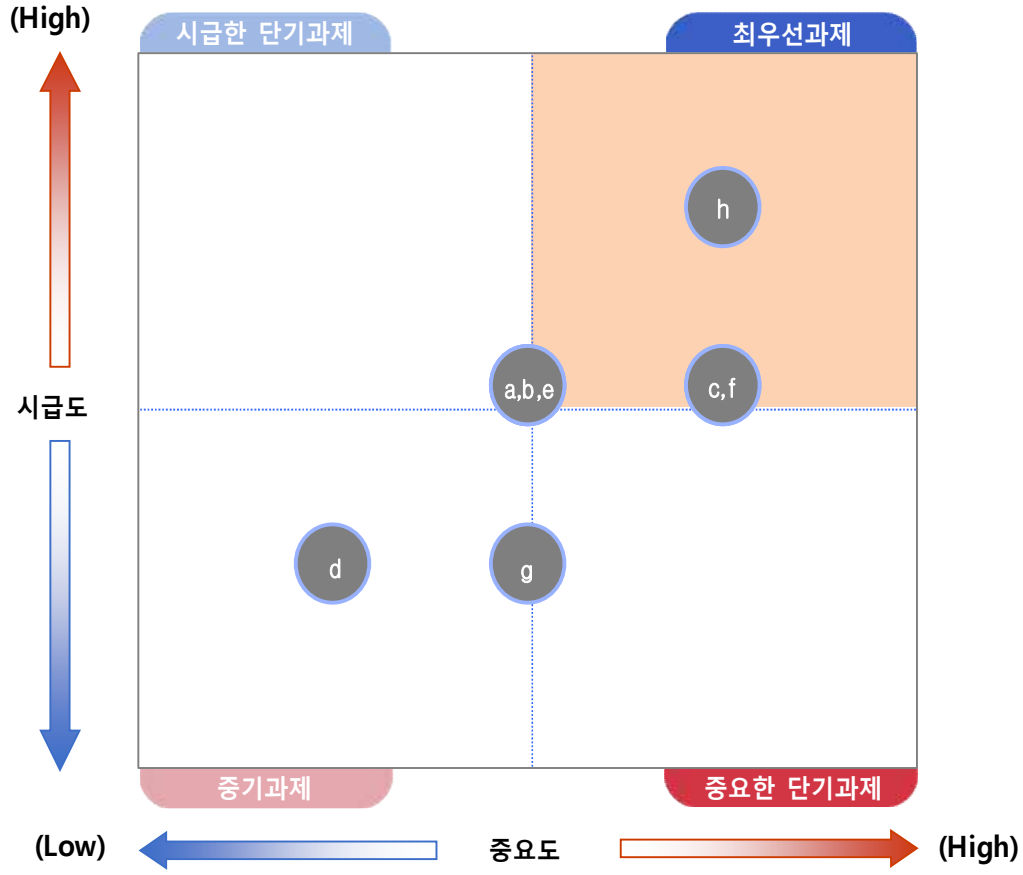
○ 해외문화예술 기관 협력 네트워크 지속 확대

- 해외문화예술 기관 협력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협력 네트워크 지역과 국가를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증진 방안 마련

- 성과지표 중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가 성과목표치에 미흡한 성과를 달성한 데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여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 '문화예술교류 지원프로그램 참여만족도' 목표치 미달성은 외부의 부정적 여건과 더불어 지원프로그램 품질에 대한 참여자의 불만족이 주요 원인일 수 있어, 추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원프로그램 품질제고 및 지원 프로세스 개선 등 혁신 추진.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지원전략과 사업전략의 연계 강화	4
계획	b	실질적 지원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	4
계획	c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제고	2
계획	d	한국예술세계화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8
집행	e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
집행	f	예산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2
성과	g	해외 문화예술기관 협력 네트워크 지속 확대	7
성과	**h**	**지원예술단체(인) 만족도 증진 방안 마련**	**1**

2분과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세부사업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2분과 세부사업 최종보고서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 홍보와 간행물 발간, 기부 프로그램 운영, 조사·연구 추진 등을 통해 예술현장 기초자료 축적 및 문화예술 가치의 인식 제고

ㅇ 예술분야 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민간영역의 기부 공감대 형성 및 예술지원 재원의 다각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 1973년 ~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309억원, 기부금사업(216억원), 문화예술홍보간행물 발간(5억원),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2억원), 예술가종합지원실운영(1억원), 예술정책실행력제고(1억원), 공연예술실태조사(3억원), 문화예술기부활성화(36억원), 원로문예인복지지원(2억원),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43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단체 및 예술인, 한국메세나협회,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인·단체 및 국민

ㅇ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예술단체 및 개인	정액지원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부 훈령) 제2장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보조비율)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는 환산점수 기준으로 5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6.1점, ‘성과계획’ 79.2점, ‘집행’ 87.2점, ‘목표달성도’ 67.4점, ‘정책효과성’ 73.3점 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1.9), 성과계획(+12.3), 집행(+3.1), 정책효과성(+2.8)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목표달성도(-3.4) 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3점)	2.6	87.5	86.1
	1-2(3점)	2.6	87.5	
	1-3(4점)	3.3	83.3	
성과계획	2-1(5점)	4.2	83.3	79.2
	2-2(5점)	3.8	75.0	
집행	3-1(15점)	12.4	82.5	87.2
	3-2(5점)	4.4	87.5	
	3-3(10점)	9.2	91.7	
목표달성도	4-1(30점)	20.2	67.4	
정책효과성	5-1(20점)	14.7	73.3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81.9(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집행’항목 중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이며 91.7점으로 평가됨

○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목표달성도’항목 인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이며 67.4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동 사업은 예술정책실행력제고, 문화예술기부활성화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사업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은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문화예술 사회적 인식제고라는 전체 사업 틀 내에서 비교적 조화롭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자체 성과기준을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성과달성을 위한 기관의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 수행 체계상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 및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하고 이로 인해 성과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함

○ 성과기준 설정이 기관의 사업수행실적(performances)과 산출(outputs)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회적 성과(outcomes)와 영향(impacts)을 평가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센터의 사업내용 자체가 문예위의 예술정책실행력 제고사업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센터의 경상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전반적으로 동 사업은 기관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적정한 수준 이상에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정책실행력제고, 문화예술기부활성화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민간부문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공부문의 재정지원 한계와 문예기금 고갈이라는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 개인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함

[부정적 측면]

- 일부 사업의 경우 목적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사회적 성과(outcomes) 보다는 산출(outputs) 중심의 성과측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개선제안]

-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있어 기관의 역량과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획이 요구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문화예술 사회적가치 제고 사업의 세세부사업들의 기능, 서비스와 유사, 중복되는 타 사업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음. 같은 기능을 하는 사업이 존재하기는 하나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되어 지원되는 사업은 본 사업이 유일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에 대한 컨설팅 기능과 서비스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컨설팅이라는 점에서 타 기관 및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 및 서비스와 다소 중복되는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부문의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 개인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서비스 중복이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는 않음

[개선제안]

- 세세부 사업이 타 기관사업이나 민간분야의 사업과의 유사·중복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세세부 사업의 하위사업 간에는 사업 기능이나 서비스가 효율적이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 사업 간 분류체계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세부사업과 세세부사업의 구성이 대체로 합리적이며, 사업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사업추진체계가 규정이나 매뉴얼 등 객관적이고 공식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전문가, 수혜대상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정부의 규정,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한 것은 기관의 책무성 이행에 바람직한 방식으로 평가함

[부정적 측면]

-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별도의 독립 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센터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인건비와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적, 정책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개선제안]

- 해당사항 없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의 목적 및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 설정에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됨
-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성과평가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고, 실제 data를 바탕으로 설정된 기준의 달성정도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달성정도를 측정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대체로 사업의 성과지표가 수행(performance) 또는 산출(outputs)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의 양적인 성과달성을 넘어서는 사업의 결과(outcome)와 영향(impact) 등 질적인 부분을 측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또는 수요의 상태를 파악하여 성과지표 설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개선제안]

- 성과지표 설정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세부사업단위의 사업목표 달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와 파급력을 측정할 수 있는 영향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과거의 성과치를 기준으로 상향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시 현실을 반영하는 과거 성과를 고려한다는 점은 매해의 실제 달성가능성에 대해 고민한다는 점에서 목표설정에 합리성을 기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이용자, 기부자, 수혜대상자 등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사업의 직접적은 성과 달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함

[부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한 기준이나 근거가 과거 성과치 이외에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목표치 설정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과거의 성과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점증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조직의 역량이나 자원의 규모에 따르는 논리적 설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개선제안]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할 때, 과거의 기준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방법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문화예술 사회적인식 제고의 세세부사업들의 예산집행률은 대체로 우수한 편인 것은 해당년도 관점에서는 예산 집행 계획이 체계적으로 잘 수립되고 집행관리에 노력한 점이 인정됨

[부정적 측면]

- 분기별 균형잡힌 예산집행에 대한 노력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별로는 분기별 예산 집행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다소 미진한 경우가 있음

[개선제안]

-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당초 사업계획이 미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수행역량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함
- 전년도 미집행에 대한 원인을 분석 및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분기별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도록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함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추진체계 내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의 비교적 적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은 사업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음
- 각 사업의 수행과정상에서 수집된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매해 사업의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세세부사업별로 모니터링 체계가 사업추진체계 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모니터링은 성과달성이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추진체계 내에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이 명시되도록 사업기획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3-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며 그 실적이 어느정도 부각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임

[부정적 측면]

- 사업별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렴하는 방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기보다는 사안별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발생되는 당시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문제점 해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굴되고 및 피드백시스템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연동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체계 내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과반수 이상의 사업이 90% 이상의 목표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목표달성률을 보이는 점은 지난해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사업별로 목표달성률이 목표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저조하거나 목표치 대비 실적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성과목표치 설정단계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 상에서의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나타냄

[개선제안]

- 목표달성률이 저조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 목표치 설정방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측정방법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긍정적 측면]

- 대부분의 세부 및 세세부사업의 추진성과가 관련 문화예술정책의 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전년도의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로 인한 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함

[부정적 측면]

- 해당사항 없음

[개선제안]

- 해당사항 없음

5. 개선과제

□ 계획

○ 장기적 관점의 기금 고갈 대응계획 수립

- 향후 문예기금 고갈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인건경상비 지원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결과지표 중심의 질적 성과지표 개발

- 단순 조회건수보다는 정책연구 결과물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에 반영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사업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단순 미디어 노출건수 및 조회건수 등을 초월하여,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평판도 조사를 병행할 것을 권고함

○ 사업 구조를 고려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예술정책실행력 제고(평가) 및 공연예술실태조사 등의 세세부사업을 하나의 사업 구분 내에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세부사업 단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되,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간의 조정 노력도 필요함
- 성과지표의 선정에 있어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거나, 종합지표(index) 개발을 통해 복합적인 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예술경영컨설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예술단체기관의 경영실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실효성을 가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지표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집행

○ 체계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 계획 수립

-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세세부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노력도 필요함

○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 사업추진 체계 내에서 사업수행 과정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수렴, 파악,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내에 문제 또는 불만 접수 체계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 경제불황, 정치적 이슈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능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향후 통제불가능한 외부요인의 발생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성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목표 달성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성과 목표치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체계 내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성과 목표치 달성 중심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세세부사업 단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되,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간의 조정 노력도 필요함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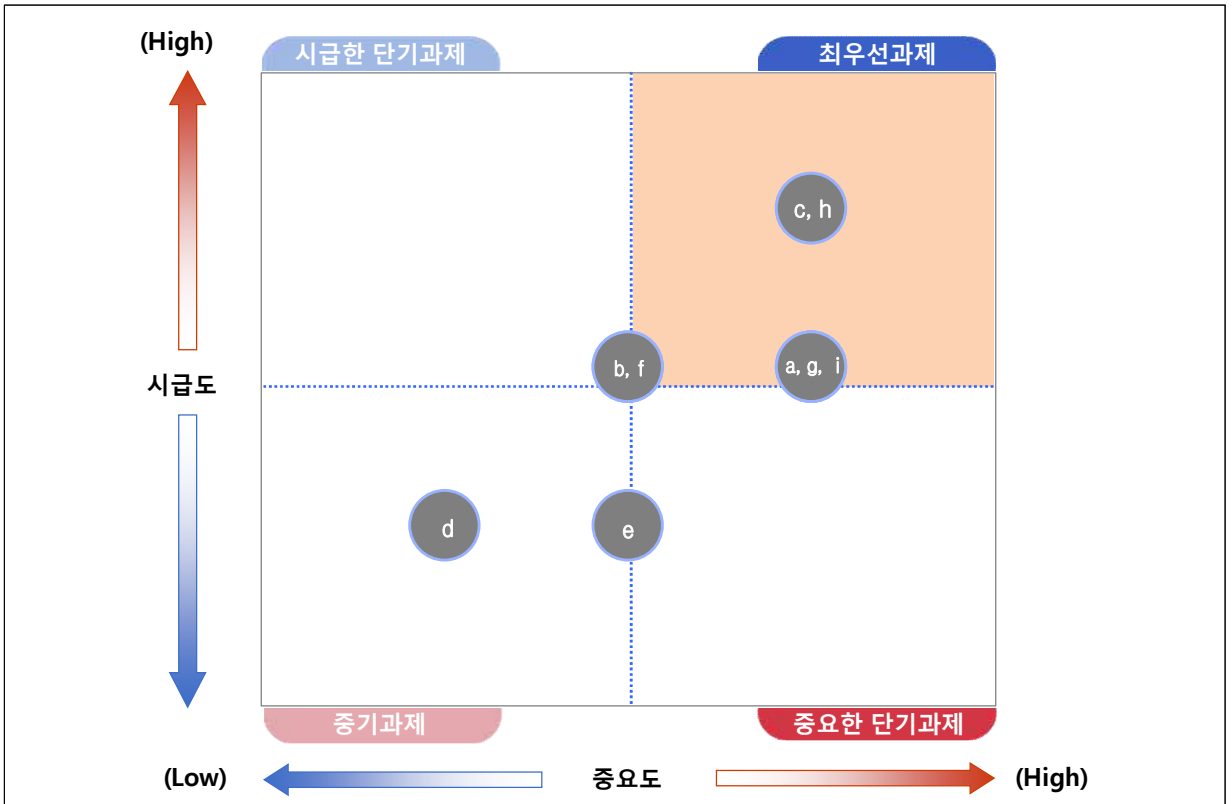
○ 실증적인 성과평가 방법 마련

- 성과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사업수행 과정 및 종료 후 실증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홍보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성과 평가 및 환류 조기 진행 추진

- 시의적절한 차년도 지원정책 및 사업개선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 최종보고, 평가 및 환류에 대한 시점을 연초로 앞당기는 개선노력이 필요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장기적 관점의 기금 고갈 대응계획 수립	6
계획	**b**	**결과지표 중심의 질적 성과지표 개발**	**1**
계획	**c**	사업 구조를 고려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3**
계획	d	성과지표 체계 개선	8
집행	e	체계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 계획 수립	3
집행	**f**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1**
집행	g	성과목표 달성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집행	**h**	실증적인 성과평가 방법 마련	**6**
성과	i	성과 평가 및 환류 조기 진행 추진	8

2분과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세세부사업

예술정책실행제고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2분과 세세부사업별 최종보고서

예술정책실행력제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예술 홍보·발간·연구조사를 통해 예술적 가치와 성과물을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1,200백만원)

○ 지원대상 : 예술인·예술단체 및 국민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예산	'16 예산 (A)	'17 예산 (B)	증 감 (B-A)	%
□ 예술정책실행력제고	1,250	1,200	1,316	116	9.7
▪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600	500	500	-	-
▪ 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250	200	400	200	100
▪ 예술정보컨설팅서비스	100	100	100	-	-
▪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	300	100	100	-	-
▪ 공연예술실태조사	-	300	216	△84	△28.0

□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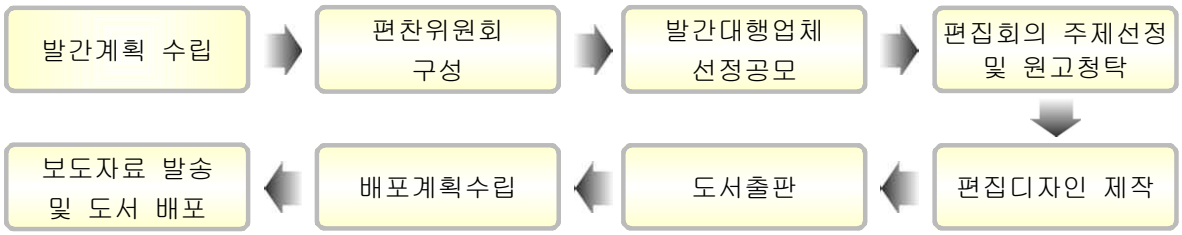
구 분	'14 결산	'15 결산 (A)	'16 결산 (B)	증 감 (B-A)	%
□ 예술정책실행력제고	1,644	1,191	1,082	△109	△9.2
▪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695	595	474	△121	△20.3
▪ 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473	213	148	△65	△30.5
▪ 예술정보컨설팅서비스	97	99	99	-	-
▪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	379	284	61	△223	△78.5
▪ 공연예술실태조사	-	-	300	순증	순증

□ 사업추진 절차

○ 문화예술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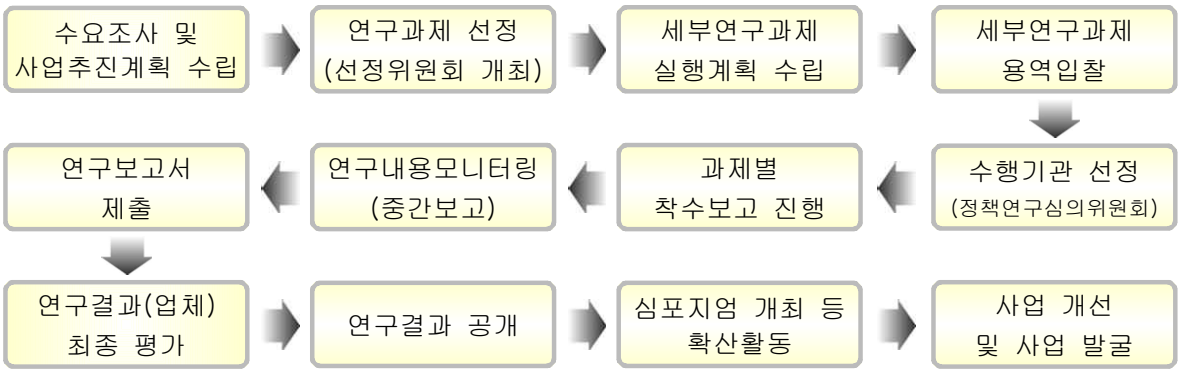


○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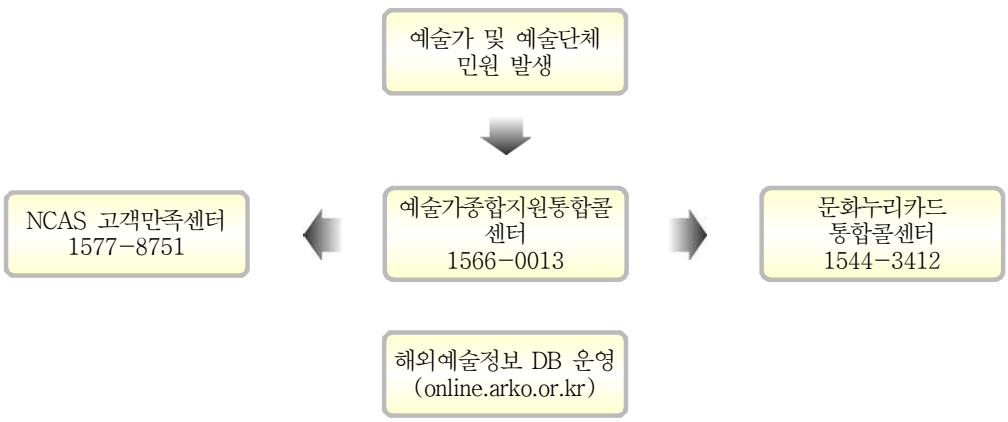


○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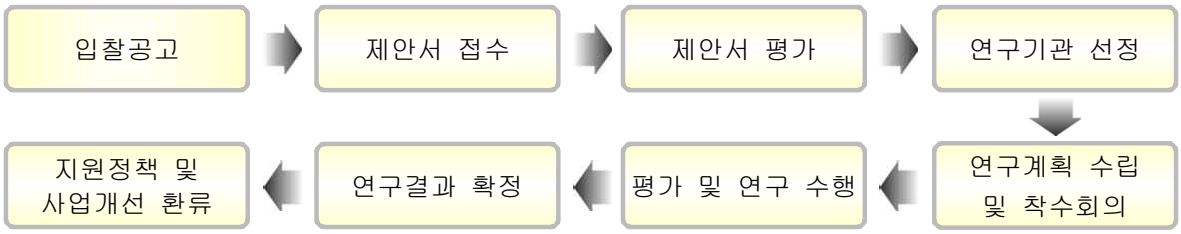
[※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제정 2012.4.26. 개정 2016.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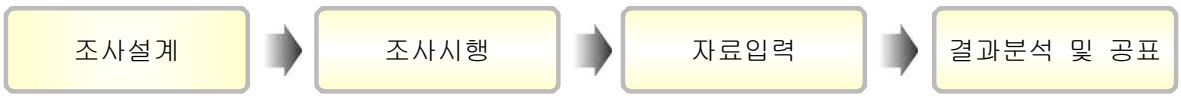
○ 예술정보컨설팅서비스



○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 - 확인



○ 공연예술실태조사



□ 성과관리

성과 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문예기금 사업 미디어 노출 건수 (건)	목표	45	61	70	85	83	▪산출근거 - 최근 3개년('13~'15년) 실적이 일정한 범위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가능한 예상실적이 80건 내외로 추정됨에 따라 '16년 목표치를 전년대비 5% 증가하는 83건으로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 '15년 실적 x 105% = 79 x 105% = 83건	▪측정방법 - 기간 : '16.1.1 ~ '16.12.31 -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수행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보고서(실적집계는 외부기관 용역) ▪측정산식 - ∑(미디어 노출 건수 집계) ▪자료출처 - 외부용역기관 결과보고서
	실적	50	61	71	79	95		
	달성도	111	100	101	93	114		
웹진 아르코 정기 구독자 수 (명)	목표	48,422	60,269	63,672	66,860	68,223	▪산출근거 - 최근 5개년 실적 중 최고 실적을 '16년도 목표치 설정 기준치로 하고, 전년대비 5% 상향목표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 최근 5개년 중 최고실적 x 105% = 64,974 x 105% ≒ 68,223	▪측정방법 - 기간 : '16.1.1 ~ '16.12.31 - 수행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결과보고서 -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구독자 수 누적 집계 ▪측정산식 - ∑(웹진구독자 수) ▪자료출처 - ERP 데이터
	실적	54,790	61,640	63,675	64,974			
	달성도	113	102	100	97	-		
정책 연구 보고서 조회 실적 (건)	목표	693	605	694	943	1,157	▪산출근거 - '15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설정하고, 전년대비 5% 상향목표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 최근 연도 중 최고실적치 x 105% = 1,102 x 105%	▪측정방법 - 기간 : '16.1.1 ~ '16.12.31 -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수행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결과보고서 ▪측정산식 - ∑(정책연구보고서 평균 조회수) ▪자료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결과보고서
	실적	471	791	898	1,102			
	달성도	68	131	129	117	-		

성과 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국민 체감도 (점)	목표	-	-	-	신규	54.2	▪산출근거 - 동일조사를 받은 '15년 준정부기관 전체 평균값인 54.1점보다 0.1점 높고, 문예기금이 속한 동일유형 산업진흥 전체 평균인 53.1점보다 1.1점 높은 목표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 과거 3개년간 실적 추세치 등폭을 감안, '15년도 실적 53.7점을 기준치로 설정, 과거 실적 중 가장 높은 '13년 실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년실적 대비 1% 상향 목표를 설정	▪측정방법 - 기간 : '16.10월말~'16.12월말, 최종실집계 완료 : '17.1월말 - 수행기관 : 기획재정부 주관(조사기관은 매년 전문리서치 기관 의뢰) -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대한민국 거주 국민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400여 명 내외 조사(전국 인구 비례 할당) - 조사항목 : 설립목적 부합성, 사업수행 노력도, 공공이익 기여도, 법/윤리 준수도 - 평정부여 방식 : 항목별 리커트 7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항목별 산출평균 ▪측정산식 - ∑[Q1+Q2+Q3+Q4] ÷4], 7점척도 * Q1 : 설립목적부합성 Q2 : 사업수행노력도 Q3 : 공공이익 기여도 Q4 : 법/윤리 준수도
	실적	52.8	54.5	51.5	53.7			
	달성도	-	-	-	-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 (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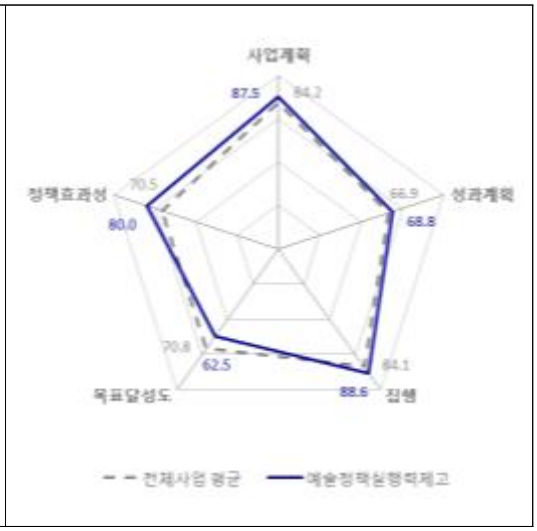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예술정책실행력제고」는 환산점수 기준으로 5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75.0점, ‘성과계획’ 62.5점, ‘집행’ 77.5점, ‘목표달성도’ 77.1점, ‘정책효과성’ 60.0점 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3.3), 성과계획(+1.9), 집행(+4.5), 정책효과성(+9.5)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목표달성도(-8.3)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3점)	2.6	87.5	87.5
	1-2(3점)	2.6	87.5	
	1-3(4점)	3.5	87.5	
성과계획	2-1(5점)	3.8	75.0	68.8
	2-2(5점)	3.1	62.5	
집행	3-1(15점)	11.8	78.3	88.6
	3-2(5점)	4.4	87.5	
	3-3(10점)	10.0	100.0	
목표달성도	4-1(30점)	18.8	62.5	
정책효과성	5-1(20점)	16.0	8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80.8(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집행’ 항목 중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 항목 중 ‘2-2. 성과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목표달성도’ 항목 인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이며 62.5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문화예술 관련 홍보, 발간, 연구조사를 통한 예술적 가치와 성과물의 홍보,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세부사업을 홍보, 정책연구개발, 컨설팅, 평가, 실태조사 등으로 구성, 기획하여 사업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목표치 설정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며, 사업별 성과지표 구성 및 기준설정에 있어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점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나 설정근거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시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홍보사업, 예술지원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모니터링 체계를 일부 갖추고 있으나, 성과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최소화 하고, 현장의견 청취,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문제점 해결과정이 사업수행 시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렴되어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사업의 목표달성이 기관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예술정책실행력 제고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 및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평판을 증진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동 사업의 목적은 문화예술 관련 홍보, 발간, 연구조사를 통해 예술적 가치와 성과물을 홍보하고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임
- 사업의 목적은 크게 홍보와 전문성 제고의 두 측면으로 구분되어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홍보 관련 사업과 정책연구개발, 컨설팅, 평가, 실태 조사 등으로 사업을 구성하고, 각각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점은 동 사업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세세부사업의 내용이 세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세부사업과 세세부사업의 목적과 목표 간의 논리적 연계는 설정되어 있으나, 세세부사업 목표의 구체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사업의 경우, “예술현장에 관한 정책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정책개발사업의 주요 목표는 연구결과를 실제 정책수립에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개발을 견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의 구체성은 결국 성과평가 지표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목표 설정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의 구성이 문화예술정책 홍보와 정책개발 및 평가 등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세부사업이 이러한 전체적 프레임 내에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유사, 중복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부정적 측면]

- 전체 5개 세세부사업 중 홍보 관련 사업은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발간” 사업 하나이며, 정책개발 및 평가 등 사업은 나머지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세부사업의 개수와 예산 측면에서 정책개발 및 평가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음
  (‘17년 전체 예산 13억1천6백만원 중 홍보예산은 5억원, 나머지는 8억1천6백만원임)

[개선제안]

-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예술정책실행력 제고(평가) 및 공연예술실태조사 등의 세세부사업을 하나의 사업 구분 내에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문화예술홍보사업의 경우 홍보협의체 회의를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의 사업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우수한 추진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사업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규정의 준수여부에 따라 추진방식의 효율성이 좌우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사업 집행과정에서 규정 준수가 잘 이루어질 경우 추진방식은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예술정보컨설팅서비스사업의 경우,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민원을 예술가종합지원통합콜센터를 통해 수렴하고, 이를 구분하여 해당 서비스로 연결하는 실제의 업무 추진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발간사업의 경우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예위의 고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절차는 명문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 추진방식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구체적으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환류가 차년도 7월말에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정책 및 사업개선

환류의 시의적절성(timing)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개선제안]

-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한 차년도 지원정책 및 사업개선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 최종보고, 평가 및 환류에 대한 시점을 연초로 앞당기는 개선노력이 필요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목적에 따라 성과지표를 논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성과평가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고, 실제 data를 바탕으로 설정된 기준의 달성정도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달성정도를 측정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대체로 사업의 성과지표를 수행(performance) 또는 산출(outputs)위주로 설정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홍보사업의 경우, 기금사업에 대한 미디어 노출건수 및 웹진 아르코 정기구독자수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성과평가기준이라기 보다는 산출평가기준에 가까움
-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보고서 조회건수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성과평가방식이라기 보다는 산출평가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술정보컨설팅서비스,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 및 공연예술실태조사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움

[개선제안]

- 성과지표를 세부사업의 세세부사업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연구 성과가 대외로 확산된 정도를 파악하고자 정책연구보고서 조회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단순 조회건수보다는 정책연구 결과물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에 반영된 정도(예: 수행된 정책연구 건수 중 몇 건이 정책에 반영되었는가?)로써 사업목적 달성도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발간사업의 경우에도 아르코 웹진 확대개편을 통

해 블로그 레터발송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 성과를 보다 적정하게 가늠할 수 있는 타당한 지표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과거의 성과치를 기준으로 상향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실제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함으로써 목표설정의 합리성을 기했다고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한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의 성과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점증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조직의 역량이나 자원의 규모에 따르는 논리적 설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개선제안]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할 때, 과거의 기준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문예기금사업미디어노출 건수의 경우 전년도의 5%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때 5%를 설정한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2016년도 예산집행률은 약 90.2%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공연예술실태조사사업은 100% 집행하였으며,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발간사업은 94.8%, 예술정보컨설팅서비스는 99%를 집행하였음

[부정적 측면]

-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 사업의 경우 61%,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사업은 74%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임
- 과거연도와 비교하여 세세부사업의 예산집행률 간 편차가 다소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산집행률이 낮은 원인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당초 사업계획이 미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수행역량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체계적 노력이 필요함
- 세세부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노력도 필요함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홍보사업, 예술지원실태 조사 및 정책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체계 내에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홍보사업의 경우, 언론사와의 접촉을 통해 합의된 기사 게재확인 및 해당 사업부서와의 공유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 상황 중간 점검 및 향후 연구일정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

[부정적 측면]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은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관점

에서 기금사업의 모니터링은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강함. 예를 들어, 홍보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미디어 노출건수와 조회건수 등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러한 성과지표의 변동상황을 체크하면서 이를 개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예술정보컨설팅 서비스, 공연예술실태조사 등 사업추진체계에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사업추진체계 내에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모니터링의 결과를 사업수행과정에 환류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체계는 사업성과지표의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어야 함

3-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문예기금 사업 추진 과정 중 2016년에 발생한 블랙리스트, 지원금 편향지원 관련 논란 등 문예위 이미지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 언론보도 등 증가하는 문제 발생
- 이에 대해 언론사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 부정적 기사 최소화 등의 노력을 개진하였음
- 또한 현장의견 청취,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투입한 점도 인정됨

[부정적 측면]

- 사업추진 관련 문제점 해결이라기보다는 문예위의 이미지 하락 등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된 대응에 치중하였음
- 구체적으로 사업수행 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였거나, 이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해결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음

[개선제안]

-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체계 내에서 사업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 및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계획 시 설정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문예기금사업 미디어 노출건수와 웹진 아르코 정기구독자수는 목표치를 상회하여 달성하였음

[부정적 측면]

- 정책연구보고서 조회실적은 목표치가 1,157건인데 비해 달성치는 1,048건으로 목표치 대비 90.6% 수준으로 성과목표에 미달되었음
- 국민체감도는 54.2점을 목표로 하였으나, 달성치는 39.6점으로 목표치 대비 73.1%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음

[개선제안]

- 성과지표의 목표치 미달성은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음
- 우선,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체계의 미비가 원인이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상으로 볼 때, 성과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앞에서 지적했듯이,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성과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체계 내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성과목표치 달성을 중심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금사업에 대한 대국민 성과확산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인 국민체감도의 경우 목표치를 크게 하회한 결정적 이유가 정치적 이슈라고 판단되는 만큼 문예기금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관의 홍보강화 노력 투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됨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정책실행력 제고 측면에서 문예기금사업 등 예술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정책개발사업 및 예술정보컨설팅 사업 등은 새로운 사업 및 정책 발굴 뿐 아니라, 기존의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들의 사업 수행능력을 증진함으로써 예술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특이 사항없음

[개선제안]

- 세세부사업 내의 단위 사업들이 고유의 사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예술정책실행력을 제고한다는 사업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개선과제

□ 계획

○ 문화예술 홍보 전략 수립

-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와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측정

- 홍보 예산의 효과적 수립과 집행을 위한 수요 측정 필요
- 컨설팅 수요 파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화된 컨설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조직 역량 및 사업 수행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 및 기관과의 협업 추진

○ 결과지표 중심의 질적 성과지표 개발

- 단순 조회건수보다는 정책연구 결과물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에 반영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사업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단순 미디어 노출건수 및 조회건수 등을 초월하여,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평판도 조사를 병행할 것을 권고함

○ 합리적 목표치 설정 근거 마련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시 과거의 기준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 구조를 고려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예술정책실행력 제고(평가) 및 공연예술실태조사 등의 세세부사업을 하나의 사업 구분 내에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세부사업 단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되,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간의 조정 노력도 필요함

○ 문화예술 단체 역량 진단도구 개발

- 민간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의 조직 역량 및 사업수행 역량 진단이 필요함
- 단편적이고 간헐적으로 파악되는 컨설팅 수요에 대응하기 보다는, 현재 활동 중인 민간 단체 및 기관의 조직 및 사업수행 역량을 자체 진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 개발이 필요함(민간비영리단체 역량진단 도구 참고)

□ 집행

○ 체계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 계획 수립

-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세세부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노력도 필요함

○ 문화예술 홍보채널 다양화를 통한 영향력 강화

-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SNS 기반의 홍보 플랫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보매체들의 허브 역할을 수행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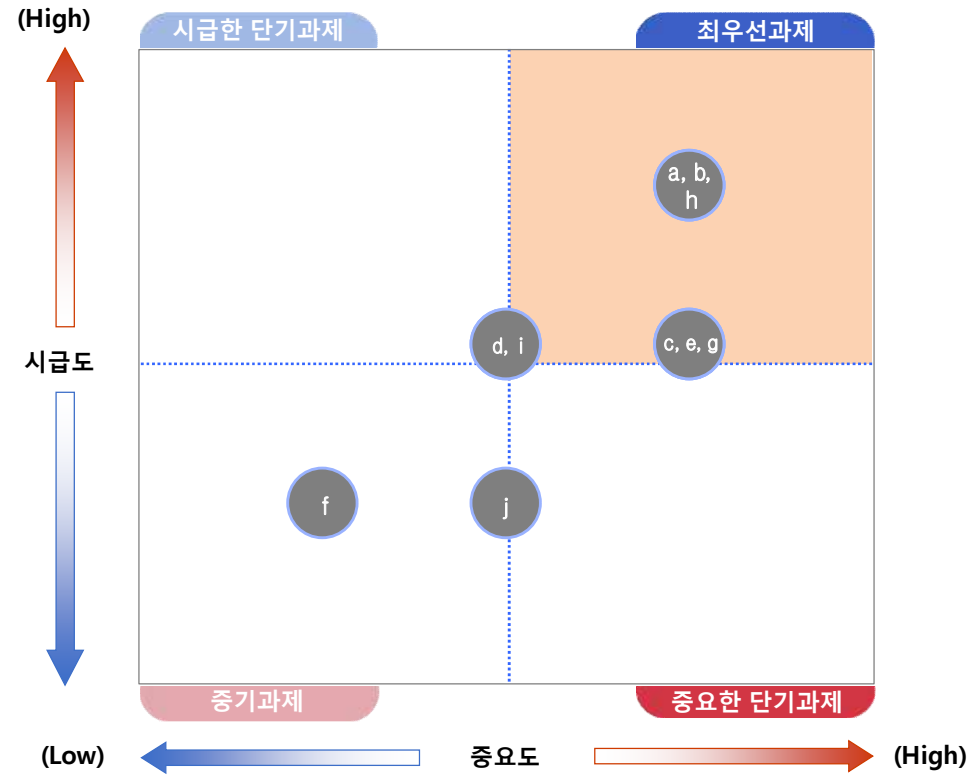
○ 실증적인 성과평가 방법 마련

- 성과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사업수행 과정 및 종료 후 실증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홍보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성과 평가 및 환류 조기 진행 추진

- 시의적절한 차년도 지원정책 및 사업개선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 최종보고, 평가 및 환류에 대한 시점을 연초로 앞당기는 개선노력이 필요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문화예술 홍보 전략 수립**	**1**
계획	**b**	**효율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측정**	**1**
계획	c	결과지표 중심의 질적 성과지표 개발	4
계획	d	합리적 목표치 설정 근거 마련	7
계획	e	사업 구조를 고려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4
계획	f	문화예술 단체 역량 진단도구 개발	10
집행	g	체계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 계획 수립	4
집행	**h**	**문화예술 홍보채널 다양화를 통한 영향력 강화**	**1**
성과	i	실증적인 성과평가 방법 마련	7
성과	j	성과 평가 및 환류 조기 진행 추진	9

2분과 세세부사업별 최종보고서

문화예술기부활성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술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예술후원 분위기 조성 및 문화 확산을 통한 예술의 가치 제고

- 창작단체의 민간후원 확보 지원 및 민간·공공 협력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로 예술계 지원총량 확대
-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민간영역의 후원 활성화 유도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과 민간지원의 균형 발전 유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 1973년~계속사업

○ 사업규모 : 25,384백만원, 기부금사업(216억원), 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20억원), 문화로인사합시다(1억원),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지원(3.5억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및후원우수기간인증사업(1.5억원), 문화예술기부활성화(10억원), 원로문예인복지지원(1.7억원)

○ 지원대상 : 예술인·예술단체 및 국민

○ 최종수혜자 : 직접 지원을 통해 생산된 작품을 향유하는 독자(일반국민)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예술단체 및 예술인, 한국메세나협회, 문화예술사회공원네트워크,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추진단	정액, 정률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부 훈령) 제2장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보조비율)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예산	'16 예산 (A)	'17 예산 (B)	증 감 (B-A)	%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12,683	25,410	25,403	△7	△0.03
▪ 기부금사업	9,695	21,630	21,630	-	-
▪ 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	1,000	2,000	2,000	-	-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1,000	1,000	1,000	-	-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지원	550	350	350	-	-
▪ 후원매개단체지원	150	150	150	-	-
▪ 문화로인사합시다	100	100	100	-	-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188	180	173	△7	△3.89

□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결산	'15 결산 (A)	'16 결산 (B)	증 감 (B-A)	%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25,905	26,761	22,013	△4,748	△17.74
▪ 기부금사업	20,387	23,798	18,320	-5,478	△23.019
▪ 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	2,300	1,000	2,000	1,000	100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939	-	-	-	-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지원	1,891	987	998	11	1.11
▪ 후원매개단체지원	-	550	350	△200	△36.36
▪ 문화로인사합시다	-	150	85	△65	△43.33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200	100	100	-	-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188	176	160	△16	△9.09

□ 성과관리

성과 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기부금 유치액	목표	166	169	202	227	247	▪산출근거 - 과거 4년간('12~'15년)의 기부금 유치액 추세치를 기본으로 설정하되, 기부금액의 상당부분이 기업으로부터 유치되는 등 경제여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부금의 특성상 '16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전망치)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 상향목표를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 '15년도 실적(242억원) x 102% = 247억원	▪측정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수입 실적 및 수입 결산보고서 ▪측정산식 - ∑(법인기부액 + 개인기부액, 연간 누계) ▪자료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적	147	195	216	242	207		
	달성도	88.6	115.4	106.9	107.6	83.8		
기부금 사업 만족도 조사	목표	85.0	85.0	87.0	90.80	83.2	▪산출근거 - '15년부터 조사척도 변경(7점 척→ 11점 척도)으로 과거 실적 추세치(연평균 증가율 등)의 적용이 어려움에 따라 '12년 이후 실적의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15년도의 11점 척도 환산점수를 기준치로 하여 전년대비 1% 상향목표 설정 ▪목표치 산출방식 : - '15년도 82.4점(11점 척도 환산점수) x 101% = 83.2점	▪측정방법 -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부금사업과 관련한 기부처(법인)와 수혜처(예술인/예술단체) 중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대상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기부처 및 수혜처 비율 고려한 표본할당 및 설문 실시 ▪측정산식 - ∑(기부자만족도 + 수혜자만족도) - ∑(11점 척도, D1 x 30% + D2 x 10% + D3 x 40% + D4 x 20%) ▪자료출처 - 전문 리서치기관 조사의뢰 (조사 기획 및 주관 : 기획재정부)
	실적	80.3	83.9	86.3	82.40	72.4		
	달성도	94.5	98.7	99.2	90.8	87.0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table>
<tr><th>평가명
(연도)</th><th>지적사항</th><th colspan="3">개선사항(실적)</th></tr>
<tr><td>성과보고서
(2015)</td><td>지속가능한 기업후원 기반마련 및 기부기회 확대</td><td>추진과제</td><td>이행 여부</td><td>반영실적/개선사항</td></tr>
<tr><td></td><td></td><td>○ 예술가(단체)의 예술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기업대상 문화예술 후원 인지도 확보 및 중장기 지속적인 후원기반 마련</td><td>완료</td><td>○ 예술가(단체)의 예술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문화접대비인식개선 캠페인 광고 확대 (지면광고 5회, 전광판광고, 버스광고 3회)
- 문화접대비 정보제공을 위한 리플렛 1만부 배포
- 문화예술관련 기업 협력 캠페인 추진(인터파크, 영풍문고 외 7곳)
- ‘문화로 인사합시다’ 문화예매권 지류상품권 신규 런칭(1만부)
- 기업관계자 간담회 확대 (5회, 300명), 세무·회계 담당자 교육 확대 (38회, 1,800명)
- 단체지원 신규 추진(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외 4곳, 990만원)
○ 기업대상 문화예술 후원 인지도 확보 및 중장기 지속적인 후원기반 마련
- 대기업 결연(37건 4,176백만원, 예술지원매칭펀드 확대(145건 1,251백만원), 지역특성화매칭펀드 신규 추진(13건 3,320백만원 등 총 195건 8,747백만원 추진
- 기획 프로그램 제안을 통한 기업기부 유치 확대(47건 2,819백만원)</td></tr>
<tr><td>경영실적평가
(2015)</td><td>지역메세나 활성화 노력 및 새로운 지역문화예술 지원 거버넌스 구축 필요</td><td>추진과제</td><td>이행 여부</td><td>반영실적/개선사항</td></tr>
<tr><td></td><td></td><td>○ 공공-민간 협력 지역문화예술지원 협력체계 강화</td><td>완료</td><td>○ 공공-민간협력 지역문화예술지원 협력체계 강화
-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6개 광역문화재단 협력 후원 활성화 추진(13건 프로젝트/신규)
- 한국메세나협회와 중소·중견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협력 추진(‘15년 1,517백만원 → ’16년 2,092백만원 결연)
- 민간 기업 협력 기획 프로그램 협력 확대(‘15년 39건 → ’16년 47건)
- 공공-민간 문화예술지원 협력네트워크 참가기관 확대(‘14년 12개→’15년 47개→‘16년 63개 기관)
○ 지역문화예술지역 협력네트워크 참가기관 확대(3년간 63개 기관)
○ 공공-민간영역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재원 확보(3년간 81억)</td></tr>
<tr><td>기금존치평가</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r><td>보조사업평가</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r><td>재정사업평가</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table>
<tr><th>평가명
(연도)</th><th>지적사항</th><th colspan="3">개선사항(실적)</th></tr>
<tr><td rowspan="2">국정감사(2015)</td><td rowspan="2">문화접대비
활성화 방안</td><td>추진과제</td><td>이행
여부</td><td>반영실적/개선사항</td></tr>
<tr><td>○ 문화접대비
활성화 방안</td><td>완료</td><td>○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기업의 문화접대비의 인정 한도를
10%→20% 범위로 확대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건전한 접대문화
정책을 위한 방안
- 문화접대비 교육 22회(1,300명),
문화접대비 상품권 출시 및
운영(인터파크, 티켓링크, YES24 등)

○ 국세청 문화접대비 신고액('14년 48억 →
'15년 90억)</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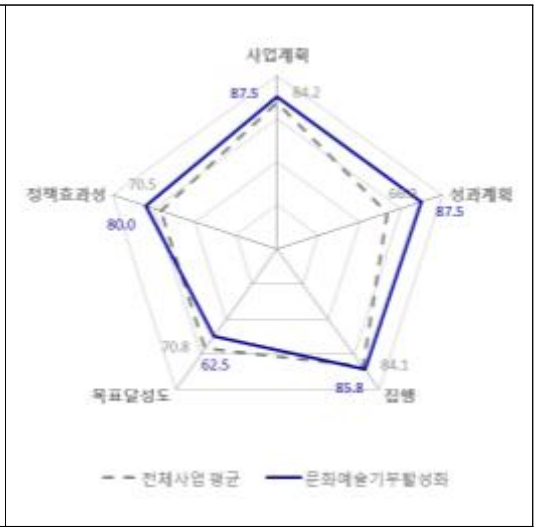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문화예술기부활성화」는 환산점수 기준으로 5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7.5점, ‘성과계획’ 87.5점, ‘집행’ 85.8점, ‘목표달성도’ 62.5점, ‘정책효과성’ 80.0점 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3.3), 성과계획(+20.6), 집행(+1.7), 정책효과성(+9.5)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목표달성도(-8.3)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3점)	2.6	87.5	87.5
	1-2(3점)	2.6	87.5	
	1-3(4점)	3.5	87.5	
성과계획	2-1(5점)	4.4	87.5	87.5
	2-2(5점)	4.4	87.5	
집행	3-1(15점)	12.4	82.5	85.8
	3-2(5점)	4.4	87.5	
	3-3(10점)	8.8	87.5	
목표달성도	4-1(30점)	18.8	62.5	
정책효과성	5-1(20점)	16.0	8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 「문화예술기부활성화」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83.8(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와 ‘2-2. 성과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집행’ 항목 중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이며 87.5점으로 평가됨

○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목표달성도’항목 인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이며 62.5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측면에서 기부금사업은 세부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공공부문의 재정 한계와 문예기금 고갈에 대비하여 반드시 활성화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기부금 목표치 설정단계에서 조직의 역량이나 자원, 전략을 적극 고려한 현실적인 유치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부금 배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문예위가 최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 기부전문가배치, 조직 역량강화 등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 기부금 유치액수 및 건수를 중심으로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산출지표 위주의 성과를 측정하게 되므로, 사업 전체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기부와 개인기부에 대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기부활성화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기부금 유치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단순히 모금액의 증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social return)을 함께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동 사업의 목적은 예술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예술후원 분위기조성 및 문화 확산을 통한 예술의 가치 제고임
- 이러한 관점에서 단체에 대한 민간후원확보 지원 및 민간·공공 협력강화를 통해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한다는 사업 목표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재원 한계 및 문예기금 고갈에 대비하여 민간부문의 기부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더욱 발전시켜 나갈 분야라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큼
-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 기부활성화사업 등은 사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원로문예인복지지원사업은 세부사업 목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원로문예인복지지원사업을 문화예술기부활성화사업 내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의 전체 구성은 기부금배분사업과 기부문화활성화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사업은 전체적으로 기부문화활성화라는 전체 목표에 비교적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세부사업이 이러한 전체적 프레임 내에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유사, 중복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부정적 측면]

- 특이사항 없음

[개선제안]

- 사업 전체의 목표가 ‘문화예술기부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세부사업의 구분을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와 ‘문화로인사합시다’등의 사업은 큰 틀에서 ‘문화예술기부활성화’사업의 하위 사업으로 편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사업별로 추진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문화예술기부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모금 체계를 갖추고, 각각의 모금 프로세스에 따라 모금된 재원을 사업별로 배분하는 방식은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시행단체, 기부자, 매개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단계별로 다양한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텀블벅, 네이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술나무 운동을 위한 현장 캠페인 추진 등 개인기부 활성화 노력이 우수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후원을 활성화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문화예술기부문화활성화사업을 위한 추진체계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음
- 뿐만 아니라 과거연도처럼 기부금 유치액 목표치를 큰 무리 없이 달성하리라고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개선제안]

-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기부와 개인기부의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사업 추진체계 내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기부자 관리체계를 사업추진체계 내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기부문화활성화사업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함

- 또한 경제불황, 정치적 이슈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능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향후 통제불가능한 외부요인의 발생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성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문화예술기부활성화를 위해 예술지원총량확대를 목표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점은 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
-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성과평가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고, 실제 data를 바탕으로 설정된 기준의 달성정도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달성정도를 측정하고 있음
- 공공재원 한계 보완 및 민간영역의 기부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는 양적 지표(기부금 유치액 + 예술기부 유치건수)와 사업 참여자의 지속적인 후원 유지 및 재기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지표(기부금사업 만족도조사)가 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기부금 유치액, 유치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함으로써 '기부문화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라는 산출(outputs)위주로 설정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세부사업 내의 세세부사업들의 성과지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개선제안]

- 성과지표를 세부사업의 세세부사업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기부문화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예술나무캠페인에 의한 모금실적, 크라우드펀딩 운영실적 등과 관련한 성과지표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추가하여, 재기부자 이탈방지 및 재기부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의 개발 및 병행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과지표를 정교하게 설정하는 과업은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과거의 성과치를 기준으로 상향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실제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함으로써 목표설정의 합리성을 기했다고 할 수 있음
- 외국의 기부금 성장률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성과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음

[부정적 측면]

- 기부금 목표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역량이나 자원, 전략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성과치를 주요 reference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기부금의 내용(기업기부금, 개인기부금, 기부방식별 기부금 등)에 따르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음

[개선제안]

-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성과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기부자, 기부채널, 기부금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기부금 실적이 외부환경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함. 예를 들어, 기부금 유치실적이 4/4분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중 균형있는 기부금 유치 확대노력과 함께 분기별(혹은 월별) 목표치 설정 노력을 들 수 있음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기부금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사업에서의 예산집행률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과거 예산집행률이 100%를 초과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2016년도 예산집행률은 약 86.6% 수준을 수준인데, 이는 세세부사업 중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부금사업의 예산집행률(84.7%) 저조에 따른 결과로 나타남

[개선제안]

-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당초 사업계획이 미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수행역량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체계적 노력이 필요함
- 전체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으며, 이로 인해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방식에 따른 구조적 문제, 즉 민간 기업 및 개인의 자발적 후원에 따라 예술 후원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관의 노력만으로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공감하나, 해가 거듭될수록 분기별 예산집행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기별 예산수립 및 집행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음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추진단계에서 종료 시까지 세세부사업별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각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음
- 모니터링 과정에 기부자 및 수혜자 등이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성과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도 대면회의,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은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금사업의 모니터링은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강함
- 예를 들어 기부문화활성화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기부금 유치액수와 기부건수로 평가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러한 성과지표의 변동상황을 체크하면서 이를 개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개선제안]

- 특이사항 없음

3-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기부자 및 수혜자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음
- 기부금사업 참여시 정산 및 성과보고의 어려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민간경상보조 비목에서 정산 등 사후절차가 필요없는 기타 보전금 비목으로 변경
- 크라우드펀딩 신청 시 절차의 복잡성에 대하여 신청 간소화 및 관리자 메뉴를 개선하였으며,
- 홈페이지 내 정보부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능 확대 및 메뉴 재배치하였음
-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들에 대하여 행정적, 내부목표 설정 용어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교체한 점이 인정됨

[부정적 측면]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보다는 일상적, 단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

[개선제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체계 내에서 사업수행 과정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 및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내에 문제 또는 불만 접수 체계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기부 유치건수의 경우 7,775건을 달성하여 목표치(7,568건) 대비 달성률 102%인 것은 사업성과 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함

[부정적 측면]

- 예술기부 유치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지표는 목표치 대비 달성율이 80%대로 저조한 편임. 구체적으로, 기부금 유치액은 목표치(247억원)의 약 83.8% 수준인 207억원을, 기부금사업 만족도조사는 목표치(83.2점)의 약 87% 수준인 72.4점을 달성하였음

[개선제안]

- 성과지표의 목표치 미달성은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음
- 우선,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체계의 미비가 원인이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상으로 볼 때, 성과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성과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체계 내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성과 목표치 달성을 중심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긍정적 측면]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사업은 공공부문 재원의 한계와 문화예술기금의 고갈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성과는 실질적으로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 및 개인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단순히 재원 총량을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민감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임

- 최근 4년(2013년~2016년)간의 조사에서 확인된 예술나무운동 대국민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33.5%로 최고점을 기록 중에 있음. 예술나무운동 확산 등 기부금 모금을 위한 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의 성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후원 선순환 효과(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특이 사항없음

[개선제안]

- 세부사업 내의 세세부사업들이 고유의 사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문화예술기부 활성화를 이룬다는 사업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개선과제

□ 계획

○ 세세부사업 재편

- 세부사업 전체의 목표가 ‘문화예술기부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세부사업의 구분을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와 ‘문화로인사합시다’등의 사업은 큰 틀에서 ‘문화예술기부활성화’사업의 하위 사업으로 편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기부 주체별 포트폴리오 구성

-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기부와 개인기부의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사업 추진체계 내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

- 기부문화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예술나무캠페인에 의한 모금실적, 크라우드펀딩 운영실적 등과 관련한 성과지표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추가하여, 재기부자 이탈방지 및 재기부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의 개발 및 병행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과지표를 정교하게 설정하는 과업은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추진타당성 재검토

- 원로문예인복지지원사업을 문화예술기부활성화사업 내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집행

○ 예산 집행실적 분석 강화

-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세세부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노력도 필요함

○ 사업추진체계 내 기부자 관리체계 마련

- 기부자 관리체계를 사업추진체계 내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기부문화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함

○ 지정기부금 차지 비중 개선

- 전체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으며, 이로 인해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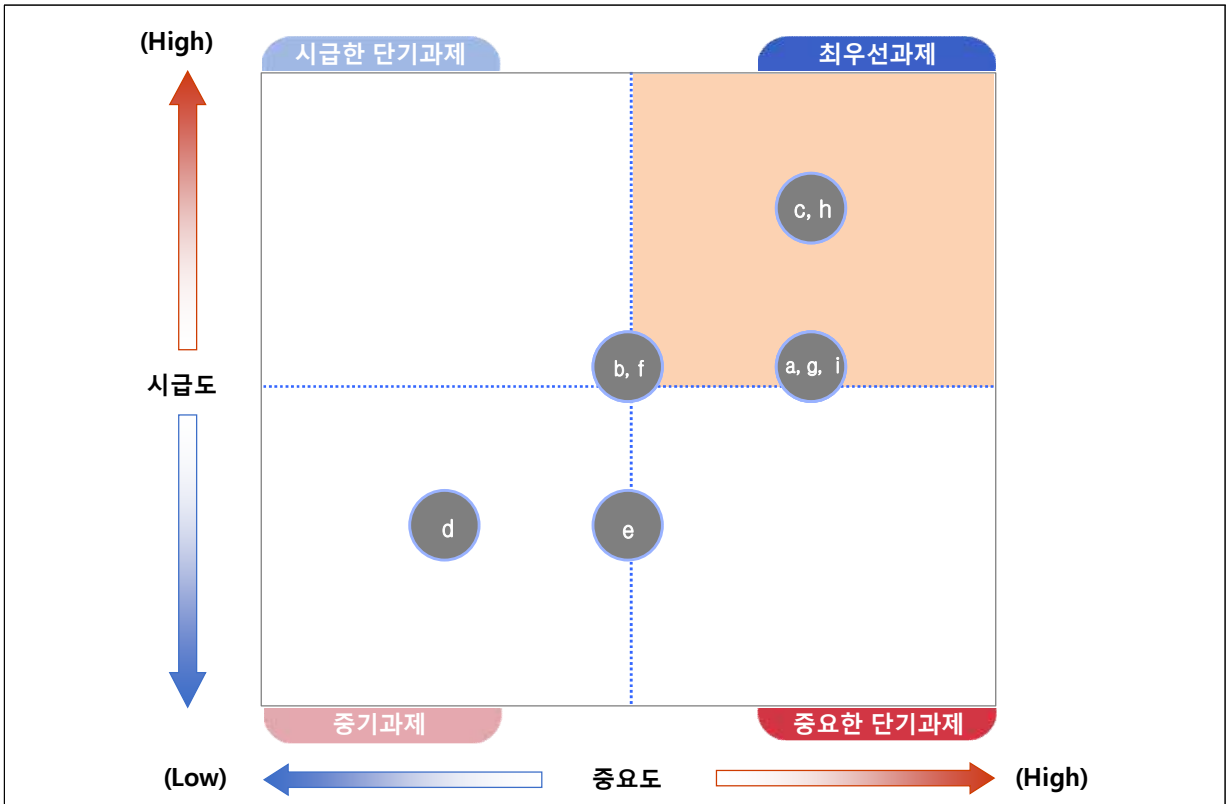
○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 사업추진 체계 내에서 사업수행 과정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수렴, 파악,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내에 문제 또는 불만 접수 체계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 경제불황, 정치적 이슈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능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향후 통제불가능한 외부요인의 발생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성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목표 달성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성과 목표치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체계 내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성과 목표치 달성 중심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세세부사업 단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되,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간의 조정 노력도 필요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세세부사업 재편	3
계획	b	기부 주체별 포트폴리오 구성	6
계획	**c**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	**1**
계획	d	일부사업의 추진타당성 재검토	9
집행	e	예산 집행실적 분석 강화	8
집행	f	사업추진체계 내 기부자 관리체계 마련	6
집행	g	지정기부금 차지 비중 개선	3
집행	**h**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1**
성과	i	성과목표 달성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2분과 세세부사업별 최종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통한 예술분야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예술유통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 사업규모 : 4,255백만원

○ 지원대상 : 예술경영지원센터 임직원·예술단체

○ 최종수혜자 : 간접지원을 통해 예술단체의 작품을 향유하는 일반국민)

○ 지원형태 : 민간경상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 (시책과 권장)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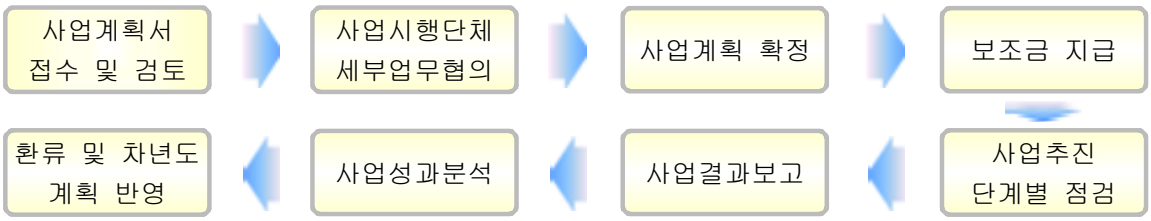
구 분	'15 예산	'16 예산 (A)	'17 예산 (B)	증 감 (B-A)	%
□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2,057	4,255	4,874	619	14.5
▪ 인건경상비	815	833	1,898	1,065	127.9
▪ 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터운영	522	522	287	△235	△45.0
▪ 미술시장실태조사 ('17년 시각예술실태조사)	90	90	105	15	16.7
▪ 정부시상경연대회평가	-	300	147	△153	△51.0
▪ 정책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200	144	△56	△28.0
▪ 한국미술글로벌플랫폼구축	130	130	57	△73	△56.2
▪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	1,280	1,364	84	6.6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500	900	755	△145	△16.1
▪ 예술경영 창취업 육성지원	-	-	117	117	100

□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결산	'15 결산 (A)	'16 결산 (B)	증 감 (B-A)	%
□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1,555	1,964	3,875	1,911	97.3
▪ 인건경상비	402	791	790	1	△0.1
▪ 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터운영	462	472	505	33	7.0
▪ 미술시장실태조사 ('17년 시각예술실태조사)	86	88	88	-	-
▪ 정부시상경연대회평가	-	-	281	281	100.0
▪ 정책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	-	-	*
▪ 한국미술글로벌플랫폼구축	110	125	127	2	1.6
▪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	-	1,202	1,202	100.0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495	488	882	394	80.7
▪ 예술경영 창취업 육성지원	-	-	-	-	-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사업시행단체 세부업무협의
사업계획 확정
보조금 지급
사업추진 단계별 점검
사업결과보고
사업성과분석
환류 및 차년도 계획 반영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고객만족도 조사 (단위:점)	목표	79.8	80.8	85.9	82.7	85.0	▪ 산출근거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목표치 산출방식: - 전년도 고객만족도조사 점수 * 1.01 (1% 향상 목표)	▪ 측정방법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조사 시행('14~'15년 문체부 주관 고객만족도조사 시행) ▪ 측정산식 -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점수 활용 ▪ 자료출처 -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80.0	85.0	81.9	84.2	79.2		
	달성도	100.3%	105.2%	95.4%	101.8%	93.1%		
예술경영컨설팅 수혜단체 만족도 (단위:점)	목표	-	85.1	85.7	86.8	92.6	▪ 산출근거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치 산출방식: - 전년도 만족도조사 점수 대비*1.01(1% 향상 목표)	▪ 측정방법 - 컨설팅 종료 후 수혜단체 대상 설문 ▪ 측정산식 - 컨설팅 이용자 만족도 = (수시컨설팅 만족도×50%) + (전략컨설팅 만족도×50%) ▪ 자료출처 - 예술경영컨설팅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84.3	84.9	85.9	91.66	92.3		
	달성도	-	99.7%	100.2%	105.6%	99.7%		
미술시장 실태조사 통계 이용자 만족도 (단위:점)	목표	-	-	78.4	81.5	80.6	▪ 산출근거 - 보고서 수령자 100명 대상 온라인 통계 이용자만족도 조사 시행 ▪목표치 산출방식: - 최고목표 : 기준치의 105%, 최저목표 : 기준치의 95% - 전년도 만족도조사 점수 대비*1.01(1% 향상 목표)	▪ 측정방법 -Email 및 모바일 조사 병행으로 만족도 조사 시행 ▪ 측정산식 - 7점 척도의 통계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자료출처 -미술시장실태조사 통계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77.6	80.7	79.8	80.1		
	달성도	-	-	97.1%	102.1%	100.6%		
한국미술 글로벌 플랫폼 구축 홈페이지 방문자수 (단위:명)	목표	36,000	97,000	100,000	130,000	133,900	▪ 산출근거 - 전년도 대비 증감 ▪목표치 산출방식: - 전년도의 100% 이상	▪ 측정방법 - 홈페이지 접속자 통계 ▪ 측정산식 - 페이지뷰 집계 ▪ 자료출처 - 홈페이지 접속자 통계 프로그램
	실적	37,119	98,397	102,058	132,575	134,033		
	달성도	103%	101%	102%	101%	100%		

성과 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한국미술 글로벌 플랫폼 구축 콘텐츠 발행수 (단위:건)	목표	100	150	250	250	250	▪ 산출근거 - 국, 영문 콘텐츠 발행 수 ▪목표치 산출방식: - 기사 월 6건x12개월 =72건, 뉴스 및 DB 총 178건	▪ 측정방법 - 국, 영문 콘텐츠 발행 수 집계 ▪ 측정산식 - 홈페이지 내 모든 콘텐츠 발행 수 집계 ▪ 자료출처 - 홈페이지 발행 기록
	실적	129	190	278	235	353		
	달성도	129%	126%	111%	94%	141%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참여화랑 작품 판매액 (단위:천 원)	목표	-	-	-	-	-	▪ 산출근거 및 산출방식 : 없음 (※ '16년도 신규 사업	▪ 측정방법 - 해외아트페어 참가지원, 국내아트페어 활성화 지원, 코리안 아트쇼 참여 화랑별 작품판매정보 수합 ▪ 측정산식 **해외아트페어 참가 지원** - 1차 공모 - 총 13개 선정 기관 총 작품 판매액 : 1,145,339,000원 - 2차 공모 - 총 12개 선정기관 총 작품 판매액 : 439,783,000원 * **국내아트페어 활성화 지원** - 총 2개 기관((사)한국 화랑협회, ㈜킨텍스 VIP 프로그램을 통한 작품판매 성과 (약 30억 원) * **코리안 아트쇼 지원** - 참여기관(11개화랑)의 판매성과 ▪ 자료출처 - 참여단체별 제출 실적보고서
	실적	-	-	-	-	5,695,122		
	달성도	-	-	-	-	-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방문자 수 (단위:명)	목표	-	-	-	-	16,130	▪ 산출근거 -2016년 목표: 전년 대비 30% 증가 목표 ▪ 목표치 산출방식 : - 12,407*1.3=16,130	▪ 측정방법 - 네이버 웹로그 분석 ▪ 측정산식 - 연 누계 ▪ 자료출처 - 네이버 웹로그 분석
	실적	-	-	18,019	12,407	71,644		
	달성도	-	-	-	-	444%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table>
<tr><th>평가명
(연도)</th><th>지적사항</th><th>개선사항(실적)</th></tr>
<tr><td rowspan="3">2015
경영평가</td><td>○사업명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운영
○지적사항 : 예술단체를 경영 분야별 유형화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음</td><td>
<table>
<tr><th>추진과제</th><th>이행
여부</th><th>반영실적/개선사항</th></tr>
<tr><td>단체 규모 및 현황에 맞는 컨설팅 목표 설정 및 운영</td><td>완료</td><td>• 수혜단체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운영 수행
- 조직경영 컨설팅은 중규모 이상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진행, 재무회계·재원조성 컨설팅은 중소규모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
• 생애 주기별 예술현장의 경영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등 인식 확대</td></tr>
</table>
</td></tr>
<tr><td>○사업명: 미술시장실태조사
○지적사항 : 시장규모 통계 공표 시의성 부족</td><td>
<table>
<tr><th>추진과제</th><th>이행
여부</th><th>반영실적/개선사항</th></tr>
<tr><td>상반기 잠정시장 규모 공표</td><td>완료</td><td>리서치 선정 전 센터 직접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 잠정시장규모 내부 공표</td></tr>
</table>
</td></tr>
<tr><td>○사업명: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지적사항
- 연계 미비 및 데이터 수집율 저조
- 데이터 활용도 제고 필요
- 이해관계자 협조 및 지지 부족
- 시스템 일부 기능 개선 필요</td><td>
<table>
<tr><th>추진과제</th><th>이행
여부</th><th>반영실적/개선사항</th></tr>
<tr><td>연계확대</td><td>완료</td><td>• 10개 처 연계 협약 체결 (예매처 7곳, 공연시설 3곳 연계 완료)</td></tr>
<tr><td>데이터 활용 연구</td><td>완료</td><td>• 빅데이터 활용 공연소비 트렌드 분석 연구 시행</td></tr>
<tr><td>정책홍보 강화 및 홍보캠페인 추진</td><td>완료</td><td>• 간담·사업설명회 44회 운영
• 홍보 브로슈어(1,500부), 홍보물품(515개), 전단(400부) 제작 배포
• 언론보도 167건
• 슬로건・블로그 리뷰 공모전 및 이벤트 진행(응모 355건, 선정 47건)
•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총 4건, 96,753명 대상 배포)
• 예매처(6곳) 홍보캠페인 배너 광고 집행(배너클릭 수 75,900건)
• 온라인 포털 웹・모바일 광고 (총 4건, 배너클릭 수 43,556건)
• 공연 전문지 기획기사・광고 (총 10건)</td></tr>
<tr><td>시스템 안정적・효율적 운영</td><td>완료</td><td>• 이용 편의성 및 정보 정확성 제고 위한 웹 및 모바일 사이트 UI/UX 개선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매뉴얼 수립
• 시스템 운영자 역량 강화 위한 외부교육 8회 진행</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평가명
(연도)</th><th>지적사항</th><th colspan="3">개선사항(실적)</th></tr>
<tr><td></td><td>○사업명 :
한국미술글로벌플랫폼구축
○지적사항
-기사, 정보 수집 및 유통의 부족, 홈페이지 업데이트 주기 늦어 정보의 신속한 제공 취약
-해외에 한국미술 소개 부족</td><td colspan="3"><table>
<tr><th>추진과제</th><th>이행
여부</th><th>반영실적/개선사항</th></tr>
<tr><td>- 다수 전문 매체의 우수 컨테츠 및 정보를 유통하는 ‘포털형’ 홈페이지로 변화
- 해외 홍보 전략 수립</td><td>추진
중</td><td>- 영문 홈페이지 개편
- 포털형 메뉴 신설 및 신규 콘텐츠 도입
- 해외 매체 협약을 통한 한국미술 특집 기사 확산
- 단독 영문 뉴스레터 발행</td></tr>
</table></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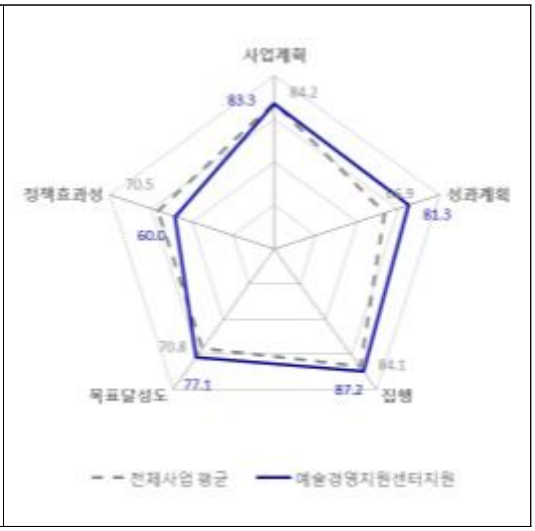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는 환산점수 기준으로 5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3.3점, ‘성과계획’ 81.3점, ‘집행’ 87.2점, ‘목표달성도’ 77.1점, ‘정책효과성’ 60.0점 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성과계획(+14.4), 집행(+3.1), 목표달성도(+6.3)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사업계획(-0.9), 정책효과성(-10.5) 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3점)	2.6	87.5	83.3
	1-2(3점)	2.6	87.5	
	1-3(4점)	3.0	75.0	
성과계획	2-1(5점)	4.4	87.5	81.3
	2-2(5점)	3.8	75.0	
집행	3-1(15점)	13.0	86.7	87.2
	3-2(5점)	4.4	87.5	
	3-3(10점)	8.8	87.5	
목표달성도	4-1(30점)	23.1	77.1	
정책효과성	5-1(20점)	12.0	6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81.1(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집행’ 항목 중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이며 87.5점으로 평가됨

○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정책효과성’ 항목 인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였는가?’이며 6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동 사업의 목적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통한 예술분야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예술유통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시 실제 달성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목표설정의 합리성을 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조직의 역량이나 자원, 전략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성과치를 주요 근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함

○ 고객만족도, 예술경영컨설팅 수혜단체의 만족도를 평가함으로써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별개의 독립 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기금지원은 인정하되, 인건경상비 지원이 동 사업의 사업목적의 달성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정책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동 사업의 목적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통한 예술분야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예술유통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예술인들의 경영 및 행정 역량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문화예술위원회와는 별개의 독립 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특히 경상운영비 지원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개선제안]

- 특이사항 없음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예술현장의 자생력과 사업 및 조직운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영향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문화예술정책 사업과 유사, 중복되지 않음

[부정적 측면]

-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사업 내의 세세부사업 간의 유사, 중복 사례는 없음
- 기금사업 중 세세부사업(예술정보컨설팅서비스사업, 문화예술기부활성화사업)과 내용적으로는 중복되는 영역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단체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오히려 사업의 총량을 확

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특이사항 없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사업내용을 체계적으로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세세부사업별로 사업 내용을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사업방식/조건, 사업추진주체,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획하고 있음
- 사업별 추진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확정, 지원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이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함

[개선제안]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법률적 지위 등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이 아닌 경상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구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목적에 따라 성과지표를 논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성과평가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고, 실제 data를 바탕으로 설정된 기준의 달성정도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달성정도를 측정하고 있음
- 대상자의 만족도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평가됨

[부정적 측면]

- 사업의 성과지표를 수행(performance) 또는 산출(outputs)위주로 설정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예를 들어, 홈페이지 방문자수, 콘텐츠발행수, 전산망 방문자 수 등은 사업의 성과라기보다는 산출지표에 가까움

[개선제안]

- 성과지표의 선정에 있어 사업의 목표달성정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거나, 종합지표(index) 개발을 통해 복합적인 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 추가하여 예술경영컨설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예술단체기관의 경영실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실효성을 가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지표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과거의 성과치를 기준으로 상향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실제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함으로써 목표설정의 합리성을 기했다고 할 수 있음
- 고객만족도, 예술경영컨설팅 수혜단체의 만족도를 평가함으로써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정부통계 등을 인용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기관과 사업의 책무성 이행을 위해 바람직한 근거활용이라고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역량이나 자원, 전략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성과치를 주요 reference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또한 전년도 목표대비 실적을 초과달성 했다는 이유로 2015년도 실적치를 2016년도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음. 뿐만 아니라 현행 성과지표는 상향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목표치 설정의 구체성 및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됨

[개선제안]

- 예술경영컨설팅 등 문화예술단체의 수요와 요구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추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향지표라는 점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2016년도 예산집행률은 약 95.2% 수준이며, 세부사업의 예산집행률도 전반적으로 높은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추세를 보더라도 예산집행률은 매년 개선('14년 88.6% → '15년 94.6% → '16년 95.2%)되고 있으며, 분기별 예산도 균형있게 집행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특이사항 없음

[개선제안]

- 일부 예산 불용액 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해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추진단계에서 종료 시까지 세세부사업별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각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환류시켜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음
- 모니터링 과정에 이용자 및 수혜자 등이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성과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도 대면회의,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특이사항 없음

[개선제안]

- 특이사항 없음

3-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이용자 및 수혜자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음
- 상시 1:1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특이사항 없음

[개선제안]

- 특이사항 없음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인 예술경영 상담·컨설팅만족도 점수는 90.4점으로 목표치(90.0점)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이었던 수혜단체 특성 및 생애주기별 예술현장의 경영상 문제점 개선 필요성을 고려한 컨설팅 시행 등 개선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추가하여, 한국미술글로벌플랫폼구축사업의 경우 콘텐츠발행수는 목표대비 141%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사업의 경우 방문자 수는 목표대비 444%의 달성률을 기록함

[부정적 측면]

-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은 사업의 경우,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특히, 현행 성과지표가 상향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다소 보수적으로 낮게 설정됨에 따라 목표치를 수월하게 초과달성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목표달성 노력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개선제안]

- 성과지표 설정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목표치의 과소 설정을 피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사업은 민간부문의 문화예술단체와 기관, 개인의 문화예술 창작, 마케팅, 경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예술경영지원은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내용상 지속되어야 할 사업으로 평가함

[부정적 측면]

-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기금지원은 인정하지만, 인건경상비 지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특이사항 없음

5. 개선과제

□ 계획

○ 인건·경상비지원의 타당성 검토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법적 지위, 문화예술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기관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재검토해야 함
- 문화예술기금은 일종의 기부금(부담금)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아닌 경상비 지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음

○ 장기적 관점의 기금 고갈 대응계획 수립

- 향후 문예기금 고갈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인건경상비 지원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성과지표 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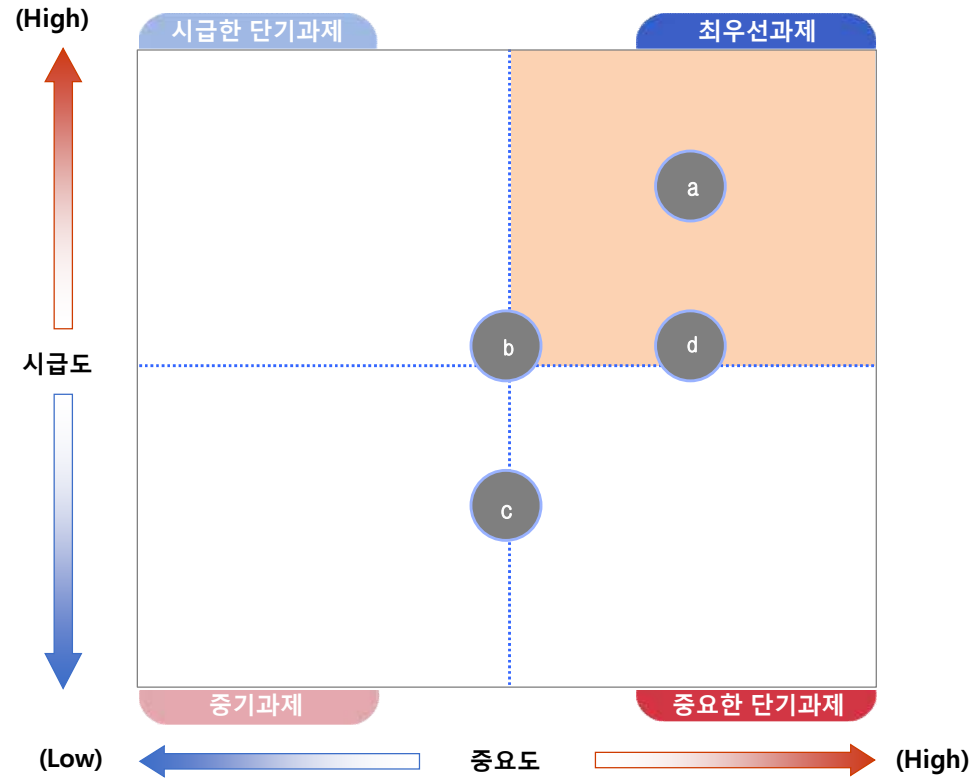
- 성과지표의 선정에 있어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거나, 종합지표(index) 개발을 통해 복합적인 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예술경영컨설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예술단체기관의 경영실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실효성을 가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지표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집행

○ 예산 미집행 원인분석

- 일부 예산불용액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인건.경상비지원의 타당성 검토**	**1**
계획	b	장기적 관점의 기금 고갈 대응계획 수립	3
계획	c	성과지표 체계 개선	4
집행	d	예산 미집행 원인 분석	2

3분과 [지역문화예술지흥] 세부사업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3분과 세부사업 최종보고서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육성과 국민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전통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외 전략적 진출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 2016년부터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

ㅇ 사업규모 : 25,653백만원, 지역대표 공연예술활동 및 전통공연 국내외 예술활동 80~100건 내외 지원

ㅇ 지원대상 : 17개 광역시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명동・정동극장,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국악방송, (재)전북문화관광재단,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

ㅇ 최종수혜자 : 간접 지원을 통해 생산된 작품을 향유하는 일반국민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광역자치단체,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국악방송,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재)명동정동극장, 민간예술단체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 (시책과 권장)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예산	'15 예산 (A)	'16 예산 (B)	증 감 (B-A)	%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	-	**25,653**	-	-
▪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	-	11,943	-	-
▪ 공연예술작품전략적 해외진출지원	-	-	2,000	-	-
▪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	-	1,500	-	-
▪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 관광자원화	-	-	1,628	-	-
▪ 전통고궁공연관광상품화	-	-	1,400	-	-
▪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	-	3,800	-	-
▪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	-	3,382	-	-

□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결산	'15 결산 (A)	'16 결산 (B)	증 감 (B-A)	%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	-	**25,454**	-	-
▪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	-	11,833	-	-
▪ 공연예술작품전략적 해외진출지원	-	-	1,926	-	-
▪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	-	1,500	-	-
▪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 관광자원화	-	-	1,628	-	-
▪ 전통고궁공연관광상품화	-	-	1,400	-	-
▪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	-	3,800	-	-
▪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	-	3,367	-	-

※ 불용액 발생 사유(199백만원)

-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110백만원(경기도 1건,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
- 공연예술작품전략적해외진출지원(Arko-Pams협력지원) 사업포기 및 공모 미선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74백만원
-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한국민속예술축제) 지자체 경연 미참가 및 일부참가로 인한 집행잔액 15백만원(서울 10백만원, 울산 5백만원)

□ 사업추진 절차

■ 공모사업

ㅇ 공연예술작품전략적해외진출지원(Arko-Pams협력지원) / 민간경상보조

공고 및 지원신청	▶	지원심의 및 대상 선정	▶	지원금 교부신청
홈페이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공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평가 및 심의 진행, 대상 선정 공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교부신청서 접수 및 승인 후 지원금 교부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예술위원회 관리·감독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검수 및 승인 후 정산확정통보

ㅇ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공고 및 지원신청	▶	지원심의 및 대상 선정	▶	1차 보조사업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홈페이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공지,지원신청서 접수 (광역자치단체→예술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평가 및 심의 진행, 대상 선정 공고		광역자치단체→예술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서 제출, 지원금 교부
2차 보조사업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2차 보조사업자 사업수행,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기초, 민간보조사업자→광역 교부신청서 제출, 지원금 교부		2차 보조사업자 사업수행 및 현장평가, 모니터링		기초, 민간보조사업자→ 광역자치단체→예술위로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확정통보

■ 지정사업

ㅇ 기타 보조기관 지정교부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제출	▶	사업계획 검토,승인	▶	지원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안내		보조사업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교부신청서 접수 및 승인 후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예술위원회 관리·감독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검수 및 승인 후 정산확정통보

□ 성과관리

성과 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대표적 공연예술 축제 참가자수	목표	75	80	85	86	87.9	▪산출근거 - 최근 3년간('13~'15) 연평균 증가율 0.6% 대비 '16년 문예기금 이관 이후 사업운영개선 상황을 감안, 전년 실적 대비 2% 상향된 목표치 설정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6.1월~12월 (실적치 집계완료 : '17.1월 말) - 측정수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정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전수조사 ▪측정산식 -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참가자수 집계) ▪자료출처 - 지역대표공연예술축제 결과보고서
	실적	86	87	87	86	88.4		
	달성도	114.7	108.8	102.4	100.0	100.6		
전통고궁 공연 관람객 만족도	목표	84.2	85.0	82.4	83.4	84.0	▪산출근거 - 최근 3년간('12~'14) 연평균 증가율 2.07%이나, - 불특정 다수 대상 만족도조사에서 '15년 목표치인 83.4점은 충분히 높은 점수인 점 고려, 전년보다 0.6점 상향조정	▪측정방법 - 전통고궁공연 설문조사 * (조사항목) 공연내용, 운영 등 13개 항목 * (조사방법) 고궁공연 관람객 200명 내외 설문 ▪측정산식 - {∑(7점척도-1)X 16.7} / 전체 응답자 수 ▪자료출처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86.5	86.6	92.7	89.3	91.5		
	달성도	102.7	101.9	112.5	107.1	108.9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 ’16년 관광기금 → 문예기금 이관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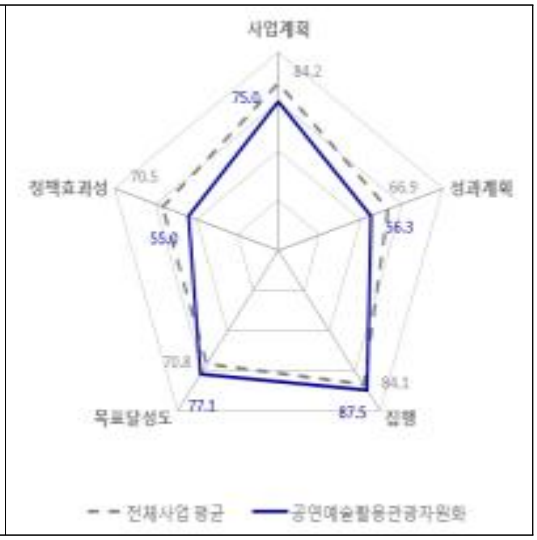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는 환산점수 기준으로 5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75.0점, ‘성과계획’ 56.3점, ‘집행’ 77.5점, ‘목표달성도’ 77.1점, ‘정책효과성’60.0점 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집행(+3.4), 목표달성도(+6.3)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사업계획(-9.2), 성과계획(-10.6), 정책효과성(-15.5) 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3점)	1.9	62.5	75.0
	1-2(3점)	2.6	87.5	
	1-3(4점)	3.0	75.0	
성과계획	2-1(5점)	2.5	50.0	56.3
	2-2(5점)	3.1	62.5	
집행	3-1(15점)	15.0	100.0	87.5
	3-2(5점)	4.4	87.5	
	3-3(10점)	7.5	75.0	
목표달성도	4-1(30점)	23.1	77.1	
정책효과성	5-1(20점)	11.0	55.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3.2(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며 5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전통예술 분야 우수콘텐츠 발굴, 공연예술 해외진출 촉진 수행을 위한 사업 목적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고 있으며, 기관의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이 우수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긍정적이고 우수한 성과와는 별개로, 본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업명이자 본 사업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공연예술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자원활성화'의 추진성과 달성도 여부라 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본 사업의 대다수 수혜단체 및 지원사업은 순수기초예술분야 창작 독려 및 해외진출 지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전통예술진흥 및 보존과 같이 공연예술 전반을 아우르고 있음. 극히 일부 사업만이 '관광자원화'를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됨

○ 주요 문제점 및 개선점으로, 1)세부사업 추진성과와 관광자원활성화 일치도 미달 및 그에 부합하는 사업지표 설계의 필요성, 2)예산의 적시 집행에 기관의 역량 집중 경향, 3)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정책 수행 및 효율적인 추진 성과 관리 부재, 4)세부사업 내부(예:전통예술사업)의 중복 사업 발생, 5)전체 사업에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의 필요성 6)성과지표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의 이원화 및 부실한 운영, 7)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 구축 미약한 점 등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됨

○ 향후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들을 재설계하고 사업별 성과관리와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타깃층 별 모니터링 수행 방법의 다각화, 정기적인 점검 및 쇄신의 필요성을 제안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통한 지역민 문화향수권 신장, 전통예술 분야 우수 콘텐츠 육성 및 해외진출 촉진 등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법령이 제시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
- 지역 대표 공연예술과 전통예술 분야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목적과 '공연예술장르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관광자원화'라는 뚜렷한 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기존의 공연예술 지원 방법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 지원 범위를 전국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중앙과 지역의 균형 있는 문화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기반 콘텐츠 발굴에 사업 추진의 중점을 둠으로써, 지역별 독특한 문화예술 관광상품 창달 및 지역문화진흥의 기대효과가 있음

[부정적 측면]

- 본 사업의 목적은 "공연예술을 활용한 지역 관광자원의 양산 및 자원 축적을 통한 지속적인 공연예술의 가치 제고"로 이해 됨. 그러나 7개 세부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본 사업의 수행 목표인 '공연예술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와 일치되지 않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답변서에서 본 사업의 수행 근거로 제시한 [문화예술진흥법]은 지역문화자원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제 2차 콘텐츠에 해당하는 공연상품 창작을 장려함으로써,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한다는 본 사업의 확실하고 분명한 출발점이 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사업목적 일치도 기준 관점에서의 예산투입 대비 사업 성과목표 달성 부합도가 저조함
- 일례로, '전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시댄스(Sidance)', '모다페 (Modafe)', '창무국제무용제',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등은 순수기초 공연예술장르 육성을 목표로 한 사업이며, 전통무용과 전통음악 등 다수의 전통예술축제는 무형문화재의 가치 제고 및 보존과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에 해당함. 이들과 실질적인 관광자원화 기여도와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움.

[개선제안]

-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들을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면적인 사업내용 개편이 요구됨
- 전체 사업목표와 타 세부사업 목표와 내용과의 상호 연관성을 기반으로, 세부사업 목표의 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전반의 세부사업별 목표 재정립이 요구됨. 예를 들면, “공연예술 활용 관광자원화” 실현을 충족시키는데 유효한 구체적인 지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보완 서술이 요구됨
- [사업목적]에 “국내 공연예술제 및 전통예술의 관광자원화 및 우수 전통공연의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사업 추진방식과 사업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수혜단체의 세부 사업별 목적에 “관광자원화”의 연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또는 관광자원화와 연관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본 사업에서 분리시키는 결단이 필요함
- 또한, [사업 목적]의 중점 사항으로 지역의 문화자원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전통예술창작품 개발 및 유통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공연상품 발굴을 통한 문화관광 진흥과 연계된 내용을 보완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선명히 공지할 것을 제안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공연산업 가치사슬 구조에서, 본 사업은 공연콘텐츠의 공급자이자 예술생산
- 동력에 해당하는 예술단체 및 기관을 직접적인 수혜대상으로 삼고 있음. 따라서 대중적 관심유도에 몰입하는 포플리즘적 요소가 다분한 관광축제 및 공연예술제와 차별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사업목적 및 취지 면에서, 지역과 공연예술 장르의 융합을 강조한 점이 다른 지원사업과 차별화를 보임
- 지원대상 및 추진방법 면에서, 전문예술단체(기관)가 주력하고 있는 기초예술장르 육성 및 예술창작의 자생력 배양이라는 지원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이 유사한 타 지원사업들과 중복되지 않음
- 공연예술과 전통예술의 육성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문화재단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거점 유사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들과의 차별성이 인지됨.

[부정적 측면]

- ‘지역대표공연예술제’는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축제를 지원하고 있고,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은 전국 단위 공연예술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추진사업은 지역적 특성이 부재함
-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과 ‘전통공연예술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서로 중복된 내용이 많고 [지역대표축제]와의 구분이 어려움
-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과 ‘전통공연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추진방식 면에서 사업 수행 체계상 허약한 점이 발견됨
- 본 사업의 지원 대상과 규모 선정 시, “전국단위”와 “지역단위”의 경계가 모호한 점은 부정적 요소로 비칠 수 있음. 구체적인 예로서, 본 사업이 지역단위 인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동시에 “전국단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제안]

- ‘지역대표공연예술제’의 경우,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 원칙을 ‘관광자원화’에 유리하거나 효과적인 단체를 지원할 것인지, 대중들로부터 소외되는 순수기초예술가 집단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인지 명확히 공시할 것을 제안함.
- 사업대상과 규모를 전국과 지역으로 병기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보다 “지역”을 부각하는 것이 본 사업의 선명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유용한 전략이라고 사료됨. 내용상 전국단위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넓게 보아 모든 도시가 다 지역에 속하기 때문임
- 시행주체가 동일한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과 지역대표공연예술제의 세부추진사업 간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사업의 체계성이 부족한 세부사업들 특히,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과 전통공연예술활동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사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지역대표공연예술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대상 공모를 통해 지역의 특화된 공연예술행사를 지원하고 예산 매칭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함

-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연예술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음
- 관련 정부시책 및 법령에 의거한 사업내용이 추진되고 있음
- 전통예술과 세계무형문화유산 등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 공연예술상품 창작, 유통 진흥에 집중된 사업내용을 추진하여 외연적으로는 사업의 정체성이 선명함
- 사업추진방식 면에서, 7개 세부사업별 추진 주체가 뚜렷이 구분되어 책임 소재가 분명한 점이 긍정적임
- 재원분담 추진계획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보조비’, ‘민간보조금’ 등 재원 출처 방안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세부사업별 또는 사업주체별 운영관리 면에서 수행 수준 차이를 보임. 그로 인해 7개 세부사업들의 상호 연관성이 낮고, 사업 전체의 종합적인 성과 규합이 어려운 약점이 있음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지원사업이 연속 지원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사업 진입의 어려움을 보임
- 지원대상 선정 이후 포기사업에 대한 패널티 적용여부가 불명확함
-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사업’의 경우, 장르상 차별화된 추진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이 부족하고 세부사업들을 병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전체 사업의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전통고궁공연관광 상품화 사업’,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의 경우 세부사업이 대부분 지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지정사업, 직접수행 사업 등 사업선정 기준이나 원칙 없이 성격이 유사한 다양한 사업들이 산만하게 혼재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및 ‘사업수요 예측 적정성’ 검토사항의 경우(51쪽), ‘지역대표공연예술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모든 세부사업에 일괄적이고 동일한 답변내용은 본 사업 추진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예시임
- ‘전통예술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기재된 ‘국제적 성과 도출’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도 본 사업의 모호한 사업 추진체계를 반증하는 예로 간주될 위협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제안]

- 전반적으로 기존 추진사업을 관행적으로 반복 지원하는 경향이 짙고, 기존 사업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수준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으로 인해 운영상 비효율성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기능별, 장르별, 지역별 등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전체적인 사업 재설계를 고려할 것을 권장함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의 진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선정 후 포기사업 발생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정교부사업의 비중을 낮추고 공모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단체에 지원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함
-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다양한 사업들을 원칙 없이 수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문화향수, 창작지원, 전통보전 등 기능별로 사업을 체계화하고 세부사업 선정기준을 설정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사업목표로 설정한 자체만으로 본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임. 국제교류사업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간주(51쪽)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혜단체의 능동적인 네크워크 조성 저하 및 일방적인 국가 의존도를 불러올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업체와 업무분장을 하여 통신 및 교류(correspondent)작업과 해외현지에서의 행정지원서비스를 각각 분리, 지원을 제안함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지향하는 공연예술 장르별, 지역별 사업의 수행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콘트롤 타워 부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7개 사업의 핵심 요체를 상통하는 성과지표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7개 세부 사업중 ‘지역대표예술축제’와 ‘전통고궁공연관광상품화사업’의 경우, 입장객수 통계 및 관람자 대상 만족도 조사 산출과 같은 계량지표가 설

계되어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간 연계성에 부합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7개 세부사업 중 ‘지역대표공연예술제’와 ‘전통고궁공연관광 상품화 사업’을 제외한 5개 세부사업은 성과지표가 부재함에 따라 사업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사업’은 사업 추진상의 차별성 및 성취효과 획득에 유효한 설득력 있는 성과지표가 부재한 채 운영되고 있음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과 ‘전통고궁공연관광 상품화 사업’은 성과지표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연회수, 참여예술인, 관람객 수 등 계량지표에 한정되어 사업목적의 일부만을 충족하는 한계점이 있음
- ‘세계무형문화재 활성화 사업’은 ‘외국인 대상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효율적인 최적의 성과 지표 개발이 시급함

[개선제안]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 성과 측정 시 인력투입, 프로그램의 양과 질 등 지역문화 육성과 관련한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평가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과지표 개발이 요구됨
-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세계무형문화재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사업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개설하여 조속히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함. 그 사유는 현재, 외국인대상 문화관광콘텐츠 활성화 방안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 한 복판의 가설무대에서, “한국 전통예술 관람 의지가 불분명한 불특정 다수의 외국관광객 중심의 모객 전략”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임
- 외국인 관람객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자 한다면 ‘전통고궁공연관광 상품화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콘텐츠(공연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고급화, 예약제에 의한 관람시스템 정착 등 한국의 세계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공연상품의 고품격 전략을 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그 나라의 전통예술은 최고급, 최적의 공간에서, 대개 고가의 유료 좌석권을 발매하고 있음)

- 사업별로 사업계획, 수행노력, 성과, 환류 등 종합적인 사업 성취도 향상에 유용한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 설계가 절실하다고 판단됨. 특별히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과 ‘전통공연 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종합적인 성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참가자 집계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계량지표 외에 공연콘텐츠의 참신성 및 다양성, 타깃(소비자층)과의 부합도, 관람환경 서비스 개선도, 지역예술인의 창작역량 개선도 등 다양한 지표들을 보완책으로 고려 해 볼 수 있음
- 현장실사 결과 발견된 성과지표 설계 및 관리 체계의 이원화 현상은 사업집행 및 주관처(문화예술위)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즉, 현재는 성과지표 최초 설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 하에 해당 개별 기관으로 직접 하달되는 상황임. 반면에 보조금 교부 및 예산집행에 따른 최종 사업추진 관리 및 평가 업무는 아르코(문화예술위) 책임 하에 시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설계와 관리 체계의 이원화 구조는 사후 사업평가 과정에서 발견되는 성과지표 관리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참가자 수’ 지표는 도전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선정되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전통고궁공연 관광상품화 사업’의 ‘전통고궁공연 관람객 만족도’지표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도전성이 약함
- 그 외의 사업은 사업별 사업수요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궁극적인 성과와 목표치에 대한 검토가 누락된 사례가 많아 매우 부실한 상태라 할 수 있음

[개선제안]

- ‘전통고궁공연 관광상품화 사업’의 ‘전통고궁공연 관람객 만족도’ 지표는 최근 3개년 달성도 평균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성과목표를 설정이 필요함
-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사업’,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 ‘전통공연 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기대성과”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한 후 실적에 대한 환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사업성과 지표 및 목표치 설정 과정에서, 수요자(관람자) 뿐 아니라 수행자 즉, 지역의 참가예술인(예술단체)들 입장에서의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할 것을 권유함. 일례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레퍼토리(프로그램) 개발 수 또는 참여예술가 수, 수행자의 예술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지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민간경상보조가 당초 집행계획 대비 99.2% 의 높은 예산집행 실적을 달성함
- 재원 집행 방법(과정)이 전문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소관기관을 경유하여 합리적으로 집행, 관리가 확인됨
-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100% 수준에 달하며, 예산집행 관리 및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짐

[부정적 측면]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사업,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포기와 공모 미선정에 의한 미집행 금액과 집행 잔액이 일부 발생함
- 사업포기 및 공모 미선정단체에 대한 원인분석과 차후 대안 마련 여부가 불명확함.

[개선제안]

- 경상보조금의 정상적인 집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 단계에서 맨 처음 사업공모 시, 사업포기 또는 중도 탈락단체에 대한 처우, 차후 지원 제한 조건, 패널티 등을 명시하고 만약의 상황 대비를 제안함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모든 세부사업의 주관처 별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기관 위탁에 의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한 세부사업에 대해 전수 평가를 실시함

[부정적 측면]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해 전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별 평가 결과가 심층적이지 않음

- 관객설문 및 전문가 모니터링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확인이 되고 있으나, 샘플링 집단 규모의 편차를 보이는 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인 형태의 설문 모형은 진부한 면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요구됨
- 사업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점검한 내용과 방법이 대부분 상이하며, 모니터링과 평가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지 않으며, 일부 사업은 단순 만족도 조사에 그침

[개선제안]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류체계 구축 개선이 요구됨
- 일례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에 대해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전수 평가에서 표본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평가주기를 2년 내지 3년으로 개선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업(행사)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
- 관객 모니터링의 경우, 공연이 끝난 산만한 현장에서의 페이퍼 설문지는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를 감안하여 사업의 타깃층 세분화 전략의 하나로써 SNS를 통한 사전홍보 및 사후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하여 모니터링 수행 효과의 다각화를 통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전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평가결과에 대한 구속력 있는 환류체계 개선을 요망함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수행기관의 분산으로 인한 유기적 협력 문제, 평가 미흡 사업에 대한 개선책 마련, 사업성과 부진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정산시스템 개선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함
-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차기년도 개선 노력 실적이 있음
- 실적이 저조한 평가를 받은 개별 사업별로 디자인된 컨설팅 실시 및 개선점 반영 노력 등 개선 활동이 인정됨 (예: 2015 세계음악의 날 행사)

[부정적 측면]

- 단체가 희망할 경우 부진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그 실적이 1개 사업(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세계음악의 날 사업'에 그치고 있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보다 유용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소통채널 구축이 미흡함
-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 공연사업’의 경우, 관람객 모객의 한계점 극복의 일환으로 찾아 나선다는 명분하에 외국인 밀집지역 상설공연 시도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점에서 사업 철회 재고를 적극 제안함. 그 사유는 명동 한 복판에 마련된 야외가설무대에서 불특정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펼쳐는 상설무대는 한국의 세계무형문화재 공연의 품격과 가치를 반감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임(2-1 평가 참조)
- 전통예술 해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성과 측정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모호하여 신뢰도가 미약함

[개선제안]

-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분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형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들의 의견을 통해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시한 것과 같은 사후 점검 및 차기년도 개선을 위한 수혜단체 대상 컨설팅을 사업 전역에 확대할 것을 제안함. 특별히 사업 꼭지가 많고, 사업들 간의 일관된 성과 측정이 어려운 전통예술진흥재단 주관 사업들은 정례적인 컨설팅이 절실한 것으로 진단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참가자 수와 [전통고궁공연] 관람객 만족도 지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상회하여 달성함

[부정적 측면]

- 상기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및 [전통고궁공연]의 경우,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여부와 사업의 합목적성과의 연계성이 미약함
-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전체 사업목적과 내용에 비추어볼 때 해당 성과지표는 일부 성과의 측정만 가능한 수준임
-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부재한 상태이며, 간략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수준에서 평가가 진행되어, 목표치 달성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미약한 위협이 있음

[개선제안]

- 전체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이 가능한 사업별로 적절한 성과지표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 [지역대표공연예술제]를 예시로 들자면, 동일한 사업 내에서도 세부 사업마다의 다양한 개별 성과지표가 요구되는 실정임. 이를 고려하여, 사업 수행의 성공적 결과를 얻기 이해서는 사업별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일괄적인 중앙관리체제 보다는 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활동이 바람직하며, 단체 스스로도 자체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1. 사업 추진성과가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목표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긍정적 측면]

- 본 사업은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전통예술 분야 우수 콘텐츠 발굴 및 한국 예술가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공연상품의 해외진출 촉진을 핵심 목표로 지향하고 있으며, 그에 부합한 사업 목적을 보유한 유관 기관 및 단체를 사업대상자 범주로 선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성과 도출의 기본축을 형성하고 있음
- 일부 사례에 한정된 아쉬움은 있으나 본 사업은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관광 사

업과의 시너지 효과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면에서 긍정적임

- 국내 예술인(예술단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예술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혜 대상 단체 및 세부 사업들의 수행목표와 상호 부합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관련 문화정책에 의거해 수립된 사업목적에 의한 추진 성과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점은 분명하지만 일부 우수 사업에 한정되고 있으며, 사업별 현저한 성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 본 사업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음
- 7개 세부사업에 걸쳐 적잖은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들 세부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추진하는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대다수 사업들이 과거 답습형, 관행적 추진되는 현상은 사업성과에 대한 신뢰성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특별히 전통진흥재단 주관 사업에 속한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 관광자원화’,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전통예술활동지원’은 중복 사업이 다수 발견되고 사업목적 불일치 사업이 산만하게 병렬되어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
- 그중 ‘전통예술활동지원’ 사업은 공연산업 분야에서 가장 소외되고 허약한 전통예술의 보존과 전승 차원의 사업추진 상의 당위성과 확고한 명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근간으로 하는 관광자원화 성과 도출 달성과 적잖은 거리가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상, 장르, 지역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재설계하여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세부사업별로 집행과정에 대한 점검과 성과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 단계에 사업수행의 타당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노력을 시행해야 할 것을 제안함
- 추진과정 및 성과 면에서 유사 중복 사업이 많고 사업목적 부합도가 상대적으

로 저조한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 관광자원화’,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전통고궁공연관광상품화’, ‘전통예술활동지원’ 등은 전반적인 사업 점검이 요구됨

5. 개선과제

□ 계획

○ 세부사업의 전면적 개편

- 전반적으로 사업목적에 명시된 “공연예술콘텐츠 활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목적 일치도 및 실현 적합도를 기준으로, 우수 사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결정하는 대대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
- 특히, ‘지역대표공연예술지원’, ‘지역공연예술과 전통예술의 해외진출’, ‘전통예술 육성사업’ 등 사업목적별로 종합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세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복사업과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정리가 요구됨
- 관행적으로 수행해왔던 지정사업의 수를 축소하고 공모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통예술이라는 명분하에, 치밀한 사업추진 성과 점검 없이 시행되는 복지차원의 예술가 지원정책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전통예술 사업 내에서 예산분배의 조정이 요구됨. 일례로, 전통예술의 현대적 계승과 보존을 위한 창작활성화 분야 예산을 증액하여 상대적으로 다수 배정된 향유 사업과의 균형을 제고해 볼 수 있음

○ 사업별 성과지표의 설정

- 전체 세부사업 중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과 ‘전통고궁공연관광상품화 사업’에 대해서만 각각 참가자 수와 관람객 만족도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상기 2개 사업 외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보완이 필요함
- 사업성과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전체 7개 세부사업별 개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집행

○ 체계적인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해 전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60개 이상의 세부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그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규합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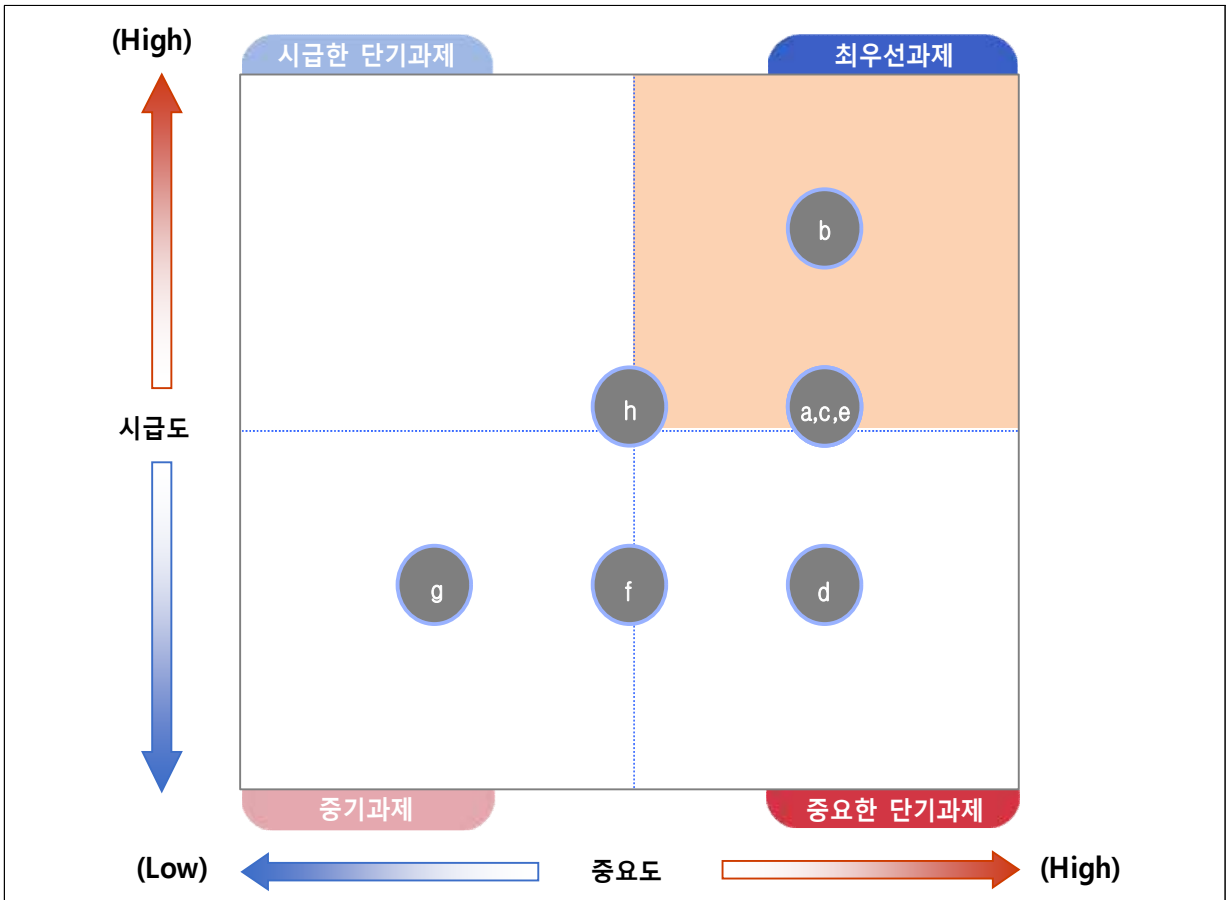
-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전무한 채 대부분 간략한 수준의 자체점검만이 진행되고 있으며, 외부 모니터링도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전체 세부사업 수를 감안해서 매년 전수 평가를 실시하기보다 2년 내지 3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

○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 구축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의 경우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행사에 대해서 차년도 사업 선정 시 일부 패널티를 부여하고, 희망 사업에 한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일부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세부사업들은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함
-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우선순위
계획	a	세부사업 지원 정책 및 추진 방향의 일관성 강화 및 전면적 개편	2
계획	**b**	**사업별 성과지표 설계**	**1**
계획	c	사업추진의 핵심인 '관광자원활성화'와 세부사업의 사업목적 및 추진 내용과의 부합도 점검에 따른 지원 정책 설정 및 선별적 지원 결정	2
계획	d	사업명에서 '관광자원활성화' 병기 여부 및 사업 추진 방향의 정체성 확립	5
집행	e	체계적인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집행	f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쇄신	7
집행	g	세부 사업별 우수사례 기준 차등 지원 및 예산분배 제고	8
성과	h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 개편	5

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층평가

발행인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인쇄일	2017년 9월22일
발행일	2017년 9월22일
인쇄인	